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책임연구원 윤철경

공동연구원 성윤숙 유성렬 김강호

N

Y

P

T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I

- ▶ 책임연구원 :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성윤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유성렬(백석대학교·교수)
김강호(한국고용정보원·부연구위원)
- ▶ 연구보조원 : 박예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이지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청년인턴)

발 간 사 ■ ■ ■

2013년부터 실시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조사는 2015년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후 어떠한 이행경로를 거쳐 성인기로 들어서는지에 대한 지식이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본 연구는 학교를 벗어나 성인기 이행과정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지식을 보태고자 시도되었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패널은 구축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본 연구는 이미 구축된 패널을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를 탐색하였고 그들에게 맞는 지원 대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의 학업중단 패널 조사 연구 이후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정책 환경도 많이 변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환경의 변화 속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떠한 실질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지도 연구의 관심이 되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서비스에 어느 정도 접근하고 이용하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되어야 할지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이 이들 청소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으로 다가가도록 하는 것은 위기 청소년들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매우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의 학교 밖 청소년 패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조사, 센터별 신규 패널의 구축 등을 도와주신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 매우 바쁜 업무 중에도 학교 밖 청소년 패널에 대한 사례관리와 조사, 학교 밖 청소년 신규 패널의 선정 등을 직접 맡아 수행해 주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례관리 담당자, 본 연구의 조사를 담당해주신 한국리서치 관계자 분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노혁

국 문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이후의 이행경로별 특성, 이행경로의 변화, 변화요인을 파악하여 이행경로별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하여 서비스 이용실태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패널 및 면접조사를 활용하여 이행경로별 특성과 요구를 분석하였으며, 문헌자료를 통해 국내외 정책을 파악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패널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하여 향후 1년간 사례관리를 하도록 하였고 초기 사례관리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행경로별 특성을 보면 학업형은 진로탐색이 활발하며 다른 유형에 비해 심리·정서적으로 가장 좋은 상태다. 직업형은 사회적응능력이 높지만 우울하고 사회적 낙인감이 높고, 수면시간과 식습관이 불규칙한 편이다. 무업형은 진로정보가 부족하고 미래의 계획 결정 정도가 낮았으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정서가 강했다. 필요한 도움에 대해서는 학업형과 직업형은 진로상담을, 무업형은 심리 상담과 취업지원을 원하는 비율이 높았다. 둘째, 이행경로 변화를 보면 68%가 중단 후 3년차까지의 유형을 4차년도에도 유지했으며, 그 중 긍정적인 유지는 58.3%, 부정적 유지는 9.2%였다. 전환 유형 중 긍정적 전환은 7.3%, 부정적 전환은 8.8%였으며, 학업과 직업 간 전환은 16.5%였다. 셋째, 심층면접 결과 학업형은 긍정적 경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주변의 도움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무업형은 부정적 경로 유지가능성, 직업형은 경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았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이용실태를 보면 검정고시 등 학업 관련 서비스를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었으며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서비스는 요청이 많았지만 제공률이 낮았다. 외부기관 연계에서도 취업관련 기관 연계는 적은 편이었다.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이유로는 청소년과 서비스 제공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섯째,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는 7~18세 학령기 42만 명, 19~24세 25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여섯째, 국외와 비교하였을 때 국내에는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령별 맞춤형 학업지원 지도, 복교 및 학업지원을 위한 정부 및 교육청의 역할,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정책 지원 등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다섯 개의 영역에서 모두 24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다섯 개의 영역은 첫째, 학업지원 대책, 둘째,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대책, 셋째, 은둔 무업형 청소년 지원 대책, 넷째, 전달체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강화이며, 다섯째, 다각적인 학교 밖 청소년 발굴체계 구축이며 각 영역별 세부과제들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 이행경로별 맞춤형 지원정책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 패널에 대한 4차 조사, 면접조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별 특성을 분석하고 3차 조사결과와 지난 1년간의 이행경로의 변화와 결정요인을 탐색함.
-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요구와 서비스 제공 실태를 분석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이행경로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자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파악 및 국내외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 현황 파악을 위해 이에 대한 자료를 문헌을 통해 수집하였음.

○ 전문가 자문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담당자와 업무협의 및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음.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실태 설문지 작성 및 보완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실무담당자와 관련 학계 전문가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음.

○ 양적연구

- 기존패널 청소년에 대한 4차년도 조사, 신규패널 청소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기존 패널은 일대일 대면면접 방식으로, 신규 패널은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학교 밖 지원센터에 연계된 기존 패널 및 기존 이용자인 신규 패널의 사례담당자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음. 사례조사는 사례담당자의 자기기입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질적연구

- 1~4차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한 패널 중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비행형에 해당하는 대상자

총 31명에 대해 일대일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음.

○ 국외출장

- 부등교 및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사례파악을 위해 일본 요코하마시의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 사회적 기업, 청소년상담센터를 방문함.

3. 주요결과

1)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와 특성

○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별 특성

- 학업 경험: 50%는 중·고등학교 중단상태가 아니며, 대학진학자는 35%, 검정고시 합격자는 30%임. 혼자서(32.6%)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다른 유형에 비해 무업형은 검정고시 합격자 비율이 낮음. 다닌 대학은 주로 2-3년제 전문대, 4년제임. 대학진학 이유는 원래 대학진학계획이 있었거나 부모의 권유 등임.
- 직업훈련: 직업훈련 참여자의 41%는 공공기관에서 훈련을 받음. 훈련 기간은 평균 6~7개월이나 다른 유형에 비해 무업형은 참여기간이 7주임. 직업훈련 참여의사가 있는 비율은 전체의 27%에 불과함. 미참여 사유를 보면 학업·직업형은 시간이 없어서, 무업형은 도움될 것 같지 않거나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많음. 가장 희망하는 프로그램은 기술훈련과 취업연계 프로그램임.
- 근로경험: 약 45%가 조사 당시 일을 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단순 서비스 노동에 참여하고 있음. 1년 간 근로경험이 있는 비율은 62%였음. 평균 3.25개월을 근무하였고, 전체 응답자의 58%가 1년 이내로 일을 그만둘 계획이 있음.
- 무업 경험: 노는 것이 좋아서 또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청소년이 많음. 노는 것이 좋아서와 하고 싶은 것이 없다는 응답은 다른 유형에 비해 무업형에서 높았음.
- 진로 관련 특성: 학업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진로정보탐색이 활발하고 무업형은 진로정보탐색에 소극적이고 진로정보가 부족함. 향후 진로계획을 보면 전체의 20%가 미결정자이며 무업형의 30%가 미결정임. 장래희망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의 16%임.
- 개인·환경적 특성: 학업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전반적으로 좋은 상태임. 직업형은 사회적응능력이 높으나 우울하고 사회적 낙인감도 높으며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 무업형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며 부정적인 심리·정서가 강함.

- 일상생활: 학업형은 평일에 학업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아 다른 시간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무업형은 혼자 지내는 시간이나 여가시간, 취미시간이 다른 유형에 비해 길고 수면시간도 불규칙함. 직업형은 식생활과 수면시간이 불규칙한 편임.
- 제도적 도움을 받은 경험: 50% 정도가 기관에서 성인 멘토를 만났으며 만난 기관은 청소년 시설, 학원, 상담기관, 직업훈련기관 순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의사는 33%였으며 미이용 사유로는 시간이 없거나 방문하기 귀찮다는 사유가 주를 이룸.
- 성별특성: 남자청소년은 여자청소년에 비해 더 많이 일을 하고 있고, 노는 시간이나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으며 미래에 대해 낙관적임. 반면 여자청소년은 진로정보탐색을 더 많이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 우울, 진로장애가 높음.
- 필요한 도움: 대체로 경제적 지원과 진로상담의 욕구가 높았음. 학업형과 직업형은 진로상담이, 무업형은 심리상담, 취업지원이 높음. 학업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정보관련 욕구도 높음. 무업형 중에는 어떠한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았음.

○ 이행경로의 변화 분석

- 이행경로의 변화: 긍정적 유지는 58.3%, 부정적 유지는 9.2%로 약 68%가 중단 후 3년차까지의 경험을 4년차에도 유지함. 학업과 직업 간 전환은 16.5%, 긍정적 전환은 7.3%, 부정적 전환은 8.8%으로 이행경로 전환 비율은 약 30%임.
- 이행경로 변화의 결정 요인
 - 긍정적 유지: 학업중단 친구 수가 적고, 진로정보탐색을 많이 하고, 학업중단에 대한 부정적 심리정서가 낮을수록 높음.
 - 학업-직업 전환: 학령기이고, 학업중단에 대한 부정적 심리정서가 높을수록 높음.
 - 직업-학업 전환: 연령이 높고, 진로미결정자일수록 높음.
 - 긍정적 전환: 성인기이며, 가정경제수준이 중·하층이고, 진로정보탐색이 활발할수록 높음.
 - 부정적 전환: 가정경제수준이 상층이고, 학업중단 친구가 많고, 도움이 필요했을수록 높음
 - 부정적 유지: 여자보다는 남자가, 일을 하지 않을수록, 진로정보탐색활동이 적을수록 높음.

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실태

○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와 제공한 서비스의 비교

- 20% 이상 요청 / 20% 이상 제공: 검정고시 관련(정보제공, 프로그램), 심리 및 진로상담정보제공,

건강검진, 진학정보, 진로계획 상담, 관계문제 상담 등

- 20% 이상 요청 / 10% 정도만 제공: 직업기술 훈련지원, 자격증 정보제공
- 요청에 비해 많이 제공한 서비스: 의료관련정보, 문화예술프로그램, 직업훈련관련 정보제공
-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 일자리 정보, 자기계발기회제공, 일자리 알선, 신체단련 기회제공, 검정고시비 지원 등
- 남자청소년보다는 여자청소년이, 기존보다는 신규 패널이 서비스 요청률과 제공률이 높음.
- 서비스 제공방법과 해당 서비스의 지역기관 연계 실태
 - 센터가 직접 지원한 비율이 60% 이상인 서비스는 46개 서비스 중 36개임
 - 외부기관연계가 높은 서비스: 건강검진, 건강교육, 무료치료병원 알선 등 건강 관련 서비스
 - 많이 연계된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특별지원 순이었으며 취업관련기관에의 연계는 10% 미만으로 나타남.
-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
 - 청소년과 서비스 제공시간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3)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와 국내 외 비교 및 시사점

○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 만 7~18세 학령기는 약 42만 명, 만 19~24세는 약 25만 명으로 추정되었음.
-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의 교급별 · 성별 비율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연령 13%, 중학교 연령 21%, 고등학교 연령 66%였으며 초등 및 고등에서는 남자청소년의 비율이 7-8%p 높았음.

○ 국내외 정책현황 분석 및 시사점

- 학교 밖 청소년에 초점을 둔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
- 학습지원과 복교를 위한 교육청과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함.
- 연령별 맞춤형 학업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
-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실태조사, 발굴, 지원체계 등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진로 · 직업 상담시설과 대안교육 시설 확충이 필요함.

4. 정책제언

○ 학업지원 대책

- 과제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급여 제공
- 과제 2. 학업중단자 수, 결석일수를 학교예산 배분기준에 반영
- 과제 3. 연령별·성별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학습지원 프로그램 확보
- 과제 4.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복귀지원기관 설치·운영
- 과제 5. 인문교양교육과정의 확대

○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대책

- 과제 6. 고졸이하 청소년층에 초점 둔 진로상담, 직업능력개발, 취(창)업지원에 이르는 통합적 프로그램 개발·운영
- 과제 7. 취업사관학교용 모듈형 선택적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 과제 8.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직업 상담 체계 구축: 한국고용정보원과 연계한 실무자 연수 및 진로직업 전문가 확충
- 과제 9. 일 학습병행제 TYPE II 개발
- 과제 10. 취약·위기 청소년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별도 운영
- 과제 11. 청소년 일자리 센터 설치
- 과제 12. 지역 고용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통합운영 시범 실시

○ 은둔 무업형 청소년 지원 대책

- 과제 13. 은둔 무업형 학교 밖 청소년 규모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 과제 14. 은둔 무업형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체계 구축
- 과제 15. 은둔 무업형 청소년 지원에 대한 홍보 및 부모 세미나 운영
- 과제 16. 찾아가는 상담체계 구축 및 치료형 캠프
- 과제 17. 무업형 청소년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자립생활관 설치

○ 전달체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강화

과제 1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설계

과제 1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실무자 직무분석, 업무체계 및 임금체계의 개선

과제 20. 오후와 야간, 휴일 근무체계를 갖춘 학교 밖 지원센터 시범 운영

과제 21.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과제 22. 학교밖지원센터 상담사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운영

○ 좀 더 촘촘하고 빠른 학교 밖 청소년 발굴체계 구축

과제 23.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촘촘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체계 강화

과제 24. 교육(지원)청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간 신속한 정보 연계 체계 구축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6
3. 연구추진체계 및 연구방법	10
II. 학교 밖 청소년 패널조사 결과	15
1. 조사개요	17
2. 이행경로별 기초분석	40
3.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 변화유형별 특성	145
III.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실태	179
1. 조사개요	181
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현황	192
3. 요약 및 논의	213
IV.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및 국내외 정책사례 분석	219
1.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221
2.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와 지원정책 현황	236
3. 국외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261
V. 결론 및 정책제언	281
1. 요약 및 시사점	283
2. 정책제언	299
참고문헌	315
부 록	329

표 목차

〈표 Ⅰ- 1〉 학업중단자 패널 최종목표 표본수	10
〈표 Ⅱ- 1〉 본 패널 유형별 조사 성공 현황	17
〈표 Ⅱ- 2〉 4차 조사 이탈 사유	18
〈표 Ⅱ- 3〉 연차별 조사 참여자 현황표	19
〈표 Ⅱ- 4〉 1-4차년도 설문조사 영역 및 주요내용	22
〈표 Ⅱ- 5〉 경험사건의 분류	32
〈표 Ⅱ- 6〉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9
〈표 Ⅱ- 7〉 중단/복교상태	40
〈표 Ⅱ- 8〉 졸업자격 취득 여부	41
〈표 Ⅱ- 9〉 복교 경험	42
〈표 Ⅱ-10〉 복학한 학교 형태	43
〈표 Ⅱ-11〉 복학 시기	44
〈표 Ⅱ-12〉 재중단 경험	45
〈표 Ⅱ-13〉 중단 후 경험실태	47
〈표 Ⅱ-14〉 대안학교 유형	48
〈표 Ⅱ-15〉 검정고시 공부 방법	49
〈표 Ⅱ-16〉 검정고시 응시 경험 여부	50
〈표 Ⅱ-17〉 검정고시 합격 여부	51
〈표 Ⅱ-18〉 학업중단 후 대학 진학 이유	52
〈표 Ⅱ-19〉 진학한 대학의 학제	53
〈표 Ⅱ-20〉 진학한 대학의 설립유형	54
〈표 Ⅱ-21〉 전공계열	55
〈표 Ⅱ-22〉 학년	56
〈표 Ⅱ-23〉 재학상태	57
〈표 Ⅱ-24〉 휴학 사유	58

〈표 II-25〉 중퇴 사유	59
〈표 II-26〉 직업훈련 프로그램	60
〈표 II-27〉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용	61
〈표 II-28〉 직업훈련 일일 훈련시간, 주당 훈련일수, 훈련 기간	62
〈표 II-29〉 자격증 취득 여부	63
〈표 II-30〉 자격증 종류	64
〈표 II-31〉 직업훈련 프로그램 만족도	65
〈표 II-32〉 직업훈련 프로그램 도움정도	66
〈표 II-33〉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횟수	67
〈표 II-34〉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이유	68
〈표 II-35〉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놀았던 이유	69
〈표 II-36〉 학업중단 후의 주거 공간 및 비행경험	70
〈표 II-37〉 아르바이트 경험	71
〈표 II-38〉 주요 일(아르바이트) 업종	72
〈표 II-39〉 근무기간	73
〈표 II-40〉 구직 기간	74
〈표 II-41〉 주된 취업경로	75
〈표 II-42〉 종사상 지위	76
〈표 II-43〉 사업장 직원 수	77
〈표 II-44〉 주당 근로일수, 일일 근로시간, 시급	78
〈표 II-45〉 4대 보험 가입유무	79
〈표 II-46〉 향후 전망	80
〈표 II-47〉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의사	81
〈표 II-48〉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시 고려사항	82
〈표 II-49〉 희망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83

〈표 II-50〉 직업훈련 미참여 사유	84
〈표 II-51〉 동아리·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	85
〈표 II-52〉 동아리·인터넷 카페 참여 이유	86
〈표 II-53〉 참여하는 동아리·인터넷 카페 유형	87
〈표 II-54〉 동아리·인터넷 카페 활동 내용	88
〈표 II-55〉 진로정보탐색	89
〈표 II-56〉 진로 장애	90
〈표 II-57〉 향후 진로 계획	91
〈표 II-58〉 진로 계획 달성 예측	92
〈표 II-59〉 자신의 향후 교육 기대수준	93
〈표 II-60〉 군 입대	94
〈표 II-61〉 학업중단에 대한 심리·정서	95
〈표 II-62〉 성인 멘토를 만난 기관	96
〈표 II-63〉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	97
〈표 II-64〉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 구체적으로	99
〈표 II-65〉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생활만족도	101
〈표 II-66〉 우울, 충동성	102
〈표 II-67〉 게임 중독	103
〈표 II-68〉 SNS 관련 피해·가해 경험	104
〈표 II-69〉 스마트폰 중독	105
〈표 II-70〉 부모의 지원	106
〈표 II-71〉 부모의 방임·학대	107
〈표 II-72〉 친한 친구 수	108
〈표 II-73〉 또래애착, 친구의 비행성향	109
〈표 II-74〉 지역사회	110

〈표 II-75〉 하루 생활시간-수면	111
〈표 II-76〉 하루 생활시간-주요 영역 경험률	112
〈표 II-77〉 하루 생활시간	114
〈표 II-78〉 취침 시각	116
〈표 II-79〉 식생활	117
〈표 II-80〉 현재 주거상태	118
〈표 II-81〉 학력에 대한 생각	119
〈표 II-82〉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	120
〈표 II-83〉 사회적 낙인감	121
〈표 II-84〉 문제행동 피해경험	122
〈표 II-85〉 비행경험	123
〈표 II-86〉 장래 희망	124
〈표 II-87〉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인지여부	125
〈표 II-88〉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알고 있는 응답자의 이용 여부	126
〈표 II-89〉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 참여 여부	127
〈표 II-90〉 가장 받고 싶은 서비스	128
〈표 II-91〉 서비스 미참여 이유	129
〈표 II-92〉 주요문항	130
〈표 II-93〉 중단 후 경험실태와 진로	131
〈표 II-94〉 개인의 심리·정서 상황	132
〈표 II-95〉 부모·친구관계·동네주변 환경	132
〈표 II-96〉 일상생활 및 가치관	133
〈표 II-97〉 주요문항	134
〈표 II-98〉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 변수별 차이분석	137
〈표 II-99〉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의사: 변수별 차이분석	142

〈표 II-100〉 직업훈련 프로그램 미참여 사유: 변수별 차이분석	144
〈표 II-101〉 이행경로 변화의 분포	146
〈표 II-102〉 이행경로 변화유형의 분류	147
〈표 II-103〉 변수의 구성 및 내용	148
〈표 II-104〉 성별 이행경로 변화유형 분포	153
〈표 II-105〉 연령별 이행경로 변화유형 분포	154
〈표 II-106〉 가족구성별 이행경로 변화유형 분포	154
〈표 II-107〉 가정경제수준별 이행경로 변화유형 분포	155
〈표 II-108〉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156
〈표 II-109〉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	156
〈표 II-110〉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	157
〈표 II-111〉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	157
〈표 II-112〉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충동성의 차이	158
〈표 II-113〉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사회적 낙인감의 차이	158
〈표 II-114〉 근로여부별 이행경로 변화유형 분포	159
〈표 II-115〉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월평균 근로소득의 차이	160
〈표 II-116〉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근로기간의 차이	160
〈표 II-117〉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게임중독 수준의 차이	161
〈표 II-118〉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SNS 피해경험의 차이	161
〈표 II-119〉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SNS 가해경험의 차이	162
〈표 II-120〉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수준의 차이	162
〈표 II-121〉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부모의 정서적 지원 차이	163
〈표 II-122〉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지원 차이	164
〈표 II-123〉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부모의 방임 수준 차이	164
〈표 II-124〉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부모의 학대 수준 차이	165

〈표 II-125〉 이행정로 변화유형에 따른 친한 친구 수의 차이	165
〈표 II-126〉 이행정로 변화유형에 따른 학업중단 친구 수의 차이	166
〈표 II-127〉 이행정로 변화유형에 따른 또래 애착의 차이	167
〈표 II-128〉 이행정로 변화유형에 따른 친구의 비행성향 차이	167
〈표 II-129〉 이행정로 변화유형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 수준 인식의 차이	168
〈표 II-130〉 이행정로 변화유형에 따른 지역사회 무질서 수준 인식의 차이 ...	168
〈표 II-131〉 이행정로 변화유형에 따른 지역사회 유익환경 수준 인식의 차이	169
〈표 II-132〉 이행정로 변화유형에 따른 학업중단 후 도움 받은 기관유형 분포	170
〈표 II-133〉 이행정로 변화유형에 따른 학업중단 후 필요한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	171
〈표 II-134〉 이행정로 변화유형에 따른 진로정보탐색 활동의 차이	172
〈표 II-135〉 이행정로 변화유형에 따른 진로장애 수준의 차이	172
〈표 II-136〉 미래 진로결정 여부에 따른 이행정로 변화유형 분포	173
〈표 II-137〉 이행정로 변화유형에 따른 학업중단에 관한 부정적 심리·정서 차이	174
〈표 II-138〉 이행정로 변화유형에 따른 학업중단에 관한 긍정적 심리·정서 차이	174
〈표 II-139〉 이행정로 변화유형에 따른 학력에 대한 인식 차이	175
〈표 II-140〉 이행정로 변화유형 결정요인 분석결과(한계효과)	177
〈표 III- 1〉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 사례조사에 관한 조사대상	182
〈표 III- 2〉 신규 패널 표본 설계 및 조사 완료 수	183
〈표 III- 3〉 신규 패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조사 성공현황	184
〈표 III- 4〉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 사례조사 내용	185

〈표 III- 5〉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실태조사 참여 응답자 분포	190
〈표 III- 6〉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 분포	193
〈표 III- 7〉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 분포	198
〈표 III- 8〉 서비스별 제공 방법	205
〈표 III- 9〉 연계기관별 서비스 제공 건수	209
〈표 III-10〉 청소년이 요청하였으나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 분포	210
〈표 III-11〉 청소년이 요청하였으나 제공하지 못한 이유	212
〈표 III-12〉 청소년이 요청한 주요 서비스와 청소년에게 제공된 주요 서비스 (각 상위 10개)	214
〈표 IV- 1〉 1996~2007년생 주민등록상 인구와 학생 수	222
〈표 IV- 2〉 2014학년도 9개월간 순학업중단자 수(추정)	223
〈표 IV- 3〉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규모	224
〈표 IV- 4〉 2014년 학령인구 기준 내국인 순 출국자수 및 외국인 순 입국자	225
〈표 IV- 5〉 2014학년도 재학생 기준 순 출국 학생 수(추정)	226
〈표 IV- 6〉 학령기(만 7~18세) 학교 밖 청소년의 국제이동	228
〈표 IV- 7〉 학교 밖 청소년 규모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229
〈표 IV- 8〉 1990~1995년생 주민등록상 인구와 초·중·고과정 학생 수	232
〈표 IV- 9〉 2005~2013 연도별 만 19~24세 기간학제 졸업자 수(추정)	233
〈표 IV-10〉 2009~2014년 방계학제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수	234
〈표 IV-11〉 만 19~24세 학교 밖 청소년 규모(2014.12.31. 기준)	234
〈표 IV-12〉 2016년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현황	238
〈표 IV-13〉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사업추진 방향 및 추진과제	239
〈표 IV-14〉 시도별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현황(2016.7.)	240
〈표 IV-15〉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2015년 기준)	241

〈표 IV-1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성과	242
〈표 IV-17〉 연도별 취업사관학교 참여자 수	245
〈표 IV-18〉 2015년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실시현황(2015.12월말 기준)	247
〈표 IV-19〉 2013-2014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중도탈락률 및 취업률	247
〈표 IV-20〉 2015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실시현황(2015.12월말 기준)	248
〈표 IV-21〉 2014-2015년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 특성별 현황	250
〈표 IV-22〉 2014-2015 연령별·유형별 취업성공패키지 신규참여현황	252
〈표 IV-23〉 2013-2015 연령별 청년인턴 신규선발건수(매년 12월 기준)	253
〈표 IV-24〉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정책 현황	254
〈표 IV-25〉 2008-2015 청소년동반자 및 수혜 청소년 수	260
〈표 IV-26〉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예산 현황	261
〈표 IV-27〉 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미국, 영국)	268
〈표 IV-28〉 영국의 구직 및 실업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정책사례	271
〈표 IV-29〉 The Bridge over Troubled Waters의 사업내용	273
〈표 IV-30〉 K2 인터내셔널의 주요사업	276
〈표 IV-31〉 소다테아게넷의 주요사업	277
〈표 IV-32〉 요코하마시, 내각부, 도쿄도 은둔형 외톨이 발생률 비교	280
〈표 V- 1〉 2013-2015 기존 연구 정책제안 및 추진현황 평가	299
〈표 V- 2〉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302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도별 연구추진계획(2016~2017년)	7
【그림 Ⅰ-2】	연구조사 추진체계	11
【그림 Ⅱ-1】	조사도구 수정·보완절차	20
【그림 Ⅱ-2】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험사건 분포	33
【그림 Ⅱ-3】	군집 개수에 따른 주요 지표값의 변화	34
【그림 Ⅱ-4】	군집별 경험사건 분포	35
【그림 Ⅱ-5】	군집별 대표 경험사건 배열	36
【그림 Ⅱ-6】	이행경로 분포 및 학업중단사유별 이행경로 분포	38
【그림 Ⅱ-7】	중단/복교상태	40
【그림 Ⅱ-8】	졸업자격 취득 여부	41
【그림 Ⅱ-9】	복교 경험	42
【그림 Ⅱ-10】	복학한 학교 형태	43
【그림 Ⅱ-11】	복학 시기	44
【그림 Ⅱ-12】	재중단 경험	45
【그림 Ⅱ-13】	중단 후 경험실태	46
【그림 Ⅱ-14】	대안학교 유형	48
【그림 Ⅱ-15】	검정고시 공부 방법	49
【그림 Ⅱ-16】	검정고시 응시 경험 유무	50
【그림 Ⅱ-17】	검정고시 합격 여부	51
【그림 Ⅱ-18】	학업중단 후 대학 진학 이유	52
【그림 Ⅱ-19】	진학한 대학의 학제	53
【그림 Ⅱ-20】	진학한 대학의 설립유형	54
【그림 Ⅱ-21】	전공계열	55
【그림 Ⅱ-22】	학년	56
【그림 Ⅱ-23】	재학상태	57

【그림 II-24】 휴학 사유	58
【그림 II-25】 종퇴 사유	59
【그림 II-26】 직업훈련 프로그램	60
【그림 II-27】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용	61
【그림 II-28】 직업훈련 일일 훈련시간, 주당 훈련일수, 훈련 기간	62
【그림 II-29】 자격증 취득 여부	63
【그림 II-30】 자격증 종류	64
【그림 II-31】 직업훈련 프로그램 만족도	65
【그림 II-32】 직업훈련 프로그램 도움정도	66
【그림 II-33】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횟수	67
【그림 II-34】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이유	68
【그림 II-35】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놀았던 이유	69
【그림 II-36】 학업중단 후의 주거 공간 및 비행경험	70
【그림 II-37】 아르바이트 경험	71
【그림 II-38】 주요 일(아르바이트) 업종	72
【그림 II-39】 근무기간	73
【그림 II-40】 구직 기간	74
【그림 II-41】 주된 취업경로	75
【그림 II-42】 종사상 지위	76
【그림 II-43】 사업장 직원 수	77
【그림 II-44】 주당 근로일수, 일일 근로시간, 시급	78
【그림 II-45】 4대 보험 가입유무	79
【그림 II-46】 향후 전망	80
【그림 II-47】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의사	81
【그림 II-48】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시 고려사항	82

【그림 II-49】	희망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83
【그림 II-50】	직업훈련 미참여 사유	84
【그림 II-51】	동아리·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	85
【그림 II-52】	동아리·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	86
【그림 II-53】	참여하는 동아리·인터넷 카페 유형	87
【그림 II-54】	동아리·인터넷 카페 활동 내용	88
【그림 II-55】	진로정보탐색	89
【그림 II-56】	진로 장애	90
【그림 II-57】	향후 진로 계획	91
【그림 II-58】	진로 계획 달성 예측	92
【그림 II-59】	자신의 향후 교육 기대수준	93
【그림 II-60】	군 입대	94
【그림 II-61】	학업중단에 대한 심리·정서	95
【그림 II-62】	성인 멘토를 만난 기관	96
【그림 II-63】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	97
【그림 II-64】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 구체적으로	98
【그림 II-65】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 구체적으로(이행경로별 비교결과)	99
【그림 II-66】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 필요한 도움의 충족률	100
【그림 II-67】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생활만족도	101
【그림 II-68】	우울, 충동성	102
【그림 II-69】	게임 중독	103
【그림 II-70】	SNS 관련 피해·가해 경험	104
【그림 II-71】	스마트폰 중독	105
【그림 II-72】	부모의 지원	106

【그림 II-73】 부모의 방임·학대	107
【그림 II-74】 친한 친구 수	108
【그림 II-75】 또래애착, 친구의 비행성향	109
【그림 II-76】 지역사회	110
【그림 II-77】 하루 생활시간-수면	111
【그림 II-78】 하루 생활시간-주요 영역 경험률	112
【그림 II-79】 하루 생활-주요 영역 평균	113
【그림 II-80】 취침 시각	115
【그림 II-81】 식생활	117
【그림 II-82】 현재 주거상태	118
【그림 II-83】 학력에 대한 생각	119
【그림 II-84】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	120
【그림 II-85】 사회적 낙인감	121
【그림 II-86】 문제행동 피해경험	122
【그림 II-87】 비행경험	123
【그림 II-88】 장래 희망	124
【그림 II-89】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인지여부	125
【그림 II-90】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알고 있는 응답자의 이용 여부	126
【그림 II-91】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 참여 여부	127
【그림 II-92】 가장 받고 싶은 서비스	128
【그림 II-93】 서비스 미참여 이유	129
【그림 II-94】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 성별	135
【그림 II-95】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 가정경제수준	135
【그림 II-96】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 학업중단 시점	136

【그림 II-97】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 학업중단 사유	136
【그림 II-98】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 구체적인 항목과 도움 받은 정도	140
【그림 II-99】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의사: 성별, 가정경제수준	141
【그림 II-100】	직업훈련 프로그램 미참여 이유: 가정경제수준	143
【그림 II-101】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 변화 유형	147
【그림 III-1】	청소년이 요청 및 제공한 서비스: 성별	202
【그림 III-2】	청소년이 요청 및 제공한 서비스: 신·구패널별	202
【그림 III-3】	청소년이 요청 및 제공한 서비스	204
【그림 III-4】	서비스별 제공 방법	207
【그림 IV-1】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급별 구성	230
【그림 IV-2】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규모의 교급별·성별 비율	231
【그림 IV-3】	만 7~24세의 학교 밖 청소년 규모	235
【그림 IV-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사업내용	242
【그림 IV-5】	2015년도 지역청년서포터스테이션 사업실적	269
【그림 IV-6】	은둔형 외톨이 지역지원센터 개요	275
【그림 IV-7】	요코하마시 3기관연계 모델	279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추진체계 및 연구방법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윤철경 외(2013)는 2013년에 일반학업중단 청소년 776명, 보호관찰 청소년 220명의 패널을 구축하였고 2015년까지 3년 동안 패널조사를 수행하였다. 대규모 양적 연구로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의식, 개인적·환경적 특성, 중단 이후 생활경험을 토대로 한 이행경로의 분류를 시도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이행경로별 분포와 이행경로에 작용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2013.12.31.을 기준으로 초, 중, 고 학령인구 중 기간학제 등을 포함하여 학력 인정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은 약 44만 명, 이 중 국내 거주자는 37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복교율을 감안했을 때 초등학교 중단자는 14.1%, 중학교 중단자는 20.2%, 고등학교 중단자가 65.7%이다(윤철경 외, 2015: 35). 패널 조사를 토대로 2012년 6월 이후 학업중단자의 3개년 간 이행경로를 분석한 결과 학업형이 50.4%, 직업형이 32.4%, 무업형이 11.1%, 비행형이 6.0%으로 나타났다(윤철경 외, 2015: 36).

학령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그만 둔 학생들 중에서 그 이후에도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청소년이 50%를 넘었다. 그런데 왜 이들이 학교를 나와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지,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그 목표에 만족하고 있는 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교를 나와 일을 하거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직업형 청소년이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며 일과 미래에 대한 설계는 어떠한 지, 이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학업중단 후 긍정적인

* 이 장은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변화가 많은 집단인데(윤철경 외, 2015: 319). 그러한 긍정적인 변화의 동인은 무엇이며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학교를 그만 둔 후 3년차에도 여전히 무업형이거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17% 정도이다. 이들의 방황의 이유, 필요를 파악하여 이들에게 맞는 집중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윤철경 외(2015)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심리정서나 지역사회 특성 같은 개인적·환경적 요인 외에 학업중단 사유, 학업중단 시 제공받은 정보, 성인 멘토를 만난 기관, 교육기대 수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철경 외, 2015: 249). 청소년의 이행경로에 이러한 제도적 요인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지난 3년간의 패널 연구는 여러 면에서 의의가 있었다. 우선 대규모 양적 연구라는 점, 학교에서 학업중단자 명단을 받아 패널을 구축했다는 점은 기존에 청소년쉼터나 대안교육기관 등 특정 기관을 중심으로 조사한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학업중단에 만족하는 청소년이 많다는 것, 학교 밖에 나와서 학업을 지속하고 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 등 학업중단자의 실체에 보다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의의는 매년 학교에서 나와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사회에 누적된 인구, 출생인구 된 재학생 인구의 격차를 활용하여 사회에 누적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총 인구를 추정해냄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장을 열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가 시작되었던 때와는 달리 학교 밖 청소년지원정책에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 관계부처가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또한 전국 202개 지역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일명 꿈드림센터)가 설치되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된 정책 환경 속에 본 패널에 들어와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본 연구의 패널들은 이렇게 변화된 정책 환경에서 정책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인가? 중앙정부에서 입안·집행한 정책이 정책의 실수요자인 학교 밖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떠한 경험으로 받아들여지게 될까 등이 의문시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 우선적으로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은 동일한 성격의 집단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다양한 집단이라는 점, 따라서 그 욕구를 개별적으로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교육과

고용과 보호, 정서적·경제적 지원 등 다각적인 필요를 갖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의 현재의 요구, 현재의 성장발달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개별적인 맞춤형 지원이 제공되지 않으면 정책적 지원이 성과를 내기 어렵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은 지역사회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가정을 포함하여 각종 학원, 각종 근로현장, 청소년보호기관과 시설, 대안교육기관, 종교기관, 심지어는 교정기관 등과 간혹 관련을 맺을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이들의 삶의 터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면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여성가족부를 포함하여 중앙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어도 해당 사업이 청소년들이 사는 삶의 현장과 지역에서 접근 불가능하고 수혜를 볼 수 없다면 개선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와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해당 청소년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정책적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생태학적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이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가 갖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4년차 패널 조사 결과를 기초로 이행경로를 분류하고 이들의 특성은 무엇인가? 지난 3년간의 이행경로와 어떻게 달라지며 변화와 관련된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별 심층적 요구사항은 무엇이며 어떠한 도움을 받았는가?

셋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라는 지역자원 연계 시 연계실태는 어떠하며 청소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인가?

넷째,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지원은 무엇이며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제공될 수 있는가?

전체 연구의 목적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 및 이행경로별 주요 특성 및 그 변화를 파악한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에 따른 심층적 요구사항을 파악한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에 대한 반응과 연계실태를 파악한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별 맞춤형 지원 내용과 지역사회에서의 지원방안을 도출한다.

2016년도 연구의 목적

첫째, 학교 밖 청소년 패널에 대한 4차 조사 및 조사결과를 분석하며 3차 조사 결과와 비교한 이행경로 변화를 분석한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이행경로별 특성 및 요구사항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한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실시하고 자원연계에 대한 청소년의 반응 및 자원연계의 초기 실태를 분석한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맞춤형 지원 사례(정책,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를 수집하여 시사점을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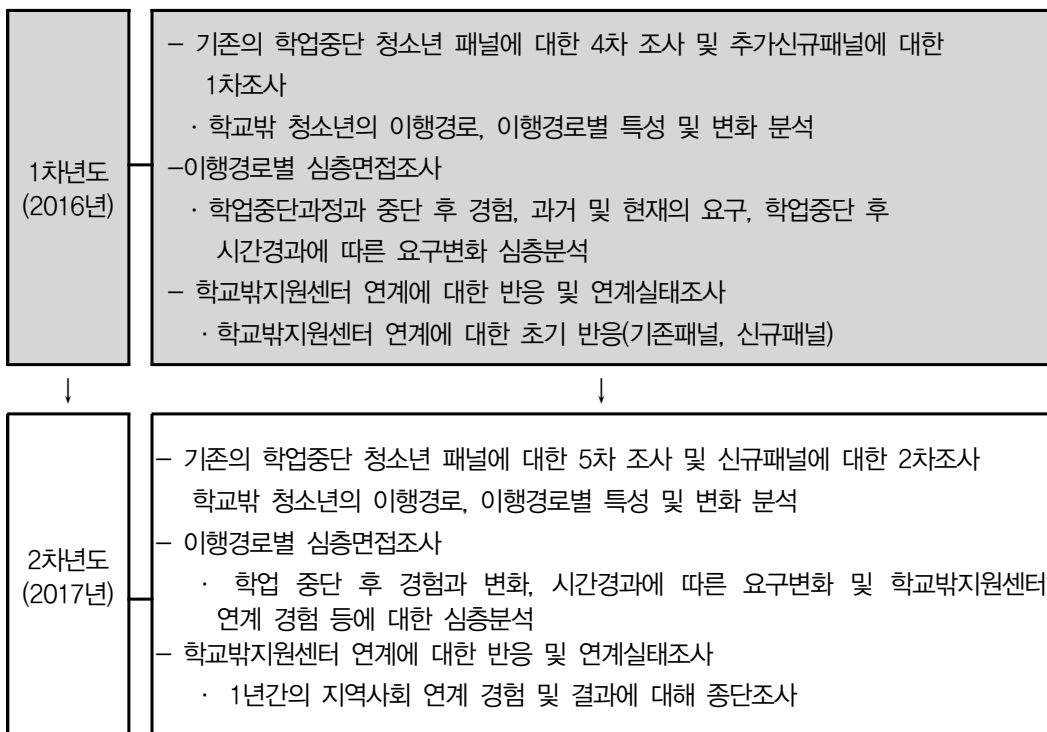
2. 연구내용

1) 2개년 종단연구의 주요 내용

본 연구는 2개년 종단연구 계획을 갖고 추진한다. 먼저, 학교밖 청소년의 이행경로, 이행경로별 특성 및 변화에 대해서는 기존의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2013~2015)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여 분석한다.

둘째, 양적 조사결과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 및 이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심층분석을 위해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다. 기존의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2013~ 2015) 조사결과에 따라 이행경로별 면접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2016년 이행경로 변화를 분석하고 이들의 학업중단과정과 중단 후 경험, 과거 및 현재의 요구, 학업중단 후 시간경과에 따른 요구변화 등에 대해 심층분석을 실시한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하고 이에 대한 초기 반응 및 향후 1년 간의 지역사회 연계 경험에 대해 종단조사를 실시한다. 기존 학업중단 청소년패널(2013~ 2015)에게 지역사회기관(꿈드림센터 등)을 연계한 서비스 이용 의사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확인한 후 지역사회기관(꿈드림센터 등)에 연계하여 이들의 1년 간의 서비스 이용경험 및 지역자원연계 결과를 조사한다. 2016년에는 지역자원연계에 대한 초기 반응을 분석한다. 2017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연계집단의 지난 1년간의 연계 경험과 연계/비연계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한다. 본 연구의 2개년 간 주요 연구내용은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도별 연구추진계획(2016~2017년)

2) 2016년도 주요 연구내용

(1) 학교 밖 청소년 패널조사 도구 수정·보완

2013~2015년에 사용한 학교 밖 청소년 패널조사 도구를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대한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 지원에 대한 욕구 및 필요, 지역사회자원 연계에 대한 의사 및 사유, 이에 필요한 인테이크 조사 문항 등을 보완하였다.

(2) 20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 및 이행경로별 특성 및 변화에 대한 양적 분석

2016년 학교 밖 청소년 패널조사 4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를 유형화하고 이행경로에 따른 개인적, 환경적, 생활실태 및 행동적 특성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더불어 이행경로별 요구사항을 파악하였다.

(3)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심층 분석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심층면접대상자를 선정하여 학업형과 직업형, 무업형(비행형 포함)에 대한 심층적 질문을 개발하고 학교중단 과정 및 중단 후 경험, 중단 후 시간경과에 따른 요구사항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연계 경험 등에 대해 심층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결과는 본 보고서의 별권으로 수록하였다.

(4)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례관리 체크리스트 개발 및 이용실태 분석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례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문항을 개발한다. 욕구사정 및 이에 대한 서비스 지원 내용, 이행경로별 서비스 지원 및 지역자원 연계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도구를 개발하여 2016년에는 지역자원연계에 대한 초기반응을 중심으로 연계실태를 분석하였다.

(5) 2016년도(4차년도) 조사준비 및 조사관리

① 리서치 업체 선정 및 계약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조사 패널 유지관리를 위해 리서치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조사대상 사전 접촉

조사회사에서는 조사대상자를 사전 접촉하여 조사 접촉점을 늘리고 조사일정을 예고하였다.

③ 4차년도 본 조사 실시 및 조사관리

4차년도 자료수집은 리서치회사의 훈련된 전문면접원을 투입하여 개별면접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조사회사에서는 리스트에 기록된 연락처로 연락하고 조사협조 여부를 확인하여 조사 협조가 확인된 패널을 대상으로 1:1 대면면접조사를 진행할 면접원을 할당한다. 대면조사 면접원이 응답자에게 연락하여 조사 가능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고 응답자와 직접 만나 1대1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한국청소년연구원에서는 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면접원 교육 참관, 조사결과 검수, 면접원 간담회 참여 등 조사과정을 관리하였다.

④ 4차년도 조사데이터 편칭 관리

4차년도에 조사된 데이터의 코딩 및 편칭(더블 편칭) 과정을 관리하고, 편칭된 데이터를 검토하였다.

⑤ 4차년도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

데이터 클리닝의 목적은 편칭된 데이터의 비표집 오차를 줄여 연구자들에게 좀 더 정확하고 완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변수명 표기방법의 결정, 편칭상의 오류 검토, 불성실한 응답 검토, 설문의 의도와 다른 응답 검토, 논리적 오류가 있는 응답(skip 패턴 문항 등), 변수별 value 값의 리코딩 조정, 개인정보 보호관련 검토 등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⑥ 조사패널 유지관리

본 연구의 표본추출방법은 비확률 표집이며 구체적인 조사패널 확보방법은 2013년도 연구 제 4장을 참고하면 된다. 본 연구의 패널조사 대상자는 2013~2015년 3년간 패널조사에 참여한 일반학업중단 청소년 549명 중 군입대 예상 등 조사불가자를 제외한 427명과 2016년에 구축한 신규 패널 197명을 추가하여 총 624명이다.

본 중단연구는 624명의 패널표본을 2차년도까지 총 60% 유지할 것을 목표로, 2017년도 최종목표 표본 수를 총 374명으로 설정하고 있다(<표 1-1> 참조).

표 I-1 학업중단자 패널 최종목표 표본수

구 분 ¹⁾	2016 조사대상 표본		2017
기존 일반 패널	일반 패널 427명	→ (60%)	256명
신규 패널	꿈드림 소속 197명	→ (60%)	118명
계	624명		374명

출처: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p. 92. <표 IV-5>.

(6)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의 협업 관리

학교 밖 청소년 패널에 대한 양적 조사와 심층면접조사는 학교 밖 청소년 패널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조사기관이 주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인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센터 이용 실태는 꿈드림센터가 주관이 되어 실시할 수밖에 없다. 학교 밖 청소년의 요구 사정 및 이에 부합하는 서비스 및 지역자원 연계 등 사례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거주 지역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협업하여 학교 밖 청소년 패널에 대한 요구사정 및 사례관리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 패널의 꿈드림센터 이용의사와 이를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받았으며 꿈드림센터에 개인정보를 연계한 후 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이 꿈드림센터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3. 연구추진체계 및 연구방법

1) 조사설계

본 연구의 조사추진체계는 【그림 1-2】와 같다.

1) 개인명부 조사는 스노우볼링 및 웹조사, 상담복지센터의 개별 명부 조사를 포함하는 표본 수이며, 스노우볼링 및 웹조사를 통해 확보한 명단은 교육청을 거친 학교별 개인명부 확보 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짐. 기관접촉 조사는 직업 및 학업기관 대상 조사를 포함하는 표본 수임.



【그림 I-2】 연구조사 추진체계

(1) 기존 패널

① 설문조사

1차 조사의 경우,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776명의 본패널을 구축하였다. 본패널에 적합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교육청을 통해 사전에 조사동의를 한 학업중단자 리스트 외 취업사관학교, 직업전문학교, 자활지원관, 검정고시학원 등의 기관접촉과 온라인/오프라인 스노우볼링을 기본 자료로 사용하였다.

2차~4차 조사의 경우, 1차 조사 시 구축된 패널 776명의 본패널을 대상으로 조사 대상자 또는 조사 대상자의 지인(가족, 친척, 친구, 보호자 등)에게 한국리서치에서 개별 접촉하여 조사약속을 잡고, 면접원과 조사 대상자가 1:1 대면면접의 형태로 실사를 진행하였다.

② 꿈드림센터 조사

4차 대면면접 조사에서 향후 꿈드림센터 방문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사전에 확인한 후, 참여 의사를 밝힌 본패널을 대상으로 본패널의 거주지와 인접한 꿈드림센터 담당자에게 패널 정보를 인계하였다. 꿈드림센터 담당자는 패널 정보를 바탕으로 패널에게 접촉하여 상담 일시를 확정하고, 해당 일시에 꿈드림센터를 방문한 패널을 대상으로 상담 및 사례조사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③ 심층인터뷰 조사

본패널 중 인터뷰 조사가 가능한 패널을 확인하여 IDI(In-depth Interview) 심층인터뷰 조사를 진행하였다. 심층인터뷰 조사는 한국리서치에서 인터뷰 가능 패널을 사전접촉하여 조사 일시를 확정하고, 담당 연구원이 조사 대상자를 1:1로 조사하였다.

(2) 신규패널

① 패널구축

전국 꿈드림센터에 소속된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200명의 신규패널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97명이 조사되었다. 신규패널은 센터 담당자가 조사 대상 선정 기준(연령, 학업중단 시기)에 따라 각 센터별 2명의 학생을 직접 선정하여 참여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확정하였다.

② 설문조사

신규패널로 선정된 센터 소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조사 대상 청소년이 센터에 방문하는 일시에 센터 내에서 담당자의 진행 하에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 작성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제작 및 배포하였으며, 응답자의 응답 이해도 및 편의를 고려하여 설문지 내에 응답 가이드를 첨부하였다.

③ 사례조사지

꿈드림센터 담당자는 신규패널로 선정된 센터 소속 청소년 각각에 대한 사례 관리 내용을 사례조사지에 작성하였다. 신규패널의 경우 조사 시작 이전부터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사례관리를 진행하되, 작성 시점은 조사가 시작된 2016년 6월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관리 내용을 작성하였다.

2)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 현황에 대한 행정·조사 통계를 수집·분석하여 규모를 추정한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례(정책, 프로그램, 서비스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의 요구사정 및 서비스 개입 목록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인테이크 서식 및 서비스 개입 목록 작성에 활용하였다.

3) 전문가 자문

연구방향 설정과 사례관리 조사 가능성, 조사추진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관계자, 상담복지센터 실무자의 자문을 받았다.

또한 사례관리 체크리스트의 개발을 위해 학교 밖 지원센터 등 현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4) 국외출장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 지원정책 및 지원현황에 대한 선진 사례 조사를 조사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정책이 잘 발달되어 있는 일본을 방문하여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자료를 수집하였고 외국의 정책사례에 반영하였다.

제 II 장

학교 밖 청소년 패널조사 결과

1. 조사개요
2. 이항경로별 기초분석
3. 학교 밖 청소년의 이항경로 변화유형별 특성

제 II 장 학교 밖 청소년 패널조사 결과*

1. 조사 개요²⁾

1) 본 패널 구축 현황

본 패널은 2013년 1차 조사 때 구축된 일반청소년 패널 776명이다(윤철경 외, 2014: 20). 전체 조사 대상자 776명 중 427명이 4차 조사에 응답하여 조사 성공률은 55.0%로 나타났다. 패널 유형별로 ‘일반(개인)’은 318명(57.6%), ‘일반(기관)’은 109명(48.7%)을 성공하였다.

표 II-1 본 패널 유형별 조사 성공 현황 (단위: 명, %)

패널 유형	4차 조사 대상자		4차 조사 성공		4차 조사 비성공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본패널 전체	776	100.0	427	55.0	349	45.0
일반(개인)	552	100.0	318	57.6	234	42.4
일반(기관)	224	100.0	109	48.7	115	51.3

4차 조사 이탈 패널은 총 349명이다. 이 중 192명(55.0%)은 4차 조사 이전에 조사 거절 및 불가로 확정되었다. 4차 조사 이탈유형은 ‘전화 안받음’이 43명(12.3%)로 가장 높고, ‘군입대 36명’(10.3%), ‘전화결번’ 28명(8.0%), ‘강력 거절’ 17명(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개인)

* 이 장의 1절은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강호(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2절은 윤철경, 3절은 김강호가 집필하였음.

2) 이 부분은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조사회사 실사보고서를 반영하여 집필하였음

전체 234명 중에는 ‘전화 안받음’이 30명(12.8%)으로 가장 높고, 이어서 ‘군입대’가 24명(10.3%), ‘전화결번’이 22명(9.4%), ‘강력거절’이 12명(5.1%)의 순으로, 일반(기관) 전체 115명은 ‘전화 안받음’이 13명(11.3%)으로 가장 높고, 이어서 ‘군입대’가 12명(10.4%), ‘전화 결번’이 6명(5.2%), ‘강력 거절’과 ‘응답 거절’ 5명(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2 4차 조사 이탈 사유 (단위: 명, %)

패널 유형	전체	4차 조사 이전 이탈 패널	4차 조사 이탈 사유								
			강력 거절	응답 거절	전화 결번	전화 안받음	거주지 (소재) 불명	군입대	소년원/구치소/교도소	유학/사망 등	
본패널 전체	사례수	349	192	17	15	28	43	11	36	1	6
	비율	100.0	55.0	4.9	4.3	8.0	12.3	3.2	10.3	0.3	1.7
일반 (개인)	사례수	234	121	12	10	22	30	8	24	1	4
	비율	100.0	51.7	5.1	4.3	9.4	12.8	3.4	10.3	0.4	1.7
일반 (기관)	사례수	115	71	5	5	6	13	3	12	0	2
	비율	100.0	61.7	4.3	4.3	5.2	11.3	2.6	10.4	0.0	1.7

연차별 조사참여자 수를 횡단측면에서 보면 1차 776명(100.0%), 2차 599명(77.2%), 3차 549명(70.7%), 4차 427명(55.0%)이 참여하였다. 유형별로는, 일반(개인)은 구축 차수인 1차 조사에 552명(100.0%), 2차에 449명(81.3%), 3차에 402명(72.8%), 4차에 318명(57.6%)이 참여하였으며. 일반(기관)의 경우에는 구축 차수인 1차 조사에 224명(100.0%), 2차에 150명(67.0%), 3차에 147명(65.6%), 4차에 109명(48.7%)이 참여하였다.

종단 측면에서 살펴보면, 1-2차에 연속으로 참여한 패널은 599명(77.2%), 1-3차에 연속으로 참여한 패널은 494명(63.7%)이며, 1-4차에 연속으로 참여한 패널은 381명(49.1%), 1차와 4차 사이를 불연속 참여한 패널은 46명(5.9%)로 나타났다. 그 중 일반(개인)은 1-2차에 연속으로 참여한 패널이 449명(81.3%), 1-3차에 연속으로 참여한 패널은 370명(67.0%), 1-4차에 연속으로 참여한 패널은 286명(51.8%)이며, 1차와 4차를 불연속 참여한 패널은 32명(5.8%)로 나타났다.

일반(기관)의 경우, 1-2차에 연속으로 참여한 패널이 150명(67.0%), 1-3차에 연속으로 참여한 패널은 124명(55.4%), 1-4차에 연속으로 참여한 패널은 95명(42.4%)이며, 1차와 4차를 불연속 참여한 패널은 14명(6.3%)로 나타났다.

표 II-3 연차별 조사 참여자 현황표 (단위: 명, %)

유형	구분	일반(개인)		일반(기관)		총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횡 단	1차 참여자	552	100.0	224	100.0	776	100.0
	2차 참여자	449	81.3	150	67.0	599	77.2
	3차 참여자	402	72.8	147	65.6	549	70.7
	4차 참여자	318	57.6	109	48.7	427	55.0
종 단	1-2차 연속 참여자	449	81.3	150	67.0	599	77.2
	1-3차 연속 참여자	370	67.0	124	55.4	494	63.7
	1-4차 연속 참여자	286	51.8	95	42.4	381	49.1
	1-4차 불연속 참여자	32	5.8	14	6.3	46	5.9

2) 조사도구 개발 및 구성

(1) 4차년도 조사도구 수정·보완 절차

본 패널 대상 조사설문지는 3차 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보완되었다. 학업중단 후 4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된 터라 4차년도 설문지의 수정·보완은 패널의 이행경로별 추가정보의 수집, 이들의 중단 후 욕구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응답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 복학 및 재중단, 최초 학업중단 등 학업상태의 변화에 대한 세부 문항은 삭제하였고 대학진학, 직업기술훈련, 근로경험 등에 대한 상세문항을 추가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연구진이 최근 연구문헌을 수집하여 관련문항과 조사결과를 검토함과 동시에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결과를 검토하면서 문항에 대한 선정 및 수정, 신규문항 작성을 실시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 학업중단 관련 학계 전문가, 학업중단 관련 현장 전문가의 의견 검토를 거쳤다.

최종설문지(안)에 대해 예비조사결과와 조사수행기관 의견록, 면접원 교육결과 등을 반영하여 기존패널용 최종설문지 1종을 확정하였다. 조사도구 수정·보완 절차는 <그림 II-1>과 같다.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문항 개발을 위한 문헌연구 및 3차년도 조사결과 검토 ○ 학업중단 관련 학술지, 학위논문, 정책보고서, 보도자료, 통계연보, 단행본, 인터넷 자료, 백서, 사업계획서 등 검토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지 수정보완을 위한 전문가 검토 ○ 삭제문항과 추가문항에 대한 세부내용 검토 ○ 문항별 내용 검토 및 예비조사용 설문지(안) 최종 확정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조사 ○ 일반학업중단 청소년 예비조사 - 직업훈련 경험자, 대학입시 준비자, 대학 진학자 등 총 6명 예비조사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원 교육 및 조사수행 기관 의견 반영 ○ 면접원 실사 지침서 검토 및 수정보완 ○ 조사수행 기관의 의견 반영
5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년도 설문지 확정 ○ 기존패널 청소년용

【그림 II-1】 조사도구 수정·보완절차

설문지 조사영역은 ① 학업중단 및 복학 현황 ② 생활경험과 인식 ③ 개인의 심리·정서 상황 ④ 부모·친구관계·동네주변 환경 ⑤ 일상생활 및 가치관 ⑥ 문제행동 피해·가해 경험 ⑦ 배경요인 등 총 7개 영역으로 대영역을 구성하였다. 4차년도 설문지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 2의 복교관련실태와 문 3의 학업중단실태의 세부문항들을 삭제하였고 문 3-4부터 3-8까지의 학업중단 시 지원 실태와 문 5의 보호관찰경험 문항을 전부 삭제하였고 문 28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을 묻는 문항을 삭제하였다. 구체적으로 복교 경험의 경우, 학교 복귀 이유, 복교 학교 유형, 종전 학교로 복교하지 않은 이유, 복교학교 유형 및 소재지, 복교 후 학교생활 만족을 삭제하였고, 학업중단 실태관련 문항에서는 재중단 경험에 대해서만 질문하였다. 문 3-4~3-8의 학업중단 시 지원실태 문항과 문 28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을 묻는 문항은 4차 년도에 신규로 추가된 문17 학업중단 후 필요한 도움을 묻는 문항과 유사하여 삭제하였다.

둘째, 3차년도 조사에서 학업중단까지의 경험을 질문했던 문항들은 4차년도 조사목적에 부합하도록 지난 조사(2015년 6월) 이후 현재까지로 시제를 수정하여 질문하였다.

셋째, 문헌연구, 연구진 회의 등을 통해 필요성이 도출된 변인에 대해 신규문항을 구성하여 4차년도 조사에 추가하였다. 학업중단 후 대학진학이유(문 43), 대학소재지 및 학교명(문 44-1), 대학 학과명(문 44-2), 대학 학제(문 44-3), 대학 설립유형(문 44-4), 대학 전공계열(문 44-5), 대학 학년(문 44-6), 대학 재학상태(문 44-7), 대학 휴학 이유(문 44-8), 대학 중퇴 이유(문 44-9), 직업훈련기간(문 45-2), 직업훈련을 통한 자격증취득여부(문 45-3), 직업훈련프로그램 도움정도(문 45-6), 직업훈련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문 45-7), 아르바이트 근무기간(문 6-1-2), 아르바이트 구직기간(문 6-1-3), 아르바이트 취업경로(문 6-1-4), 아르바이트 근로상 지위(문 6-1-5), 아르바이트 사업장의 직원 수(문 6-1-6), 4대보험 가입유무(문 6-1-9), 아르바이트 향후 전망(문 6-1-10), 직업훈련프로그램 참여의사(문 7), 직업훈련프로그램 참여 시 고려하는 사항(문 7-1), 적당한 훈련기간(문 7-2), 적절한 수당(문 7-3), 원하는 직업훈련프로그램(문 7-4), 직업훈련프로그램 비참여 이유(문 7-5), 군복무 예정일(문 14), 학업중단 후 도움이 필요했던 영역(문 17-1), 필요한 구체적인 도움(문 17-2), 도움을 받은 경험 여부(문 17-3), 현재 주거형태(문 28) 등 총 32문항이다.

넷째, 정성조사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연계 참여여부를 알기 위해 신규문항을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성조사 참여여부(추가 0),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인지여부(추가 1),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여부(추가 1-1),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 참여여부(추가 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가장 받고 싶은 서비스(추가 2-1),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미참여 이유(추가 2-2)를 추가하였다.

다섯째, 문 1의 보기 1번에 검정고시 합격 후 미진학자 포함을 추가하였고, 문 4-6-1과 문 47의 보기를 추가하였다. 문 4의 보기 중 자격증 및 취직시험(공무원 시험 등) 준비를 추가하였고, 문 16은 발문을 일부 수정하였다.

여섯째, 응답 시 오해가 있을 수 있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가능한 설문지 본문에 포함시켜 최대한 정확하고 일관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 조사도구의 구성

표 II - 4 1-4차년도 설문조사 영역 및 주요내용

대영역	세부 영역	조사내용	1차 문항번호		2차 문항번호		3차 문항번호		4차 문항 번호	출처	조사 연도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학업 중단 관련 실태	현재 신분상태	중단/복교상태	●	1	-	1	1	1	1	연구진 작성	4차 보류수정	
		출업자격 취득여부	●	-	-	1-1	1-1	1-1	1-1	2013년 교육통계연보 고등교육기관 구분 준용·수정	2,3,4차 계속	
		학사 일정	●	-	-	1-2	1-2	1-2	-		3차	
	복교 관련 실태	복교 경험	●	8	7	2	2	2	2	2	연구진 작성	1,2,3,4차 계속
		복교 학교 형태	●	-	-	2-1	2-1	2-1	2-1	2-1		1,2,3,4차 계속
		복교 시기	●	-	-	2-2	2-2	2-2	2-2	2-2	윤철경 외(2013) 문5-1 수정	2,3,4차 계속
		학교 복귀 이유	●	8-3	7-3	2-3	2-3	2-3	2-3	-	윤철경 외(2013) 문5-3 수정	
		복교 학교 유형	●	8-4	7-4	2-4	2-4	2-4	2-4	-		
		중전 학교로 복교하지 않은 이유	●	8-5	7-5	2-5	2-5	2-5	2-5	-		3차
	학업 중단 관련 실태	복교학교 유형 및 소재지	●	8-6	7-6	2-6	2-6	2-6	2-6	-	연구진 작성	
		복교 후 학교생활 만족	●	-	-	2-7	2-7	2-7	2-7	-		
		최초 학업중단 시점	●	8-1	7-1	-	-	-	-	-	윤철경 외(2013) 문5-1	1차
학업 중단 관련 실태	최초 중단 후 복교 소요기간	재중단 경험	●	-	-	3	3	3	3	연구진 작성	2,3,4차 계속	
		재중단 학교유형	●	-	-	3-1	3-1	3-1	3-1	-		
		학업중단 년월	●	3	2	3-2	3-2	3-2	3-2	-	윤철경 외(2010) 문6	3차
	학업중단 실태	학업중단 이유	●	4	3	3-3	3-3	3-3	3-3	-	윤철경 외(2010) 문8 수정	
		학업중단 시 학년	●	2,2-1	1,1-1	-	-	-	-	-	윤철경 외(2010) 문4-1 수정	
		학업중단 행정처리 형태	●	5	4	-	-	-	-	-	윤철경 외(2013) 문4 수정	1차
	학업중단 실태	학교성적수준	●	6	5	-	-	-	-	-	윤철경 외(2013) 문10 수정	
		학업중단 횟수	●	7	6	-	-	-	-	-	윤철경 외(2013) 문5	

	중동성	●	29-11~19	25-11~19	20-11~19	20-11~19	16-11~19	16-11~19	19-11~19	Grasmick 등(1993) 척도, 이희길(2006)	
	사회적 낙인감 ⁴⁾	●	-	-	31	31	27	27	31	배주미 외(2010) 문항 선정	2,3,4차 계속
	피해경험	●	41	36	33	33	29	29	32	이경상 외(2012) KCYPS 중1패널 3차년도 문23 수정	1,2,3,4차 계속
	문제행동 기해경험	●	42	37	34	34	30	30	33	최인재 외(2012) 문6 수정	
	경찰서 방문 여부	△	-	-	-	-	-	-	-	연구진 작성	3차
	경찰서 방문 횟수	△	-	-	-	-	-	31-1	-		
	경찰서 방문 당시 처분 유형	△	-	-	-	-	-	31-2	-		
	개입중독	●	30	26	21-1	21-1	17-1	17-1	20-1		최인재 외(2012) 문3 ⑤~⑩
	SNS 관련 ⁵⁾ 피해·기해	●	-	-	21-2	21-2	17-2	17-2	20-2	이창호 외(2012) 수정·보완	2,3,4차 계속
	스마트폰 중독 ⁶⁾	●	-	-	21-3	21-3	17-3	17-3	20-3	이창호 외(2013) 수정·보완	
	교서관계	●	16-1~3	15-1~3	-	-	-	-	-	최인재 외(2012) 문13 ④~⑥	
	친구관계	●	16-4~7	15-4~7	-	-	-	-	-	최인재 외(2012) 문13 ⑦~⑨	
	학습 부직응 (수업참여)	●	16-8~10	15-8~10	-	-	-	-	-	김성식 외(2008) 문36 ①~③ 수정·보완	1차
	훈육적 학교풍토	□	17-1~2	-	-	-	-	-	-	김성식 외(2008) 문10 ③, ④ 수정·보완	
	참여적 학교풍토	□	17-3~4	-	-	-	-	-	-	연구진 작성	
	학교규범 위반 경험	●	18-1~7	16-1~7	-	-	-	-	-	김성식 외(2008) 문9 ①②③⑥⑨ 수정·보완	
	부모애착 (부모의 정서적, 경제적 지원)	●	31-1~8	27-1~8	22-1~8	22-1~8	18-1~8	18-1~8	21-1~8	최인재 외(2012) 문10 ②~⑥, ⑩, ⑫, ⑭ 수정	
	부모의 방문	●	32-1~5	28-1~5	23-1~5	23-1~5	19-1~5	19-1~5	21-1~5	허모연(2000) 방문 선정·수정	1,2,3,4차 계속
	부모의 학대(신체적, 정서적 함대)	●	32-6~9	28-6~9	23-6~9	23-6~9	19-6~9	19-6~9	21-6~9	이경상 외(2012) KCYPS 중1패널 3차년도 문25 ⑤~⑧ 수정	

학업중단 이후 이혼 경험과 인식	친구 관계	친한 친구 수	●	33	29	24	24	20	20	23	이경상·유성렬(2007) 중2패널 5차년도 문37-1	4차 보기수정 1,2,3,4차 계속 3,4차 계속 2,3,4차 계속 3,4차 계속 4차 신규
		학업중단 후 사귀 친구 수	●	33-1	29-1	24-1	20-1	20-1	23-1	윤철경 외(2013) 문19		
		학업중단한 친구 수	●	33-2	29-2	24-2	20-2	20-2	23-2	연구진 작성		
		도래 예측	●	34-1~3	30-1~3	25-1~3	21-1~3	21-1~3	24-1~3	이경상 외(2012) KCYPs 중1패널 3차년도 문26 ④~⑥ 선정		
		친구의 비행성향	●	34-4~6	30-4~6	25-4~6	21-4~6	21-4~6	24-4~6	전영실신동준(2012) 문15-4, 15-5, 15-6		
		지역사회 사회통합 (유대와 통제)	●	35-1~4	31-1~4	26-1~4	22-1~4	22-1~4	25-1~4	김지선홍영오(2011)		
		지역사회 무질서 (물리적, 사회적)	●	35-5~8	31-5~8	26-5~8	22-5~8	22-5~8	25-5~8			
		지역사회 유익 환경	●	35-9~10	31-9~10	26-9~10	22-9~10	22-9~10	25-9~10	연구진 작성		
		중단 후 경험실태	●	19-1~9	17-1~9	8-1~11	4-1~11	4-1~11	4-1~13	윤철경 외(2013) 문17 수정		
		중단 후 경험실태(비행)	●	20-1~4	18-1~4	9-1~5	5-1~5	5-1~5	5-1~5	윤철경 외(2013) 문18 수정		
학업중단 이후 이혼 경험과 인식	중단 이후 경험	대안학교 소재지	●	-	-	4-1	4-1	4-1	4-1	3,4차 계속		
		대안학교 유형	●	-	-	4-1-1	4-1-1	4-1-1	4-1-1			
		검정고시 공부 방법	●	-	8-1	8-1	4-2	4-2	4-2	연구진 작성		
		검정고시 응시 경험	●	-	-	4-2-1	4-2-1	4-2-1	4-2-1			
		검정고시 합격 여부	●	-	-	4-2-2	4-2-2	4-2-2	4-2-2			
		대학전학이유	●	-	-	4-3	4-3	4-3	4-3			
		대학소재지 및 학교명	●	-	-	4-4-1	4-4-1	4-4-1	4-4-1			
		대학 학과명	●	-	-	4-4-2	4-4-2	4-4-2	4-4-2			

								4-4-3	2015년 교육통계연보 대학 구분 준용·수정	
대학 학제	●	-						4-4-4	황여정 외(2015) 선문5 수정보완	
대학 설립유형	●	-						4-4-5	2015년 교육통계연보 대학 구분 준용·수정	
대학 전공계열	●	-						4-4-6	황여정 외(2015) 선문5 수정보완	
대학 학년	●	-						4-4-7	인선영 외(2011) Q26 수정보완	
대학 재학상태	●	-						4-4-8	인선영 외(2011) Q23 수정보완	
대학 휴학 이유	●	-						4-4-9	연구진 작성	3,4차 계속
대학 중퇴 이유	●	-								4차 신규
직업훈련프로그램 유형	●	-	4-3	4-3						
직업훈련프로그램 교육내용	●	-	4-3-1	4-3-1						
직업훈련기간	●	-								
직업훈련을 통한 자격증취득여부	●	-								
직업훈련프로그램 만족도	●	-	4-3-2	4-3-2						
직업훈련프로그램 불만족 이유	●	-	4-3-3	4-3-3						
직업훈련프로그램 도움정도	●	-								
프로그램이 도움 되지 않는 이유	●	-								
아르바이트 중단 횟수	●	-	4-4	4-4						
아르바이트 중단 이유	●	-	4-4-1	4-4-1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이유	●	-	4-5	4-5						
기출 시 거주 장소	●	-	5-1	5-1						

보호관찰 경험	보호관찰관의 변경여부	●	-	9-1	9-1	9-1	5-2	5-2	-	이경상·유성렬(2007) 중2패널 5차년도 문25-1 ㉓, ㉔번 2차: 연구진 작성 4차: 김지경 외(2013) 취업자용 설문지 문18-7 수정	1,2,3,4차 계속		
	보호관찰관의 변경횟수	●	-	9-2	9-2	9-2	5-3	5-3	-				
	보호관찰관과의 관계	●	-	38	9-3	9-3	5-4	5-4	-				
	지원프로그램의 0응답률과 민원도	●	-	9-4	9-4	9-4	5-5	5-5	-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	-	9-5	9-5	9-5	-	-	-				
	아르바이트 경험	●	21	19	10	10	6	6	6				
	아르바이트 근로상 지위	●	-	10-1	10-1	10-1	-	-	6-1-5				
	아르바이트 업종	●	21-1	19-1	10-2	10-2	6-1	6-1	6-1-1				
	아르바이트 시간	●	21-2	19-2	10-3	10-3	6-2	6-2	6-1-7				
	아르바이트 근무기간	●	-	-	-	-	-	-	6-1-2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구직기간	●	-	-	-	-	-	-	6-1-3	김지경 외(2013) 취업자용 설문지 문21-1~21-11 수정·보완	4차 신규		
	아르바이트 취업경로	●	-	-	-	-	-	-	6-1-4				
	아르바이트 사업장의 직원 수	●	-	-	-	-	-	-	6-1-6				
	아르바이트 소득	●	-	-	-	-	-	-	6-1-8				
	4대보험 가입유무	●	-	-	-	-	-	-	6-1-9				
	아르바이트 향후 전망	●	-	-	-	-	-	-	6-1-10				
	중단이후 성인 멘토 (만난 어른 유무, 만난 시점)	●	22	20	11	11	7	7	16				
	직업훈련프로그램 참여의사	●	-	-	-	-	-	-	7				
	직업훈련 프로그램	●	-	-	-	-	-	-	-			연구진 작성	4차 신규

프로그램 참여시 고려하는 사항	●	-	7-1	연구진 작성	오은진 외(2008) 문 18-2-1 수정·보완	2,3,4차 계속 3,4차 계속
	●	-	7-2			
	●	-	7-3			
	●	-	7-4			
	●	-	7-5			
동아리 인터넷 카페 참여	●	12,12-12	12,12-12	8,8-1,2	8,8-1,2	8,8-1,2
	●	-	-	8-3	8-3	8-3
	●	23	21	13	9	9
	●	-	-	14	10	10
	●	24	22	15	11	11
	●	25	-	16	12	12
	●	26	-	17	13	13
	●	-	-	32	28	28
	●	27-1)~6)	23-1)~6)	18	14	14
	●	-	-	-	-	-
진로 계획	●	24	22	15	11	11
	●	25	-	16	12	12
	●	26	-	17	13	13
	●	-	-	32	28	28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	●	27-1)~6)	23-1)~6)	18	14	14
	●	-	-	-	-	-
	●	-	-	-	-	-
학업중단 후 필요한 도움	●	-	-	-	-	-
	●	-	-	-	-	-
	●	-	-	-	-	-

일상 생활 및 기차관	생활시간	수면, 학습 및 일, 여가 시간	●	36	32	27	27	23	23	26	이경상 외(2012) KCYPs 중1패널 3차년도 문1 수정, 최인재 외(2012) 문33 참조	1,2,3,4차 계속
		취침시간	●	-	-	27-1	23-1	23-1	26-1	23-4차 계속	이종원 외(2013) KCYPs 수정·보완	
	주기형태	식사 습관, 인스턴트 식품노출	●	37	33	28	24	24	27	1,2,3,4차 계속	최인재 외(2012) 문5, 6, 7, 11 수정	
		현재 주기형태	●	-	-	-	-	-	28	4차 신규	김지경 외(2013) 취업자용 설문지 문25, 26 수정·보완	
기차관	기차관	학력에 대한 생각	●	38	-	29	25	25	29	1,2,3,4차 계속	이경상·유성렬(2007) KCYPs 중2 패널 5차년도 문12 ⑤, ⑥, ⑩ 선정 수정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	●	39	34	30	26	26	30	1,2,3,4차 계속	전영실신동준(2012) 문2 수정·보완	
	최초무단결석경험	무단 결석 여부	●	15	14	-	-	-	-	1차	연구진 작성	
		최초 결석 시작일	●	15-1	14-1	-	-	-	-	-	-	
배경 문항	배경 문항	최초 결석 이유	●	15-2	14-2	-	-	-	-	-	-	
		생애사건 경험	●	40-1)~20)	35-1)~20)	36	36	-	-	1,2차	이경상·백해정(2006) 중1패널 3차년도 em 수정 -20번으로 '이사' 등으로 전환, 신규 추가	
	정성조사 문항	가족구성, 이사 횟수, 가정경제수준	●	43,47,48	39,43,44	35,37,38	31~33	32~34	34~36	1,2,3,4차 계속	윤철경 외(2013) A형 문43~48 수정	
		부모 결혼상태, 다문화가정 여부, 부모학력, 건강상태	●	44~46	40~42	-	-	-	-	1차	윤철경 외(2013) A형 문43~48 수정	
정성조사 문항	정성조사 참여여부	●	-	-	39	34	35	37	2,3,4차 계속	이종원 외(2013) KCYPs 수정·보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참여	●	-	-	40	40	36	38	4차 신규	연구진 작성		

지원센터 참여 여부	여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여부	●	-	추가 1-1	하정화 외(2012) 06. 백혜정·방은령(2009) 문 4-3 수정·보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 참여여부	●	-	추가 2	
		기장 받고 싶은 서비스	●	-	추가 2-1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미참여 이유	●	-	추가 2-2	
보호 관찰 별지	추가범조와 추가 처분	추가여외 혹은 추가범외	△	-	별지1	신규
		추가처분	△	-	별지2	
	보호관찰에 대한 태도	부기처분	△	-	별지3	전영실 외(2013) B형 문항 별지 문4 수정
		보호관찰 이행의 성실성	△	-	별지4	신규

- 3) ● : A, B 공통(4차년도에는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함), □ : A형 설문(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 : B형 설문(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 4) 사회적 낙인 척도는 Harvey(2001)가 개발한 Stigmatization Scale을 주금옥(2002)이 번안한 10개 문항 그대로 사용함. 배주미, 정익중, 김범구, 김영희(2010). 취약 청소년 지원지원 모형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5) SNS 피해·가해 경험은 이창호 등(2012)이 사용한 소셜미디어 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피해, 가해 경험 유무 13개 문항 중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적절한 10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함. 이창호, 성윤숙, 정낙원(2012).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6) 스마트폰 중독 척도는 한국정보진흥원(2012)의 스마트폰 중독척도 15문항 중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적절한 문항 8개 문항을 선정하여 그대로 사용함. 이창호, 김영희, 장상아(2013).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7) 진로장애척도는 김은영(2000)이 대학생에 대상으로 개발한 것을 주금옥(2002)이 청소년용으로 수정, 개발한 척도로서 원래 9개 문항 중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로정보 부족', '미래 불안', '경제적 어려움의 3개 영역 13개 문항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함. 배주미, 정익중, 김범구, 김영희(2010). 취약 청소년 지원지원 모형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3) 자료수집과정

자료수집과정은 조사 준비, 실사, 자료검증 및 처리, 패널 관리 단계로 이루어졌다.

조사준비는 4월 12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루어졌다. 먼저 본 패널 설문조사를 위해 4차 조사 대상자를 확정하고, 설문지 개발과 예비조사를 진행하였다. 더불어 조사 홍보에 필요한 팸플릿, 홈페이지 팝업창, 조사 안내문, 조사 지침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패널 정보 업데이트(패널 관리) 및 면접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패널에 대한 실사는 5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되었다. 이후 9월 20일까지 설문지 리뷰 및 검증, 자료입력과 데이터 클리닝이 진행되었다.

4) 응답자의 이행경로 분류 및 인구학적 특성⁸⁾

(1) 이행경로 분류

① 이행경로 분류 방법

2016년에 조사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유형분류는 윤철경 외(2015)의 연구방법을 준용하였다. 우선 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각 월별 경험사건을 조사한 항목들을 유목화한 후 시계열적 사건배열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군집화 하였다.

2016년에 조사한 월별 경험사건은 총 18개의 경험들이다. 이들 경험사건은 ①복학하여 중고등학교에 다님(휴학/방학 포함), ②대안학교에 다님(인가/비인가 모두 포함), ③검정고시 공부를 함(검정고시 학원 등), ④대학입시 공부를 함(대입학원 등), ⑤대학에 다님(휴학/방학 포함), ⑥직업기술을 배움(직업학교나 학원,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함), ⑦자격증 및 취직시험(공무원 시험 등) 준비, ⑧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⑨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⑩취미나 동아리활동 등에 참여함, ⑪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음, ⑫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함, ⑬군 복무, ⑭가출하여 친구집이나 PC방 같은 곳에 지내거나 가출팸과 함께 생활함, ⑮보호시설(자립생활관, 청소년 쉼터 등)에서 지냄, ⑯보호관찰을 받음(보호관찰소), ⑰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함, ⑱소년원 학교에서 생활함이다.

8) 이 부분은 김강호(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가 집필하였음.

이 중 ①~⑤의 경험사건은 학업관련 경험들이며, ⑥~⑧의 경험사건은 직업과 관련한 경험이다. ⑨의 경우는 무업, 그리고 ⑭~⑱은 비행관련 경험들이다. 그리고 무정형(혹은 혼재형)으로 볼 수 있는 경험들은 ⑩~⑬에 해당하는 경험사건들이다.

한편, 각 월별 경험들은 한 가지의 사건만이 발생한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 형태의 경험들을 동시에 겪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학업관련 경험사건과 직업관련 경험사건을 동시에 겪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각 세부 경험사건들의 유목화한 후에도 재분류 작업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윤철경 외(2013)의 유형분류 방식에 따랐다(<표 II-5> 참조). 이렇게 분류된 경험유형들을 바탕으로 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의 조사된 18개 경험사건 항목은 총 다섯 개(학업, 직업, 무업, 비행, 무정(혼재))의 경험배열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

표 II-5 경험사건의 분류

경험 유형	해당 경험	
① 학업	학업 학업+니트	학업+직업
② 직업	직업	직업+니트
③ 무업	니트	
④ 비행	비행 비행+다른 두 개 유형	비행+다른 한 개 유형 비행+다른 세 개 유형
⑤ 무정(혼재)	4개 유형 모두 해당 없음* 학업+직업+니트	

*주: 4개 유형에 모두 해당이 없는 경우는 학업, 직업, 무업, 비행 경험이 없이 ⑩취미나 동아리활동 등에 참여함, ⑪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음, ⑫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함, ⑬군 복무 중 최소 1개 이상의 경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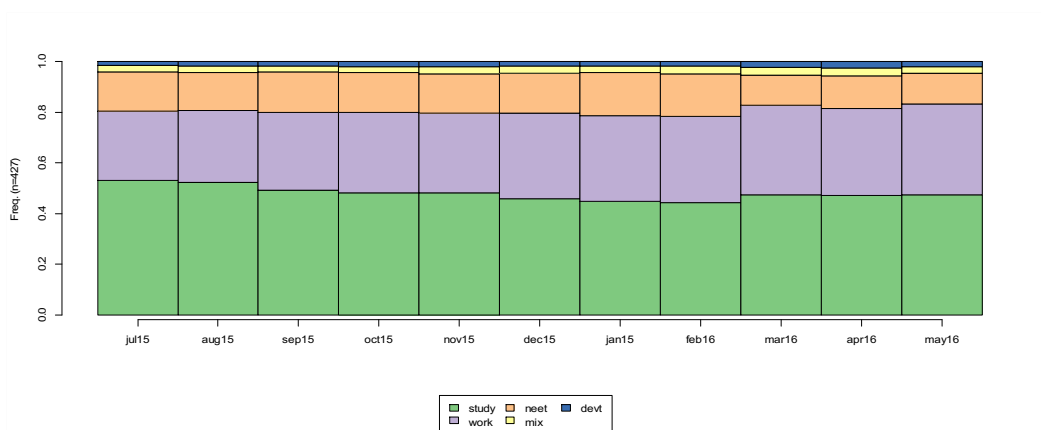
학업중단 청소년이 겪은 1년간의 경험들의 배열은 시퀀스 분석(sequences analysis)을 활용하여 개별 표본들간의 경험사건배열 구성의 유사성으로 집단을 분류하는 방식을 활용하였고, 이때 집단분류 방식은 비계층적 군집분석 방법인 PAM(Partitioning Around Medoids) 알고리즘을 활용하였다.9)

9) 시퀀스 분석과 군집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윤철경 외(2015: 180-181)의 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

②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험사건 분포와 적정군집 개수 결정

시퀀스 분석은 각 사례(표본)들의 사건 순서와 위치를 기준으로 배열 구조의 유사성을 지수화한 후 그 값을 활용한 군집분석을 통해 군집을 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사전에 군집의 개수를 결정해야 하는데, 여기서 활용한 알고리즘에서는 적정군집의 개수를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여러 지표들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2016년 조사에 응답한 427명의 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의 경험사건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체로 학업관련 경험이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는 직업관련 경험이 많았으며,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무업상태의 경험도 일정부분 나타났다. 반면, 무정(혼재) 형태나 비행경험 사건들은 매우 적은 비율만을 보이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최근 1년간의 경험들의 분포가 시간 흐름에 따라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월별 경험들의 변화는 사례별로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서로 비슷한 형태의 경험배열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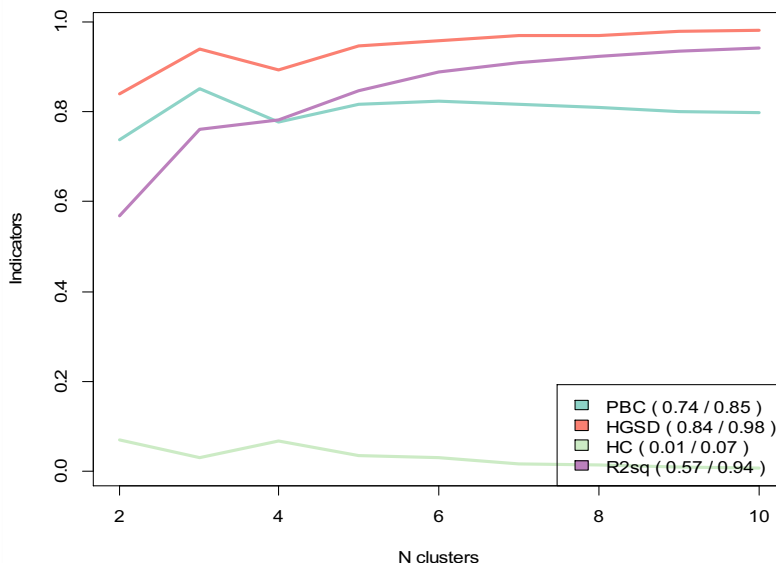
【그림 II-2】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험사건 분포(N=427)

*주: 그림 하단의 음영색별 유형구분은 각각 study(학업), work(직업), neet(무업), mix[무정(혼재)], devt(비행)을 의미함.

각 표본들이 지닌 경험사건 배열의 유사성 값을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하기 위해 우선 적정 군집 개수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적정 군집 수를 결정하기 위한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4개의 지표를 사용하였다. 먼저 PBC(Point Biserial Correlation)는 거리(distance)를 재계산하는 집단분류의 수용량(capacity of the clustering)을 측정한 값으로

-1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며, 최댓값을 가지는 군집수가 적정 군집수가 된다. HGSD(Hubert's Somers' D)는 유사거리 내에 객체들을 묶기 위해 사용되는 거리를 크기순으로 재계산하기 위한 집단분류의 수용량을 측정한 값으로 이 역시 -1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며, 최댓값을 가지는 군집수가 적정군집수가 된다. HC(Hubert's C)는 집단의 수와 거리값에 대해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적의 집단분류와 자료에서 얻어진 집단분류간의 차이(gap)를 나타내는 값으로 0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최솟값이 적정 군집수가 된다. 마지막으로 R2sq(Pseudo R2)는 군집해(clustering solution)에 의해 설명되는 불일치(discrepancy)의 비율을 의미하며, 이때 거리값(distance)의 제곱을 사용한다. 이 역시 0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가지나, 최댓값이 적정 군집수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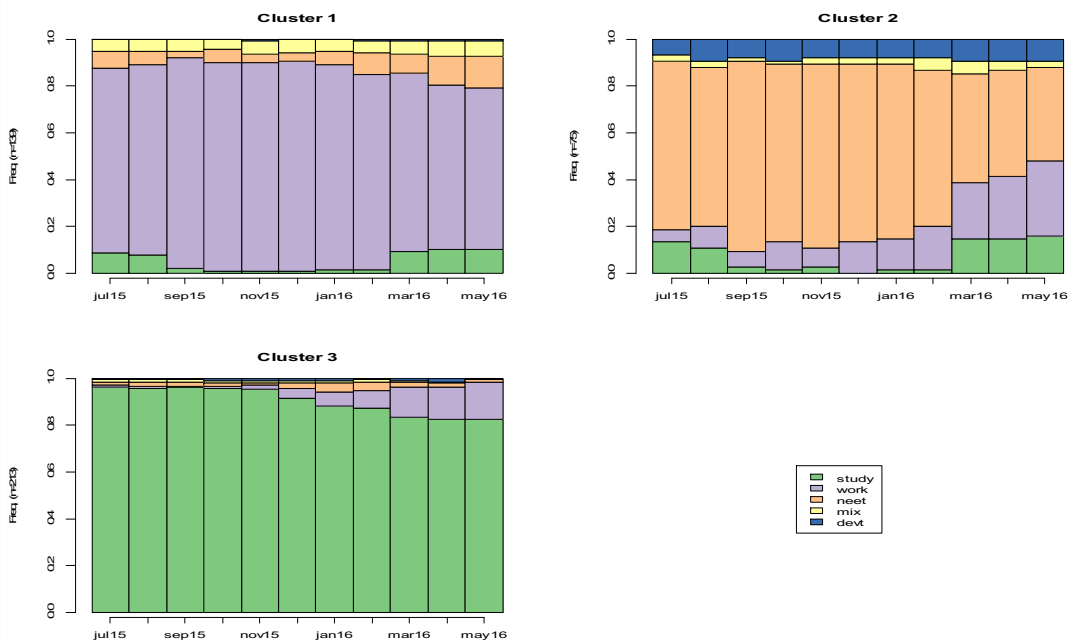
적정 군집 수 판단에 필요한 군집수의 범위를 2부터 10개까지 지정한 후 위의 4가지 지표값을 산출한 결과 적정 군집수를 판단하였다. 분석결과 군집수가 3개일 때 각 지표값이 적절한 값을 가지고 있었다. 군집 수를 5개 혹은 6개로 설정할 수도 있으나, 군집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각 집단에 분류되는 사례 수가 지나치게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정 군집수를 3개로 결정하였다.



【그림 II-3】 군집 개수에 따른 주요 지표값의 변화

③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험사건 배열과 유형 분류

3개 집단에 속한 표본들의 월별 경험사건 비율분포를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집단(Cluster 1)의 경우 일부 구간에서 학업, 무업, 무정(혼재)형의 경험들이 일부 관측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직업과 관련 경험들의 분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 집단(Cluster 2)의 경우에는 최근에 직업 혹은 학업 관련 경험들의 비중이 많아지는 추이를 보이나 대체로 무업형의 경험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 집단(Cluster 3)의 경우에는 학업 관련 경험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 일부 직업 관련 경험들도 나타나고 있는 분포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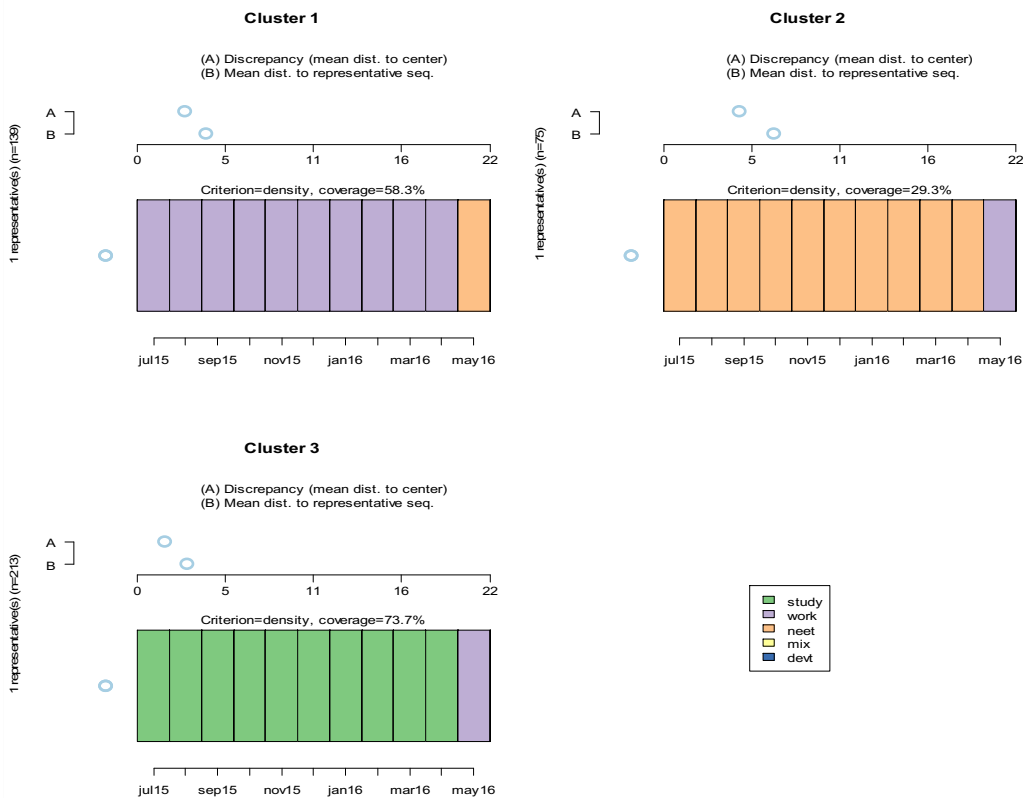


【그림 II-4】 군집별 경험사건 분포

3개 집단에 속한 개별 사례들 중에서 해당 집단의 경험사건 배열의 구조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한 결과 첫 번째 집단의 경우 2015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직업 관련 경험을 하였다가 5월에 무업형 경험이 나타난 경우였다. 두 번째 집단의 경우에는 반대로 무업형의 경험을 주로 해오다가 최근에 직업 관련 경험을 겪은 사례였다. 마지막 집단에서는 학업 관련 경험을 주로 하다가 최근에 직업형 경험을 잠깐 한 사례였다.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경험사건 배열은 여러 개가 제시되지만, 조사된 표본에서는 각 집단별로

경험사건배열의 구조가 대체로 단순한 구조를 띠는 것으로 보이며, 세 집단 모두의 대표경험사건 배열에서 최근(2016년 5월)에 다른 경험으로 전환된 특징을 보이지만, 이후의 경험들에 대해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배열 상 대부분의 경험을 한 사건을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따라서 첫 번째 집단은 ‘직업형’, 두 번째 집단은 ‘무업형’, 마지막 집단은 ‘학업형’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집단별로 ‘직업형’은 139명(32.6%), ‘무업형’은 75명(17.6%), ‘학업형’은 213명(49.9%)으로 ‘학업형’으로 분류된 학업중단 청소년의 수가 많았다.



[그림 II-5] 군집별 대표 경험사건 배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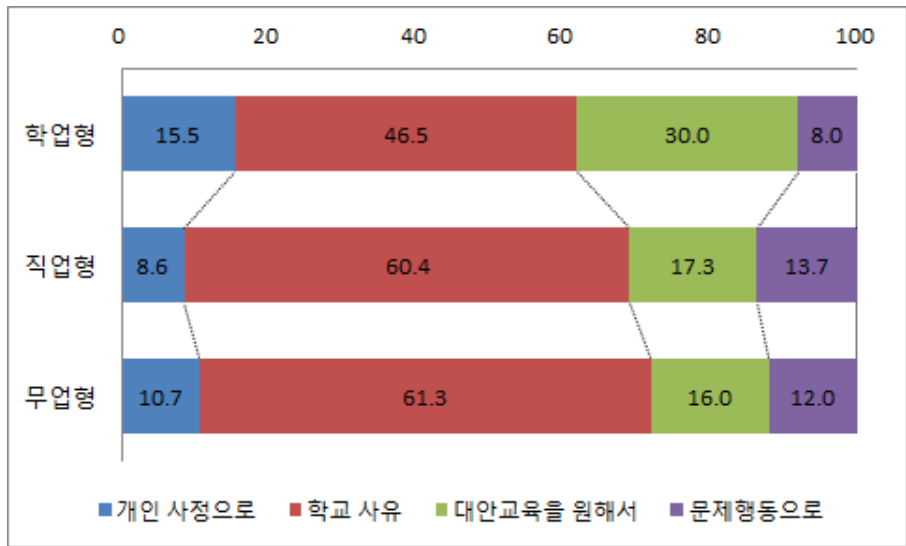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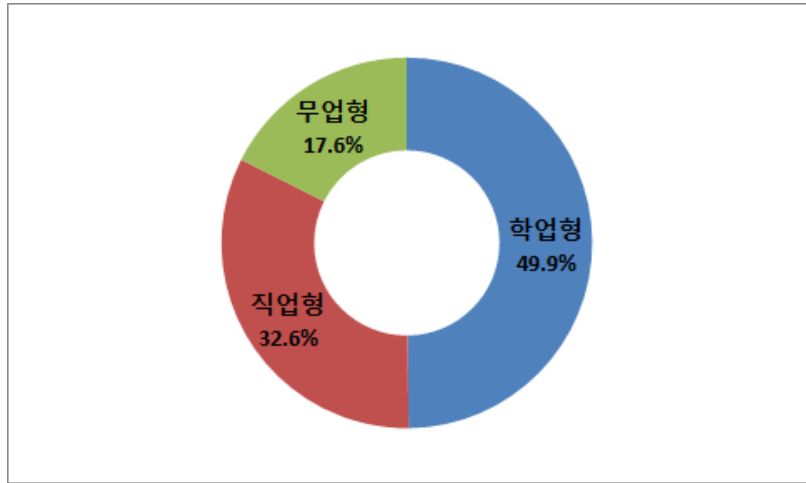
(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¹⁰⁾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II-6>과 【그림 II-6】과 같다.

먼저 성별을 보면, 남성이 238명(55.7%), 여성이 189명(44.3%)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1세가 167명(39.1%)으로 가장 많았고, 20세 111명(26.0%), 22세 이상 91명(21.3%), 고등학교 학령기(17~19세) 58명(13.6%) 순으로 나타나 조사 대상의 약 80% 이상이 2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연령은 23세(7명, 1.5%)였다. 가족구성의 경우 양부모가정이 50.8%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한부모가정은 28.3%, 부모 모두 안 계신 가정은 20.8%로 나타났다. 가정경제 수준은 하가 42.6%로 가장 많았으며 중 35.6%, 상 21.8% 순이었다. 학업중단 시점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시기에 학교를 그만둔 비율이 75.6%, 초등 혹은 중학교 시기는 24.4%로 나타나 대부분의 청소년이 고등학교 때 학업을 중단했음을 알 수 있다. 학업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 사유가 229명(53.6%)으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대안교육을 위해서 100명(23.4%), 개인사정 53명(12.4%), 문제행동 45명(10.5%)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행경로를 살펴보면 학업형이 213명(49.9%), 직업형 139명(32.6%), 무업형 75명(17.6%)으로 나타나 학업형이 절반 정도가 되었다. 이행경로와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차이분석 결과를 보면, 연령대의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학업형의 비율이 높았으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직업형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무업형은 20세가 23.4%로 가장 많았으며 21세가 16.8%, 고등학교 학령 15.5%, 22세 이상이 13.2% 순이었다. 가정경제수준을 보면 경제수준이 높다고 답할수록 학업형의 비율이 높았고, 낮을수록 직업형과 무업형의 비율이 높았다. 학업중단 시점에 따른 차이를 보면, 고등학교 때보다 초중학교 때 그만둘수록 학업형 비율이 높았고 고등학교때 그만둔 청소년일수록 직업형 비율이 높았다. 학업중단 사유를 보면 대안교육을 원했거나 개인적 사유로 그만둔 청소년들은 학업형 비율이 높았으며, 문제행동으로 인해 그만둔 경우에는 직업형 비율이 가장 높았다. 무업형 청소년들은 학교 사유로 그만 둔 청소년들이나 문제행동으로 그만 둔 청소년들 중에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을 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직업형과 무업형의 비율이 높았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가족구성의 경우에는 부모가 모두 안 계신 경우 무업형의 비율이 높았고 양부모 가정은 학업형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10) 이 부분은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그림 II-6】 이행경로 분포 및 학업중단사유별 이행경로 분포¹¹⁾

11) 학업중단 사유의 분류는 다음과 같음(윤철경 외, 2013: 127)

- 개인사정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가정불화 때문에,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 학교 사유: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친구들이 싫어서, 학교의 규칙이 엄해서, 학교를 그만둔 친구 따라 놀고 싶어서, 선생님이 싫어서
- 대안교육을 원해서: 검정고시를 하려고,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
- 문제행동으로: 학교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비행으로 보호처분(혹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서

표 II-6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χ^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체		427	100.0	213	49.9	139	32.6	75	17.6	-
성	남자	238	55.7	109	45.8	81	34.0	48	20.2	4.24 (df=2)
	여자	139	44.3	104	55.0	58	30.7	27	14.3	
연령	고등학교 학령(17~19세)	58	13.6	41	70.7	8	13.8	9	15.5	24.59*** (df=6)
	20세	111	26.0	56	50.5	29	26.1	26	23.4	
	21세	167	39.1	80	47.9	59	35.3	28	16.8	
	22세 이상	91	21.3	36	39.6	43	47.3	12	13.2	
가족구성	양부모 가정	217	50.8	121	55.8	62	28.6	34	15.7	0.17 (df=4)
	한부모 가정	121	28.3	55	45.5	43	35.5	23	19.0	
	부모 모두 안계심	89	20.8	37	41.6	34	38.2	18	20.2	
가정경제 수준	상	93	21.8	56	60.2	17	18.3	20	21.5	11.18* (df=4)
	중	152	35.6	73	48.0	54	35.5	25	16.4	
	하	182	42.6	84	46.2	68	37.4	30	16.5	
학업중단 시점	초중학교때	104	24.4	66	63.5	21	20.2	17	16.3	11.65** (df=2)
	고등학교때	323	75.6	147	45.5	118	36.5	58	18.0	
학업중단 사유	개인 사정으로	53	12.4	33	62.3	12	22.6	8	15.1	18.24** (df=6)
	학교 사유	229	53.6	99	43.2	84	36.7	46	20.1	
	대안교육을 원해서	100	23.4	64	64.0	24	24.0	12	12.0	
	문제행동으로	45	10.5	17	37.8	19	42.2	9	20.2	

* $\alpha.05$, ** $\alpha.01$, *** $\alpha.001$

2. 이행경로별 기초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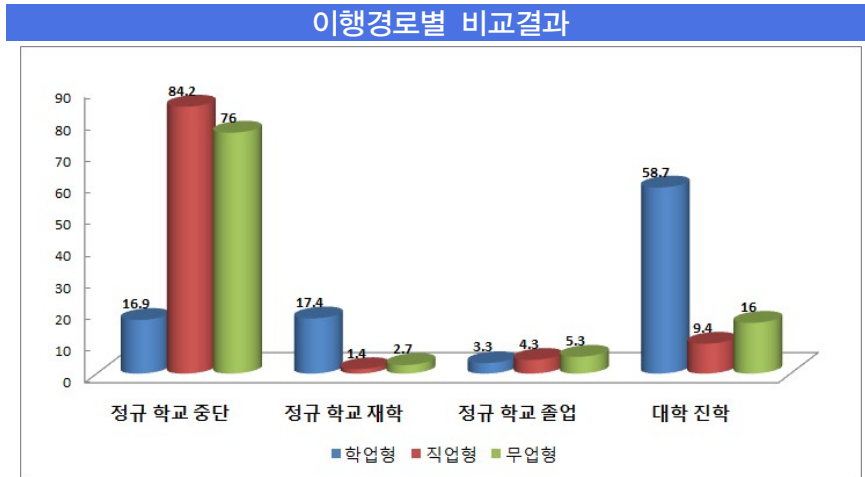
1) 이행경로별 조사결과

(1) 학업중단 및 복학현황

문 1. 중단/복교상태

중단/복교상태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9.2%가 '정규 학교를 그만둔 상태'라고 응답하였으며, 35.1%가 '대학에 진학한 상태'라고 응답함

- 학업형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대학에 진학한 비율이 58.7%로 가장 높았으며, 정규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비율도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았다. 직업형과 무업형은 중고등학교를 중단한 비율이 84.2%, 76.0%로 매우 높았다.



【그림 II-7】 중단/복교상태(단위: %)

표 II-7 중단/복교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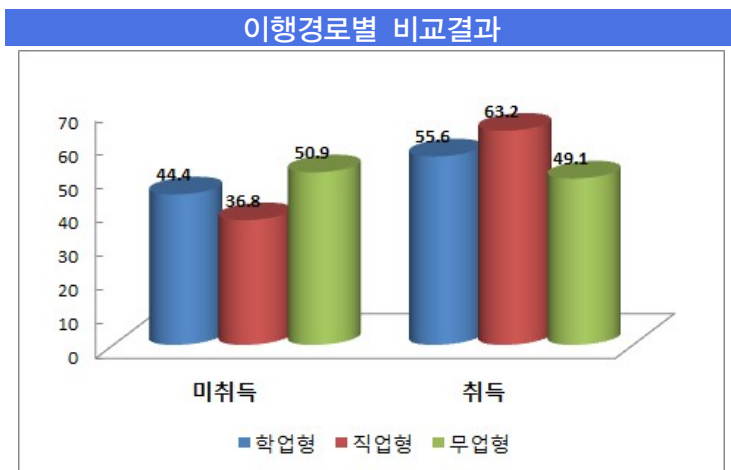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	210	49.2	36	16.9	117	84.2	57	76.0
② 정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상태	41	9.6	37	17.4	2	1.4	2	2.7
③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	17	4.0	7	3.3	6	4.3	4	5.3
④ 대학에 진학한 상태	150	35.1	125	58.7	13	9.4	12	16.0
⑤ 기타	9	2.1	8	3.8	1	0.7	0	0.0
계	427	100.0	213	100.0	139	100.0	75	100.0

문 1-1. 졸업자격 취득여부¹²⁾

정규 중·고등학교 중단자 중 고등학교 졸업자격 취득자는 58.1% 였으며 미 취득자는 41.9% 였음.

○ 현재 정규 중고등학교 중단 상태인 학교 밖 청소년 중 졸업자격 취득비율은 직업형, 학업형은 무업형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형 학교밖 청소년 중에는 63.2%가 검정고시로 고졸 자격을 취득하였다.



【그림 II-8】 졸업자격 취득 여부(단위: %)

표 II-8 졸업자격 취득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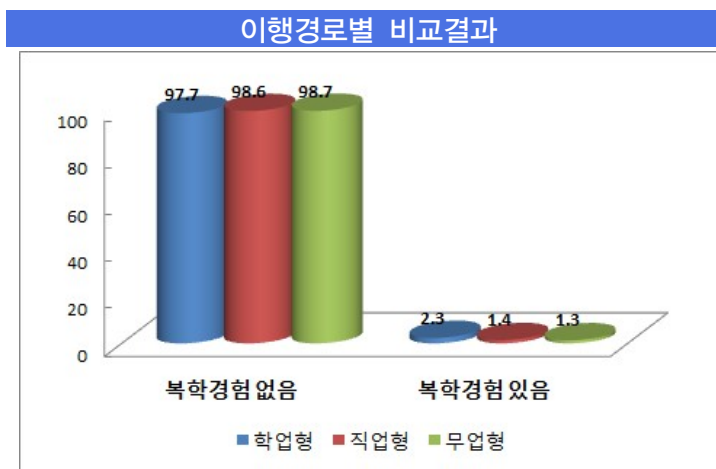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않음	88	41.9	16	44.4	43	36.8	29	50.9
②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함	122	58.1	20	55.6	74	63.2	28	49.1
계	210	100.0	36	100.0	117	100.0	57	100.0

12) 문 1-1은 문 1의 ①번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에 응답한 경우(N=210)만 응답한 결과임.

문 2. 복학 경험

지난 1년간 중·고등학교 복학 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1.9%가 '복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모든 유형에 있어 '복학 경험이 없음'에 응답한 비율이 대부분이었으며 8명(1.9%)만이 복학 경험이 있었다. '복학 경험이 있음'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학업형(2.3%)이었으며 직업형(1.4%), 무업형(1.3%) 순으로 높았다.



【그림 II-9】 복교 경험(단위: %)

표 II-9

복교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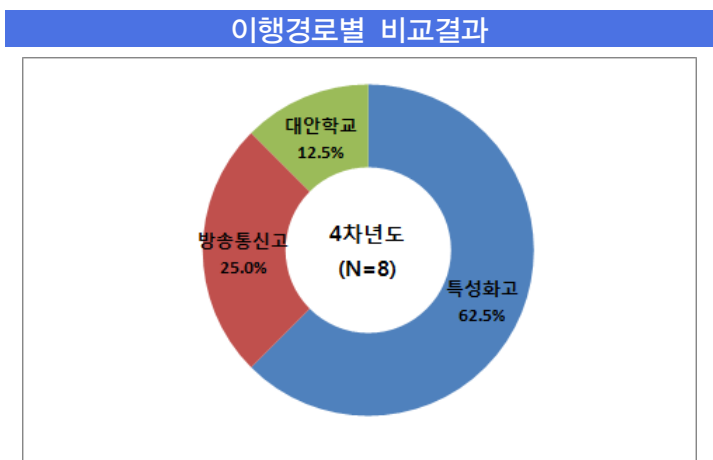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복학 경험 없음	419	98.1	208	97.7	137	98.6	74	98.7
② 복학 경험 있음	8	1.9	5	2.3	2	1.4	1	1.3
계	427	100.0	213	100.0	139	100.0	75	100.0

문 2-1. 복학한 학교 형태¹³⁾

복학한 학교 형태는 '특성화고(5명)'가 가장 많았으며,
'방송통신고(2명)', '대안학교(1명)' 순으로 나타남

- 복학한 학교 형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총 8명 중 5명(62.5%)이 특성화고로 응답했으며 2명(25.0%)은 방송통신고, 1명(12.5%)은 대안학교로 응답했다. 학업형은 특성화고, 방통고, 대안학교로, 직업형은 특성화고, 방통고로, 무업형은 특성화고로 복학한 경우가 있었다.



【그림 II-10】 복학한 학교 형태(단위: %)

표 II-10 복학한 학교 형태 (단위: 명, %)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중학교	0	0.0	0	0.0	0	0.0	0	0.0
② 일반고	0	0.0	0	0.0	0	0.0	0	0.0
③ 특성화고	5	62.5	3	60.0	1	50.0	1	100.0
④ 자율고	0	0.0	0	0.0	0	0.0	0	0.0
⑤ 특목고	0	0.0	0	0.0	0	0.0	0	0.0
⑥ 방통중	0	0.0	0	0.0	0	0.0	0	0.0
⑦ 방통고	2	25.0	1	20.0	1	50.0	0	0.0
⑧ 대안학교	1	12.5	1	20.0	0	0.0	0	0.0
⑨ 기타	0	0.0	0	0.0	0	0.0	0	0.0
계	8	100.0	5	100.0	2	100.0	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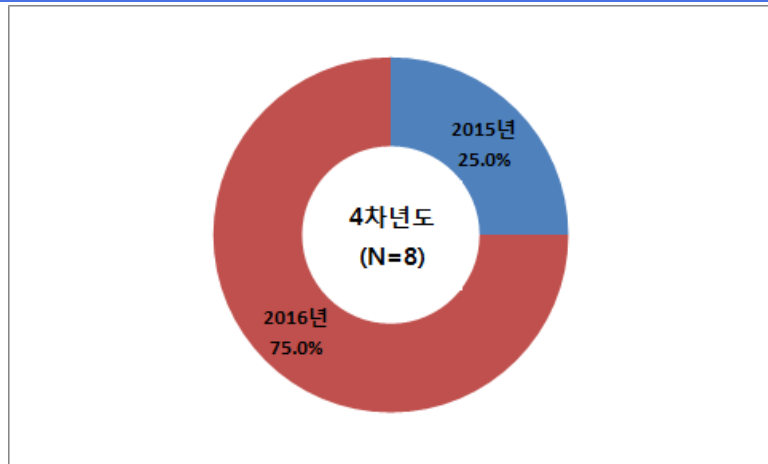
13) 문 2-1~2-2는 문 2의 ②번 '복학한 경험이 있다'에 응답한 경우(N=8)에만 응답한 결과임.

문 2-2. 복학 시기

복학 시기는 '2016년'이 6명, '2015년'이 2명으로 나타남

- 복학한 시기는 2016년이 6명(75.0%), 2015년이 2명(25.0%)으로 대부분 2016년도에 복학하였고 학업형 중에는 2015년도에 복학한 청소년이 있었다.

이행경로별 비교결과



【그림 II-11】 복학 시기(단위: %)

표 II-11 복학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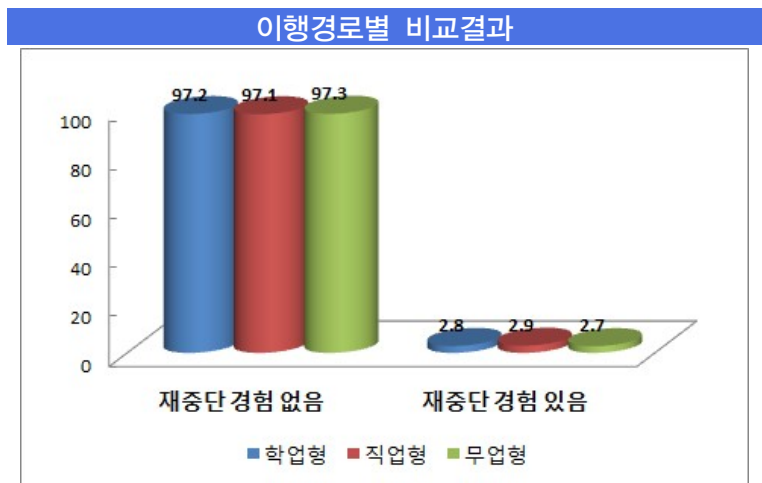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2015년	2	25.0	2	40.0	0	0.0	0	0.0
2016년	6	75.0	3	60.0	2	100.0	1	100.0
계	8	100.0	5	100.0	2	100.0	1	100.0

문 3. 재중단 경험

**재중단 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8%가 '중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지난 조사 이후(2015년 6월) 이후 정규 중·고등학교를 중단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학업형의 2.8%, 직업형의 2.9%, 무업형의 2.7%가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2】 재중단 경험(단위: %)

표 II-12 재중단 경험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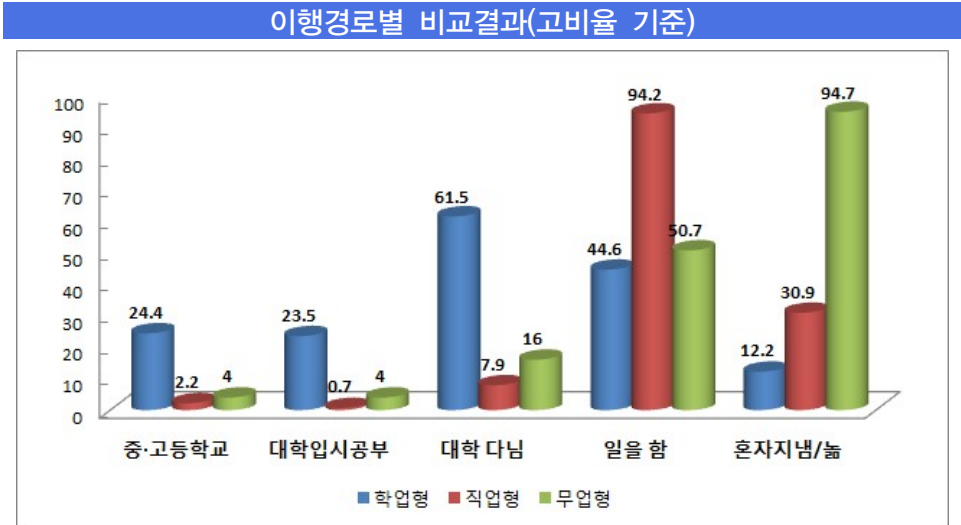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재중단 경험 없음	415	97.2	207	97.2	135	97.1	73	97.3
② 재중단 경험 있음	12	2.8	6	2.8	4	2.9	2	2.7
계	427	100.0	213	100.0	139	100.0	75	100.0

(2) 학업중단 후 생활 경험과 인식

문 4. 중단 후 경험실태¹⁴⁾

중단 후 경험실태에 대해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61.8%)’이 가장 많았고, ‘대학에 다님(36.1%)’,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놀(3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업형 청소년들의 가장 중요한 학업형태는 대학 진학(61.5%),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24.4%)이거나 대학입시공부(23.5%) 순이며 검정고시 공부나 대안학교 비율은 극히 적었다. 직업형 청소년들의 주요 직업 경험은 ‘취업· 아르바이트로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 경험(94.2%)’이며 자격증 및 취직시험 경험과 직업기술을 배우는 경험은 10% 수준으로 매우 적었다. 무업형 청소년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노는 것(94.7%)’외 기타 경험이 ‘취업· 아르바이트로 하루 8시간 이상 일한 경험(50.7%)’, ‘대학에 다닌 경험(16.0%)’, ‘검정고시를 한 경험(16.0%)’, ‘직업기술을 배운 경험(14.7%)’ 순이다. 여가활동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경험은 직업형 청소년들 30.9%, 학업형 청소년들은 12.2%였으며 ‘취미나 동아리 활동’ 경험은 학업형(12.2%), 직업형(6.5%), 무업형(4.0%) 순이었다.



【그림 II-13】 중단 후 경험실태(N=427, 단위: %)

14) 문 4-1은 대안학교 소재지를 묻는 문항으로 수록이 불필요하여 응답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음.

표 II-13 중단 후 경험실태¹⁵⁾¹⁶⁾

(단위: 명, %)

구분	전체 (N=427)		학업형 (N=213)		직업형 (N=139)		무업형 (N=75)		χ^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1) 복학하여 중·고등학교에 다님	58	13.6	52	24.4	3	2.2	3	4.0	42.61*** (df=2)
2) 대안학교에 다님	12	2.8	9	4.2	2	1.4	1	1.3	-
3) 검정고시 공부를 함	46	10.8	21	9.9	13	9.4	12	16.0	2.61 (df=2)
4) 대학입시 공부를 함	54	12.6	50	23.5	1	0.7	3	4.0	45.58*** (df=2)
5) 대학에 다님	154	36.1	131	61.5	11	7.9	12	16.0	120.64*** (df=2)
6) 직업기술을 배움	37	8.7	12	5.6	14	10.1	11	14.7	6.23* (df=2)
7) 자격증 및 취직시험 준비(4차년도 추가)	43	10.1	22	10.3	15	10.8	6	8.0	0.45
8)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264	61.8	95	44.6	131	94.2	38	50.7	92.63*** (df=2)
9)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140	32.8	26	12.2	43	30.9	71	94.7	171.47*** (df=2)
10) 취미나 동아리 활동 등에 참여함	38	8.9	26	12.2	9	6.5	3	4.0	6.10* (df=2)
11)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음	18	4.2	7	3.3	4	2.9	7	9.3	5.94 (df=2)
12)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함	11	2.6	3	1.4	3	2.2	5	6.7	-
13) 군 복무(4차년도 추가)	13	3.0	3	1.4	8	5.8	2	2.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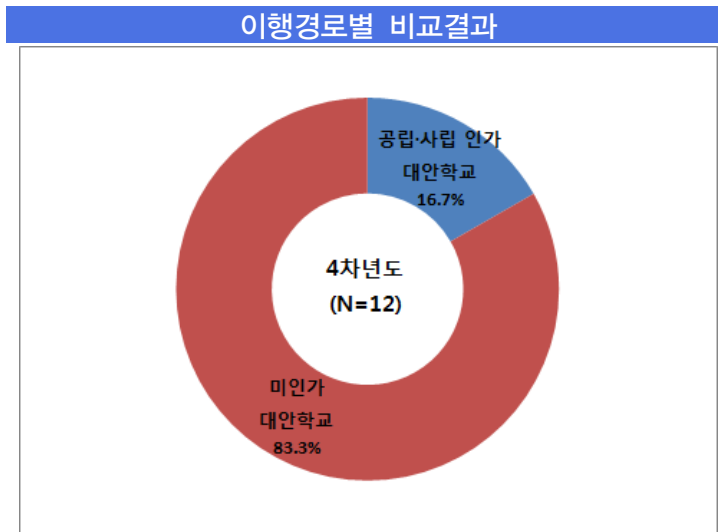
* α .05, *** α .001

- 15) 해당 경험이 있는 달에 모두 응답하는 형식이었으며, 비율은 한 달이라도 해당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준으로 제시되었음.
 차이분석 값이 없는 셀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이 전체의 20% 이상인 경우임
 16) 복수응답문항이었으며, 차이분석은 각 문항별로 경험이 있는지와 없는지를 구분하여 실시하였음.

문 4-1-1. 대안학교 유형¹⁾

지난 1년간 다닌 대안학교 유형은 ‘미인가 대안학교(83.3%)’가 가장 많았고, ‘공립·사립 인가 대안학교(16.7%)’가 그 다음으로 많았음

○ 지난 1년간 다닌 대안학교 유형에 대해 질문한 결과, 직업형과 무업형은 응답자 3명 모두 ‘미인가 대안학교(100.0%)’라고 응답한 반면, 학업형은 ‘미인가 대안학교(77.8%)’와 ‘공립·사립 인가 대안학교(22.2%)’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학력 인정이 되지 않는 미인가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14】 대안학교 유형(단위: %)

표 II-14 대안학교 유형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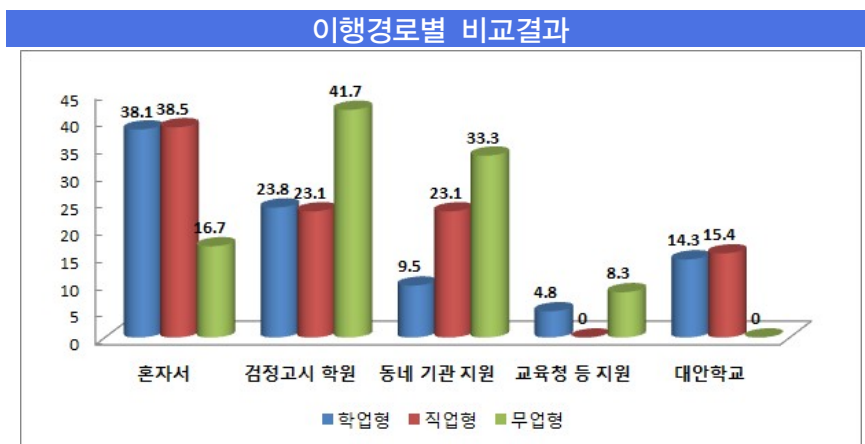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공립 또는 사립 인가 대안학교	2	16.7	2	22.2	0	0.0	0	0.0
② 미인가 대안학교	10	83.3	7	77.8	2	100.0	1	100.0
③ 위탁교육기관	0	0.0	0	0.0	0	0.0	0	0.0
④ 잘 모르겠음	0	0.0	0	0.0	0	0.0	0	0.0
계	12	100.0	9	100.0	2	100.0	1	100.0

1) 문 4-1-1은 문 4의 '2' 대안학교에 다님'에 응답한 경우(N=12)에만 응답한 결과임

문 4-2. 검정고시 공부 방법¹⁸⁾

지난 1년간 검정고시 공부 방법으로는 ‘혼자서(32.6%)’가 가장 많았고
‘검정고시 학원(28.3%)’, ‘동네기관지원(1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검정고시 공부 방법에 대해 학업형과 직업형은 ‘혼자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무업형의 경우 ‘검정고시 학원’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무업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동네 기관 지원’의 비율이 높았다. 즉 학업형과 직업형은 혼자서 준비를 하는 반면, 무업형이 검정고시 학원이나 동네 기관의 지원을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15】 검정고시 공부 방법(단위: %)

표 II-15

검정고시 공부 방법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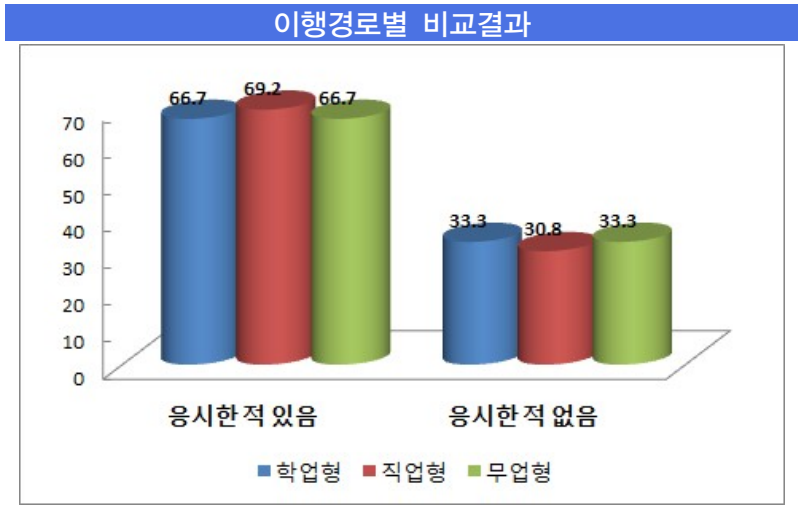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혼자서(방송이나 인터넷 강의 포함)	15	32.6	8	38.1	5	38.5	2	16.7
② 검정고시 학원	13	28.3	5	23.8	3	23.1	5	41.7
③ 동네 기관에서 지원	9	19.6	2	9.5	3	23.1	4	33.3
④ 교육청이나 보호관찰소 등에서 지원	2	4.3	1	4.8	0	0.0	1	8.3
⑤ 대안학교	5	10.9	3	14.3	2	15.4	0	0.0
⑥ 기타	2	4.3	2	9.5	0	0.0	0	0.0
계	46	100.0	21	100.0	13	100.0	12	100.0

18) 문 4-2~문 4-2-2는 문 4의 '3) 검정고시 공부를 함'에 응답한 경우(N=46)만 응답한 결과임.

문 4-2-1. 검정고시 응시 경험 유무

지난 1년간 검정고시 준비자 중 검정고시 응시율은
67.4%임

- 지난 1년간 검정고시 준비자 중 검정고시 응시율은 모든 유형에서 65% 이상이었다. 그 중에서도 직업형의 비율이 69.2%로 가장 높았고, 학업형과 무업형은 66.7%로 동일하였다.



【그림 II-16】 검정고시 응시 경험 유무(단위: %)

표 II-16

검정고시 응시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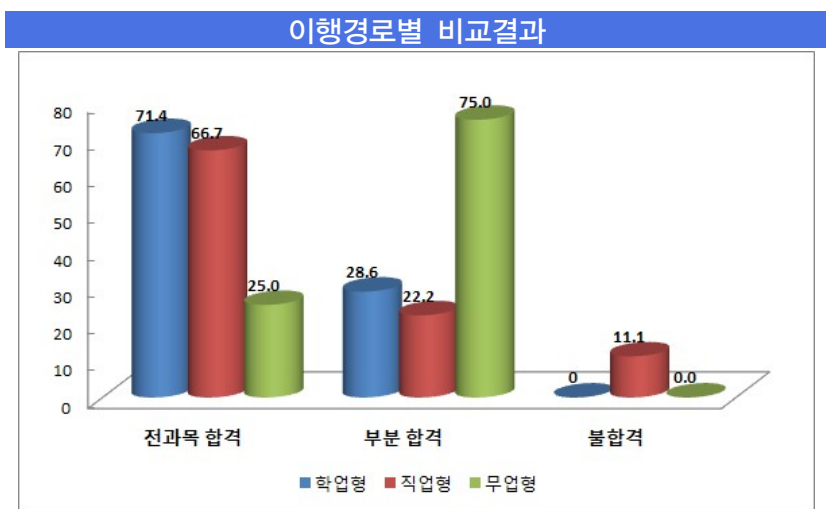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응시 한 적 있음	31	67.4	14	66.7	9	69.2	8	66.7
② 응시 한 적 없음	15	32.6	7	33.3	4	30.8	4	33.3
계	46	100.0	21	100.0	13	100.0	12	100.0

문 4-2-2. 검정고시 합격 여부¹⁹⁾

지난 1년간 검정고시 응시자 중 검정고시 합격률은 ‘전과목 합격(58.1%)’이 가장 많았고 ‘부분 합격(38.7%)’, ‘불합격(3.2%)’의 순으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검정고시 응시자 중 검정고시 합격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학업형(71.4%)과 직업형(66.7%)은 전 과목 합격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무업형은 부분 합격(75.0%)이 가장 높았다. 또한 다른 유형과 달리 직업형에서만 불합격자가 나타났다.



【그림 II-17】 검정고시 합격 여부(단위: %)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전과목 합격	18	58.1	10	71.4	6	66.7	2	25.0
② 부분 합격	12	38.7	4	28.6	2	22.2	6	75.0
③ 불합격	1	3.2	0	0.0	1	11.1	0	0.0
계	31	100.0	14	100.0	9	100.0	8	100.0

19) 문 4-2-2는 문 4-2-1(검정고시 응시여부)의 ①번 ‘응시한 적 있다’에 응답한 경우(N=31)에만 응답한 결과임.

문 4-3. 학업중단 후 대학 진학 이유(4차년도 추가)²⁰⁾

자신 1년간 대학에 다닌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후 대학에 진학한 이유는 '원래 대학진학 계획이 있었음'(39.6%)이 가장 많았고, '부모님이 권유해서'(18.8%)가 그 다음으로 많았음

○ 지난 1년간 대학을 다닌 청소년 중 학업을 중단한 후에 대학에 진학하게 된 이유에 대해, 학업형은 원래 대학진학 계획을 갖고 학교를 그만둔 비율이 43.5%로 가장 많았던 반면 직업형은 더 나은 대우, 부모님의 권유, 직업능력 개발 등의 이유가 가장 많았다. 무업형은 '일을 해보니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만 대우를 받아서'의 응답이 41.7%로 가장 많았다. 즉 학업형은 학업중단 시 대학 진학 계획이 있었던 반면 직업형과 무업형은 더 나은 대우와 능력개발을 위해 대학에 진학함을 알 수 있다.

이행경로별 비교결과



[그림 II-18] 학업중단 후 대학 진학 이유(단위: %)

표 II-18 학업중단 후 대학 진학 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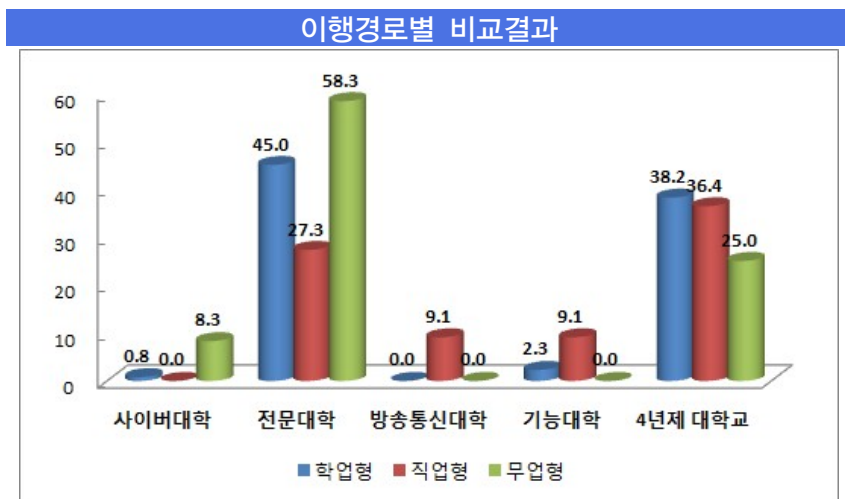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원래 대학진학 계획이 있었음	61	39.6	57	43.5	0	0.0	4	33.3
②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8	5.2	6	4.6	1	9.1	1	8.3
③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대우를 받아서	24	15.6	16	12.2	3	27.3	5	41.7
④ 부모님이 권유해서	29	18.8	24	18.3	3	27.3	2	16.7
⑤ 대학에서만 직업능력 개발이 가능해서	24	15.6	21	16.0	3	27.3	0	0.0
⑥ 기타	8	5.2	7	5.3	1	9.1	0	0.0
계	154	100.0	131	100.0	11	100.0	12	100.0

20) 문 4-3~문 4-4-9는 문 4의 '5) 대학에 다님'에 응답한 경우(N=154)만 응답한 결과임.

문 4-4-3. 진학한 대학의 학제(4차년도 추가)²¹⁾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은 ‘전문대학(2,3년제)’ (44.8%)이 가장 많았으며,
‘4년제 대학교’(37.0%), ‘기타’ (13.6%) 순으로 많았음

○ 현재 다니는 대학의 학제에 대해, 학업형(45.0%)과 무업형(58.3%)은 ‘전문대학’의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직업형은 ‘4년제 대학’이 38.2%로 가장 많았다.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은 응답 수가 모두 0이었다. 기타는 전체 13.6%였는데, 기타에는 학점은행제(7명) 및 학위과정인 직업전문학교(6명)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림 II-19】 진학한 대학의 학제(단위: %)

표 II-19

진학한 대학의 학제

(단위: 명, %)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교육대학	0	0.0	0	0.0	0	0.0	0	0.0
② 산업대학	0	0.0	0	0.0	0	0.0	0	0.0
③ 기술대학	0	0.0	0	0.0	0	0.0	0	0.0
④ 사이버대학	2	1.3	1	0.8	0	0.0	1	8.3
⑤ 전문대학(2, 3년제)	69	44.8	59	45.0	3	27.3	7	58.3
⑥ 방송통신대학	1	0.6	0	0.0	1	9.1	0	0.0
⑦ 기능대학(폴리텍대)	4	2.6	3	2.3	1	9.1	0	0.0
⑧ 4년제 대학교	57	37.0	50	38.2	4	36.4	3	25.0
⑨ 기타 ²²⁾	21	13.6	18	13.7	2	18.2	1	8.3
계	154	100.0	131	100.0	11	100.0	1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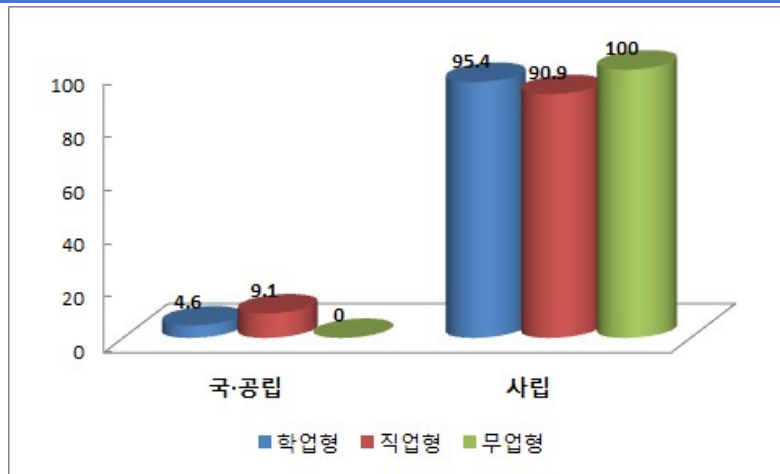
21) 문 4-4-1과 4-4-2는 대학 소재지, 학교명, 학과명을 묻는 문항으로 수록이 불필요하여 응답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음.
22) 기타에는 학점은행, 직업전문학교, 평생교육원, 해외대학, 전공대학 등이 포함됨.

문 4-4-4. 진학한 대학의 설립유형(4차년도 추가)

진학한 대학의 설립 유형은 '사립' (95.5%)이 대부분임

- 설립유형은 모든 이행경로에서 '사립'의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며 특히 무업형은 모든 응답자가 사립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의 비율이 가장 낮은 유형은 직업형(90.9%)이었다.

이행경로별 비교결과



【그림 II-20】 진학한 대학의 설립유형(단위: %)

표 II-20

진학한 대학의 설립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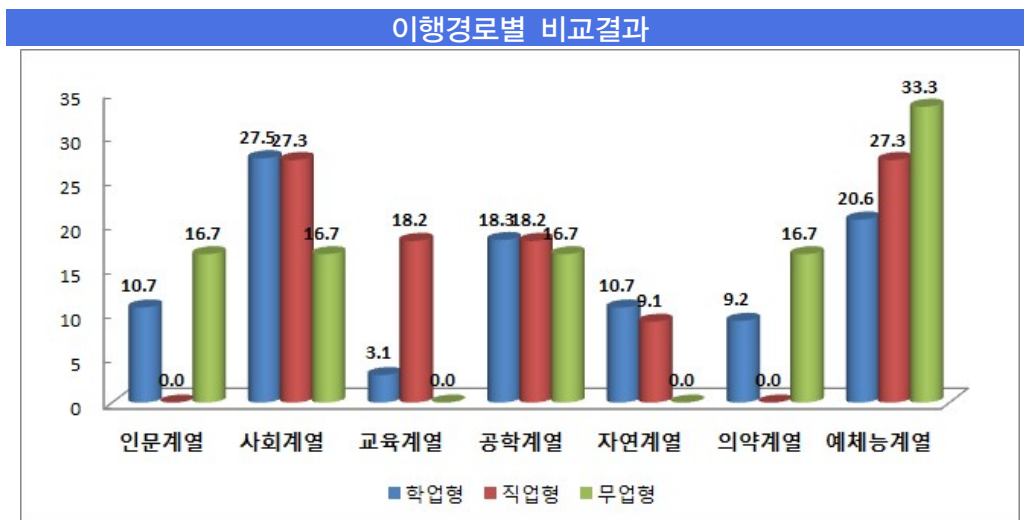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국·공립	7	4.5	6	4.6	1	9.1	0	0.0
② 사립	147	95.5	125	95.4	10	90.9	12	100.0
계	154	100.0	131	100.0	11	100.0	12	100.0

문 4-4-5. 전공계열(4차년도 추가)

전공계열은 '사회계열(26.6%)이 가장 많았고, '예체능계열(22.1%), '공학계열(18.2%) 순으로 많았음

○ 전공계열에 대해 학업형은 사회계열이 27.5%로 가장 많았고, 직업형은 사회계열과 예체능계열이 각 27.3%로 가장 많았다. 무업형은 예체능계열이 33.3%로 가장 많았다.



【그림 II-21】 전공계열(단위: %)

표 II-21 전공계열²³⁾

(단위: 명, %)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인문계열	16	10.4	14	10.7	0	0.0	2	16.7
사회계열	41	26.6	36	27.5	3	27.3	2	16.7
교육계열	6	3.9	4	3.1	2	18.2	0	0.0
공학계열	28	18.2	24	18.3	2	18.2	2	16.7
자연계열	15	9.7	14	10.7	1	9.1	0	0.0
의약계열	14	9.1	12	9.2	0	0.0	2	16.7
예체능계열	34	22.1	27	20.6	3	27.3	4	33.3
기타	0	0.0	0	0.0	0	0.0	0	0.0
계	154	100.0	131	100.0	11	100.0	1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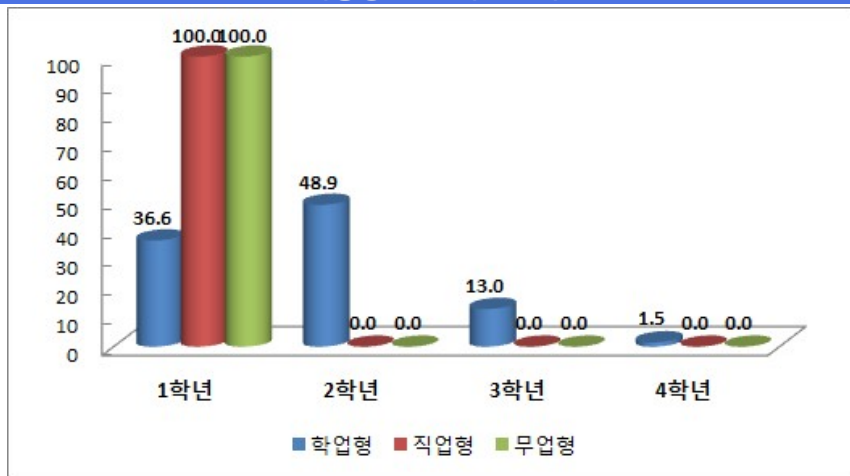
23) 전공계열의 분류는 다음과 같음. 인문계열 ①~②, 사회계열 ③~⑤, 교육계열 ⑥~⑧, 공학계열 ⑨~⑱, 자연계열 ⑳~㉓, 의약계열 ㉔~㉕, 예체능계열 ㉖~㉗, 기타 ㉘

문 4-4-6. 학년(4차년도 추가)

대부분이 '1학년'(46.1%)이었으며,
'2학년'(41.6%), '3학년'(11.0%), '4학년'(1.3%) 순으로 많았음

- 직업형과 무업형은 모든 응답자가 1학년인 반면, 학업형은 모든 학년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형 중에서는 2학년이 48.9%로 가장 많았고, 1학년 36.6%, 3학년 13.0%, 4학년 1.5%로 대부분이 1~2학년에 속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행경로별 비교결과



【그림 II-22】 학년(단위: %)

표 II-22 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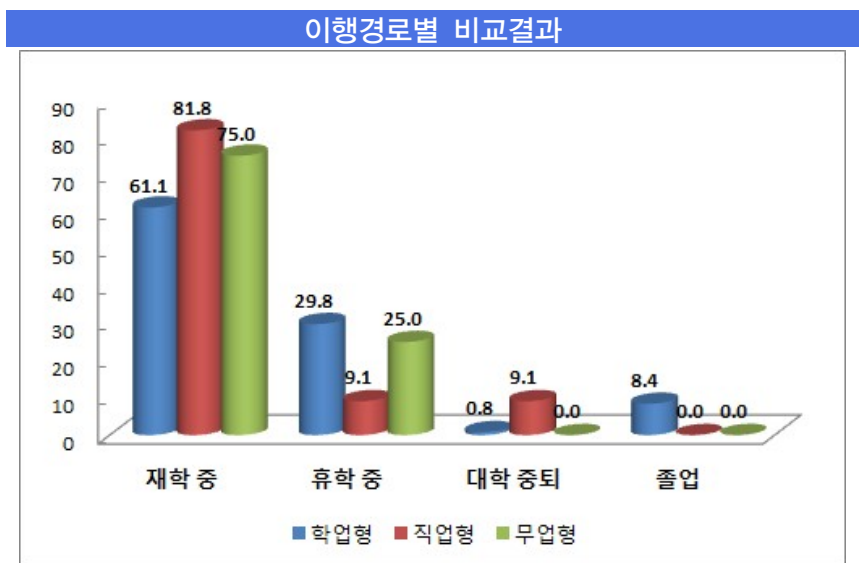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1학년	71	46.1	48	36.6	11	100.0	12	100.0
② 2학년	64	41.6	64	48.9	0	0.0	0	0.0
③ 3학년	17	11.0	17	13.0	0	0.0	0	0.0
④ 4학년	2	1.3	2	1.5	0	0.0	0	0.0
계	154	100.0	131	100.0	11	100.0	12	100.0

문 4-4-7. 재학상태(4차년도 추가)

응답자의 63.6%가 재학 중이었으며, 27.9%는 휴학 중, 7.1%는 졸업, 1.3%는 대학을 중퇴함

○ 학업형 중 재학비율이 가장 낮았고 학업형과 무업형은 직업형에 비해 휴학 중인 비율이 높았다. 이미 졸업한 응답자는 모두 학업형이었으며, 학업형의 8.4%에 해당하였다. 대학 중퇴상태인 2명의 응답자는 학업형(0.8%)과 직업형(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유예는 한 명도 없었다.



【그림 II-23】 재학상태(단위: %)

표 II-23

재학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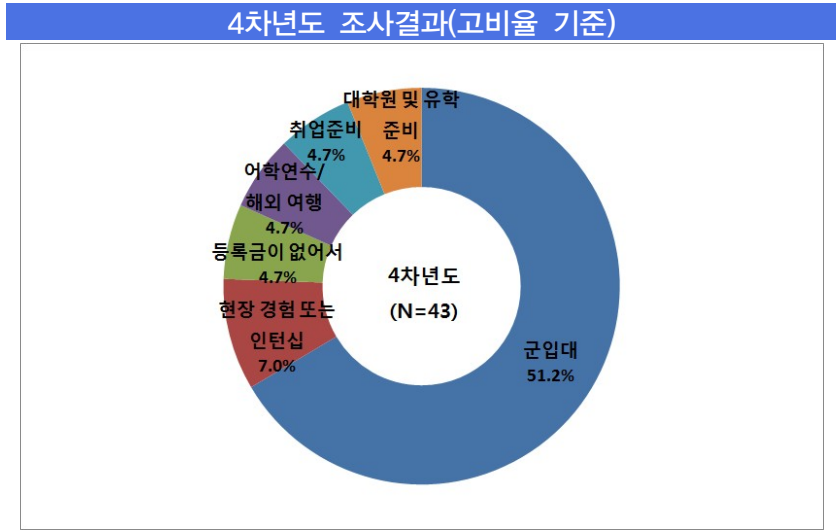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재학 중	98	63.6	80	61.1	9	81.8	9	75.0
② 휴학 중	43	27.9	39	29.8	1	9.1	3	25.0
③ 대학 중퇴	2	1.3	1	0.8	1	9.1	0	0.0
④ 졸업유예 중	0	0.0	0	0.0	0	0.0	0	0.0
⑤ 졸업	11	7.1	11	8.4	0	0.0	0	0.0
계	154	100.0	131	100.0	11	100.0	12	100.0

문 4-4-8. 휴학 사유(4차년도 추가)²⁴⁾

과반수의 응답자가 ‘군입대(51.2%)로 인해 휴학했으며,
‘기타(16.3%), ‘현장 경험 또는 인턴십 수행(7.0%) 등의 순으로 많았음

○ 군 입대는 모든 유형에서 주된 휴학 사유였다(학업형 48.7%, 직업형 100.0%, 무업형 66.7%).
무업형은 현장 경험 또는 인턴십(33.3%)이 뒤를 이었으며 학업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휴학 사유가 다양하였다.



【그림 II-24】 휴학 사유(단위: %)

표 II-24 휴학 사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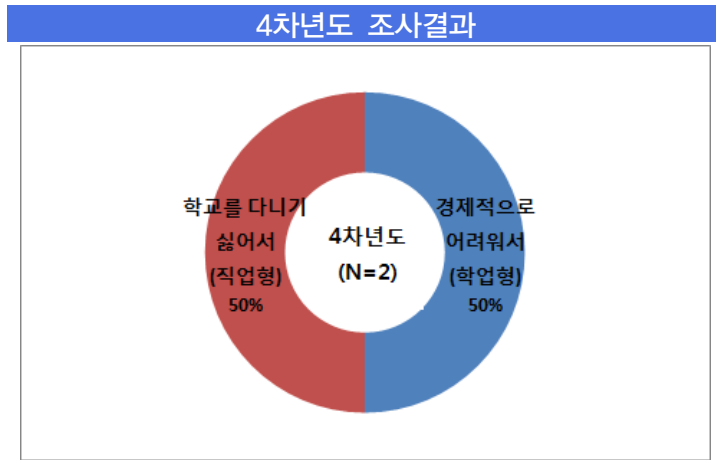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등록금이 없어서	2	4.7	2	5.1	0	0.0	0	0.0
② 어학연수/해외 여행	2	4.7	2	5.1	0	0.0	0	0.0
③ 편입학(또는 재수) 준비	1	2.3	1	2.6	0	0.0	0	0.0
④ 취업준비(자격증, 고시준비)	2	4.7	2	5.1	0	0.0	0	0.0
⑤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1	2.3	1	2.6	0	0.0	0	0.0
⑥ 군입대	22	51.2	19	48.7	1	100.0	2	66.7
⑦ 대학원이나 유학 준비	2	4.7	2	5.1	0	0.0	0	0.0
⑧ 현장 경험 또는 인턴십 수행을 위해서	3	7.0	2	5.1	0	0.0	1	33.3
⑨ 건강상의 이유로	1	2.3	1	2.6	0	0.0	0	0.0
⑩ 기타	7	16.3	7	17.9	0	0.0	0	0.0
계	43	100.0	39	100.0	1	100.0	3	100.0

24) 문 4-4-8은 문 4-4-7의 ②번 ‘휴학 중’에 응답한 경우(N=43)에만 응답한 결과임.

문 4-4-9. 중퇴 사유(4차년도 추가)²⁵⁾

응답자 2명 중 1명은 경제적 이유로, 1명은 다니기 싫어서 대학을 중퇴함

○ 대학 중퇴 중으로 응답한 2명 중 1명(학업형)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로, 1명(직업형)은 ‘학교를 다니기 싫어서’로 응답하였다.



【그림 II-25】 중퇴 사유(단위: %)

표 II-25 중퇴 사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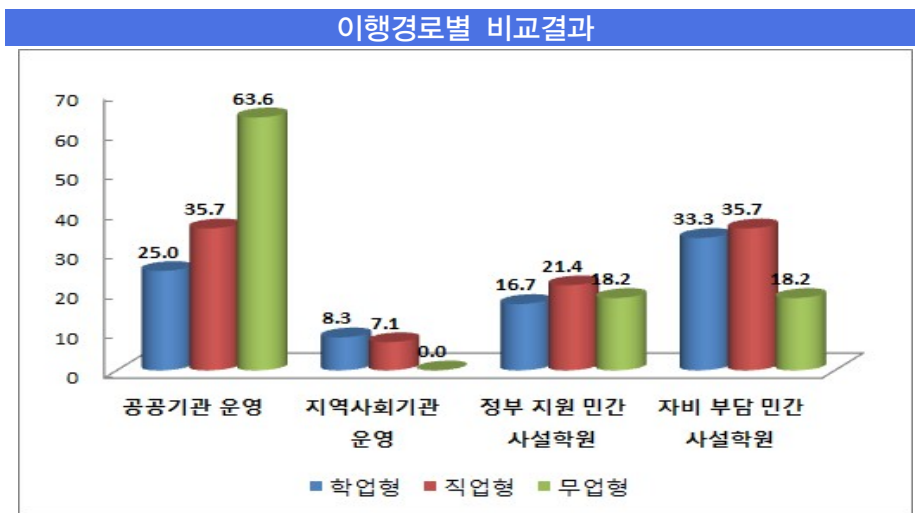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1	50.0	1	100.0	0	0.0	0	0.0
② 낮은 학업성적 때문에	0	0.0	0	0.0	0	0.0	0	0.0
③ 집안일(가사일, 가족돌보기 등)을 돌보아야 해서	0	0.0	0	0.0	0	0.0	0	0.0
④ 더 실질적인 취업 및 진로준비를 위해	0	0.0	0	0.0	0	0.0	0	0.0
⑤ 대학이나 전공을 바꾸기 위해 재수를 하려고	0	0.0	0	0.0	0	0.0	0	0.0
⑥ 학교를 다니기 싫어서	1	50.0	0	0.0	1	100.0	0	0.0
⑦ 기타	0	0.0	0	0.0	0	0.0	0	0.0
계	2	100.0	1	100.0	1	100.0	0	0.0

25) 문 4-4-9는 문 4-4-7의 ③번 ‘대학 중퇴’에 응답한 경우(N=2)에만 응답한 결과임.

문 4-5. 직업훈련 프로그램²⁶⁾

지난 1년간 직업기술을 배운 청소년이 참여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40.5%)’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자비 부담 민간 사설학원 프로그램(29.7%)’ 이었음.

- 직업훈련 프로그램 유형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학업형은 자비로 부담하는 민간 학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무업형은 공공기관의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형은 공공기관 이용률과 자비부담 민간 학원의 이용률이 35.7%로 동일하였다.



[그림 II-26] 직업훈련 프로그램(단위: %)

표 II-26 직업훈련 프로그램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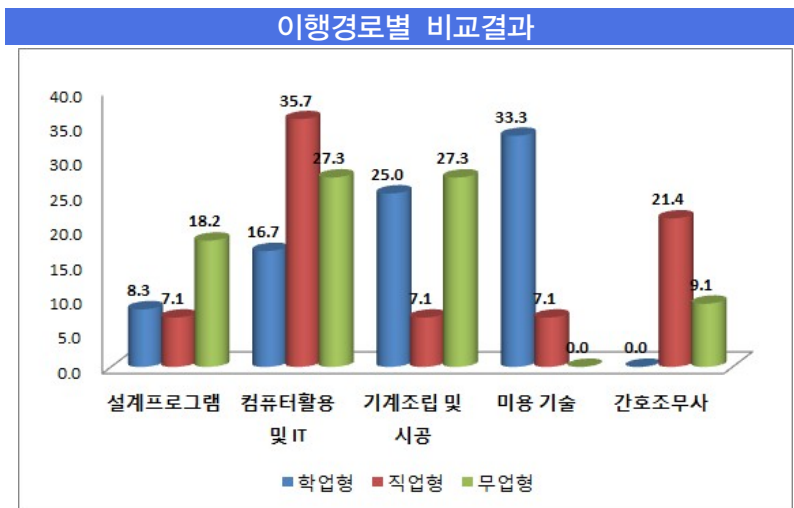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운영 기관별	① 공공기관 운영	15	40.5	3	25.0	5	35.7	7	63.6
	② 지역사회기관 운영	2	5.4	1	8.3	1	7.1	0	0.0
학원비 부담 형식별	③ 정부 지원 민간 사설학원	7	18.9	2	16.7	3	21.4	2	18.2
	④ 자비 부담 민간 사설학원	11	29.7	4	33.3	5	35.7	2	18.2
	⑤ 기타	2	5.4	2	16.7	0	0.0	0	0.0
계		37	100.0	12	100.0	14	100.0	11	100.0

26) 문 4-5~문 4-5-7은 문 4의(6) ‘직업기술을 배움’에 응답한 경우(N=37)만 응답한 결과임.

문 4-5-1.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용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컴퓨터활용 및 IT(27.0%)’가 가장 많았고, ‘기계조립 및 시공(18.9%)’ ‘미용 기술(13.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학업형은 ‘미용 기술(33.3%)’, 직업형은 ‘컴퓨터활용 및 IT(35.7%)’, 무업형은 컴퓨터 활용 및 IT와 기계조립 및 시공이 27.3%로 가장 많았다.



【그림 II-27】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용(단위: %)

표 II-27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용²⁷⁾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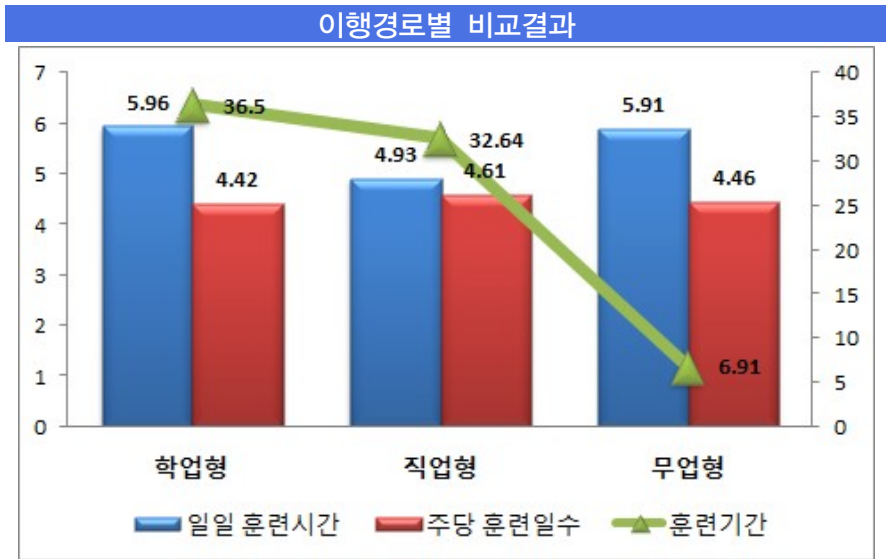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설계·제작프로그램	4	10.8	1	8.3	1	7.1	2	18.2
컴퓨터활용 및 IT	10	27.0	2	16.7	5	35.7	3	27.3
기계조립 및 시공	7	18.9	3	25.0	1	7.1	3	27.3
미용 기술	5	13.5	4	33.3	1	7.1	0	0.0
식음료제조	3	8.1	0	0.0	1	7.1	2	18.2
간호조무사	4	10.8	0	0.0	3	21.4	1	9.1
실용음악 및 무용	3	8.1	2	16.7	1	7.1	0	0.0
기타	1	2.7	0	0.0	1	7.1	0	0.0
계	37	100.0	12	100.0	14	100.0	11	100.0

27) 중복 응답시 가장 먼저 기재한 항목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문 4-5-2. 직업훈련 일일 훈련시간, 주당 훈련일수, 훈련 기간(4차년도 추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평균에서 일일 훈련시간은 '5.55시간', 주당 훈련일수는 '4.50일', 전체 훈련기간은 '26.24주'로 나타남

○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기간에 대한 질문에서 일일 훈련시간과 주당 훈련일수는 경로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훈련기간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무업형은 전체 훈련기간이 6.91주인 반면 학업형은 36.50주, 직업형은 32.64주로 무업형이 학업형과 직업형에 비해 훈련기간이 훨씬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업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직업훈련을 오래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28】 직업훈련 일일 훈련시간, 주당 훈련일수, 훈련 기간(N=37, 단위: 시간, 일, 주)

표 II-28 직업훈련 일일 훈련시간, 주당 훈련일수, 훈련 기간 (N=37, 단위: 시간, 일, 주)

문항	M(SD)				F (대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1) 일일 훈련시간	5.55(2.37)	5.96(2.40)	4.93(2.59)	5.91(2.07)	0.78
2) 주당 훈련일수	4.50(1.15)	4.42(1.08)	4.61(1.18)	4.46(1.29)	1.00
3) 훈련 기간	26.24(23.51)	36.50(28.47)	32.64(18.90)	6.91(6.24)	7.25** (a,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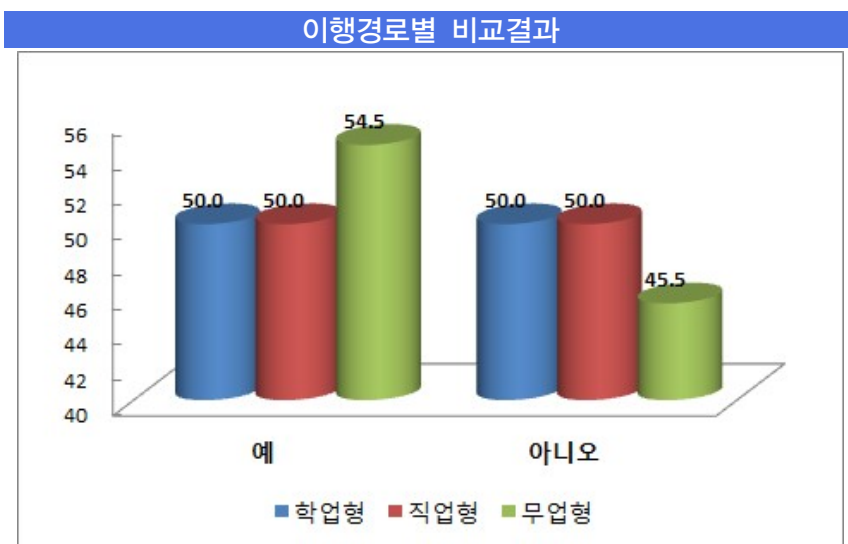
** p<.01.

*주: a=학업형, b=직업형, c=무업형

문 4-5-3. 자격증 취득 여부(4차년도 추가)

응답자의 51.4%는 직업훈련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고자 함

○ 직업훈련을 통해 취득했거나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대부분의 유형에서 약 50% 정도가 ‘있다’에 응답했다.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무업형이 54.5%로 가장 높았다.



【그림 II-29】 자격증 취득 여부(단위: %)

표 II-29

자격증 취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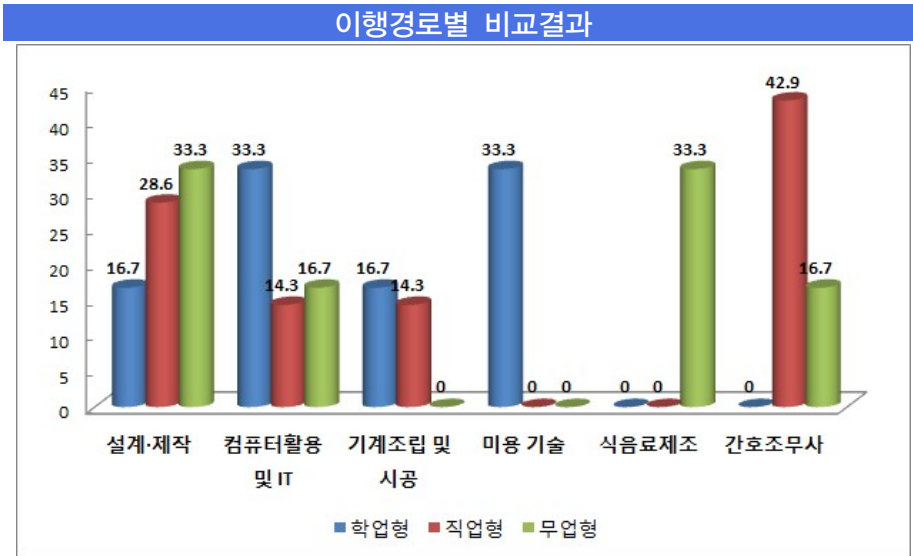
(단위: 명, %)

문항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예	19	51.4	6	50.0	7	50.0	6	54.5
② 아니오	18	48.6	6	50.0	7	50.0	5	45.5
계	37	100.0	12	100.0	14	100.0	11	100.0

문 4-5-3. 자격증 취득 여부(4차년도 추가)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은 '설계 및 제작 프로그램(26.3%)'이 가장 많았으며 컴퓨터활용 및 IT와 간호조무사가 21.1%로 그 다음으로 많았음

- 취득한(할) 자격증의 종류를 분류했을 때, 학업형은 컴퓨터활용 및 IT와 미용 기술이 33.3%, 직업형은 간호조무사가 42.9%로, 무업형은 설계 및 제작 프로그램과 식음료제조가 33.3%로 가장 많았다.



【그림 II-30】 자격증 종류(단위: %)

표 II-30 자격증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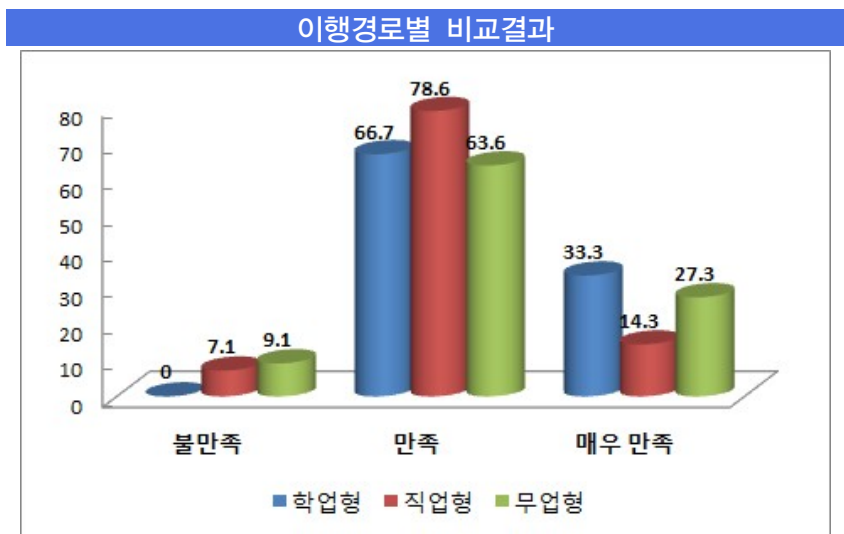
(단위: 명, %)

문항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설계·제작프로그램	5	26.3	1	16.7	2	28.6	2	33.3
컴퓨터활용 및 IT	4	21.1	2	33.3	1	14.3	1	16.7
기계조립 및 시공	2	10.5	1	16.7	1	14.3	0	0.0
미용 기술	2	10.5	2	33.3	0	0.0	0	0.0
식음료제조	2	10.5	0	0.0	0	0.0	2	33.3
간호조무사	4	21.1	0	0.0	3	42.9	1	16.7
계	19	100.0	6	100.0	7	100.0	6	100.0

문 4-5-4~문 4-5-5. 직업훈련 프로그램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²⁸⁾

**직업훈련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94.6%가 '만족한다'고 응답함**

○ 유형에 관계없이 대부분 만족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학업형은 불만족 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455에 해당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만족하지 않은 이유(N=2)로는 프로그램의 질과 훈련 시간에 대한 불만족이 있었다.



【그림 II-31】 직업훈련 프로그램 만족도(단위: %)

표 II-31 직업훈련 프로그램 만족도 (단위: 명, %, 점)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M(SD)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매우 불만족	0	0.0	0	0.0	0	0.0	0	0.0	3.19 (0.52)
② 불만족	2	5.4	0	0.0	1	7.1	1	9.1	
③ 만족	26	70.3	8	66.7	11	78.6	7	63.6	
④ 매우 만족	9	24.3	4	33.3	2	14.3	3	27.3	
계	37	100.0	12	100.0	14	100.0	1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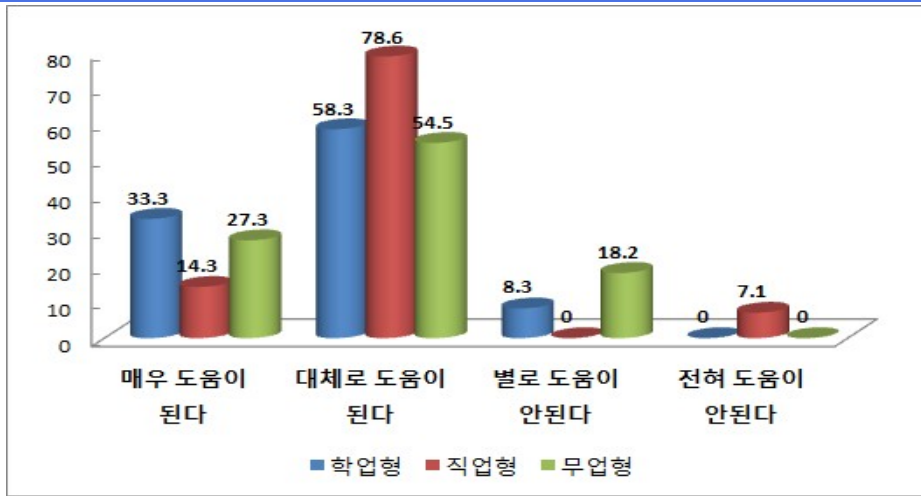
28) 문 4-5-5는 문 4-5-4(직업훈련프로그램 만족도)의 ①번'매우 불만족'또는 ②번'불만족'에 응답한 경우, 직접 기입하는 형식으로 응답한 내용임.

문 4-5-6~문 4-5-7. 직업훈련 프로그램 도움정도 및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4차년도 추가)²⁹⁾

직업훈련 프로그램 도움정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9.2%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취(창)업에 도움이 되는가(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유형과 관계없이 대부분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다른 유형에 비해 무업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았다. 문 457에 해당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N=4)로는 취업에 대한 어려움과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불만족 등의 사유가 있었다.

이행경로별 비교결과



【그림 II-32】 직업훈련 프로그램 도움정도(단위: %)

표 II-32 직업훈련 프로그램 도움정도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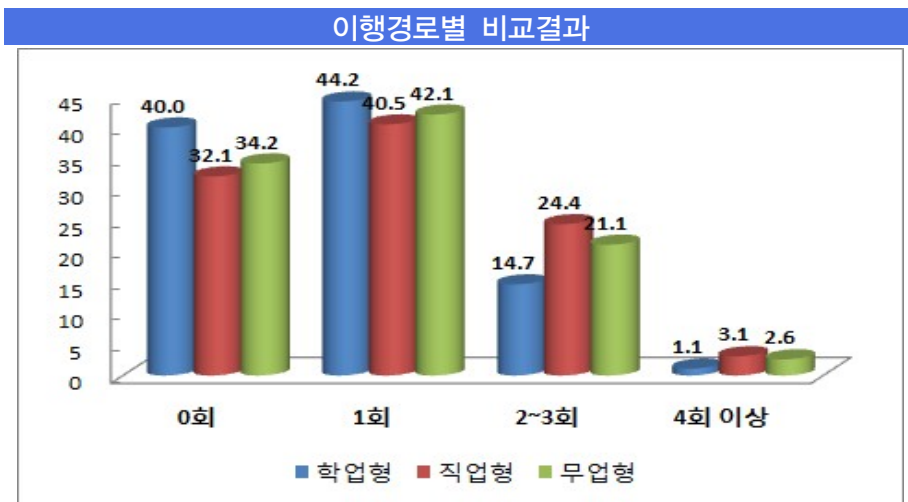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매우 도움이 된다	9	24.3	4	33.3	2	14.3	3	27.3
② 대체로 도움이 된다	24	64.9	7	58.3	11	78.6	6	54.5
③ 별로 도움이 안된다	3	8.1	1	8.3	0	0.0	2	18.2
④ 전혀 도움이 안된다	1	2.7	0	0.0	1	7.1	0	0.0
계	37	100.0	12	100.0	14	100.0	11	100.0

29) 문 4-5-7는 문 4-5-6(직업훈련프로그램 도움정도)의 ③번'별로 도움이 안된다'또는 ④번'전혀 도움이 안된다'에 응답한 경우, 직접 기입하는 형식으로 응답한 내용임.

문 4-6.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횟수³⁰⁾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횟수에 대해 '1회(42.0%)'가 가장 많았고, '0회(35.2%)', '2~3회(20.5%)', '4회 이상(2.3%)'의 순으로 나타남

○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횟수에 대해 질문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1회'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학업형에 비해 직업형과 무업형이 '2~3회', '4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즉 학업형에 비해 직업형과 무업형은 지난 1년 동안 일을 그만둔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33】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횟수(단위: %)

표 II-33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횟수 (단위: 명, %)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M(SD)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0회	93	35.2	38	40.0	42	32.1	13	34.2	1.00 (1.09)
1회	111	42.0	42	44.2	53	40.5	16	42.1	
2~3회	54	20.5	14	14.7	32	24.4	8	21.1	
4회 이상	6	2.3	1	1.1	4	3.1	1	2.6	
계	264	100.0	95	100.0	131	100.0	38	100.0	

30) 문 4-6~문 4-6-1은 문 4의(8)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에 응답한 경우(N=264)만 응답한 결과임

문 4-6-1.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이유³¹⁾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이유에 대해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18.1%)’가 가장 많았으며, ‘놀고 싶어서(16.4%)’가 그 다음으로 많았음

○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학업형은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35.1%)’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직업형은 기타(19.1%)를 제외하고 놀고 싶어서(18.0%)가 가장 높았으며 무업형은 ‘보수가 적어서’, ‘놀고 싶어서’, ‘기타’가 각 16.0%로 가장 높았다. 학업형은 공부를 위해 일을 그만두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행경로별 비교결과(고비율 기준)



[그림 II-34]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이유(단위: %)

표 II-34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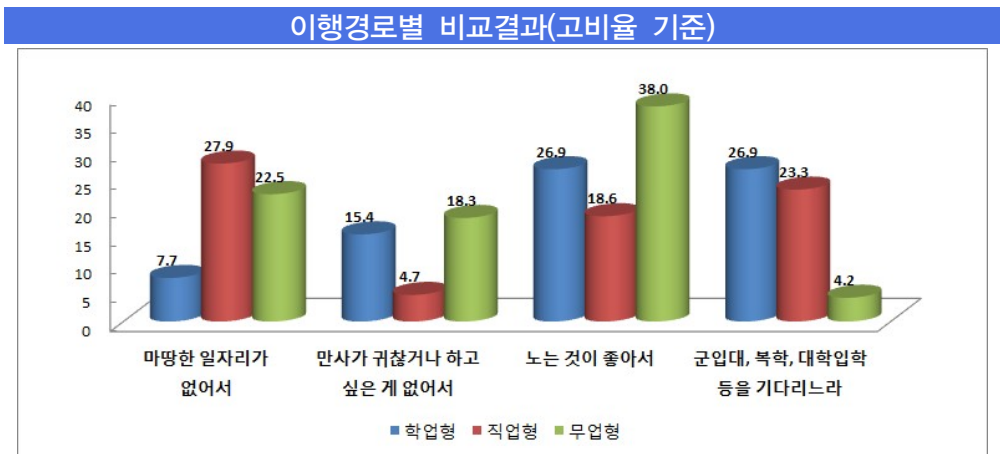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적성에 맞지 않아서	9	5.3	1	1.8	6	6.7	2	8.0
② 보수가 적어서	20	11.7	4	7.0	12	13.5	4	16.0
③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	3	1.8	0	0.0	0	0.0	3	12.0
④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18	10.5	2	3.5	13	14.6	3	12.0
⑤ 근무 조건·환경이 나빠서	16	9.4	10	17.5	3	3.4	3	12.0
⑥ 일할 시간이 없어서(4차년도 추가)	5	2.9	1	1.8	4	4.5	0	0.0
⑦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또는 개학해서)	31	18.1	20	35.1	11	12.4	0	0.0
⑧ 계약기간이 끝나서	8	4.7	6	10.5	2	2.2	0	0.0
⑨ 동료 또는 주인과의 불화	7	4.1	1	1.8	4	4.5	2	8.0
⑩ 놀고 싶어서(휴식하고 싶어서) (4차년도 추가)	28	16.4	8	14.0	16	18.0	4	16.0
⑪ 해고되어서 (4차년도 추가)	3	1.8	2	3.5	1	1.1	0	0.0
⑫ 기타	23	13.5	2	3.5	17	19.1	4	16.0
계	171	100.0	57	100.0	89	100.0	25	100.0

31) 문 4-6-1은 문 4-6에서 ‘1회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N=171)만 응답한 결과임.

문 4-7.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놀았던 이유³²⁾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놀았던 이유로는 ‘노는 것이 좋아서(30.0%)’,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21.4%)’, ‘입대, 입학 등을 기다리느라(14.3%)’ 등의 순으로 많았음

-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았던 이유로 학업형은 ‘입대나 입학 등을 기다리느라’와 ‘노는 것이 좋아서’(26.9%), 직업형은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27.9%)’, 무업형은 ‘노는 것이 좋아서(38.0%)’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림 II-35】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놀았던 이유(단위: %)

표 II-35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놀았던 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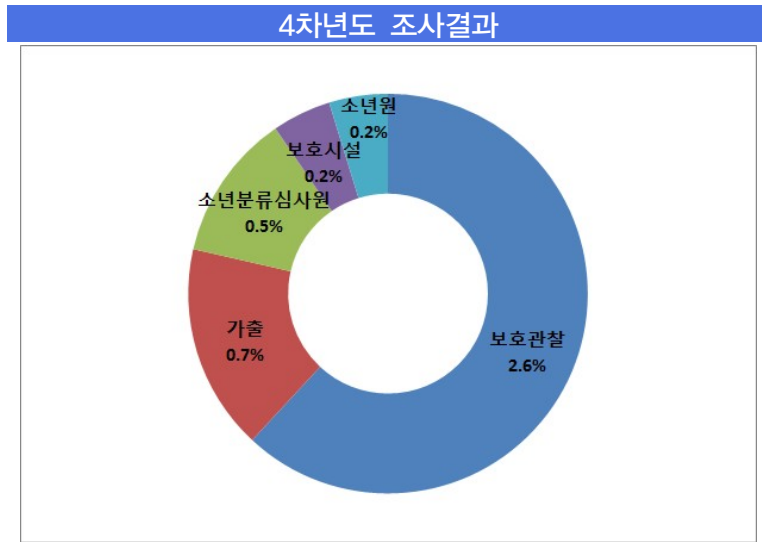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일하고 싶으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30	21.4	2	7.7	12	27.9	16	22.5
② 하고 싶은 것을 배울 데가 마땅하지 않아서	6	4.3	1	3.8	1	2.3	4	5.6
③ 하고 싶은 게 없어서(4차년도 수정)	19	13.6	4	15.4	2	4.7	13	18.3
④ 노는 것이 좋아서	42	30.0	7	26.9	8	18.6	27	38.0
⑤ 개인이나 집안 사정 상	8	5.7	1	3.8	2	4.7	5	7.0
⑥ 군입대, 복학, 대학입학 등을 기다리느라	20	14.3	7	26.9	10	23.3	3	4.2
⑦ 일하다가 휴식하기 위해	13	9.3	3	11.5	7	16.3	3	4.2
⑧ 기타	2	1.4	1	3.8	1	2.3	0	0.0
계	140	100.0	26	100.0	43	100.0	71	100.0

32) 문 4-7는 문 4의(9)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에 응답한 경우(N=140)만 응답한 결과임.

문 5. 학업중단 후의 주거 공간 및 비행경험³³⁾

학업중단 후의 주거 공간 및 비행경험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음(2.6%)'이 가장 많았고, '친구집, PC방, 가출팸과 어울림(0.7%)'이 그 다음으로 많았음

- 학업중단 후의 주거 공간 및 비행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무업형의 비행 경험률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보호관찰을 받음'은 무업형이 12.0%로 학업형(0.5%)과 직업형(0.7%)에 비해 매우 높았다.



【그림 II-36】 학업중단 후의 주거 공간 및 비행경험(N=427, 단위: %)

표 II-36 학업중단 후의 주거 공간 및 비행경험 (N=427,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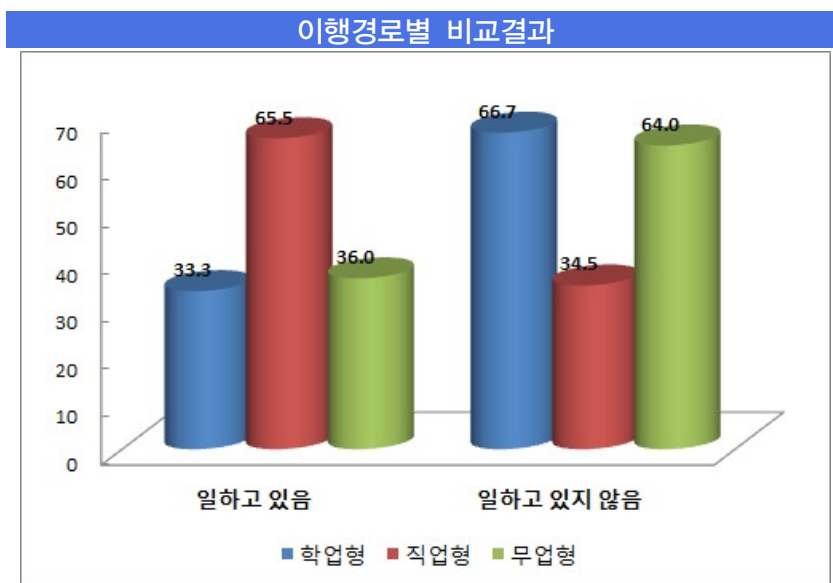
문항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1) 가출하여 친구집이나 PC방 같은 곳에 지내거나 가출팸과 함께 생활함	3	0.7	2	0.9	1	0.7	0	0.0
2) 보호시설에서 지냄	1	0.2	0	0.0	0	0.0	1	1.3
3) 보호관찰을 받음(보호관찰소)	11	2.6	1	0.5	1	0.7	9	12.0
4)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함	2	0.5	1	0.5	0	0.0	1	1.3
5) 소년원 학교에서 생활함	1	0.2	1	0.5	0	0.0	0	0.0

33) 해당 경험이 있는 달에 모두 응답하는 형식이었으며, 비율은 한 달이라도 해당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준으로 제시되었음.

문 6. 일(아르바이트) 경험

**일(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44.3%가 '일(아르바이트)'을 하고 있다고 응답함**

- 현재 일(아르바이트)을 하고 있는 비율은 직업형이 65.5%로 가장 많았으며, 무업형 36.0%, 학업형 33.3% 순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형이 학업형과 무업형에 비해 현재 일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37】 아르바이트 경험(단위: %)

표 II-37 아르바이트 경험 (단위: 명, %)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χ^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예	189	44.3	71	33.3	91	65.5	27	36.0	37.75 ^{***} (df=2)
② 아니오	238	55.7	142	66.7	48	34.5	48	64.0	
계	427	100.0	213	100.0	139	100.0	75	100.0	

*** α .001

문 6-1-1. 일(아르바이트) 업종³⁴⁾

아르바이트 업종에 대해 '기타(17.5%)'를 제외하고 '분식점, 중국집 등에서 서빙/카운터/배달(12.8%)'이 가장 많고, '카페 및 주점 서빙(10.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제외 시 모든 유형에서 서빙이나 배달이 가장 많았으며, 일반상점과 편의점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학업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서빙 및 배달의 비율이 높았다.

이행경로별 비교결과(고비율 기준)



【그림 II-38】 주요 일(아르바이트) 업종(단위: %)

표 II-38 주요 일(아르바이트) 업종³⁵⁾

(단위: 명, %)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카운터/서빙(카페, 게임방, 노래방, 만화방 등)	31	16.4	14	19.7	12	13.2	5	18.5
서빙/카운터/배달(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46	24.3	23	32.4	18	19.8	5	18.5
일반상점 및 편의점 점원	25	13.2	7	9.9	14	15.4	4	14.8
건설현장 및 공장 노동	12	6.3	2	2.8	8	8.8	2	7.4
주유소 주유원	1	0.5	0	0.0	1	1.1	0	0.0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1	0.5	1	1.4	0	0.0	0	0.0
사무업무 보조(설문조사 포함)	1	0.5	0	0.0	1	1.1	0	0.0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호객(삐끼), 서빙 및 접대	2	1.1	0	0.0	1	1.1	1	3.7
식당 및 출장뷔페 등 요리사	12	6.3	4	5.6	6	6.6	2	7.4
기타	58	30.7	20	28.2	30	33.0	8	29.6
계	189	100.0	71	100.0	91	100.0	2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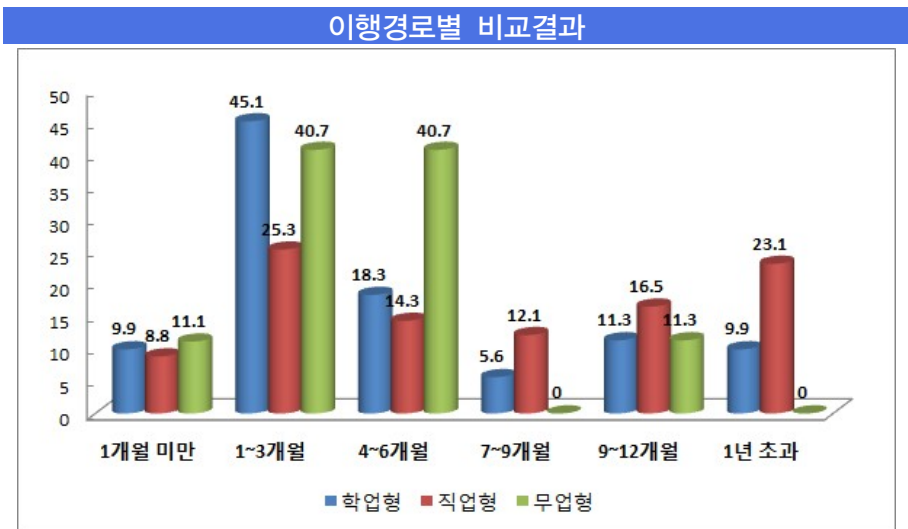
34) 문 6-1-1~문 6-1-10은 문 6(일(아르바이트) 여부)의 ①번'예'에 응답한 경우(N=189)만 응답한 결과임

35) 주요 아르바이트 업종별에 포함된 보기는 다음과 같음. 카운터/서빙(카페, 게임방, 노래방, 만화방 등) ②, ⑤, ⑥, ⑦번. 서빙/카운터/배달(패스트푸드점, 분식점, 중국집 등) ⑧, ⑨번. 일반상점 및 편의점 점원 ③, ④번. 건설현장 및 공장 노동 ⑭, ⑮번. 주유소 주유원 ⑫번.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⑪번. 사무업무 보조(설문조사 포함) ⑩번.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호객(삐끼), 서빙 및 접대 ⑩번. 식당 및 출장뷔페 등 요리사 ⑳번. 기타 ①, ⑬, ⑰~⑲, ㉑~㉒번.

문 6-1-2. 근무기간(4차년도 추가)³⁶⁾

평균 근무기간은 3.25개월로 나타남

○ 현재 하고 있는 일(아르바이트)의 근무기간을 알아본 결과 대체로 학업형과 무업형은 6개월 이내가 가장 많았으나 직업형은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율이 51.7%로 상대적으로 일한 지 오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업형은 1년을 초과하여 일한 응답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기간 평균 역시 직업형이 3.71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학업형 2.93개월, 무업형 2.52개월 순이었다.



【그림 II-39】 근무기간(단위: %)

표 II-39

근무기간

(단위: 명, %, 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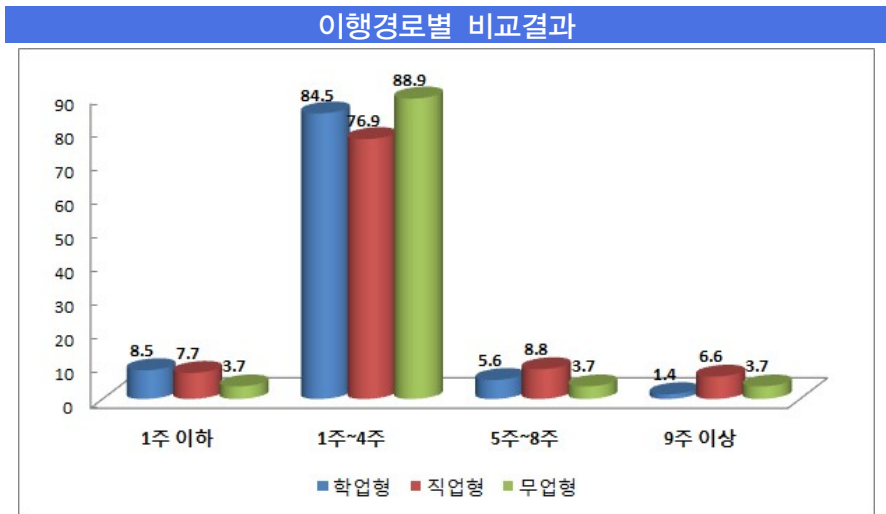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례수	비율	M(SD)	사례수	비율	M(SD)	사례수	비율	M(SD)	사례수	비율	M(SD)
1개월 미만	18	9.5	3.25 (1.62)	7	9.9	2.93 (1.51)	8	8.8	3.71 (1.73)	3	11.1	2.52 (0.98)
1~3개월	66	34.9		32	45.1		23	25.3		11	40.7	
4~6개월	37	19.6		13	18.3		13	14.3		11	40.7	
7~9개월	15	7.9		4	5.6		11	12.1		0	0.0	
9~12개월	25	13.2		8	11.3		15	16.5		8	11.3	
1년 초과	28	14.8		7	9.9		21	23.1		0	0.0	
계	189	100.0		71	100.0		91	100.0		27	100.0	

36) 문 6-1-2는 일을 시작한 시점을 물어본 후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을 계산함

문 6-1-3. 구직 기간(4차년도 추가)

평균 구직 기간은 2.08주로 나타남

-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구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질문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1~4주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구직 기간의 평균을 살펴보면 직업형이 2.14주, 무업형이 2.07주, 학업형이 2.00주로 직업형의 구직 기간이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40】 구직 기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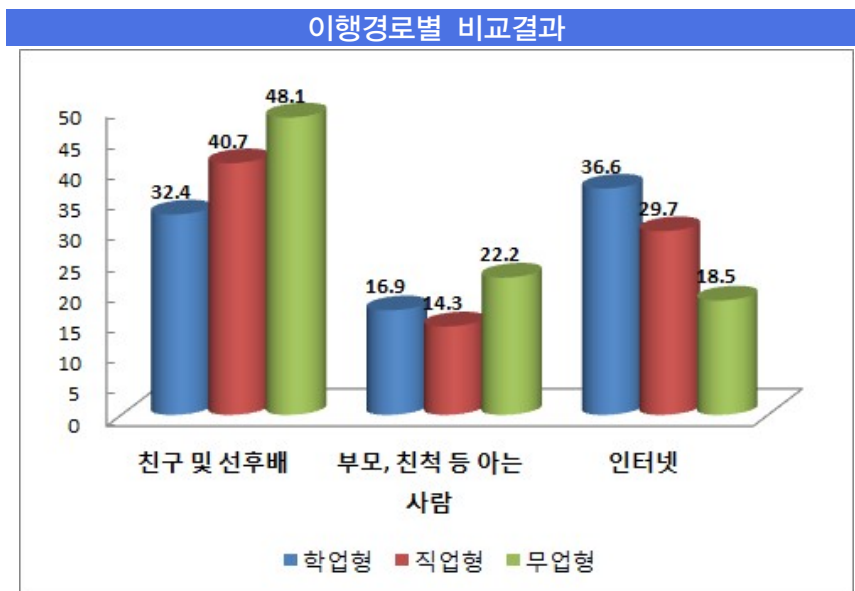
표 II-40 구직 기간 (단위: 명, %, 주)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례수	비율	M(SD)	사례수	비율	M(SD)	사례수	비율	M(SD)	사례수	비율	M(SD)
1주 이하	14	7.4	2.08 (0.56)	6	8.5	2.00 (0.45)	7	7.7	2.14 (0.64)	1	3.7	2.07 (0.47)
1주~4주	156	81.5		60	84.5		70	76.9		24	88.9	
5주~8주	13	6.9		4	5.6		8	8.8		1	3.7	
9주 이상	8	4.2		1	1.4		6	6.6		1	3.7	
계	189	100.0		71	100.0		91	100.0		27	100.0	

문 6-1-4. 주된 취업경로(4차년도 추가)

주된 취업경로는 ‘친구 및 선후배를 통해서(38.6%)’가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을 통해서(30.7%)’, ‘부모, 친척 등 아는 사람을 통해서(16.4%)’ 등의 순이었음

- 현재 하고 있는 일(아르바이트)의 주된 취업경로에 대한 질문에서 학업형은 인터넷을 통한 구직이 36.6%로 가장 많은 반면 직업형(40.7%)과 무업형(48.1%)은 친구 및 선후배를 통한 구직이 가장 많았다.



【그림 II-41】 주된 취업경로(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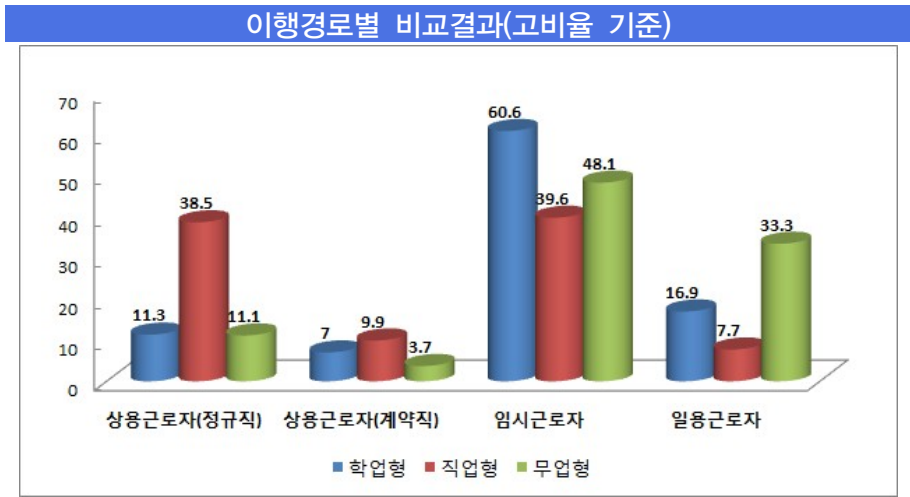
표 II-41 주된 취업경로 (단위: 명, %)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학원 선생님을 통해서	7	3.7	1	1.4	6	6.6	0	0.0
② 학교 선생님 및 교수님을 통해서	6	3.2	5	7.0	1	1.1	0	0.0
③ 친구 및 선후배를 통해서	73	38.6	23	32.4	37	40.7	13	48.1
④ 부모, 친척 등 아는 사람을 통해서	31	16.4	12	16.9	13	14.3	6	22.2
⑤ 신문, TV, 생활정보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10	5.3	4	5.6	4	4.4	2	7.4
⑥ 공공 및 사설취업알선기관을 통해서	1	0.5	0	0.0	1	1.1	0	0.0
⑦ 인터넷을 통해서	58	30.7	26	36.6	27	29.7	5	18.5
⑧ 기타	3	1.6	0	0.0	2	2.2	1	3.7
계	189	100.0	71	100.0	91	100.0	27	100.0

문 6-1-5. 종사상 지위(4차년도 추가)

종사상 지위가 '임시근로자(48.7%)'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정규직 상용근로자(24.3%)', '일용근로자(14.8%)' 등의 순이었음

- 종사상 지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임시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직업형은 정규직 상용근로자의 비율도 38.5%로 매우 높았다. 반면 무업형의 경우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33.3%로 대부분 임시 혹은 일용근로자였다.



【그림 II-42】 종사상 지위(단위: %)

표 II-42 종사상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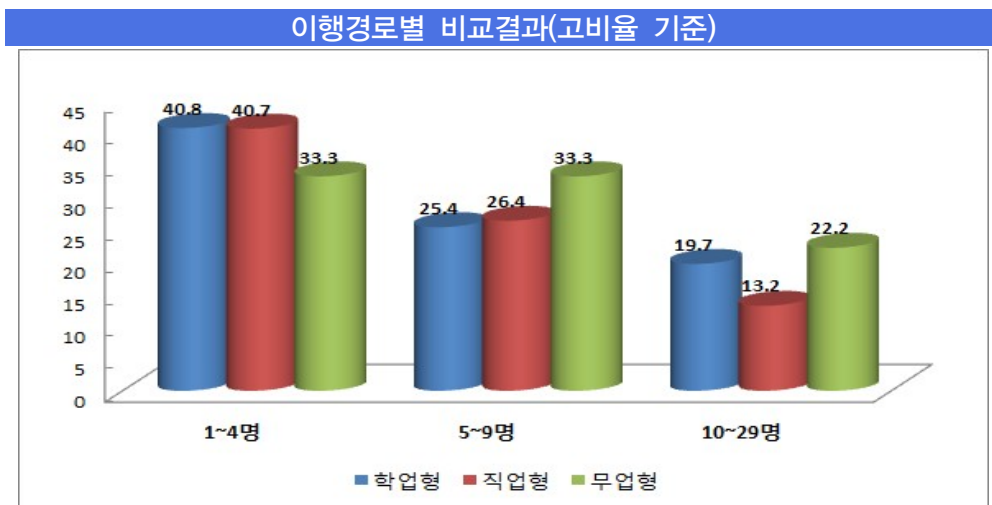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	비	사	비	사	비	사	비
① 상용근로자(정규직)	46	24.3	8	11.3	35	38.5	3	11.1
② 상용근로자(계약직)	15	7.9	5	7.0	9	9.9	1	3.7
③ 임시근로자	92	48.7	43	60.6	36	39.6	13	48.1
④ 일용근로자	28	14.8	12	16.9	7	7.7	9	33.3
⑤ 자영업자	5	2.6	1	1.4	3	3.3	1	3.7
⑥ 무급가족종사자	3	1.6	2	2.8	1	1.1	0	0.0
계	189	100.0	71	100.0	91	100.0	27	100.0

문 6-1-6. 사업장의 직원 수(4차년도 추가)

사업장의 직원 수는 '1~4명(39.7%)', '5~9명(27.0%)'이 절반 이상으로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함을 알 수 있음

- 유형과 관계없이 10인 이하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43】 사업장 직원 수(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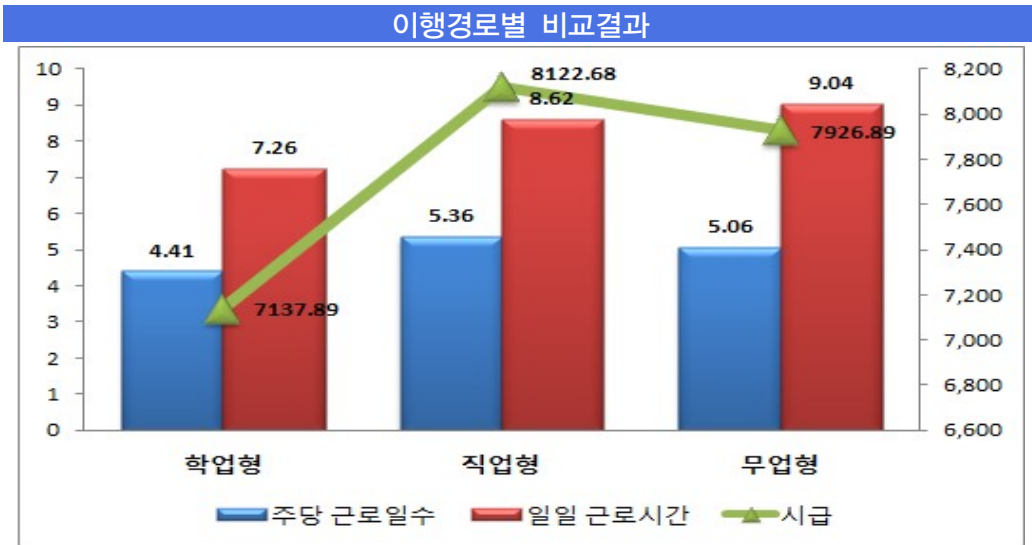
표 II-43 사업장 직원 수 (단위: 명, %)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1~4명	75	39.7	29	40.8	37	40.7	9	33.3
② 5~9명	51	27.0	18	25.4	24	26.4	9	33.3
③ 10~29명	32	16.9	14	19.7	12	13.2	6	22.2
④ 30~49명	8	4.2	3	4.2	2	2.2	3	11.1
⑤ 50명~99명	9	4.8	2	2.8	7	7.7	0	0.0
⑥ 100명~299명	5	2.6	1	1.4	4	4.4	0	0.0
⑦ 300명~499명	2	1.1	1	1.4	1	1.1	0	0.0
⑧ 500명~999명	4	2.1	1	1.4	3	3.3	0	0.0
⑨ 1,000명 이상	3	1.6	2	2.8	1	1.1	0	0.0
⑩ 기타	0	0.0	0	0.0	0	0.0	0	0.0
계	189	100.0	71	100.0	91	100.0	27	100.0

문 6-1-7~6-1-8. 주당 근로일수, 일일 근로시간, 시급

주당 근로일수는 평균 '4.96일', 일일 근로시간은 평균 '8.17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시급은 평균 '7724.36원'으로 나타남

- 주당 근로일수, 일일 근로시간과 소득을 질문한 결과, 주당 근로일수와 일일 근로시간에서 이행경로별 차이가 나타났다. 평균 주당 근로일수는 학업형이 4.4일로 직업형(5.4일)에 비해 적었고, 일일 근로시간 평균은 무업형 9.04시간, 직업형 8.62시간, 학업형 7.26시간으로 학업형이 직업형에 비해 더 적은 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급은 직업형이 평균 8,122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업형 7,926원, 학업형 7,137원 순으로 많았다.



【그림 II-44】 주당 근로일수, 일일 근로시간, 시급(N=189, 단위: 일, 시간, 원)

표 II-44 주당 근로일수, 일일 근로시간, 시급 (N=189, 단위: 일, 시간, 원)

구분	M(SD)				F(대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6-1-7. 주당 근로일수	4.96 (1.33)	4.41 (1.44)	5.36 (1.02)	5.06 (1.50)	11.30*** (a(b))
6-1-7. 일일 근로시간	8.17 (2.35)	7.26 (2.47)	8.62 (1.97)	9.04 (2.52)	9.63*** (a(b,c))
6-1-8. 소득	7724.76 (5222.51)	7137.89 (3387.62)	8122.68 (6264.21)	7926.89 (5380.54)	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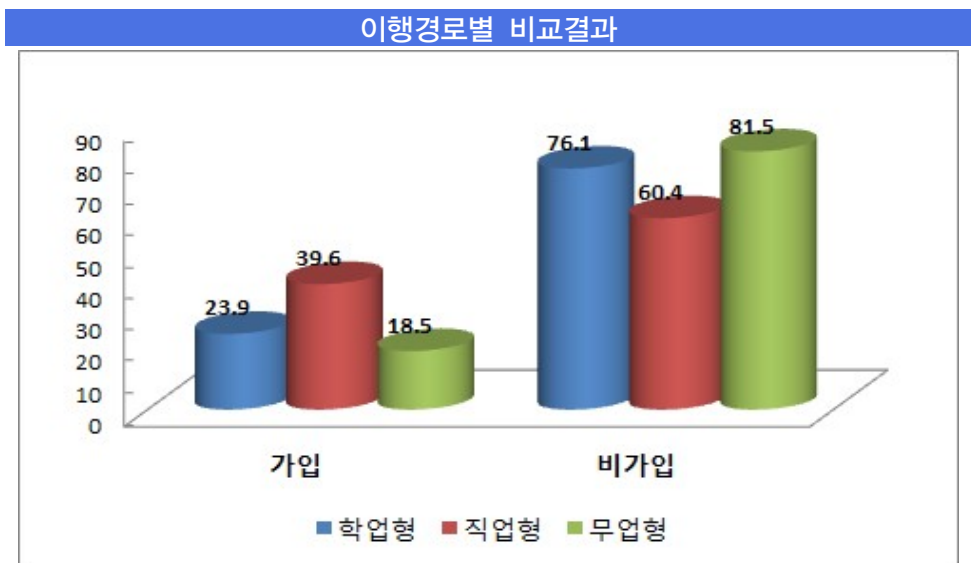
*** p<.001.

*주: a=학업형, b=직업형, c=무업형

문 6-1-9. 4대 보험 가입유무(4차년도 추가)³⁷⁾

응답자의 30.7%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대부분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별로 살펴보면, 직업형의 가입률은 39.6%로 다른 유형보다 더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형은 23.9%, 무업형은 18.5%로 나타났다.



【그림 II-45】 4대 보험 가입유무(단위: %)

표 II-45 4대 보험 가입유무 (단위: 명, %)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χ^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가입	58	30.7	17	23.9	36	39.6	5	18.5	6.77* (df=2)
② 비가입	131	69.3	54	76.1	55	60.4	22	81.5	
계	189	100.0	71	100.0	91	100.0	27	100.0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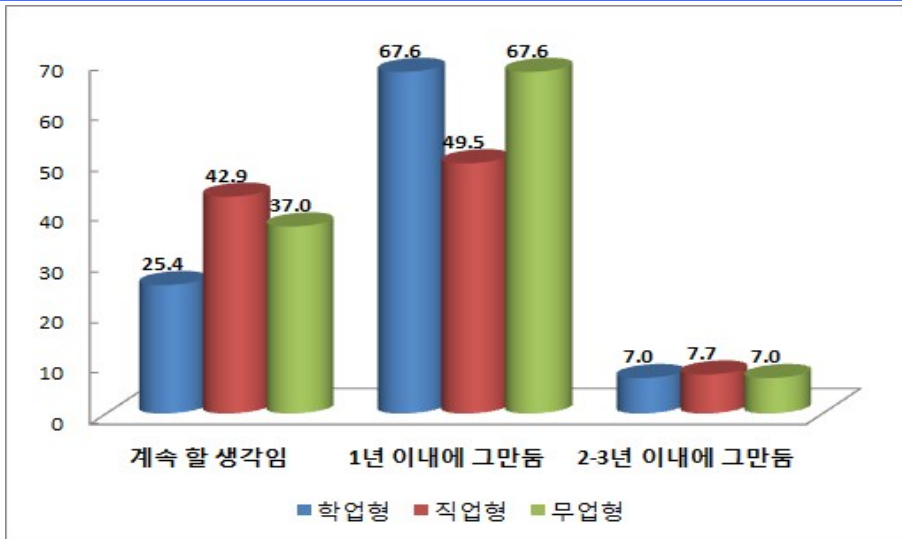
37) 문 6-1-9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현재 다니고 있는 일(아르바이트)에서 한 가지라도 가입했다면 '① 가입'으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가정에서의 가입은 제외함

문 6-1-10. 향후 전망(4차년도 추가)

전체 응답자의 57.7%가 '1년 이내에 그만둠',
35.4%가 '계속 할 생각임'에, 6.9%가 '2-3년 이내에 그만둠'에 응답함

- 일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모든 유형이 1년 이내에 그만둘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직업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계속 할 생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형과 무업형은 약 80%가 그만 둘 것이라고 응답하여, 대부분 이 일을 계속 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행경로별 비교결과



【그림 II-46】 향후 전망(단위: %)

표 II-46 향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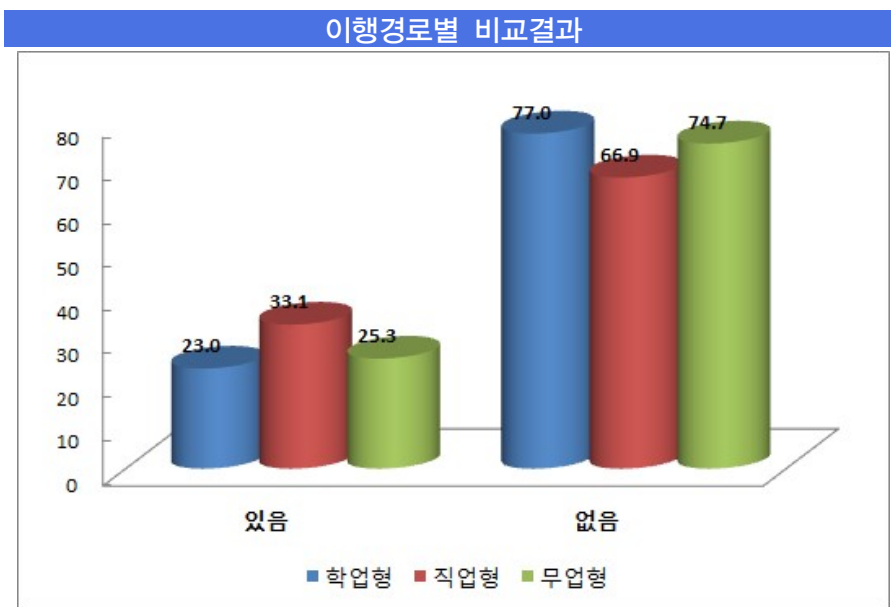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계속 할 생각임	67	35.4	18	25.4	39	42.9	10	37.0
② 1년 이내에 그만 둘 것임	109	57.7	48	67.6	45	49.5	48	67.6
③ 2-3년 이내에 그만 둘 것임	13	6.9	5	7.0	7	7.7	5	7.0
계	189	100.0	71	100.0	91	100.0	27	100.0

문 7.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의사(4차년도 추가)

전체 응답자의 26.7%가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있다고 응답함

-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참여 의사에 대한 질문에서 유형에 상관없이 약 3분의 1 정도의 응답자가 참여 의사가 있었다. 참여 의사가 있는 응답자의 비율을 경로별로 살펴보면, 직업형은 33.1%로 가장 높았으며 무업형 25.3%, 학업형 23.0% 순으로 높았다.



【그림 II-47】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의사(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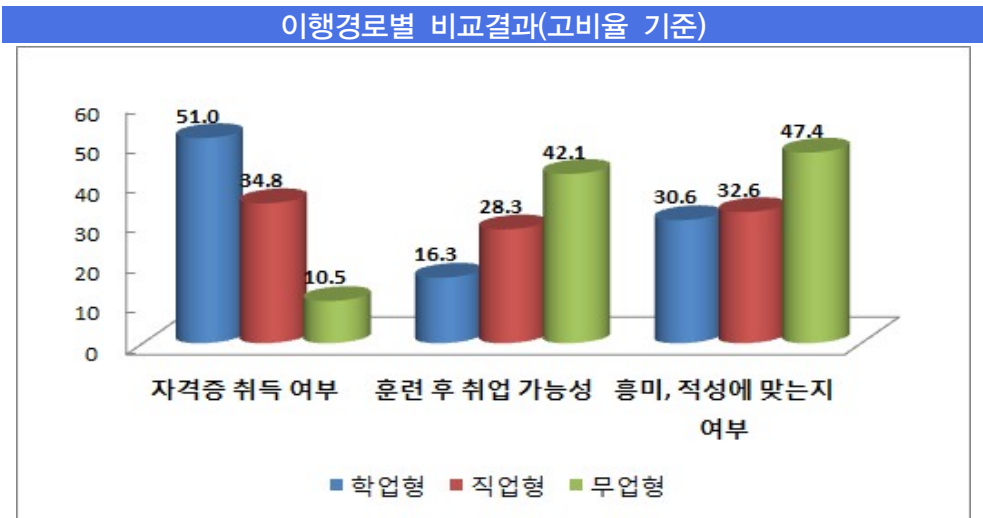
표 II-47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의사 (단위: 명, %)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χ^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있음	114	26.7	49	23.0	46	33.1	19	25.3	4.46 (df=2)
② 없음	313	73.3	164	77.0	93	66.9	56	74.7	
계	427	100.0	213	100.0	139	100.0	75	100.0	

문 7-1.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시 고려사항(4차년도 추가)³⁸⁾³⁹⁾

직업훈련을 받을 때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자격증 취득 여부(37.7%)’, ‘흥미·적성에 맞는지 여부(34.2%)’, ‘훈련 후 취업가능성(25.4%)’ 등이 꼽힘

- 학업형은 자격증 취득여부(51.0%)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으나 무업형은 흥미·적성에 맞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였으며(47.4%), 자격증 취득 여부는 10.5%만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직업형은 자격증 취득여부가 34.8%로 가장 중요하였으나 흥미 및 적성에 맞는지 여부, 훈련 후 취업가능성도 높게 나타났다. 총 훈련기간과 훈련 시 받는 수당, 주간 참여 일수 및 1일 훈련 시간은 응답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48】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시 고려사항(단위: %)

표 II-48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시 고려사항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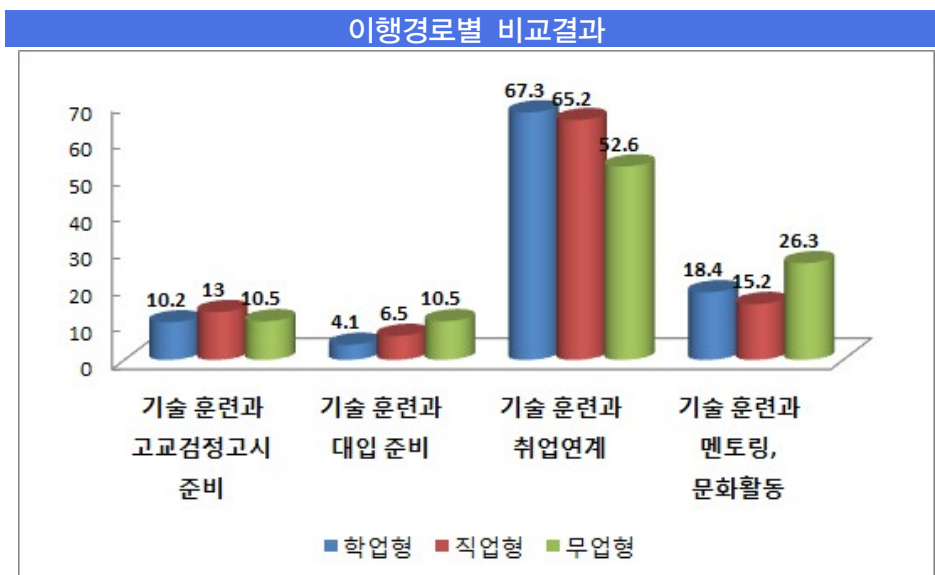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자격증 취득 여부	43	37.7	25	51.0	16	34.8	2	10.5
② 훈련 후 취업 가능성	29	25.4	8	16.3	13	28.3	8	42.1
③ 흥미, 적성에 맞는지 여부	39	34.2	15	30.6	15	32.6	9	47.4
④ 총 훈련기간	1	0.9	1	2.0	0	0.0	0	0.0
⑤ 훈련 시 받는 수당	1	0.9	0	0.0	1	2.2	0	0.0
⑥ 주간 참여 일수 및 1일 훈련 시간	1	0.9	0	0.0	1	2.2	0	0.0
계	114	100.0	49	100.0	46	100.0	19	100.0

38) 문 7-1~7-4는 문 7(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의사)의 ①번‘있음’에 응답한 경우(N=114)만 응답한 결과임.
 39) 문 7-2는 문 7-1의 ④ ‘총 훈련 기간’에 응답한 경우 적당한 훈련기간을 직접 기입하는 문항이었으며, 문 7-3은 ⑤ ‘훈련 시 받는 수당’에 응답한 경우 적절한 수당을 기입하는 문항임. 각 문항의 응답자가 1명으로 분석하지 않음.

문 7-4. 희망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4차년도 추가)

가장 희망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특정직업의 기술훈련과 확실한 취업연계(64.0%)'였으며, '멘토링, 문화활동 등을 병행한 특정직업 기술훈련(18.4%)'이 그 다음으로 많았음

○ 선호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경로별로 유사하였다. 대부분이 기술 훈련과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선호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멘토링과 문화활동이 포함된 기술 훈련프로그램을 선호하였다. 반면 기술훈련 및 멘토링과 문화활동의 경우 다른 유형보다 무업형의 선호도가 높았다. 또한 기술 훈련 및 대입준비 역시 무업형이 다른 유형보다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49] 희망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단위: %)

표 II-49 희망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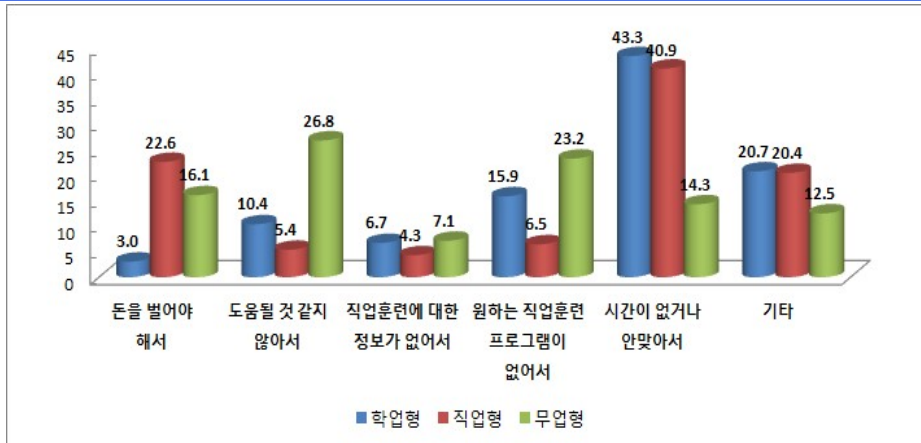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기술 훈련과 고교학력취득 검정고시 준비	13	11.4	5	10.2	6	13.0	2	10.5
② 기술 훈련과 대입 준비	7	6.1	2	4.1	3	6.5	2	10.5
③ 기술 훈련과 확실한 취업연계	73	64.0	33	67.3	30	65.2	10	52.6
④ 기술 훈련과 멘토링, 문화활동	21	18.4	9	18.4	7	15.2	5	26.3
⑤ 기타	0	0.0	0	0.0	0	0.0	0	0.0
계	114	100.0	49	100.0	46	100.0	19	100.0

문 7-5. 직업훈련 미참여 이유(4차년도 추가)⁴⁰⁾

직업훈련을 받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시간이 없거나 안 맞아서(37.4%)’, ‘기타(19.2%)’, ‘원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없어서(14.4%)’ 등의 순이었음

○ 직업훈련 미참여 이유에 대해 학업형과 직업형은 ‘시간이 없거나 맞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던 반면 무업형은 ‘취업이나 능력 향상에 도움될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2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원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없다는 비율도 무업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형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의 비율도 높았다. 즉 학업형은 시간이 없어서, 직업형은 시간이 없거나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무업형은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거나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참여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기타는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취업함’, ‘대학진학 준비’, ‘이미 참여해서’ ‘군복무 예정’ 등이었다.

이행경로별 비교결과



【그림 II-50】 직업훈련 미참여 사유(단위: %)

표 II-50 직업훈련 미참여 사유

(단위: 명, %)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χ ²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돈을 벌어야 해서	35	11.2	5	3.0	21	22.6	9	16.1	55.34*** (df=10)
② 도움될 것 같지 않아서	37	11.8	17	10.4	5	5.4	15	26.8	
③ 직업훈련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19	6.1	11	6.7	4	4.3	4	7.1	
④ 원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없어서	45	14.4	26	15.9	6	6.5	13	23.2	
⑤ 시간이 없거나 안 맞아서	117	37.4	71	43.3	38	40.9	8	14.3	
⑥ 기타	60	19.2	34	20.7	19	20.4	7	12.5	
계	313	100.0	164	100.0	93	100.0	5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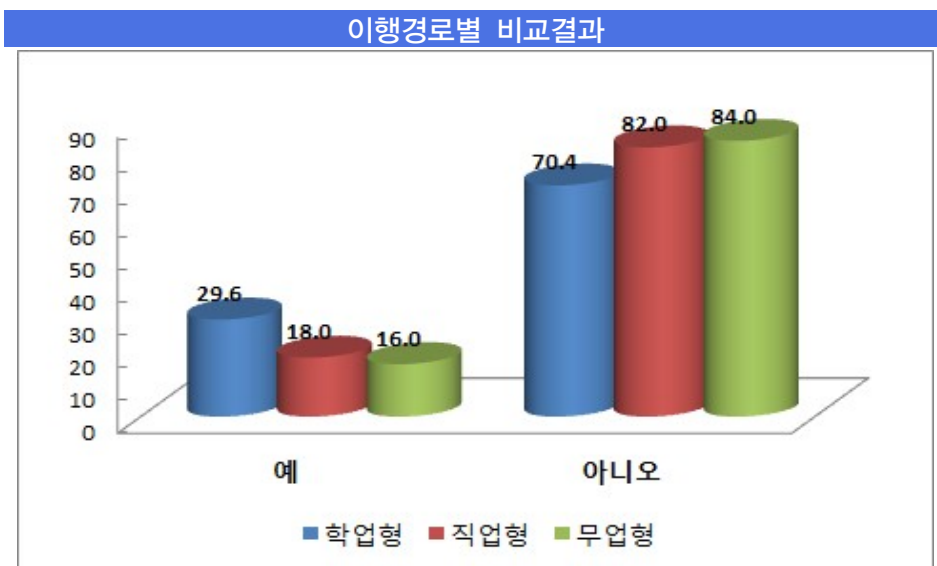
*** p<.001

40) 문 7-5는 문 7(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의사)의 ②번‘없음’에 응답한 경우(N=313)만 응답한 결과임.

문 8. 동아리·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

전체 응답자의 23.4%가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이 있음

○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 참여경험에 대한 질문에 있어 전체의 23.4%가 경험이 있었으며, 그 중 학업형의 경험률이 29.6%로 가장 높았다. 직업형은 18.0%, 무업형은 16.0% 순으로 나타나 학업형이 직업형과 무업형에 비해 동아리 및 인터넷 카페 경험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5】 동아리·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단위: %)

표 II-51 동아리·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 (단위: 명, %)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χ^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예	100	23.4	63	29.6	25	18.0	12	16.0	9.10* (df=2)
② 아니오	327	76.6	150	70.4	114	82.0	63	84.0	
계	427	100.0	213	100.0	139	100.0	7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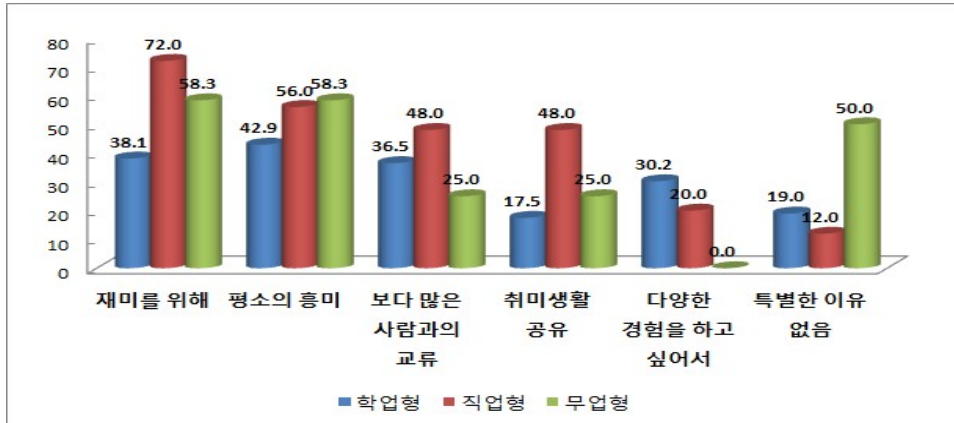
* α .05

문 8-1. 동아리·인터넷 카페 참여 이유⁴¹⁾

동아리·인터넷 카페 참여 이유에 대해 '재미를 위해(49.0%)'와 '평소의 흥미(48.0%)' 등이 꼽힘

○ 학업형은 '평소의 흥미'가 42.9%로 가장 높았으며, 직업형은 '재미를 위해'가 72.0%, 무업형은 '재미를 위해'와 '평소의 흥미'가 각 58.3%로 가장 많았다.

이행경로별 비교결과(고비율 기준)



【그림 II-52】 동아리·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N=100, 단위: %)

표 II-52 동아리·인터넷 카페 참여 이유⁴²⁾

(단위: 명, %)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재미·흥미	① 재미를 위해	49	49.0	24	38.1	18	72.0	7	58.3
	③ 평소의 흥미	48	48.0	27	42.9	14	56.0	7	58.3
	⑦ 취미생활 공유	26	26.0	11	17.5	12	48.0	3	25.0
친교·교류	④ 학업중단 청소년끼리 공감대 형성	1	1.0	1	1.6	0	0.0	0	0.0
	⑤ 보다 많은 사람과의 교류	38	38.0	23	36.5	12	48.0	3	25.0
	⑨ 사교적인 성격으로 바꾸고 싶어서	0	0.0	0	0.0	0	0.0	0	0.0
정보 및 자아개발	② 자아개발	17	17.0	12	19.0	4	16.0	1	8.3
	⑥ 학업중단 성공사례를 알고 싶어서	1	1.0	0	0.0	0	0.0	1	8.3
	⑧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24	24.0	19	30.2	5	20.0	0	0.0
	⑩ 검정고시 준비에 도움	2	2.0	1	1.6	0	0.0	1	8.3
	⑪ 복학에 도움	1	1.0	1	1.6	0	0.0	0	0.0
	⑫ 대학입시 준비에 도움	10	10.0	10	15.9	0	0.0	0	0.0
	⑬ 취업 또는 직업 선택에 도움	15	15.0	12	19.0	3	12.0	0	0.0
	⑭ 대학 및 학과 선택에 도움	15	15.0	13	20.6	0	0.0	2	16.7
	⑮ 공모전 등 각종 대회 준비에 도움	2	2.0	1	1.6	1	4.0	0	0.0
⑯ 학과 공부에 도움	12	12.0	11	17.5	0	0.0	1	8.3	
기타	⑰ 특별한 이유 없음	21	21.0	12	19.0	3	12.0	6	50.0
	⑱ 기타	6	6.0	3	4.8	2	8.0	1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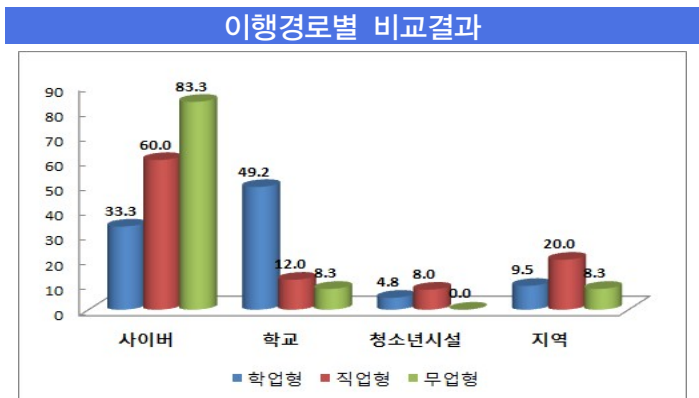
41) 문 8-1~문 8-3은 문8(동아리·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여부)의 ①번'예'에 응답한 경우(N=100)에만 응답한 결과임.

42) 1~3순위 복수 기입 방식이었으며, 비율은 다중응답 처리된 케이스 퍼센트를 반영하였음.

문 8-2. 참여하는 동아리·인터넷 카페 유형

**참여하는 동아리·인터넷 카페 유형에 대해
'사이버 동아리(46.0%)'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참여하는 동아리·인터넷 카페 유형을 알아본 결과 직업형과 무업형은 사이버동아리가 가장 많았으며 학업형은 학교 동아리가 가장 많았다. 직업형은 기타 지역동아리의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았다.



[그림 II-53] 참여하는 동아리·인터넷 카페 유형(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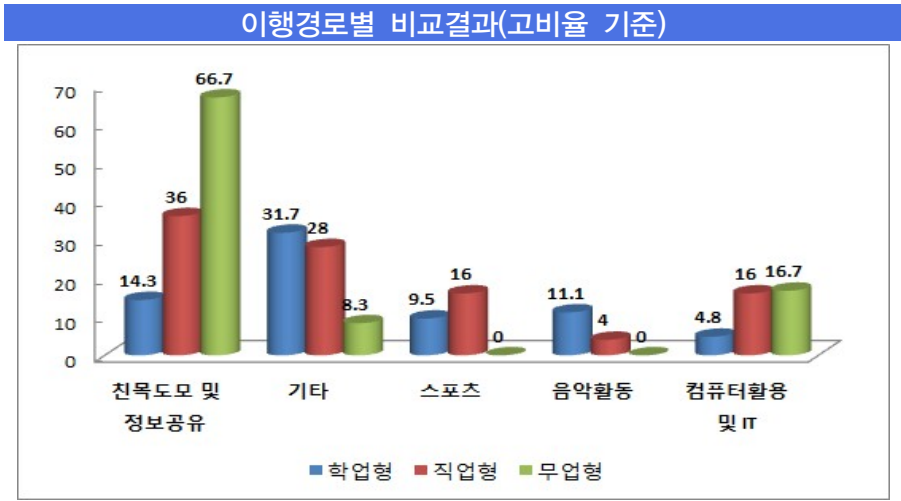
표 II-53 참여하는 동아리·인터넷 카페 유형 (단위: 명, %)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이버 동아리	⑮ 인터넷 포털 카페	11	11.0	6	9.5	4	16.0	1	8.3
	⑯ 인터넷 홈페이지	4	4.0	2	3.2	1	4.0	1	8.3
	⑰ SNS 서비스 카페	31	31.0	13	20.6	10	40.0	8	66.7
	소계	46	46.0	21	33.3	15	60.0	10	83.3
학교 동아리	⑫ 대안교육기관 동아리	1	1.0	1	1.6	0	0.0	0	0.0
	⑬ 중·고등학교 동아리	11	11.0	9	14.3	2	8.0	0	0.0
	⑭ 대학교 동아리	23	23.0	21	33.3	1	4.0	1	8.3
	소계	35	35.0	31	49.2	3	12.0	1	8.3
청소년시설 동아리	① 청소년시설 동아리	4	4.0	2	3.2	2	8.0	0	0.0
	③ 보호시설 동아리	0	0.0	0	0.0	0	0.0	0	0.0
	④ 상담기관 동아리	1	1.0	1	1.6	0	0.0	0	0.0
	소계	5	5.0	3	4.8	2	8.0	0	0.0
기타 지역기관 동아리	② 복지시설 동아리	2	2.0	2	3.2	0	0.0	0	0.0
	⑤ 보호관찰소 동아리	0	0.0	0	0.0	0	0.0	0	0.0
	⑥ 직업훈련기관 동아리	2	2.0	1	1.6	1	4.0	0	0.0
	⑦ 종교기관 동아리	1	1.0	1	1.6	0	0.0	0	0.0
	⑧ 소년원 학교 동아리	0	0.0	0	0.0	0	0.0	0	0.0
	⑨ 검정고시 학원 동아리	2	2.0	1	1.6	0	0.0	1	8.3
	⑩ 대입학원 동아리	0	0.0	0	0.0	0	0.0	0	0.0
	⑪ 병원 동아리	0	0.0	0	0.0	0	0.0	0	0.0
	⑰ 기타(운동, 음악 동아리)	5	5.0	1	1.6	4	16.0	0	0.0
	소계	12	12.0	6	9.5	5	20.0	1	8.3
기타	⑱ 활발하게 참여한 것 없음	2	2.0	2	3.2	0	0.0	0	0.0
소계	2	2.0	2	3.2	0	0.0	0	0.0	
전체	100	100.0	63	100.0	25	100.0	12	100.0	

문 8-3. 동아리·인터넷 카페 활동 내용

동아리·인터넷 카페 활동 내용에 대해 '친목도모 및 정보공유(26.0%)'가 가장 많았고, '기타(23.0%)', '스포츠(1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동아리·인터넷 카페 활동 내용에 대해 질문한 결과, 직업형과 무업형은 친목도모 및 정보공유가 가장 높았으며 학업형도 기타를 제외하면 친목도모 및 정보공유가 가장 높았다.



【그림 II-54】 동아리·인터넷 카페 활동 내용(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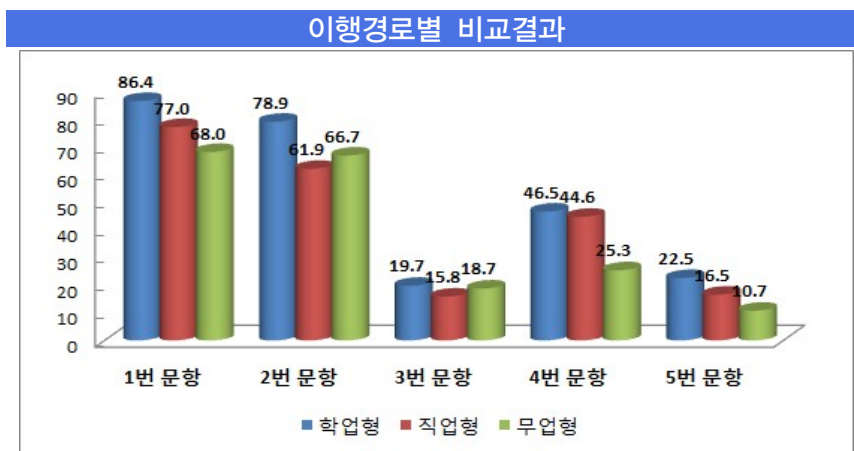
표 II-54 동아리·인터넷 카페 활동 내용 (단위: 명, %)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음악활동(악기, 합창, 작곡 등)	8	8.0	7	11.1	1	4.0	0	0.0
친목도모 및 정보공유(SNS 활동)	26	26.0	9	14.3	9	36.0	8	66.7
스포츠	10	10.0	6	9.5	4	16.0	0	0.0
봉사활동	7	7.0	7	11.1	0	0.0	0	0.0
소속된 단체 활동(학과 실습 등)	2	2.0	2	3.2	0	0.0	0	0.0
입시공부 및 유학준비	3	3.0	2	3.2	0	0.0	1	8.3
애니메이션	3	3.0	3	4.8	0	0.0	0	0.0
컴퓨터활용 및 IT	9	9.0	3	4.8	4	16.0	2	16.7
오토바이 및 자동차	1	1.0	1	1.6	0	0.0	0	0.0
종교	3	3.0	3	4.8	0	0.0	0	0.0
기타(문학, 요리, 애완동물 등)	28	28.0	20	31.7	7	28.0	1	8.3
계	100	100.0	63	100.0	25	100.0	12	100.0

문 9. 진로정보탐색

진로정보탐색에 대한 문항별 긍정적 응답 비율은 ‘진로에 대해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었다(80.1%)’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터넷을 검색했다(71.2%)’ 등의 순이었음

- 이행경로별 진로정보탐색 분석결과를 보면, 1번 문항의 경우 학업형 86.4%, 직업형 77.0%, 무업형 68.0%로 학업형이 진로에 대해 주변사람들과 대화를 비교적 많이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검색 역시 학업형이 78.9%로 가장 많았으나 무업형 66.7%, 직업형 61.9%로 직업형보다 무업형이 인터넷으로 진로정보를 더 많이 검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번 문항의 차이도 두드러졌는데, 학업형과 직업형에 비해 무업형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55】 진로정보탐색(N=427, 단위: %)

표 II-55 진로정보탐색⁴³⁾

[N=427, 단위: 명(%)]

문항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χ^2
	사례수(비율)	사례수(비율)	사례수(비율)	사례수(비율)	
1) 진로에 대해 부모님(또는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342(80.1)	184(86.4)	107(77.0)	51(68.0)	13.01**
2) 인터넷을 검색하였다	304(71.2)	168(78.9)	86(61.9)	50(66.7)	12.77***
3) 공공기관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78(18.3)	42(19.7)	22(15.8)	14(18.7)	7.27
4) 내가 관심 있는 직업 종사자를 만나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	180(42.2)	99(46.5)	62(44.6)	19(25.3)	10.68**
5) 직업체험을 한 적이 있다	79(18.5)	48(22.5)	23(16.5)	8(10.7)	1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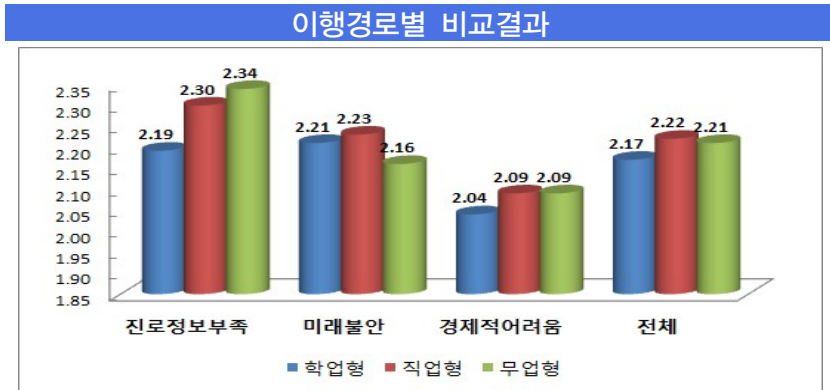
** α .01, *** α .001

43)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으며, 사례수와 비율은 ③번‘그렇다’와 ④번‘매우 그렇다’를 합산한 결과임. 통계치는 ①과 ②를 합하여 ‘그렇지 않다’, ③과 ④를 합하여 ‘그렇다’로 분류하여 분석함

문 10. 진로 장애

진로 장애에 대한 평균에서
 ‘진로정보 부족(M=2.25)’, ‘미래불안(M=2.21)’, ‘경제적 어려움(M=2.06)’으로 나타남

- 진로 장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직업형의 진로 장애 평균이 2.22로 가장 높았으며 무업형 2.21, 학업형 2.17 순으로 높았다. 세부문항을 보면, 무업형은 학업형에 비해 진로 관련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직업형이 가장 높고 무업형이 가장 낮았으며, 경제적 어려움은 학업형이 가장 낮았다.



【그림 II-56】 진로 장애(N=427, 단위: 점)

표 II-56 진로 장애⁴⁴⁾

(N=427, 단위: 점)

문항		평균				F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진로정보 부족	1)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잘 모르겠다	2.07	1.96	2.15	2.21	4.32* (a<c)
	2)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⁴⁵⁾	2.61	2.69	2.58	2.43	
	3) 나는 여러 가지 직업 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2.17	2.10	2.21	2.31	
	4)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분야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2.31	2.20	2.36	2.53	
	5)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교육 등에 대한 자료를 얻기가 어렵다	2.11	2.01	2.20	2.21	
소계		2.25	2.19	2.30	2.34	
미래불안	6)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2.31	2.28	2.37	2.32	0.22
	7) 시대의 변화가 나의 진로에 대한 선택과 계획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2.10	2.07	2.17	2.05	
	8) 경기 불황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나의 진로에 영향을 준다	2.14	2.21	2.12	1.96	
	9) 나는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	2.35	2.37	2.30	2.36	
소계		2.21	2.21	2.23	2.16	
경제적 어려움	10) 내가 원하는 진로와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	2.15	2.15	2.19	2.09	0.21
	11)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없다	2.10	2.07	2.14	2.12	
	12)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2.15	2.15	2.17	2.11	
	13) 가정 환경이 열악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진로로 선택하기 어렵다	1.95	1.91	1.96	2.04	
소계		2.06	2.04	2.09	2.09	
전체		2.19	2.17	2.22	2.21	0.71

* α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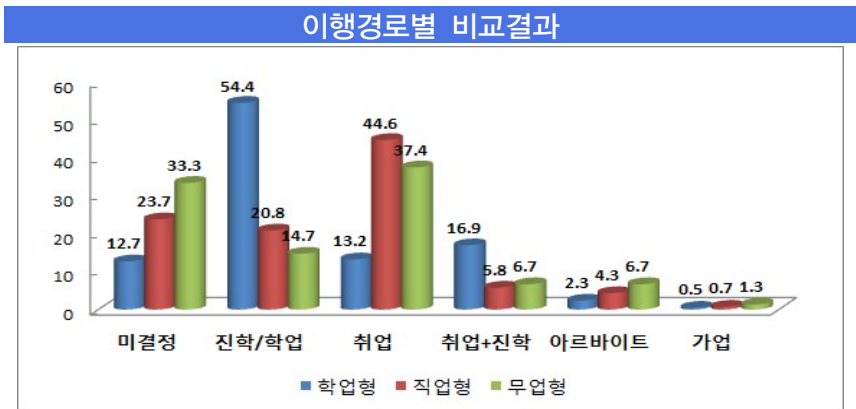
*주: a=학업형, b=직업형, c=무업형

44)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문 11. 향후 진로 계획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진학/학업(36.5%)'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취업(27.7%)', '진로 미결정(19.9%)', '취업과 진학 병행(1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학업형은 '진학/학업'의 응답률이 54.4%로 가장 높았으며 직업형과 무업형은 '취업'이 44.6%, 37.4%로 가장 높았다. 미결정의 이행경로별 응답을 보면 무업형이 33.3%로 가장 높아, 다른 유형에 비해 결정을 하지 못한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57】 향후 진로 계획(단위: %)

표 II-57 향후 진로 계획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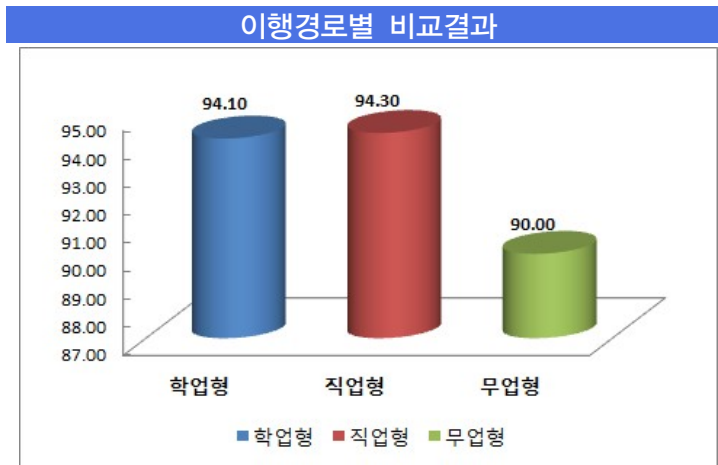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미결정	①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	85	19.9	27	12.7	33	23.7	25	33.3
	소계	85	19.9	27	12.7	33	23.7	25	33.3
진학/학업	② 정규학교로 복학	9	2.1	7	3.3	1	0.7	1	1.3
	③ 대안학교 진학	0	0.0	0	0.0	0	0.0	0	0.0
	④ 해외 유학	15	3.5	10	4.7	4	2.9	1	1.3
	⑤ 검정고시 준비	10	2.3	2	0.9	6	4.3	2	2.7
	⑥ 대학 진학 (4차년도 추가)	110	25.8	87	40.8	18	12.9	5	6.7
	⑦ 편입 및 재입학(재수) 준비 (4차년도 추가)	12	2.8	10	4.7	0	0.0	2	2.7
	소계	156	36.5	116	54.4	29	20.8	11	14.7
취업	⑧ 진학하지 않고 취업(창업)할 예정임	98	23.0	21	9.9	57	41.0	20	26.7
	⑨ 취업 혹은 창업을 대비해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예정	20	4.7	7	3.3	5	3.6	8	10.7
	소계	118	27.7	28	13.2	62	44.6	28	37.4
취업+진학	⑩ 취업과 진학 병행	49	11.5	36	16.9	8	5.8	5	6.7
소계	49	11.5	36	16.9	8	5.8	5	6.7	
아르바이트	⑪ 시간제 근로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낼 예정	16	3.7	5	2.3	6	4.3	5	6.7
소계	16	3.7	5	2.3	6	4.3	5	6.7	
가업	⑫ 당분간 무보수로 가업을 도울 예정	3	0.7	1	0.5	1	0.7	1	1.3
	소계	3	0.7	1	0.5	1	0.7	1	1.3
계		427	100.0	213	100.0	139	100.0	75	100.0

45) 이 문항은 역코딩 하였음.

문 12. 진로 계획 달성 예측⁴⁶⁾

응답자의 93.6%가 향후 원하는 진로계획이 달성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 원하는 계획이 달성될 지에 대한 질문 결과를 경로별로 살펴보면, 학업형은 94.1%, 직업형은 94.3%가 달성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무업형은 90.0%가 달성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II-58】 진로 계획 달성 예측(N=342, 단위: %)

표 II-58 진로 계획 달성 예측⁴⁷⁾

(N=342, 단위: 점)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χ^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진로 계획 달성 예측	320	93.6	175	94.1	100	94.3	45	90.0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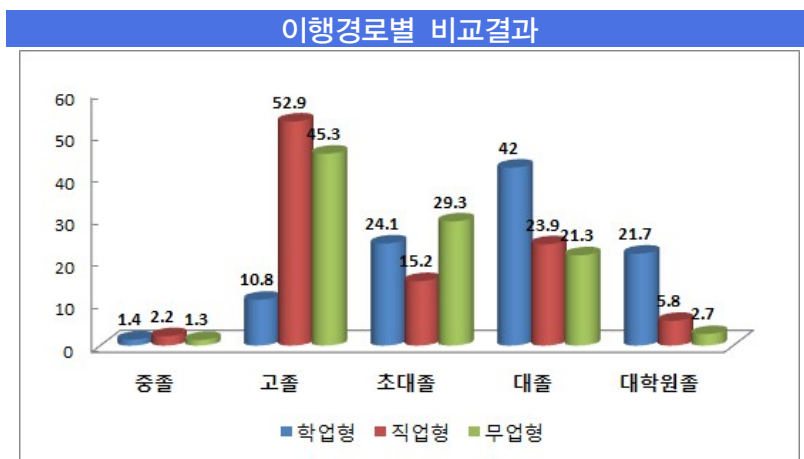
46) 문 12는 문 11(향후 진로 계획)의 ②번~⑩번(② 정규학교로 복학 ③ 대안학교 진학 ④ 해외 유학 ⑤ 검정고시 준비 ⑥ 대학 진학 ⑦ 편입 및 재입학 준비 ⑧ 진학하지 않고 취업할 예정임 ⑨ 취업 혹은 창업을 대비해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예정임 ⑩ 취업과 진학 병행 ⑪ 진학이나 취업은 하지 않고 시간제 근로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낼 예정임 ⑫ 당 분간 무보수로 기업을 도울 예정임)에 응답한 경우(N=342)만 응답한 결과임.

47)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으며, 사례수와 비율은 ③ 번과 ④번을 합산한 결과임. 통계치는 ①과 ②를 합하여'그렇다', ③과 ④를 합하여'그렇지 않다'로 분류하여 분석함

문 13. 자신의 향후 교육 기대수준

**자신의 향후 교육 기대수준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2.5%'가 '대졸'이라고 응답함**

○ 자신의 향후 교육 기대수준을 이행경로별로 알아보면, 학업형은 대졸이 42.0%로 가장 많은 반면 직업형은 52.9%로 고졸이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무업형 역시 45.3%로 고졸이 가장 많았다. 또한 전반적으로 학업형은 높은 학력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무업형은 고졸과 초대졸을 기대하는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59】 자신의 향후 교육 기대수준(단위: %)

표 II-59 자신의 향후 교육 기대수준⁴⁸⁾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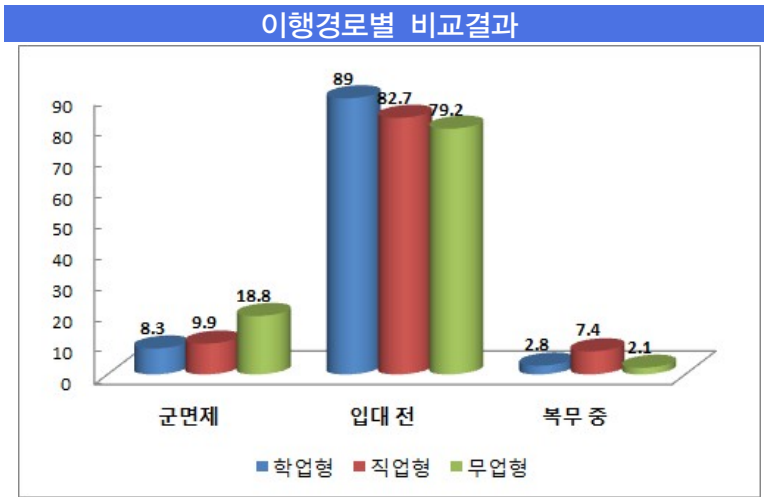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중졸	7	1.6	3	1.4	3	2.2	1	1.3
② 고졸	130	30.6	23	10.8	73	52.9	34	45.3
③ 초대졸(2~3년제)	94	22.1	51	24.1	21	15.2	22	29.3
④ 대졸(4년제)	138	32.5	89	42.0	33	23.9	16	21.3
⑤ 대학원 졸(석사 및 박사)	56	13.2	46	21.7	8	5.8	2	2.7
계	425	100.0	212	100.0	138	100.0	75	100.0

48) 무응답(N=2)를 제외한 비율임

문 14. 군 입대(4차년도 추가)

남성 응답자의 84.9%가 '군에 입대하지 않았음'에 응답하였으며,
10.9%는 '군 면제', 4.2%는 '복무 중임'

○ 군 입대에 대한 질문에서, 대부분 아직 군에 입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면제의 경우 무업형은 18.8%가 군 면제 대상으로 나타났다. 복무 중인 비율은 직업형이 7.4%로 가장 많았다.



【그림 II-60】 군 입대(단위: %)

표 II-60 군 입대⁴⁹⁾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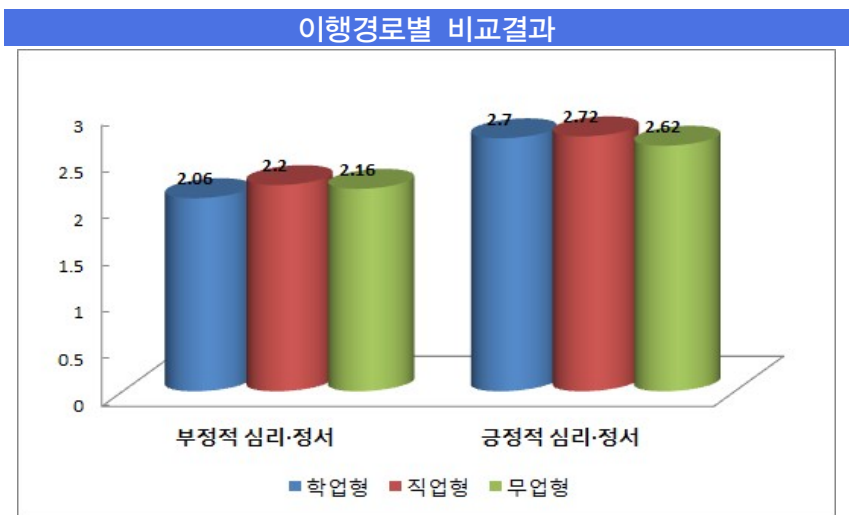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군 면제 대상임	26	10.9	9	8.3	8	9.9	9	18.8
군에 입대하지 않았음	202	84.9	97	89.0	67	82.7	38	79.2
현재 군에서 복무중임	10	4.2	3	2.8	6	7.4	1	2.1
계	238	100.0	109	100.0	81	100.0	48	100.0

49) 문 14의 경우 여성은 '① 여성임(해당사항 없음)'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음. 사례수와 비율은 ①의 응답자(N=189)를 제외하고 산출함

문 15. 학업중단에 대한 심리·정서⁵⁰⁾

학업중단에 대한 심리·정서에 관한 평균에서
‘부정적 심리·정서(M=2.14)’, ‘긍정적 심리·정서(M=2.69)’로 나타남

○ 학업중단에 대한 심리·정서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학업중단에 대한 부정적 심리·정서’의 평균은 직업형이 2.20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업형이 2.06으로 가장 낮았다. ‘학업중단에 대한 긍정적 심리·정서’ 평균은 2.72로 직업형이 가장 높았고 무업형이 2.62로 가장 낮았다.



【그림 II-61】 학업중단에 대한 심리·정서(N=390, 단위: 점)

표 II-61 학업중단에 대한 심리·정서⁵¹⁾ (N=390, 단위: 점)

문항	구분	M(SD)				F (대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1)~3)	부정적 심리·정서	2.14(0.71)	2.06(0.70)	2.20(0.72)	2.16(0.71)	7.59* (a,b,c)
4)~6)	긍정적 심리·정서	2.69(0.48)	2.70(0.43)	2.72(0.53)	2.62(0.49)	4.91* (a,b)

*p<.05.
주: a=학업형, b=직업형, c=무업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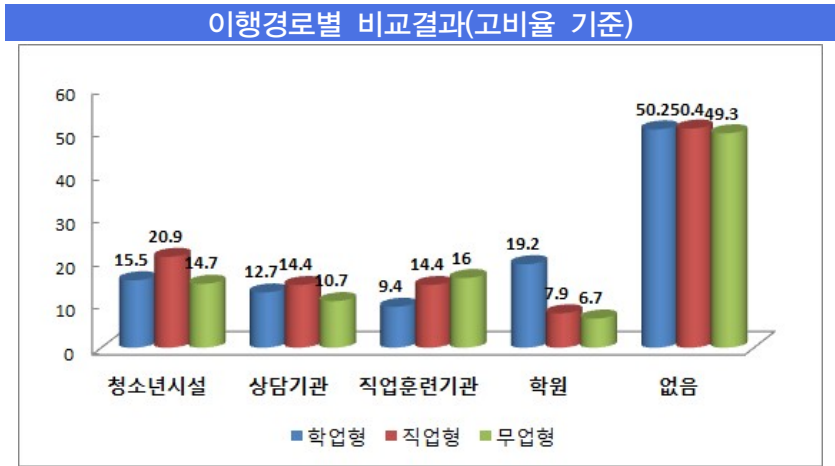
50) 문 15는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규 중 고등학교를 다닌 적이 없거나 그만 둔 경우(대학진학 및 정규 중고등학교 졸업 제외)만 응답한 결과(N=390)임.

51)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문 16. 성인 멘토를 만난 기관(복수 응답)

성인 멘토를 만난 기관에 대해 ‘없음(50.1%)’이 가장 많았고, ‘청소년시설(17.1%)’, ‘학원(13.3%)’, ‘상담기관(12.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인 멘토를 만난 기관에 대해 모든 유형에서 ‘없음’이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소년시설과 상담기관은 직업형이, 직업훈련기관은 무업형이, 학원은 학업형이 가장 응답 비율이 높았다. 보호관찰소의 경우 무업형이 가장 높았고, 종교기관은 학업형이 가장 높았다.



【그림 II-62】 성인 멘토를 만난 기관(N=427, 단위: %)

표 II-62 성인 멘토를 만난 기관⁵²⁾ (N=427, 단위: 명, %)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χ ²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청소년시설	73	17.1	33	15.5	29	20.9	11	14.7	2.09
② 복지시설	9	2.1	4	1.9	4	2.9	1	1.3	-
③ 보호시설	10	2.3	4	1.9	3	2.2	3	4.0	-
④ 상담기관	55	12.9	27	12.7	20	14.4	8	10.7	0.62
⑤ 보호관찰소	19	4.4	5	2.3	7	5.0	7	9.3	6.53*
⑥ 직업훈련기관	52	12.2	20	9.4	20	14.4	12	16.0	3.21
⑦ 종교기관	23	5.4	17	8.0	2	1.4	4	5.3	7.07*
⑧ 학원	57	13.3	41	19.2	11	7.9	5	6.7	12.86**
⑨ 병원 등 치료시설	7	1.6	3	1.4	3	2.2	1	1.3	-
⑩ 대안교육기관	18	4.2	11	5.2	4	2.9	3	4.0	1.10
⑪ 직장	9	2.1	2	0.9	4	2.9	3	4.0	-
⑫ 기타	1	0.2	0	0.0	0	0.0	1	1.3	-
⑬ 없음	214	50.1	107	50.2	70	50.4	37	49.3	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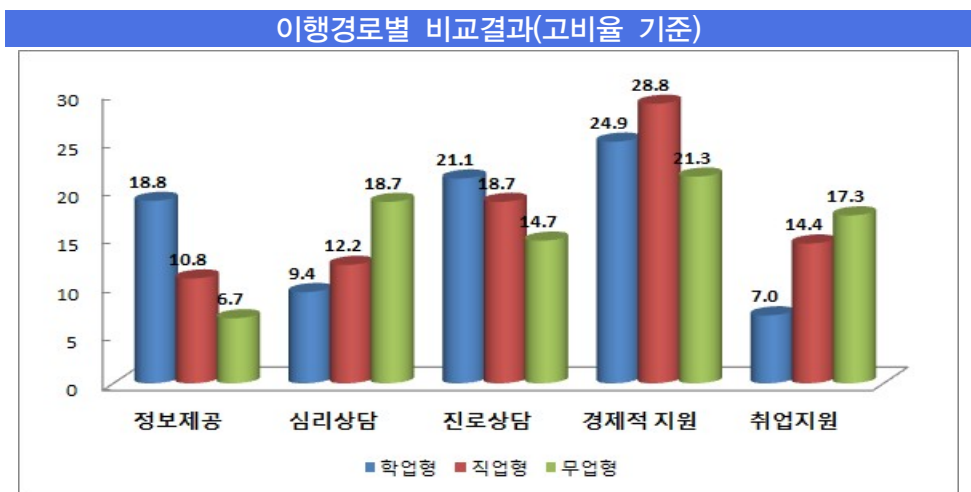
*p<.05, **p<.01

52) 차이분석 값이 없는 셀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이 전체의 20% 이상인 경우임.

문 17-1.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4차년도 추가)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에 대해 ‘경제적 지원(25.5%)’, ‘진로상담(19.2%)’, ‘정보제공(1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에 대해, 모든 유형에서 ‘경제적 지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학업형은 진로상담과 정보제공을, 직업형은 진로상담과 취업지원을, 무업형은 심리상담과 취업지원을 필요로 했다.



[그림 II-63]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단위: %)⁵³)

표 II-63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⁵⁴)⁵⁵) (단위: 명, %)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χ²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60	14.1	40	18.8	15	10.8	5	6.7	24.01* (df=14)
② 심리상담	51	11.9	20	9.4	17	12.2	14	18.7	
③ 진로상담	82	19.2	45	21.1	26	18.7	11	14.7	
④ 경제적 지원	109	25.5	53	24.9	40	28.8	16	21.3	
⑤ 취업지원	48	11.2	15	7.0	20	14.4	13	17.3	
⑥ 학업지원	23	5.4	14	6.6	6	4.3	3	4.0	
⑦ 건강지원	7	1.6	1	0.5	4	2.9	2	2.7	
⑧ 자기계발 기회	12	2.8	6	2.8	4	2.9	2	2.7	
기타 ⑨ 멘토나 또래 등 인간관계	6	1.4	4	1.9	0	0.0	2	2.7	
⑩ 기타	0	0.0	0	0.0	0	0.0	0	0.0	
기타 소계	25	5.9	11	5.2	8	5.8	6	8.0	
⑪ 없음	29	6.8	15	7.0	7	5.0	7	9.3	
계	427	100.0	213	100.0	139	100.0	75	100.0	

*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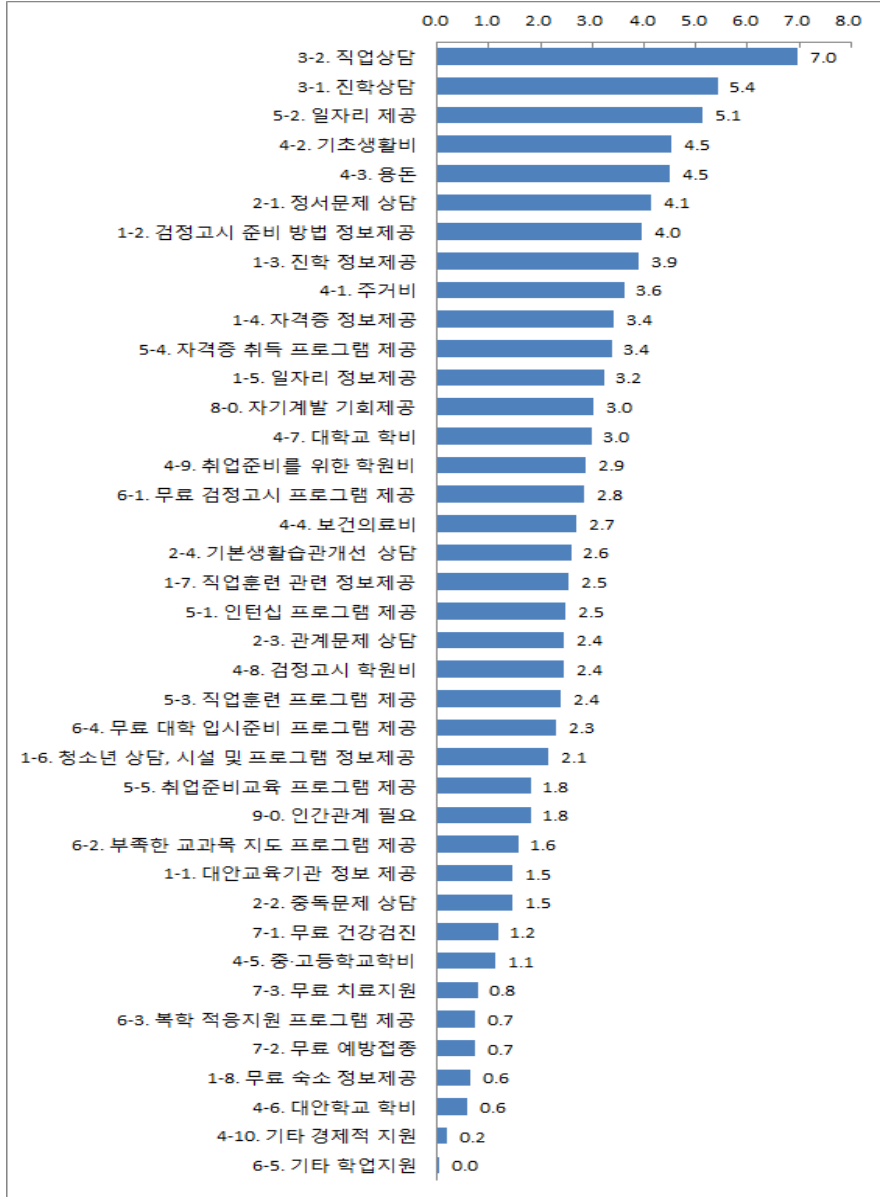
53) 분석을 위하여 ⑦ 건강지원, ⑧ 자기계발 기회, ⑨ 인간관계, ⑩ 기타를 합하여 ‘기타’로 분류하여 분석함

54) 문 17-1은 학업중단 이후 필요한 도움을 1~3순위로 총 3개 선택하는 문항이었으며, 본 표는 1순위 응답만을 분석함

55) 통계치는 ⑦~⑩의 응답을 ‘기타’로 분류하여 산출된 값임

문 17-2.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 구체적으로(4차년도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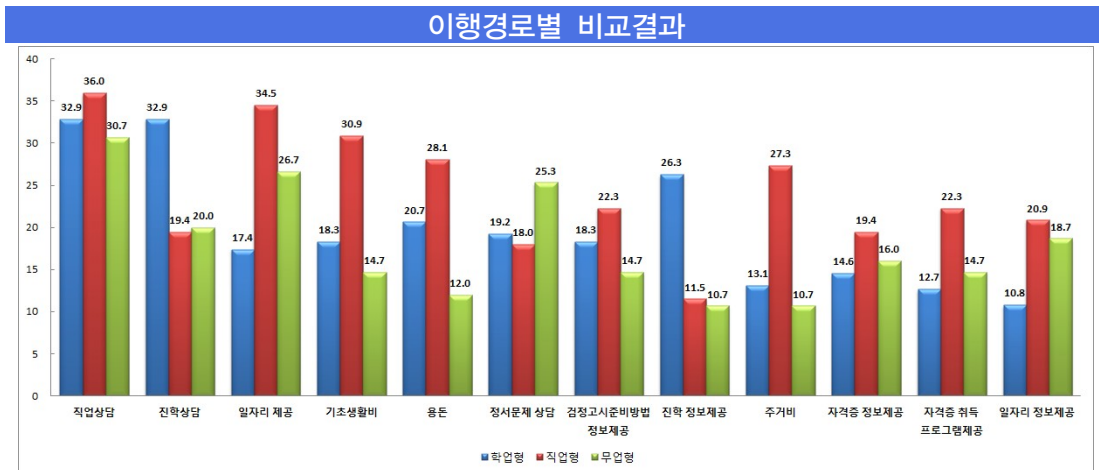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을 구체적으로 질문한 결과,
 ‘직업상담’(7.0%), ‘진학상담’(5.4%), ‘일자리 제공’(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64】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 구체적으로(N=2,049, 단위: %)56)57)

56) 번호 앞자리는 문 17-1의 영역, 뒷자리는 문 17-2의 항목번호를 나타냄(1-1~8: 정보제공, 2-1~4: 심리상담, 3-1~2: 진로상담, 4-1~10: 경제적 지원, 5-1~5: 취업지원, 6-1~5: 학업지원, 7-1~4: 건강지원, 8: 자기계발, 9: 인간관계)

○ 도움이 필요한 상위 12개 서비스 중 학업형은 진학상담과 진학정보를, 직업형은 직업상담과 검정고시 준비방법에 대한 정보제공을 더 원했다.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지만 무업형은 정서문제상담을 더 필요로 했다.



【그림 II-65】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 구체적으로(이행경로별 비교결과) (단위: %)

표 II-64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 구체적으로⁵⁸⁾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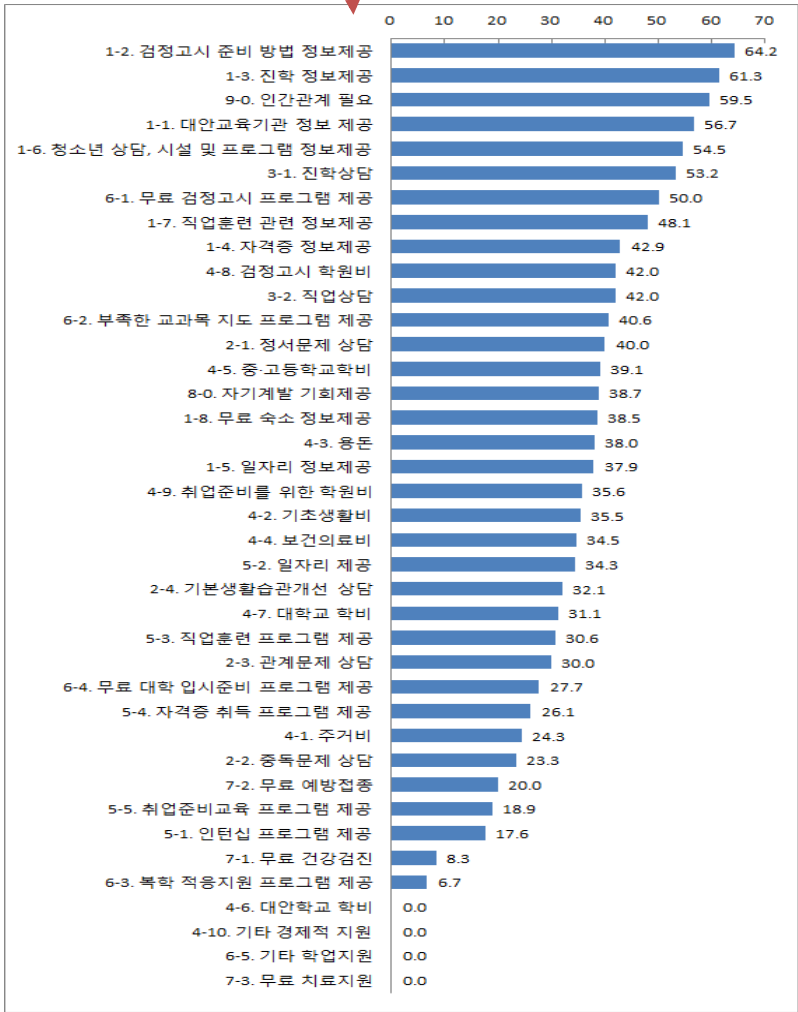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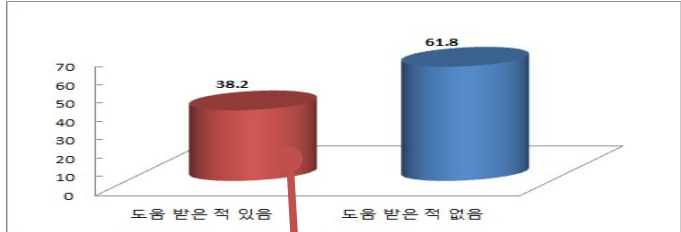
구분	전체 (N=427)		학업형 (N=213)		직업형 (N=139)		무업형 (N=75)		χ ²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3-2. 직업상담	143	33.5	70	32.9	50	36.0	23	30.7	7.44*
3-1. 진학상담	112	26.2	70	32.9	27	19.4	15	20.0	9.43**
5-2. 일자리 제공	105	24.6	37	17.4	48	34.5	20	26.7	3.05
4-2. 기초생활비	93	21.8	39	18.3	43	30.9	11	14.7	3.69
4-3. 용돈	92	21.5	44	20.7	39	28.1	9	12.0	2.96
2-1. 정서문제 상담	85	19.9	41	19.2	25	18.0	19	25.3	1.08
1-2. 검정고시준비방법 정보제공	81	19.0	39	18.3	31	22.3	11	14.7	6.51*
1-3. 진학 정보제공	80	18.7	56	26.3	16	11.5	8	10.7	12.75**
4-1. 주거비	74	17.3	28	13.1	38	27.3	8	10.7	7.30*
1-4. 자격증 정보제공	70	16.4	31	14.6	27	19.4	12	16.0	6.78*
5-4.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제공	69	16.2	27	12.7	31	22.3	11	14.7	1.15
1-5. 일자리 정보제공	66	15.5	23	10.8	29	20.9	14	18.7	19.13***

* p<.05, ** p<.01, *** p<.001

57) 사례수는 문 17-2(중복응답)에서 응답한 인원 수의 전체 합임.
58) 사례수는 도움이 필요했다고 응답한 인원 수임.

문 17-3.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 도움 받은 여부(4차년도 추가)

도움을 받은 비율은 전체 38.2%였으며, '검정고시 준비 방법 관련 정보제공'(64.2%), '진학 정보제공(61.3%)', '인간관계 필요'(59.5%) 등의 순으로 충족률이 높음



【그림 II-66】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 필요한 도움의 충족률(단위: %) ⁵⁹⁾⁶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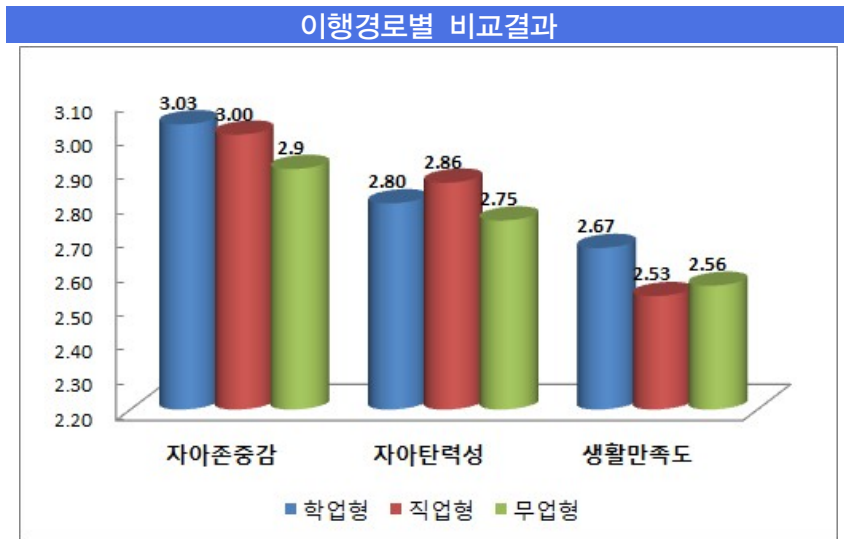
59) 번호 앞자리는 문 17-1의 영역, 뒷자리는 문 17-2의 항목번호를 나타냄

(3) 개인의 심리·정서 상황

문 18.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생활만족도⁶¹⁾

평균은 ‘자아존중감(M=3.00)’, ‘자아탄력성(M=2.81)’, ‘생활만족도(M=2.60)’으로 나타남

-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생활만족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자아존중감 평균은 학업형이 가장 높고 무업형이 가장 낮았으며, 자아탄력성의 평균은 직업형이 가장 높고 무업형이 가장 낮았다. 생활만족도 평균은 학업형이 가장 높고 직업형이 가장 낮았다.



【그림 II-67】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생활만족도(N=427, 단위: 점)

표 II-65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생활만족도 (N=427,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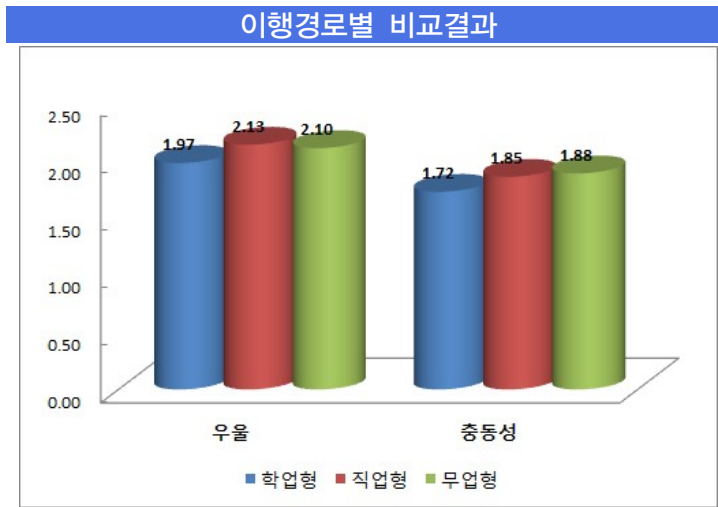
문항	구분	M(SD)				F (대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1)~5)	자아존중감	3.00(0.51)	3.03(0.48)	3.00(0.53)	2.90(0.56)	1.89
6)~10)	자아탄력성	2.81(0.56)	2.80(0.53)	2.86(0.54)	2.75(0.63)	1.12
11)~13)	생활만족도	2.60(0.62)	2.67(0.60)	2.53(0.64)	2.56(0.61)	2.23

60) 각 항목별 비율 = 문 17-3의 각 항목에서 ‘① 예’에 응답한 응답자 수 / 문 17-2의 각 항목별 응답자 수 X 100
 61)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문 19. 우울, 충동성⁶²⁾

우울, 충동성에 대한 평균에서
'우울(M=2.05)', '충동(M=1.79)'으로 나타남

- 우울, 충동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우울'의 평균은 직업형이 2.13으로 가장 높았으며 무업형 2.10, 학업형 1.97로 나타났다. '충동성'은 무업형 1.88, 직업형 1.85, 학업형 1.72로 나타났다. 직업형이 학업형에 비해 우울함을 알 수 있으며, 다른 유형에 비해 무업형의 충동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68】 우울, 충동성(N=427, 단위: 점)

표 II-66 우울, 충동성

(N=427, 단위: 점)

문항	구분	M(SD)				F (대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1)~10)	우울	2.05(0.55)	1.97(0.53)	2.13(0.55)	2.10(0.58)	4.34* (a<b)
11)~15)	충동성	1.79(0.52)	1.72(0.51)	1.85(0.52)	1.88(0.53)	4.10* (n.s.)

*p<.05. n.s.=not signific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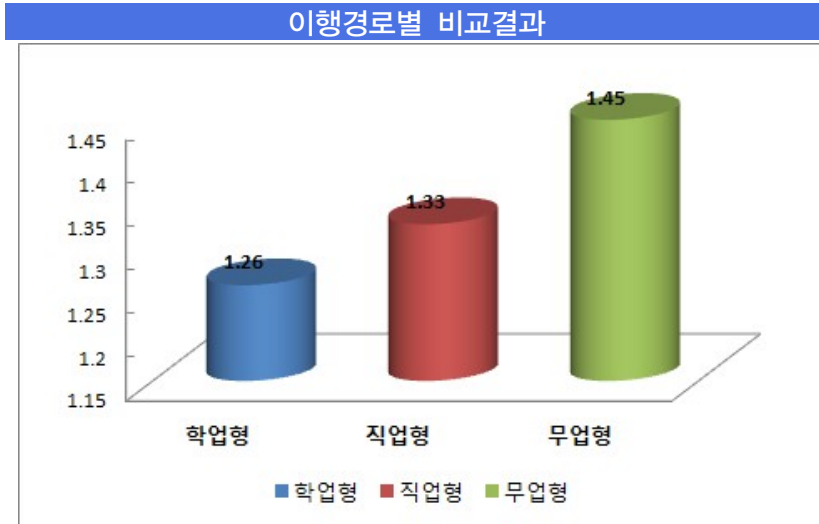
*주: a=학업형, b=직업형, c=무업형

62)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문 20-1. 게임 중독⁶³⁾

게임중독의 평균은 1.32로 나타남

○ 게임 중독에 대해 질문한 결과, 무업형의 게임중독 평균은 1.45였으며 학업형은 1.26으로, 전반적으로 무업형이 학업형에 비해 게임중독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69】 게임 중독(N=427, 단위: 점)

표 II-67 **게임 중독** (N=427, 단위: 점)

문항	평균				F (대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게임 중독	1.32	1.26	1.33	1.45	3.94* (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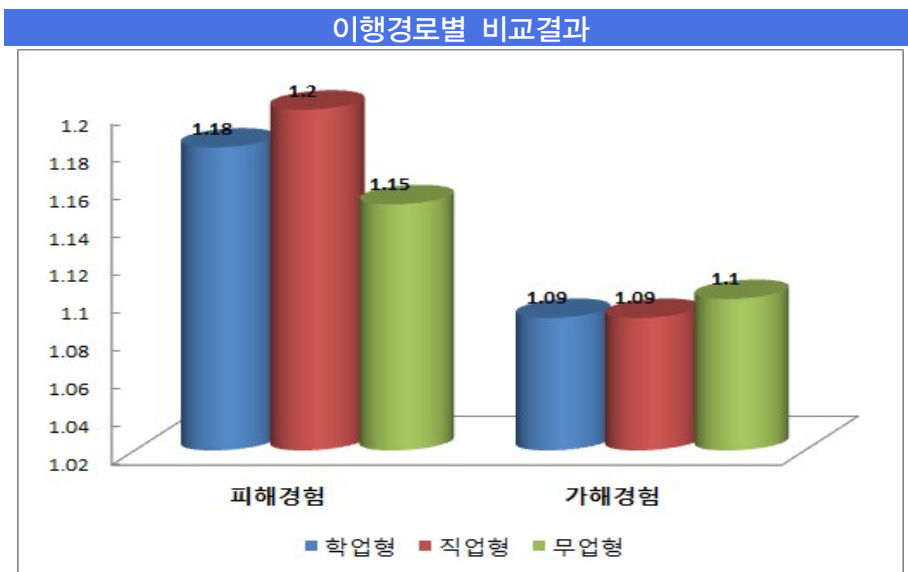
*p<.05
*주: a=학업형, b=직업형, c=무업형

63)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때때로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문 20-2. SNS 관련 피해·가해 경험⁶⁴⁾

SNS 관련 피해·가해 경험에 대한 평균에서
 ‘피해 경험(M=1.18)’, ‘가해 경험(M=1.09)’으로 나타남

○ SNS 관련 피해·가해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SNS 관련 피해 경험’의 평균은 직업형이 1.20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업형 1.18, 무업형 1.15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경험은 무업형이 1.10으로 가장 높았고, 학업형과 직업형은 1.09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가해경험보다는 피해경험이 많았으며 경로별로는 차이가 없었다.



【그림 II-70】 SNS 관련 피해·가해 경험(N=427, 단위: 점)

표 II-68 SNS 관련 피해·가해 경험 (N=427,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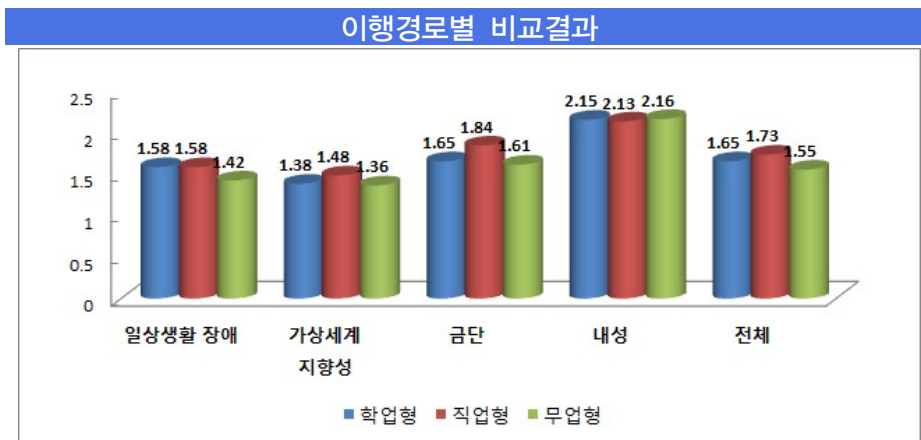
문항	구분	M(SD)				F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1)~5)	SNS 관련 피해 경험	1.18(0.30)	1.18(0.29)	1.20(0.34)	1.15(0.26)	0.57
6)~10)	SNS 관련 가해 경험	1.09(0.22)	1.09(0.24)	1.09(0.20)	1.10(0.21)	0.04

64)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때때로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문 20-3. 스마트폰 중독⁶⁵⁾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문항별 평균에서 '7번 문항(M=2.6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번 문항(M=1.89)', '3번 문항(M=1.61)' 등의 순이었음

○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알아본 결과 전체 평균에서는 직업형이 1.73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업형 1.65, 무업형 1.55 순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장애 평균은 학업형과 직업형이 가장 높았으며, 가상세계 지향성과 금단은 직업형이, 내성은 무업형이 가장 높았다.



【그림 II-7】 스마트폰 중독(N=427, 단위: 점)

표 II-69

스마트폰 중독

(N=427, 단위: 점)

문항	평균				F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일상생활 장애 4)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계획한 일(공부, 숙제, 또는 학원수강 등)을 하기 어렵다 8)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 사용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1.51 1.59	1.59 1.57	1.47 1.68	1.36 1.48	1.83
소계	1.55	1.58	1.58	1.42	
가상세계 지향성 1)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5)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1.51 1.30	1.47 1.29	1.60 1.36	1.48 1.24	1.97
소계	1.41	1.38	1.48	1.36	
금단 2)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6)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1.89 1.52	1.81 1.49	2.05 1.63	1.81 1.41	3.52* (n.s.)
소계	1.70	1.65	1.84	1.61	
내성 3)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했다 7)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⁶⁶⁾	1.61 2.67	1.62 2.67	1.67 2.58	1.48 2.84	0.07
소계	2.14	2.15	2.13	2.16	
전체	1.66	1.65	1.73	1.55	1.28

*p<.05, n.s.=not signific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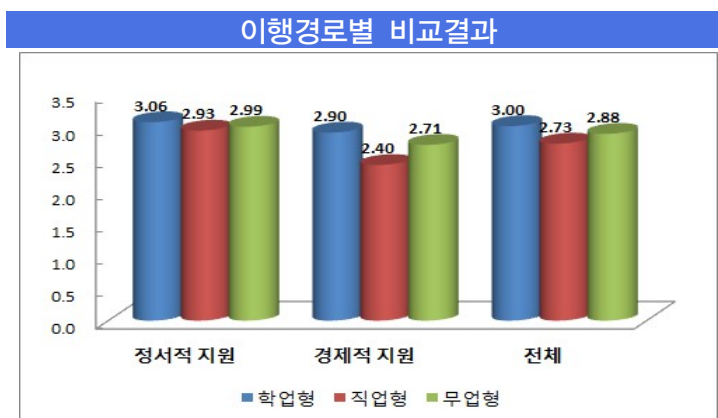
65)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때때로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4) 부모·친구관계·동네주변 환경

문 21. 부모의 지원⁶⁷⁾

부모의 지원에 대한 평균에서
‘정서적 지원(M=3.01), ‘경제적 지원(M=2.70)’으로 나타남

○ 부모의 지원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반적인 부모의 지원 평균은 학업형이 3.00으로 가장 높았으며, 무업형 2.88, 직업형 2.73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학업형과 무업형에 비해 직업형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지원 평균은 학업형이 3.06으로 가장 높았으며, 무업형 2.99, 직업형 2.93 순이었다.



【그림 II-72】 부모의 지원(N=427, 단위: 점)

표 II-70 부모의 지원 (N=427, 단위: 점)

문항	구분	M(SD)				F (대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1)~5)	부모의 정서적 지원	3.01(0.65)	3.06(0.62)	2.93(0.69)	2.99(0.64)	1.98
6)~8)	부모의 경제적 지원	2.70(0.82)	2.90(0.75)	2.40(0.85)	2.71(0.81)	16.58 ^{***} (b<a,c)
전체		2.89(0.60)	3.00(0.55)	2.73(0.65)	2.88(0.58)	9.07 ^{***} (a>b)

^{***} p<.001

* 주: a=학업형, b=직업형, c=무업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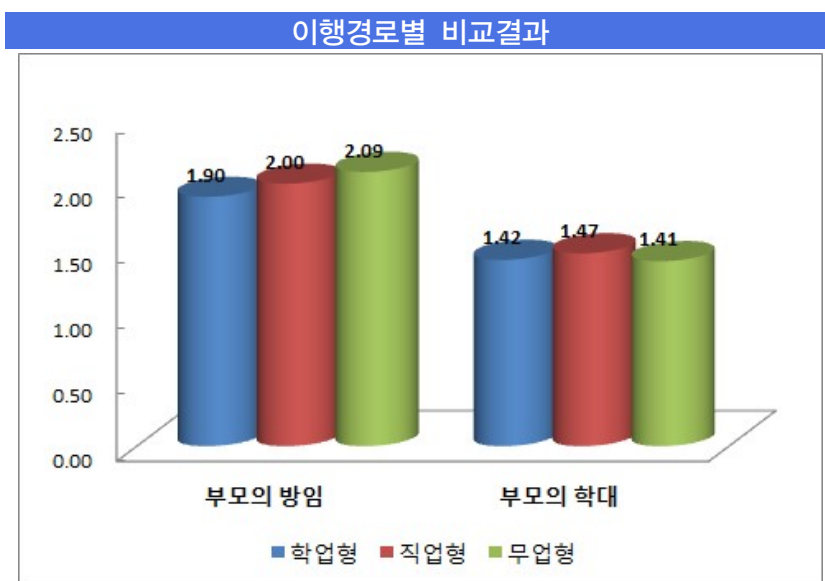
66) 이 문항은 역코딩 하였음.

67)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문 22. 부모의 방임·학대(68)

부모의 방임·학대에 대한 평균에서 '방임(M=1.96)', '학대(M=1.44)'로 나타남

○ 부모의 방임·학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모의 방임 정도는 무업형이 2.09로 가장 높았으며 직업형 2.00, 학업형 1.90으로 나타나, 학업형에 비해 무업형이 부모의 방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대는 직업형이 평균 1.47로 가장 높았고 학업형 1.42, 무업형 1.4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73】 부모의 방임·학대(N=427, 단위: 점)

표 II-71 부모의 방임·학대 (N=427, 단위: 점)

문항	구분	M(SD)				F (대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1)~5)	부모의 방임	1.96(0.50)	1.90(0.50)	2.00(0.50)	2.09(0.50)	4.56* (a(c))
6)~9)	부모의 학대	1.44(0.61)	1.42(0.61)	1.47(0.63)	1.41(0.55)	0.32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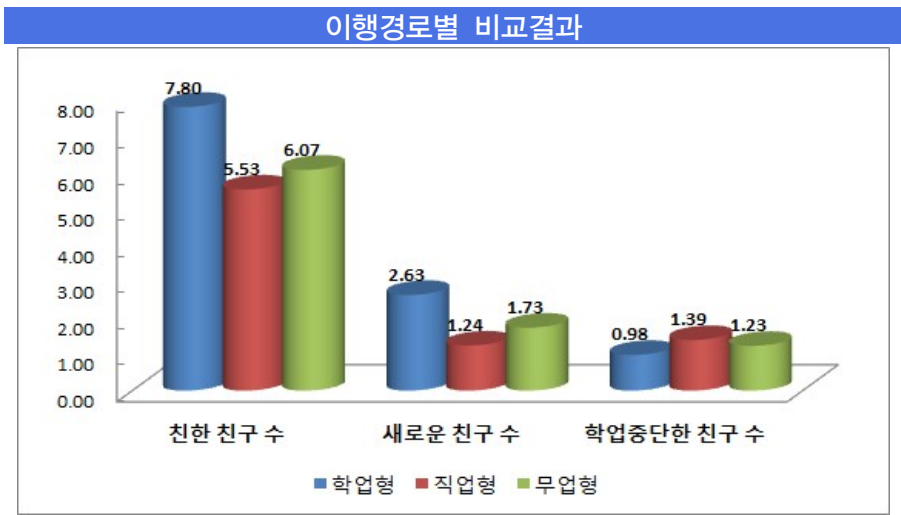
*주: a=학업형, b=직업형, c=무업형

68)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문 23~23-2. 친한 친구 수, 학업중단 후 사귀 친구 수, 학업중단한 친구 수

친한 친구 수는 평균 '6.76명, 학업중단 후 사귀 친구 수는 평균 '2.02명,
학업중단 한 친구 수는 평균 '1.15명 으로 나타남

- 친한 친구 수의 경우 학업형이 평균 7.80명으로 5.53명인 직업형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사귀 친구 수에도 경로별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학업형이 평균 2.63으로 1.24인 직업형에 비해 높았다. 학업중단한 친구 수는 직업형이 1.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업형 1.23명, 학업형 0.98명 순이었다. 즉 친한 친구와 새로 사귀 친구는 직업형보다 학업형이 더 많았다.



【그림 II-74】 친한 친구 수(N=427, 단위: 명)

표 II-72 친한 친구 수 (N=427, 단위: 명)

구분	M(SD)				F (대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23. 친한 친구 수	6.76(7.47)	7.80(9.37)	5.53(5.09)	6.07(3.88)	4.32* (a)b
23-1. 학업중단 후 사귀 친구 수	2.02(3.95)	2.63(4.99)	1.24(2.08)	1.73(2.87)	5.57** (a)b
23-2. 학업중단 한 친구 수	1.15(1.89)	0.98(1.98)	1.39(1.78)	1.23(1.81)	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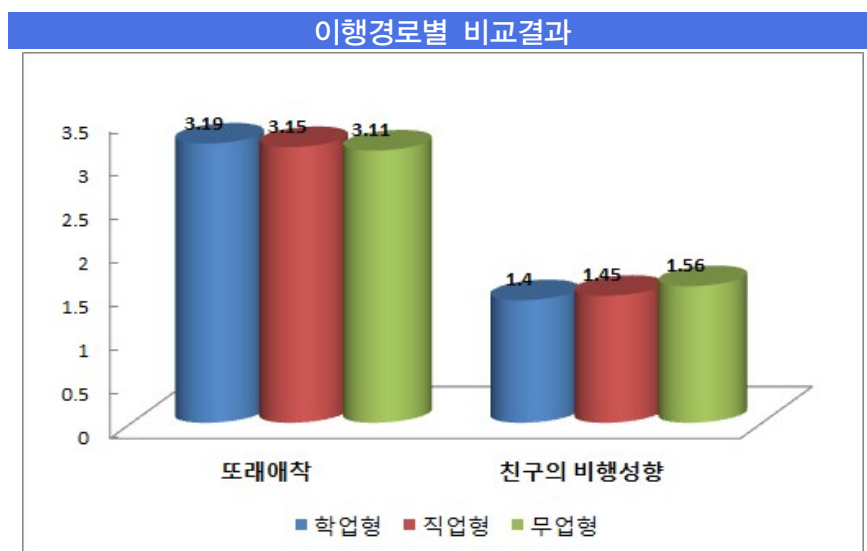
* p<.05, ** p<.01

*주: a=학업형, b=직업형, c=무업형

문 24. 또래애착, 친구의 비행성향⁶⁹⁾

또래애착, 또래의 비행성향에 대한 평균에서
‘또래애착(M=3.16)’, ‘친구의 비행성향(M=1.44)’으로 나타남

○ 또래애착, 친구의 비행성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또래애착의 평균은 학업형 3.19, 직업형 3.15, 무업형 3.11로 나타났다. 친구의 비행성향은 무업형 1.56, 직업형 1.45, 학업형 1.40으로 나타나, 또래애착은 학업형이 가장 높고 친구의 비행성향은 무업형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75] 또래애착, 친구의 비행성향(N=427, 단위: 점)

표 II-73 또래애착, 친구의 비행성향 (N=427, 단위: 점)

문항	구분	M(SD)				F (대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1)~3)	또래애착	3.16(0.58)	3.19(0.57)	3.15(0.61)	3.11(0.56)	0.60
4)~6)	친구의 비행성향	1.44(0.57)	1.40(0.57)	1.45(0.53)	1.56(0.63)	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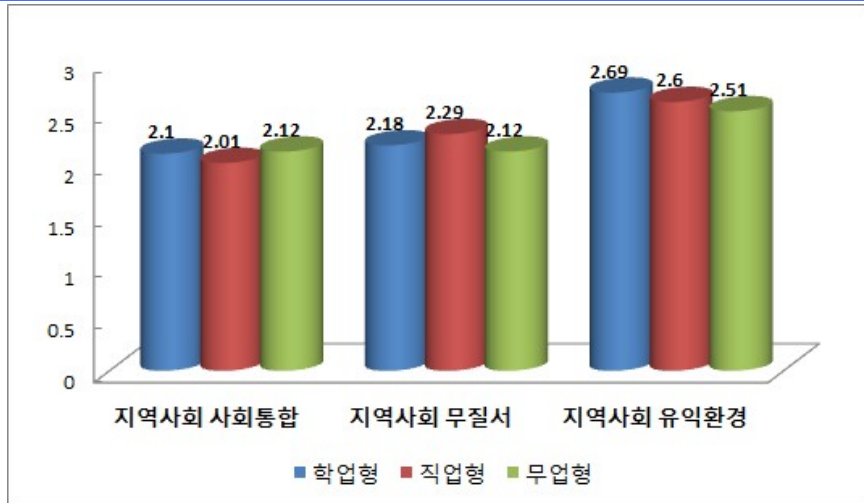
69)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문 25. 지역사회⁷⁰⁾

지역사회에 대한 평균에서 '유익환경(M=2.6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무질서(M=2.21)', '사회통합(M=2.07)'의 순이었음

- 지역사회에 대해 질문한 결과, '사회통합'의 평균은 무업형(M=2.12), 학업형(M=2.10), 직업형(M=2.0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질서'의 평균은 직업형(M=2.29), 학업형(M=2.18), 무업형(M=2.12)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익환경'의 평균은 학업형(M=2.69), 직업형(M=2.60), 무업형(M=2.51)로 경로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행경로별 비교결과



【그림 II-76】 지역사회(N=427, 단위: 점)

표 II-74

지역사회

(N=427, 단위: 점)

문항	구분	M(SD)				F (대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1)~4)	지역사회 사회통합	2.07(0.65)	2.10(0.65)	2.01(0.66)	2.12(0.62)	0.96
5)~8)	지역사회 무질서	2.21(0.67)	2.18(0.65)	2.29(0.68)	2.12(0.70)	1.95
9)~10)	지역사회 유익환경	2.63(0.72)	2.69(0.71)	2.60(0.71)	2.51(0.74)	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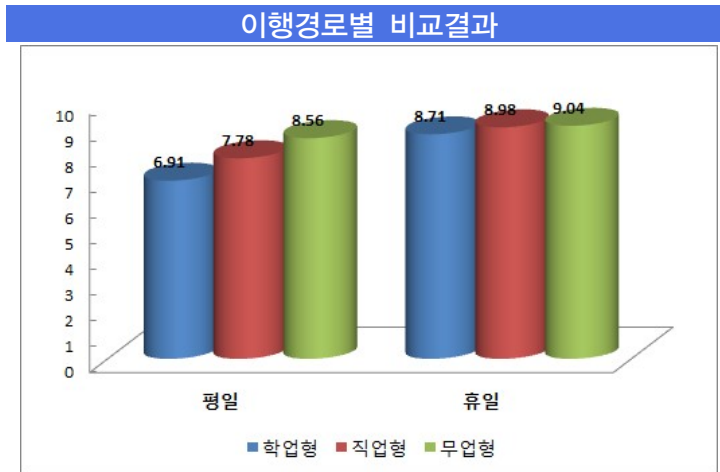
70)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5) 일상생활 및 가치관

문 26. 하루 생활시간-수면

하루 생활시간 중 평균 수면시간에 대해
 평일(M=7.48시간), 휴일(M=8.85시간)로 나타남

- 하루 생활시간 중 수면에 대해 질문한 결과, 평일 평균 수면시간은 무업형이 8.56시간, 직업형 7.78시간, 학업형 6.91시간으로 무업형이 직업형에 비해, 직업형은 학업형에 비해 평일 평균 수면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휴일 평균 수면시간은 무업형 9.04시간, 직업형 8.98시간, 학업형 8.71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77】 하루 생활시간-수면(N=427, 단위: 시간)

표 II-75 하루 생활시간-수면 (N=427, 단위: 시간)

구분	M(SD)				F (대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평일 평균 수면시간	7.48(1.79)	6.91(1.60)	7.78(1.73)	8.56(1.80)	30.10*** (a<b<c)
휴일 평균 수면시간	8.85(2.14)	8.71(2.01)	8.98(2.35)	9.04(2.10)	1.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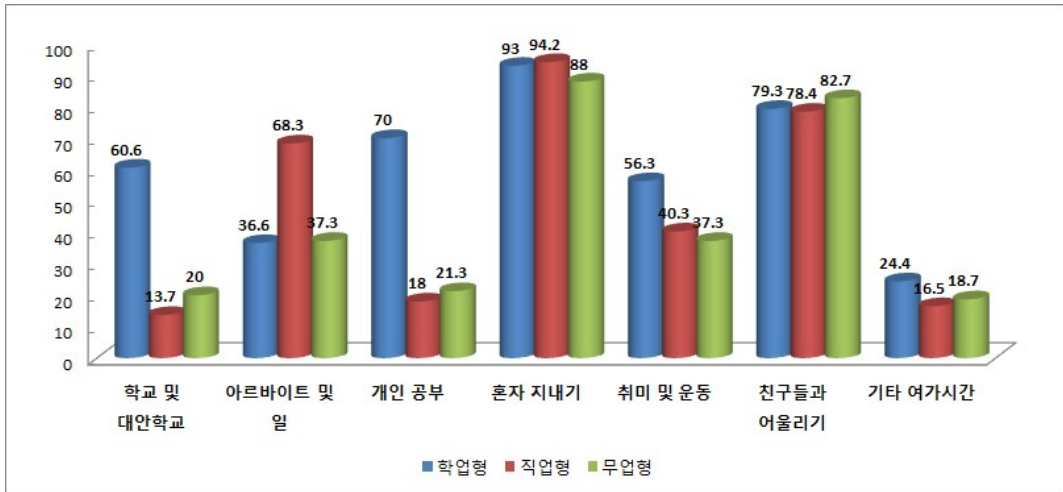
*주: a=학업형, b=직업형, c=무업형

문 26. 하루 생활시간-경험률

하루 생활시간에 대한 경험률은 '혼자 지내기(92.5%)'가 가장 높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79.6%)', '취미 및 운동(47.8%)', '아르바이트 및 일(47.1%)' 등의 순임

- 하루 생활시간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학교 및 대안학교의 응답률은 학업형이 60.6%로 가장 많았으며, 아르바이트 및 일 경험은 직업형이 가장 많았다. 개인 공부 경험률은 학업형이 70.0%로 가장 많았다. 취미 및 운동경험 역시 학업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행경로별 비교결과



【그림 II-78】 하루 생활시간-주요 영역 경험률(N=427, 단위: %)

표 II-76 하루 생활시간-주요 영역 경험률⁷¹⁾ (N=427, 단위: 명, %)

구분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χ ²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학교 및 대안학교	163	38.2	129	60.6	19	13.7	15	20.0	91.10***
아르바이트 및 일	201	47.1	78	36.6	95	68.3	28	37.3	37.44***
개인 공부	190	44.5	149	70.0	25	18.0	16	21.3	111.74***
혼자 지내기	395	92.5	198	93.0	131	94.2	66	88.0	2.87
취미 및 운동	204	47.8	120	56.3	56	40.3	28	37.3	12.66**
친구들과 어울리기	340	79.6	169	79.3	109	78.4	62	82.7	0.56
기타	78	20.8	52	24.4	23	16.5	14	18.7	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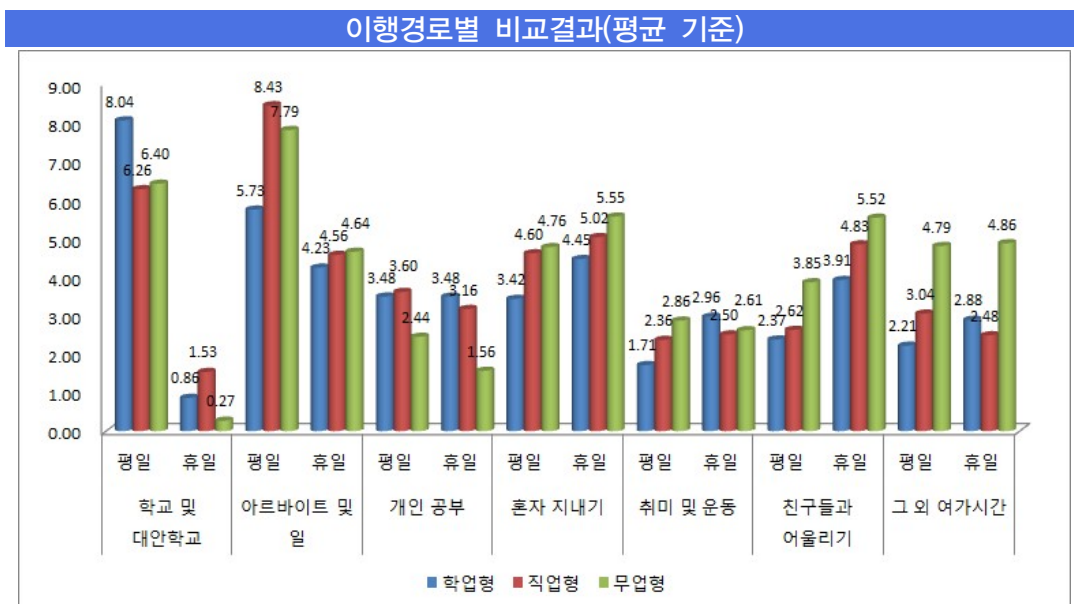
** p<.01, *** p<.001

71) 사례수와 비율은 각 항목별로 '① 해당 있음'에 응답한 결과임.

문 26. 하루 생활시간-평균

하루 생활시간 평균에서 평일은 '학교 및 대안학교(M=7.68시간)'이 가장 높았고, 주말은 '혼자 지내기(M=4.82시간)'가 가장 높았음

- 하루 생활시간에 대해 질문한 결과, 평일은 혼자 지내는 시간은 직업형과 무업형이 학업형에 비해 길었으며, 취미 및 운동시간,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과 기타 여가시간은 다른 유형에 비해 무업형이 가장 길었다. 휴일은 경로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은 무업형과 직업형이 학업형에 비해 긴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79】 하루 생활-주요 영역 평균(N=427, 단위: 시간)

표 II-77 하루 생활시간

(N=427, 단위: 시간)

항목	이행경로	평일			휴일		
		M	SD	F	M	SD	F
1) 수면시간	전체	7.48	1.79		8.85	2.14	
	학업형	6.91	1.60	30.10 ^{***}	8.71	2.01	1.01
	직업형	7.78	1.73	(a)(b)(c)	8.98	2.35	
	무업형	8.56	1.80		9.04	2.10	
전체	7.68	2.88		0.88	2.34		
2) 학교나 대안학교에 머무는 시간	학업형	8.04	2.85	5.03 ^{**}	0.86	2.31	1.25
	직업형	6.26	2.56	(a)(b)	1.53	3.12	
	무업형	6.40	2.77		0.27	1.03	
	전체	7.29	3.47		4.44	4.64	
3)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는 시간	학업형	5.73	3.71	15.18 ^{***}	4.23	4.35	0.14
	직업형	8.43	2.49	(a)(b)(c)	4.56	4.91	
	무업형	7.79	4.09		4.64	4.61	
	전체	3.41	2.88		3.28	3.40	
4)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	학업형	3.48	2.96	1.02	3.48	3.58	2.36
	직업형	3.60	2.93		3.16	2.85	
	무업형	2.44	1.71		1.56	1.59	
	전체	4.03	2.84		4.82	3.21	
5) 혼자 지내는 시간	학업형	3.42	2.51	9.81 ^{***}	4.45	2.84	3.31 [*] (n.s.)
	직업형	4.60	2.91	(a)(b)(c)	5.02	3.65	
	무업형	4.76	3.23		5.55	3.20	
	전체	2.04	1.98		2.78	2.61	
6) 취미 및 운동하는 시간	학업형	1.71	1.63	4.96 ^{**}	2.96	2.68	0.66
	직업형	2.36	1.94	(a)(c)	2.50	2.52	
	무업형	2.86	2.98		2.61	2.45	
	전체	2.72	2.61		4.50	3.07	
7)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	학업형	2.37	2.05	7.74 ^{**}	3.91	2.74	7.38 ^{**} (a)(b,c)
	직업형	2.62	2.77	(a)(b)(c)	4.83	3.32	
	무업형	3.85	3.33		5.52	3.16	
	전체	2.83	2.71		3.09	3.04	
8) 그 외 여가시간	학업형	2.21	1.46	5.60 ^{**}	2.88	2.76	3.10
	직업형	3.04	2.92	(a)(c)	2.48	2.64	
	무업형	4.79	4.61		4.86	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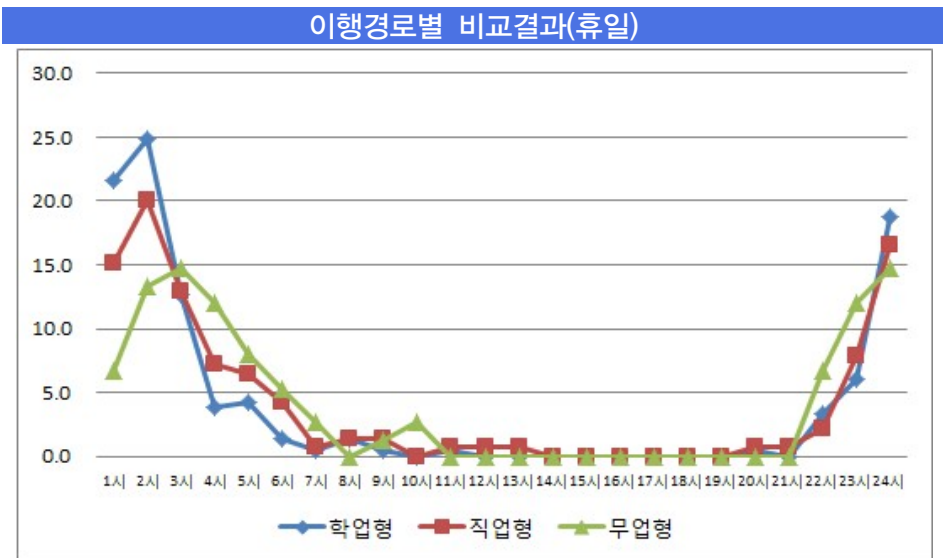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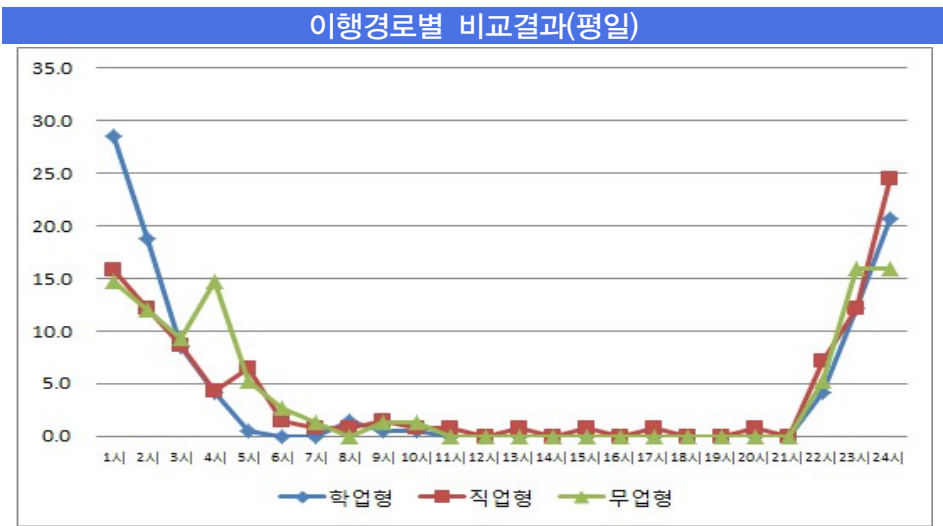
** $p < .01$, *** $p < .001$, n.s.=not significant.

*주: a=학업형, b=직업형, c=무업형

문 26-1. 취침 시각

**취침 시각에 대한 질문에
평일 '1~1시 59분(22.0%)'과 휴일 '2시~2시 59분(21.3%)'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평일 취침 시각은 학업형은 1시~1시 59분이 28.6%, 직업형은 24시~24시59분이 24.5%, 무업형은 23시와 24시대가 16.0%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유형에 비해 무업형은 4시대에 취침하는 비율이 높았다. 휴일은 학업형과 직업형은 2시대가 가장 많았고, 무업형은 24시와 3시대에 가장 많았다.



【그림 II-80】 취침 시각(N=427, 단위: %)

표 II-78 취침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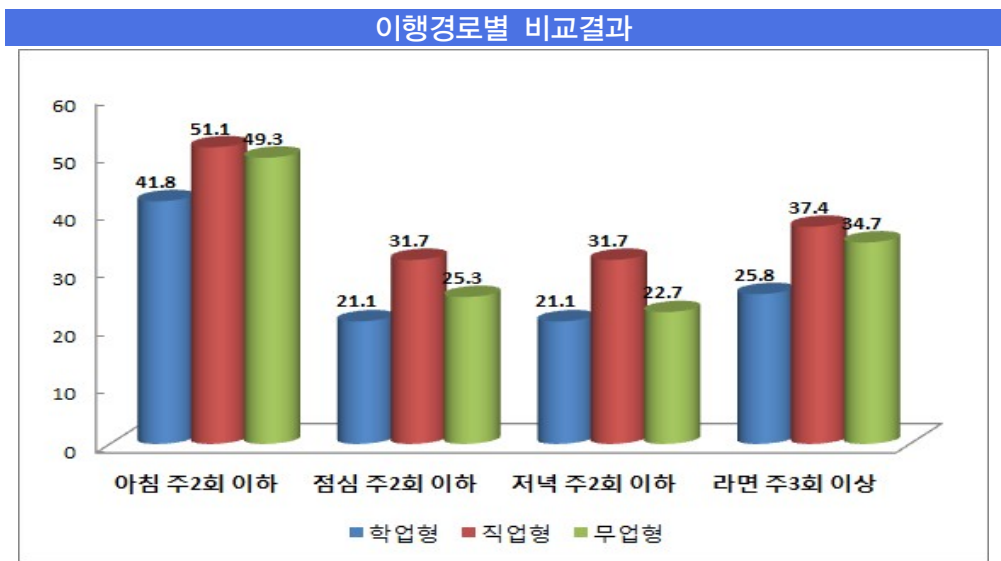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평 일				휴 일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1시~1시 59분	94(22.0)	61(28.6)	22(15.8)	11(14.7)	72(16.9)	46(21.6)	21(15.1)	5(6.7)
2시~2시 59분	66(15.5)	40(18.8)	17(12.2)	9(12.0)	91(21.3)	53(24.9)	28(20.1)	10(13.3)
3시~3시 59분	37(8.7)	18(8.5)	12(8.6)	7(9.3)	56(13.1)	27(12.7)	18(12.9)	11(14.7)
4시~4시 59분	26(6.1)	9(4.2)	6(4.3)	11(14.7)	27(6.3)	8(3.8)	10(7.2)	9(12.0)
5시~5시 59분	14(3.3)	1(0.5)	9(6.5)	4(5.3)	24(5.6)	9(4.2)	9(6.5)	6(8.0)
6시~6시 59분	4(0.9)	0(0.0)	2(1.4)	2(2.7)	13(3.0)	3(1.4)	6(4.3)	4(5.3)
7시~7시 59분	2(0.5)	0(0.0)	1(0.7)	1(1.3)	4(0.9)	1(0.5)	1(0.7)	2(2.7)
8시~8시 59분	4(0.9)	3(1.4)	1(0.7)	0(0.0)	5(1.2)	3(1.4)	2(1.4)	0(0.0)
9시~9시 59분	4(0.9)	1(0.5)	2(1.4)	1(1.3)	4(0.9)	1(0.5)	2(1.4)	1(1.3)
10시~10시 59분	3(0.7)	1(0.5)	1(0.7)	1(1.3)	2(0.5)	0(0.0)	0(0.0)	2(2.7)
11시~11시 59분	1(0.2)	0(0.0)	1(0.7)	0(0.0)	2(0.5)	1(0.5)	1(0.7)	0(0.0)
12시~12시 59분	0(0.0)	0(0.0)	0(0.0)	0(0.0)	1(0.2)	0(0.0)	1(0.7)	0(0.0)
13시~13시 59분	1(0.2)	0(0.0)	1(0.7)	0(0.0)	1(0.2)	0(0.0)	1(0.7)	0(0.0)
14시~14시 59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5시~15시 59분	1(0.2)	0(0.0)	1(0.7)	0(0.0)	0(0.0)	0(0.0)	0(0.0)	0(0.0)
16시~16시 59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7시~17시 59분	1(0.2)	0(0.0)	1(0.7)	0(0.0)	0(0.0)	0(0.0)	0(0.0)	0(0.0)
18시~18시 59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9시~19시 59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시~20시 59분	1(0.2)	0(0.0)	1(0.7)	0(0.0)	2(0.5)	1(0.5)	1(0.7)	0(0.0)
21시~21시 59분	0(0.0)	0(0.0)	0(0.0)	0(0.0)	1(0.2)	0(0.0)	1(0.7)	0(0.0)
22시~22시 59분	23(5.4)	9(4.2)	10(7.2)	4(5.3)	15(3.5)	7(3.3)	3(2.2)	5(6.7)
23시~23시 59분	55(12.9)	26(12.2)	17(12.2)	12(16.0)	33(7.7)	13(6.1)	11(7.9)	9(12.0)
24시~24시 59분	90(21.1)	44(20.7)	34(24.5)	12(16.0)	74(17.3)	40(18.8)	23(16.5)	11(14.7)
계	427(100.0)	213(100.0)	139(100.0)	75(100.0)	427(100.0)	213(100.0)	139(100.0)	75(100.0)

문 27. 식생활

식생활(식습관 및 인스턴트식품 노출)에 대해 '아침 주 2회 이하(46.1%)'가 가장 많았고, '라면 주 3회 이상(31.1%)'의 응답률도 높았음

○ 식생활(식습관 및 인스턴트식품 노출)에 대해 질문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약 50% 정도가 '아침 주 2회 이하'라고 응답하였다. 그 중에서도 직업형은 모든 항목에서 응답률이 가장 높아 다른 유형에 비해 제대로 된 식습관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8】 식생활(N=427, 단위: %)

표 II-79 식생활⁷²⁾ (N=427,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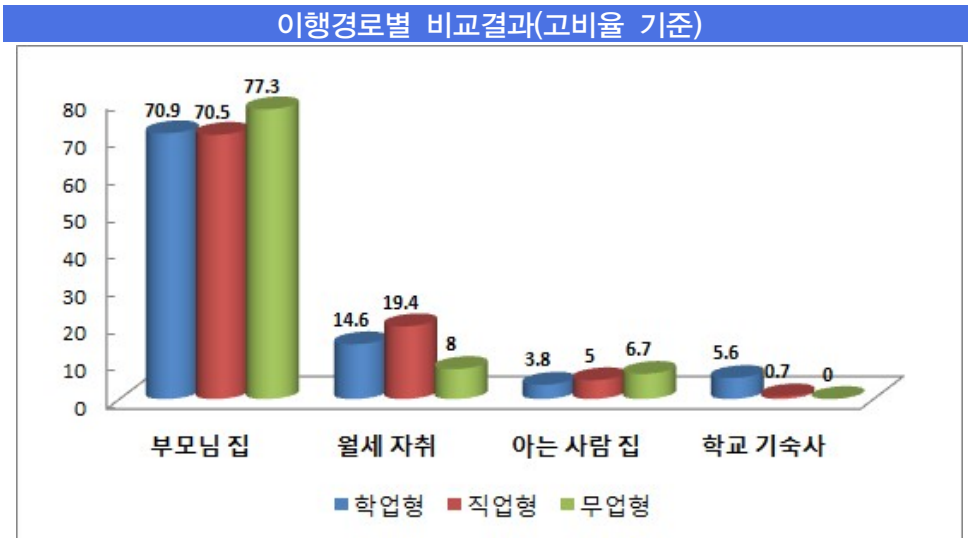
문항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χ^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1) 아침 주 2회 이하	197	46.1	89	41.8	71	51.1	37	49.3	3.30
2) 점심 주 2회 이하	108	25.3	45	21.1	44	31.7	19	25.3	4.93
3) 저녁 주 2회 이하	106	24.8	45	21.1	44	31.7	17	22.7	5.22
4) 라면(컵라면) 주 3회 이상	133	31.1	55	25.8	52	37.4	26	34.7	5.79

72) 사례수와 비율은 각 문항의 ①번'예'에 응답한 결과임.

문 28. 현재 주거상태(4차년도 추가)

현재 주거상태는 '부모님 집에서 동거(71.9%)'가 가장 많았으며
'월세 자취(15.0%)'가 그 다음으로 많았음

- 현재 주거상태에 대한 질문에서 대부분의 유형이 부모님 집에서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무업형의 비율이 77.3%로 가장 높았다. 월세 자취의 경우에는 직업형의 비율이 19.4%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았다.



【그림 Ⅱ-82】 현재 주거상태(단위: %)

표 Ⅱ-80 현재 주거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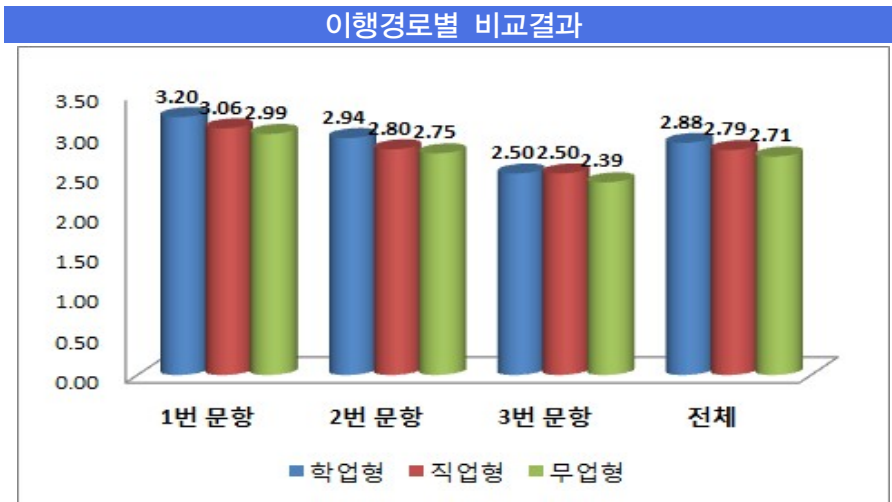
(단위: 명, %)

문항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부모님 집에서 동거	307	71.9	151	70.9	98	70.5	58	77.3
② 월세 자취	64	15.0	31	14.6	27	19.4	6	8.0
③ 전세 자취	11	2.6	5	2.3	4	2.9	2	2.7
④ 고시원	2	0.5	1	0.5	0	0.0	1	1.3
⑤ 학교 기숙사	13	3.0	12	5.6	1	0.7	0	0.0
⑥ 회사 기숙사	4	0.9	2	0.9	2	1.4	0	0.0
⑦ 친인척 등 아는 사람(선배, 친구) 집	20	4.7	8	3.8	7	5.0	5	6.7
⑧ 기타	6	1.4	3	1.4	0	0.0	3	4.0
계	427	100.0	213	100.0	139	100.0	75	100.0

문 29. 가치관-학력에 대한 생각⁷³⁾

학력에 대한 생각에 관한 문항별 평균을 보면 ‘1번 문항(M=3.12)’, ‘2번 문항(M=2.86)’, ‘3번 문항(M=2.48)’의 순으로 높았음

- 학력에 대한 생각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학업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학력이 높아야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83】 학력에 대한 생각(N=427, 단위: 점)

표 II-81 학력에 대한 생각 (N=427,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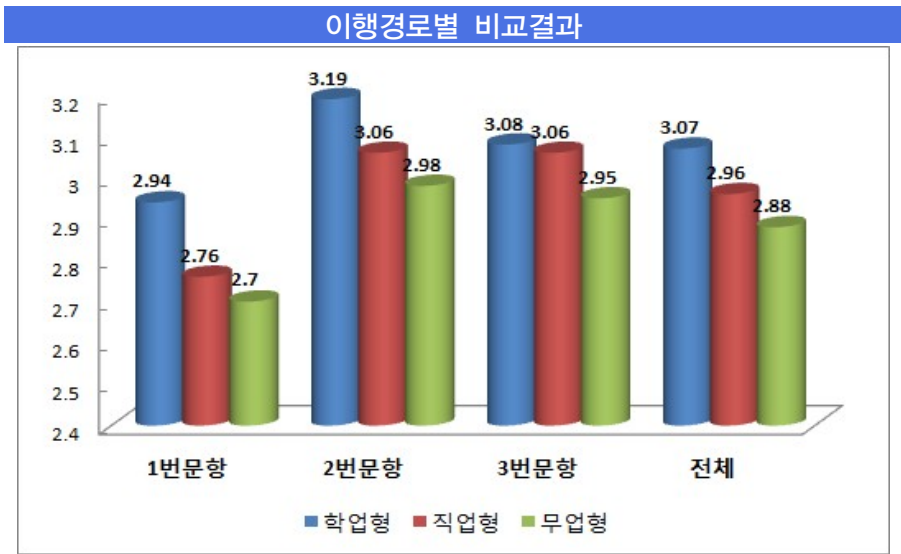
문항	평균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1) 우리 사회는 학력이 높을수록 대우를 받는다	3.12	3.20	3.06	2.99
2)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심하게 차별을 받는다	2.86	2.94	2.80	2.75
3) 우리 사회에서 중·고등학교 중퇴 학력으로는 취업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다	2.48	2.50	2.50	2.39
전체	2.82	2.88	2.79	2.71

73)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문 30. 가치관-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⁷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에 관한 문항별 평균은
 ‘1번 문항(M=2.80)’, ‘2번 문항(M=3.08)’, ‘3번 문항(M=3.04)’으로 나타났다

○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학업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무업형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차이는 1번 문항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그림 II-84]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N=268, 단위: 점)

표 II-82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 (N=268,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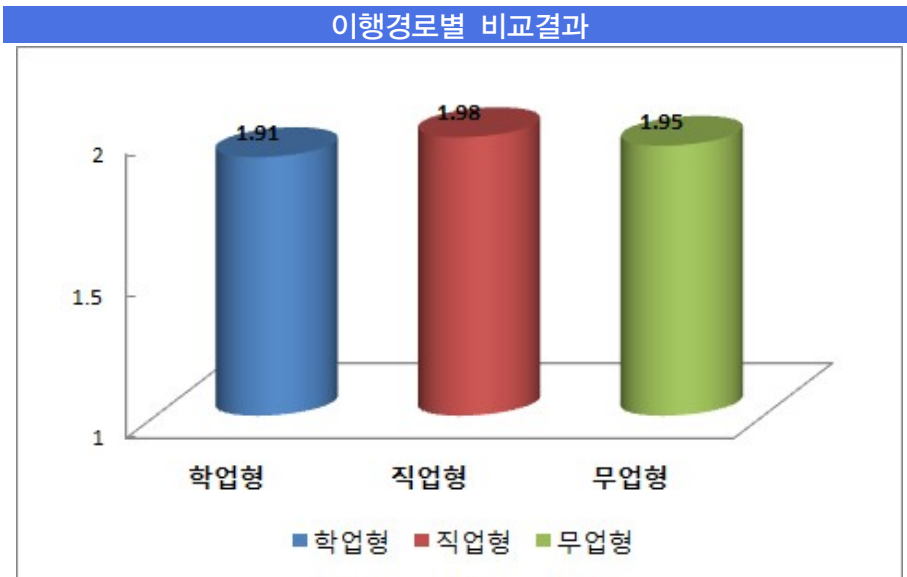
문항	평균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1) 나는 내가 원하면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2.80	2.94	2.76	2.70
2)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앞날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3.08	3.19	3.06	2.98
3) 나는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다	3.04	3.08	3.06	2.95
전체	2.97	3.07	2.96	2.88

74) 문 26의 결과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만 응답한 결과이며,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문 31. 사회적 낙인감⁷⁵⁾

사회적 낙인감에 대한 평균은 1.94로 나타남

○ 사회적 낙인감에 대해 질문한 결과, 직업형의 평균이 1.98로 가장 높았으며 무업형이 1.95, 학업형은 1.91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직업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사회적 낙인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85】 사회적 낙인감(N=427, 단위: 점)

표 II-83 사회적 낙인감 (N=427, 단위: 점)

구분	M(SD)				F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회적 낙인감	1.94(0.41)	1.91(0.40)	1.98(0.41)	1.95(0.43)	1.09

75)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6) 행동 경험

문 32. 문제행동 피해경험

문제행동 피해경험에 대해 '음란물 받기(1.2%)'가 가장 많았음

- 문제행동 피해경험에 대해, 대부분 이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란물에 대한 경험이 가장 많았다.

4차년도 조사결과



[그림 II-86] 문제행동 피해경험(N=427, 단위: %)

표 II-84 문제행동 피해경험⁷⁶⁾ (N=427,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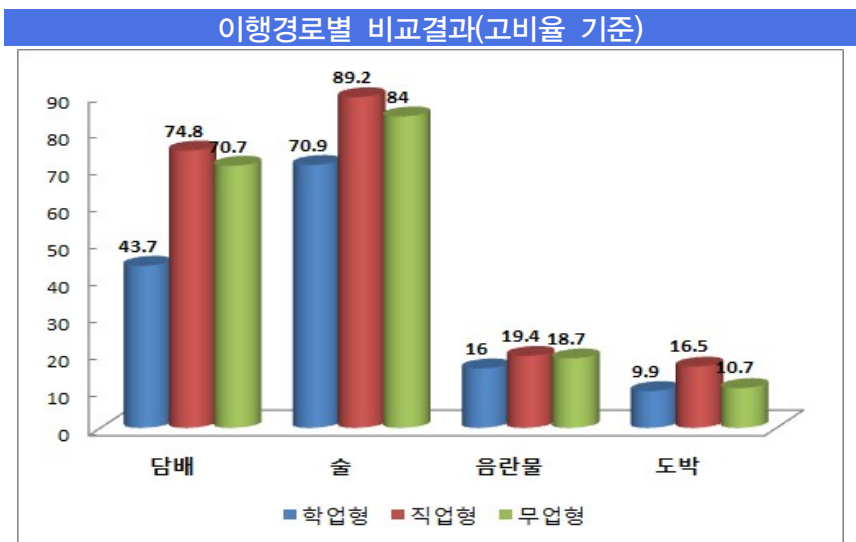
문항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1) 집단 따돌림(왕따) 당하기	2	0.5	1	0.5	0	0.0	1	1.3
2) 성적인 놀림 당하기	2	0.5	1	0.5	1	0.7	0	0.0
3) 문자나 메시지로 일방적으로 음란물 받기	5	1.2	3	1.4	2	1.4	0	0.0
4)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뺏기기(상납)	3	0.7	2	0.9	0	0.0	1	1.3
5) 심하게 얻어맞기(폭행)	3	0.7	0	0.0	3	2.2	0	0.0
6) 성폭력 당하기	1	0.2	1	0.5	0	0.0	0	0.0

76) 사례수와 비율은 해당 피해경험이 ②번'있다'에 응답한 결과임.

문 33. 비행경험

비행경험에 대해 '술(79.2%)'이 가장 많았고, '담배(58.5%)', '음란물 보기(17.6%)', '도박(1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비행경험에 대해, 학업형은 무업형과 직업형에 비해 술과 담배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행과 도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직업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자살 시도는 다른 유형에 비해 무업형의 비율이 높았다.



【그림 II-87】 비행경험(N=427, 단위: %)

표 II-85

비행경험(77)78)

(N=427, 단위: 명, %)

문항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χ^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1) 담배 피우기	250	58.5	93	43.7	104	74.8	53	70.7	39.15***
2) 술 마시기	338	79.2	151	70.9	124	89.2	63	84.0	18.40***
3)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4	0.9	2	0.9	2	1.4	0	0.0	-
4)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14	3.3	4	1.9	9	6.5	1	1.3	-
5)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뺑 뜯기)	2	0.5	0	0.0	2	1.4	0	0.0	-
6)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보기	75	17.6	34	16.0	27	19.4	14	18.7	0.77
7) 돈내기 도박 해보기(인터넷 포함)	52	12.2	21	9.9	23	16.5	8	10.7	3.71
8) 자살 시도	10	2.3	1	0.5	4	2.9	5	6.7	-
9) 기물이나 물건 파손하기	16	3.7	10	4.7	6	4.3	0	0.0	3.58
10) 약물(본드) 흡입	0	0.0	0	0.0	0	0.0	0	0.0	-

*** $p < .001$

77) 사례수와 비율은 해당 가해경험이 ②번'있다'에 응답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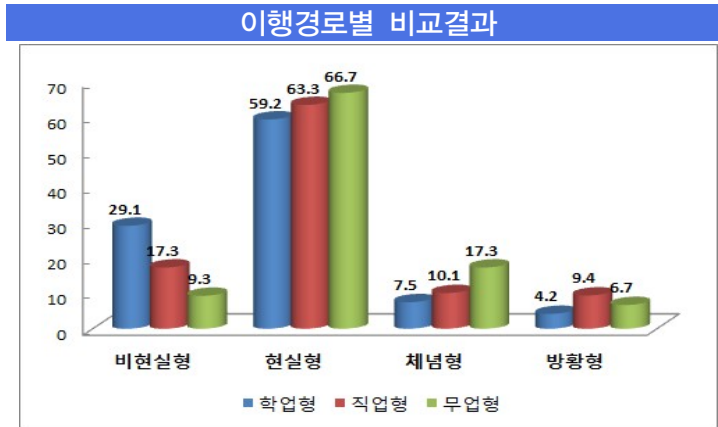
78) 차이분석 값이 없는 셀은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이 전체의 20% 이상인 경우임.

(7) 배경요인⁷⁹⁾

문 38. 장래 희망⁸⁰⁾

장래 희망에 대해 '현실형(61.8%)'이 가장 많았으며, '비현실형(21.8%)', '체념형(10.1%)', '방황형(6.3%)' 순으로 나타남

- 장래 희망을 '비현실형', '현실형', '체념형', '방황형'으로 분류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현실형의 응답이 가장 높았다. 비현실형의 경우 학업형이 29.1%로 가장 높았으며 체념형은 무업형이 17.3%, 방황형은 직업형이 9.4%로 가장 높았다. 학업형은 장래 희망에 대한 기대 수준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88】 장래 희망(N=427, 단위: %)

표 II-86 장래 희망

(단위: 명, %)

문항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χ^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비현실형	93	21.8	62	29.1	24	17.3	7	9.3	21.29** (df=6)
현실형	264	61.8	126	59.2	88	63.3	50	66.7	
체념형	43	10.1	16	7.5	14	10.1	13	17.3	
방황형	27	6.3	9	4.2	13	9.4	5	6.7	
계	213	100.0	213	100.0	139	100.0	75	100.0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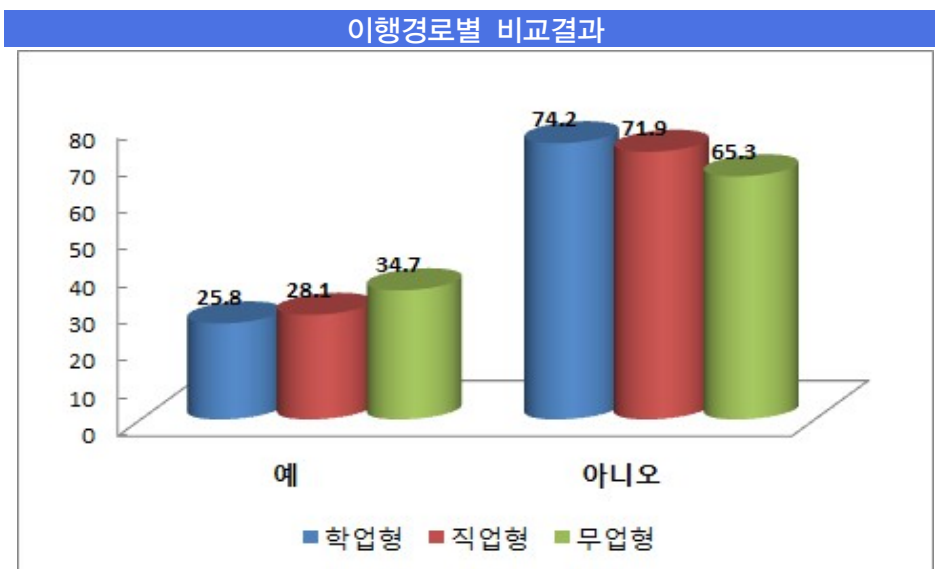
79) 문 34~문 37(문 34. 가족구성, 문 35. 이사경험, 문 36. 경제적 수준, 문 37. 건강상태)는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변수로 다루었으므로 제외되었음.

80) 비현실형: 해당 분야의 경쟁이 치열하거나, 높은 학력성취를 요하거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분야를 추구하는 유형
 현실형: 높은 학력 없이도 성취가 가능한 분야를 추구하는 유형
 체념형: 장래희망이 '없다'고 응답한 유형
 방황형: 장래희망이 '미정'이거나 '모름'이라고 응답한 유형

추가 1.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인지여부⁸¹⁾

전체 응답자의 28.1%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음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약 3분의 1 정도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경로유형별로 보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알고 있는 비율은 무업형이 34.7%로 가장 높았고, 직업형 28.1%, 학업형 25.8% 순으로 높았다.



【그림 II-89】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인지여부(N=427, 단위: %)

표 II-87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인지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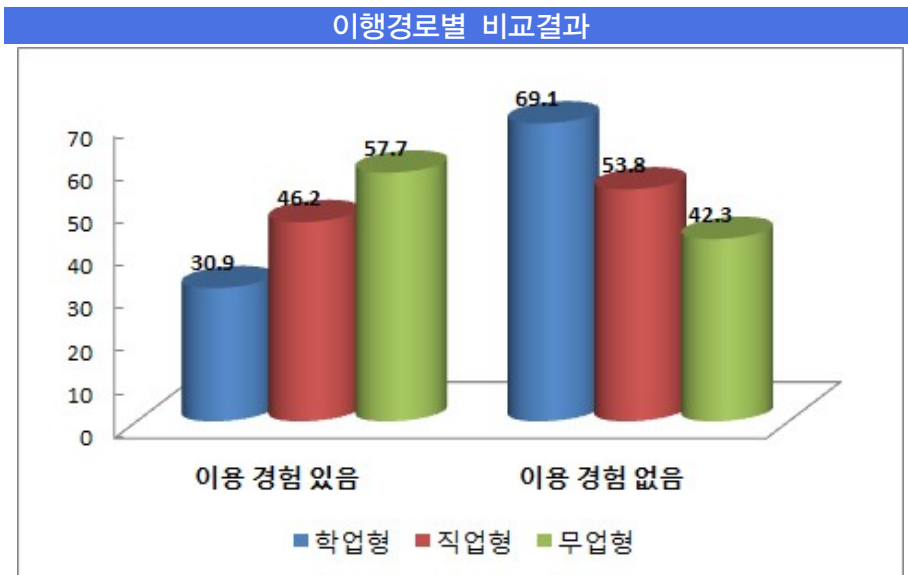
문항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χ^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예	120	28.1	55	25.8	39	28.1	26	34.7	2.15 (df=2)
② 아니오	307	71.9	158	74.2	100	71.9	49	65.3	
계	427	100.0	213	100.0	139	100.0	75	100.0	

81) 추가 0. 문항은 정성조사 참여여부에 대한 문항으로 분석이 불필요하여 제외되었음.

추가 1-1.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알고 있는 응답자의 이용 여부⁸²⁾

응답자의 41.7%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해 본 적이 있었음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알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 여부를 질문한 결과, 무업형의 57.7%, 직업형의 46.2%, 학업형의 30.9%가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형보다는 무업형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경험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90】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알고 있는 응답자의 이용 여부(N=120, 단위: %)

표 II-88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알고 있는 응답자의 이용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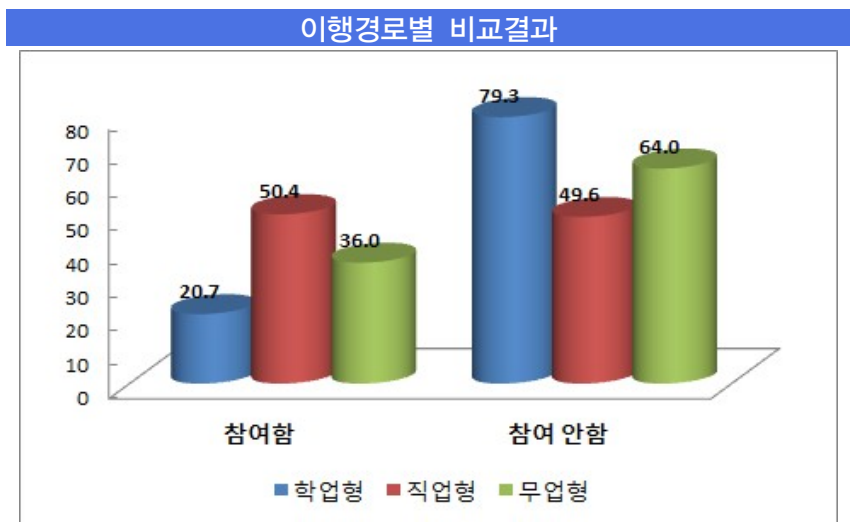
문항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χ^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이용 경험 있음	50	41.7	17	30.9	18	46.2	15	57.7	5.69 (df=2)
② 이용 경험 없음	70	58.3	38	69.1	21	53.8	11	42.3	
계	120	100.0	55	100.0	39	100.0	26	100.0	

82) 추가 1-1은 추가 1의 '① 예'로 응답한 경우(N=120)만 응답한 결과임.

추가 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 참여 여부⁸³⁾

전체 응답자의 33.0%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에 참여할 의향이 있었음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를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학업형은 20.7%만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무업형은 36.0%만이 참여의사를 밝힌 반면 직업형은 50.4%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즉 학업형과 무업형보다는 직업형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에 참여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9]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 참여 여부(N=427, 단위: %)

표 II-89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 참여 여부 (단위: 명, %)

문항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χ^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참여함	141	33.0	44	20.7	70	50.4	27	36.0	33.92*** (df=2)
② 참여 안함	286	67.0	169	79.3	69	49.6	48	64.0	
계	427	100.0	213	100.0	139	100.0	75	100.0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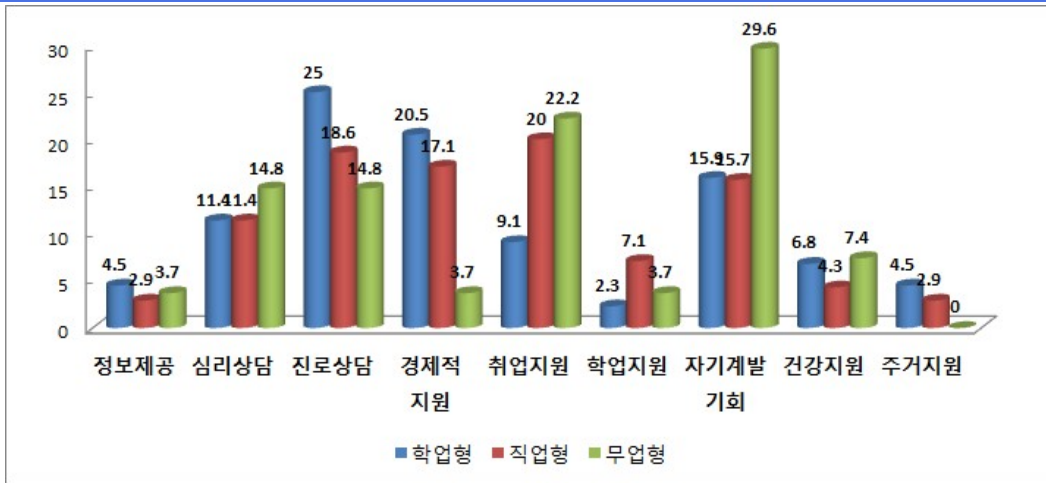
⁸³⁾ 추가 2 문항은 응답자들에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 설명하고, 서비스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알아본 문항임.

추가 2-1. 가장 받고 싶은 서비스⁸⁴⁾

가장 원하는 서비스로는 ‘진로상담(19.9%)’이 가장 많았으며, ‘자기계발(18.4%)’, ‘취업지원(17.0%)’, ‘경제적 지원(15.6%)’ 등의 순이었음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를 질문한 결과, 학업형은 25.0%가 진로상담을, 직업형은 20.0%가 취업지원을, 무업형은 29.6%가 자기계발을 선택하였다.

이행경로별 비교결과



【그림 II-92】 가장 받고 싶은 서비스(N=141, 단위: %)

표 II-90 가장 받고 싶은 서비스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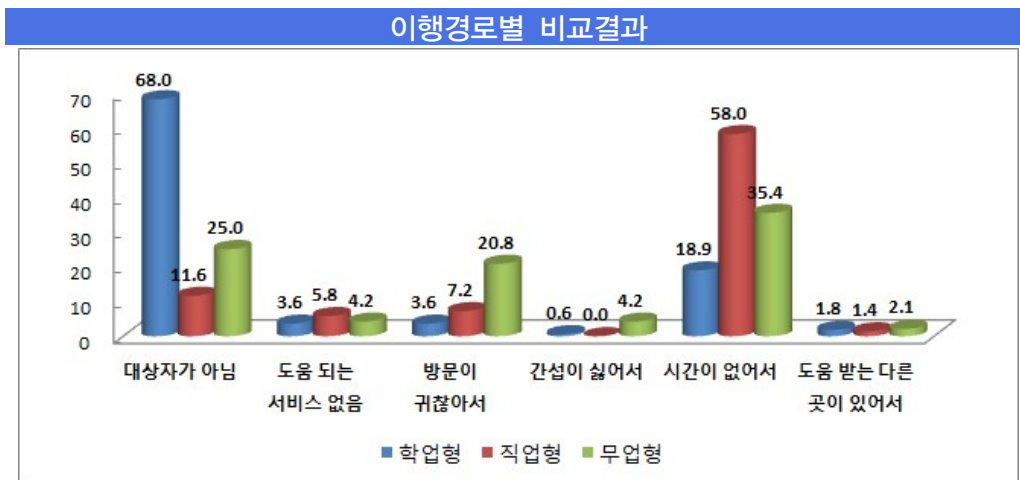
문항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학업중단 후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5	3.5	2	4.5	2	2.9	1	3.7
② 심리상담	17	12.1	5	11.4	8	11.4	4	14.8
③ 진로상담	28	19.9	11	25.0	13	18.6	4	14.8
④ 경제적 지원	22	15.6	9	20.5	12	17.1	1	3.7
⑤ 취업지원	24	17.0	4	9.1	14	20.0	6	22.2
⑥ 학업지원	7	5.0	1	2.3	5	7.1	1	3.7
⑦ 관심분야에 대한 자기계발 기회	26	18.4	7	15.9	11	15.7	8	29.6
⑧ 건강지원	8	5.7	3	6.8	3	4.3	2	7.4
⑨ 주거지원	4	2.8	2	4.5	2	2.9	0	0.0
계	141	100.0	44	100.0	70	100.0	27	100.0

84) 추가 2-1은 추가 2의 ‘① 참여함’로 응답한 경우(N=141)만 응답한 결과임.

추가 2-2. 서비스 미참여 이유⁸⁵⁾

**전체 응답자의 47.2%가 ‘조사 대상자가 아니어서’에 응답하였으며,
31.1%가 ‘시간이 없어서’에 응답함**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를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학업형은 68.0%가 조사 대상자가 아니어서에 응답하였다. 이는 학업형이 대학 재학 경험이 많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직업형은 시간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8.0%로 가장 높았으며, 무업형 역시 시간이 없어서가 35.4%로 가장 높았으나 다른 유형보다 ‘방문이 귀찮아서’의 응답률이 높았다.



[그림 II-93] 서비스 미참여 이유(N=286, 단위: %)

표 II-91 서비스 미참여 이유 (단위: 명, %)

문항	전체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조사 대상자가 아니어서 ⁸⁶⁾	135	47.2	115	68.0	8	11.6	12	25.0
② 도움 되는 서비스가 없어서	12	4.2	6	3.6	4	5.8	2	4.2
③ 방문하기가 귀찮아서	21	7.3	6	3.6	5	7.2	10	20.8
④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위치를 몰라서	0	0.0	0	0.0	0	0.0	0	0.0
⑤ 내 생활을 간섭할까봐서	3	1.0	1	0.6	0	0.0	2	4.2
⑥ 시간이 없어서	89	31.1	32	18.9	40	58.0	17	35.4
⑦ 도움 받는 다른 곳(센터)이 있어서	5	1.7	3	1.8	1	1.4	1	2.1
⑧ 기타	21	7.3	6	3.6	11	15.9	4	8.3
계	286	100.0	169	100.0	69	100.0	48	100.0

85) 추가 2-2는 추가 2의 ‘② 참여 안함’로 응답한 경우(N=286)만 응답한 결과임.

86) 대학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재학, 휴학, 중퇴, 졸업 포함) ‘① 조사 대상자가 아니어서’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음

2)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본 절에서는 ‘1) 이행경로별 조사결과 문항’ 중 성별에 따라 통계적 차이가 나타난 주요 문항을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해당 문항은 <표 II-92>와 같다.

표 II-92 주요문항

문항유형	문항번호	문항명
(2) 생활 경험과 인식	문 4의 8)	중단 후 경험실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문 6-1-7	일(아르바이트): 일일 근로시간
	문 9의 2)	진로정보탐색: 인터넷을 검색하였다
	문 10의 6~9)	진로 장애: 미래불안
(3) 개인의 심리·정서 상황	문 19의 1~10)	우울
	문 20-1의 1)~8)	게임중독
	문 20-3의 2), 6)	스마트폰 중독: 금단
(4) 부모·친구관계·동네주변 환경	문 22의 1~5)	부모의 방임
	문 24의 4)~6)	친구의 비행성향
(5) 일상생활 및 가치관	문 26	수면, 학습 및 일, 여가시간: 해당여부 및 시간
	문 30의 2)	미래에 대한 생각: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앞날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문 30의 3)	미래에 대한 생각: 나는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다

(1) 중단 후 경험실태와 진로

먼저 중단 후 경험실태와 진로 관련 항목들을 보면, 남자가 67.2%로 여자(55.0%)보다 지난 1년간 일했던 경험이 12% 포인트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정보탐색 방법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인터넷을 검색하는 비율이 15% 포인트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일 근로시간을 질문한 결과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자는 평균 5.06시간, 여자는 4.81시간으로

여자에 비해 남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더 길었다. 진로에 대한 정보 탐색 방법으로 다른 방법에는 차이가 없는데 여자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검색하는 비율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15% 포인트 이상 높았다. 진로장애의 하위 영역인 미래에 대한 불안 정도는 여자가 평균 2.31로, 남자(2.16)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93 중단 후 경험실태와 진로 (N=427, 단위: 명, %, 시간, 점)

구분	전체		남		여		χ^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문 4의 8)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⁸⁷⁾	264	61.8	160	67.2	104	55.0	6.64* (df=1)
odds ratio=1.68 (95% 신뢰구간 1.13-2.49)							
문 9의 2) 인터넷을 검색하였다 ⁸⁸⁾	304	71.2	153	64.3	151	79.9	12.51*** (df=1)
odds ratio=2.21 (95% 신뢰구간 1.42-3.44)							
구분	M	SD	M	SD	M	SD	t
문 6-1-7. 일일 근로시간	4.96	1.33	5.06	1.28	4.81	1.41	2.10*
문 10. 진로장애: 미래불안 ⁸⁹⁾	2.21	0.69	2.16	2.89	2.31	2.87	-2.06*

* $p < .05$, *** $p < .001$.

(2) 개인의 심리·정서 상황

심리 및 정서와 관련된 항목들을 보면, 우울의 전체 평균은 2.05였으며 여자의 평균은 2.17, 남자는 1.95로 나타나 여자가 남자에 비해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중독 정도는 남자의 평균이 1.44로, 여자(1.16)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중독 중 하위영역인 금단의 경우, 여자의 평균은 1.79이며 남자는 1.63으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거나 견디기가 힘들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87) 해당 경험이 있는 달에 모두 응답하는 형식이었으며, 비율은 한 달이라도 해당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준으로 제시되었음.

88)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으며, 사례수와 비율은 ③번 '그렇다'와 ④번 '매우 그렇다'를 합산한 결과임. 통계치는 ①과 ②를 합하여 '그렇지 않다', ③과 ④를 합하여 '그렇지 않다'로 분류하여 분석함

89)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표 II-94

개인의 심리·정서 상황

(N=427, 단위: 점)

구분	전체		남		여		t
	M	SD	M	SD	M	SD	
문 19. 우울	2.05	0.55	1.95	0.55	2.17	0.53	-4.11***
문 20-1. 게임중독	1.32	0.50	1.44	0.58	1.16	0.33	6.25***
문 20-3. 스마트폰 중독: 금단	1.70	0.74	1.63	0.73	1.79	0.74	-2.19*

* α .05, *** α .001.

(3) 부모·친구관계·동네주변 환경

부모의 방임 평균은 남자가 2.01, 여자가 1.90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높았다. 친구의 비행성향 역시 남자 평균 1.54, 여자는 1.32로 남자가 높았다.

표 II-95

부모·친구관계·동네주변 환경

(N=427, 단위: 점)

구분	전체		남		여		t
	M	SD	M	SD	M	SD	
문 22. 부모의 방임	1.96	0.50	2.01	0.49	1.90	0.52	2.18*
문 24. 친구의 비행성향	1.44	0.57	1.54	0.60	1.32	0.52	4.05**

* α .05, ** α .01.

(4) 일상생활 및 가치관

일상에서 어떤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지를 알아본 결과, 여자(48.1%)가 남자(30.3%)에 비해 학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경험률(여자 57.1%, 남자 34.5%)도 높았다. 기타의 여가활동 경험률 역시 여자(28.6%)가 남자(14.7%)보다 높았다. 실제로 보내는 시간에 대한 차이를 보면, 평일의 경우, 남자의 평균 수면시간은 7.66시간으로 여자(7.25시간)에 비해 평균 수면시간이 길었고, 일하는 시간도 남자가 평균 8.04시간으로 여자(6.23시간)에 비해 길었다. 친구들과 노는 시간 역시 남자는 평균 3.06시간, 여자는 2.31시간으로

남자가 더 길었다. 휴일에 대해서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자는 평균 5.10시간을 혼자 지내는 반면 여자는 4.47시간을 혼자 지낸다고 응답하여 휴일 남자는 여자에 비해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미래에 대한 생각을 질문한 결과 남자는 여자에 비해 앞날이 희망적이라고 지각하였으며,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표 II-96 **일상생활 및 가치관** (N=427, 단위: 명, %, 시간, 점)

구분		전체		남		여		χ^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문 26. 수면, 학습 및 일, 여가시간: 해당여부 ⁹⁰⁾	2) 학교나 대안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에서 보내는 시간	163	38.2	72	30.3	91	48.1	14.30 ^{***} (df=1)	
		odds ratio=2.14 (95% 신뢰구간 1.44-3.19)							
	4)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	190	44.5	82	34.5	108	57.1	21.96 ^{***} (df=1)	
		odds ratio=2.54 (95% 신뢰구간 1.71-3.76)							
	8) 기타 여가시간	89	20.8	35	14.7	54	28.6	12.28 ^{***} (df=1)	
		odds ratio=2.32 (95% 신뢰구간 1.44-3.74)							
구분		전체		남		여		t	
		M	SD	M	SD	M	SD		
문 26. 수면, 학습 및 일, 여가시간: 시간	평일	1) 수면시간	7.48	1.79	7.66	1.78	7.25	1.79	2.93 [*]
		3) 일하는 시간	7.29	3.47	8.04	3.17	6.23	3.62	3.68 ^{***}
		7) 친구들과 노는 시간	2.72	2.61	3.06	2.89	2.31	2.18	2.73 ^{**}
	휴일	5) 혼자 지내는 시간	4.82	3.21	5.10	3.35	4.47	2.98	1.97 [*]
문 30의 2)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앞날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3.08	0.69	3.16	0.65	2.96	0.74	2.30 [*]	
문 30의 3) 나는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다		3.04	0.64	3.11	0.60	2.94	0.69	2.24 [*]	

* $p < .05$, ** $p < .01$, *** $p < .001$.

90) 사례수와 비율은 ①번 ‘해당 있음’에 응답한 결과임.

학교 밖 청소년은 성별로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자는 여자보다 일을 더 많이, 그리고 하루에 오랜 시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소 일상생활을 보면 평일에는 수면시간, 일하는 시간, 노는 시간이 더 길었으며 휴일에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었다. 게임중독 수준이 여자에 비해 높았으며, 부모가 방임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았고, 친구의 비행성향도 높았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학업과 관련된 경험률이 높았고, 진로정보탐색 시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심리·정서적 측면을 보면 남자에 비해 우울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클 뿐만 아니라 미래와 성공에 대한 확신이 낮았다. 또한 스마트폰 경험에 있어 금단 정도가 남자에 비해 높았다.

3) 필요한 도움에 대한 종합적 분석결과

본 절에서는 ‘1) 이행경로별 조사결과 문항’ 중 유형별 맞춤형 정책 제안을 위해 선별한 주요 문항들을 대상으로 변수별(성별, 연령대, 가족구성, 가정경제수준, 학업중단시점, 학업중단 사유) 차이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해당 주요문항은 <표 II-97>과 같다.

표 II-97 주요문항

문항 유형	문항 번호	문항 명	N (명)
(2) 생활 경험과 인식	문 17-1)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1순위)	427
	문 17-2)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 구체적으로(중복응답)	2,049
	문 17-3)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 도움 받은 여부	2,048 ¹⁾
	문 7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의사	427
	문 7-5	직업훈련 미참여 이유	313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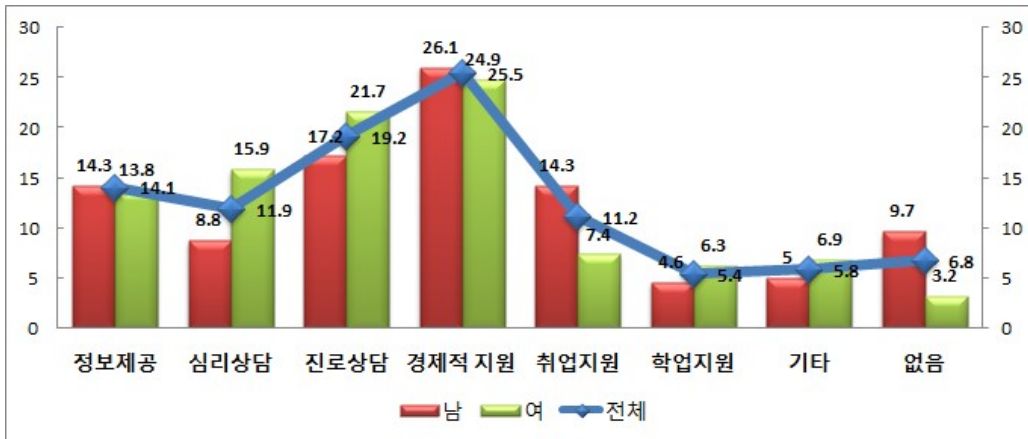
*주 1) 무응답(N=1) 제외

2) 문 7(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의사)에서 ‘② 없음’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한 결과임.

(1) 문 17-1.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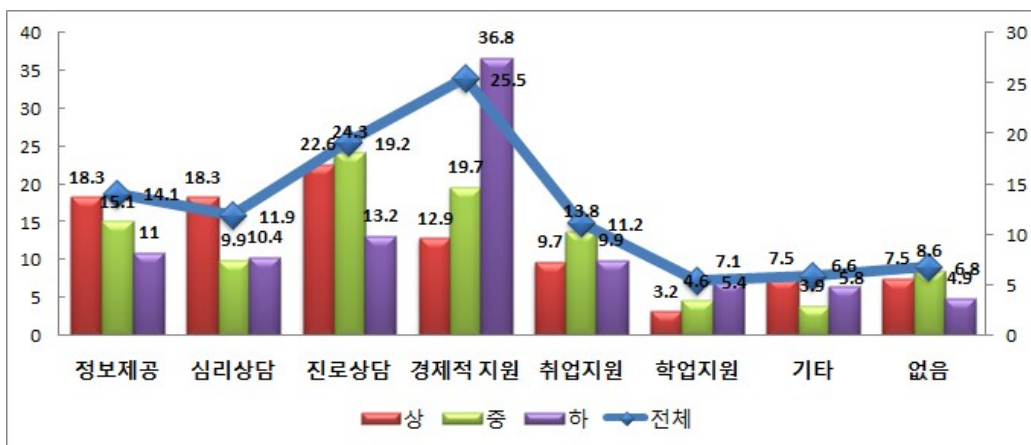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을 변수별로 분석한 결과, 성별, 가정경제수준, 학업중단 시점, 학업중단 사유, 이행경로별로 차이가 있었다. 남자와 여자 모두 경제적 지원이 가장 높았으나

여자의 경우 ‘진로상담’과 ‘심리상담’의 요구가 남자에 비해 높았으며 남자는 여자에 비해 ‘취업지원’과 ‘없음’의 비율이 높았다.



[그림 II-94]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 성별 (N=42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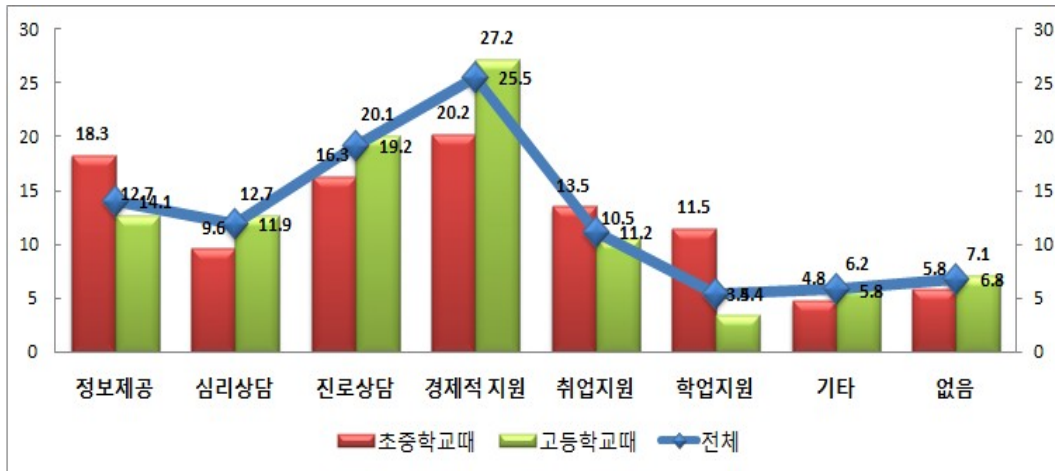
가정경제수준별로는 상층은 진로상담과 심리상담, 정보제공이 가장 필요로 한 반면 중층은 진로상담과 경제적 지원, 취업 지원 순으로 필요로 했으며 하층은 경제적 지원을 가장 많이 필요로 했다. 즉, 자기 가정경제수준을 ‘상층’과 ‘중’층으로 지각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상담관련 욕구가, ‘하층’으로 인식하는 청소년은 경제적 지원욕구가 높았다.



[그림 II-95]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 가정경제수준 (N=42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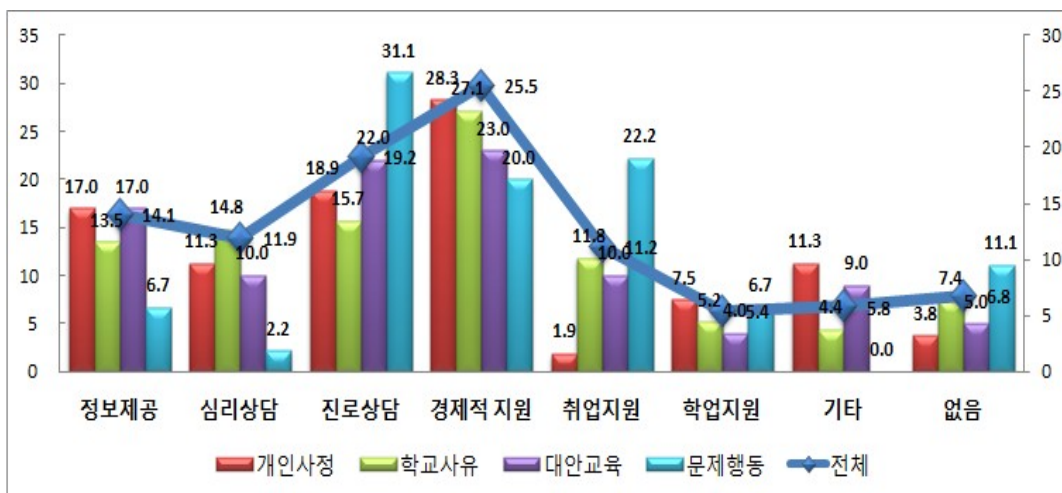
학업중단 시점별로는 모든 유형에서 경제적 지원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나, 이 비율은 고등학교 시기에 학업을 중단한 응답자가 더 높았다. 초등 및 중학교시기에 학업을 중단한

응답자는 정보제공의 욕구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학업지원에 대한 욕구도 높았다. 고등학교 시기 학업중단자는 진로상담, 심리상담의 욕구가 높았다.



【그림 II-96】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 학업중단 시점 (N=427, 단위: %)

학업중단 사유별로는 ‘개인 사정’과 ‘학교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경제적 지원’과 ‘진로상담’의 욕구가 높았다. ‘대안교육을 위해서’ 학업을 중단한 응답자는 ‘진로상담’을 가장 필요로 했으며, ‘경제적 지원’과 ‘정보제공’의 욕구가 높았다. 중단 사유가 ‘문제행동’인 경우 진로상담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취업지원의 욕구도 다른 유형에 비해 매우 높았고 ‘없음’의 비율도 높았다.



【그림 II-97】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 학업중단 사유 (N=427, 단위: %)

표 II -98

학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 변수별 차이분석(91)92)

(단위: 명, %)

	전체 사례수	정보제공		심리상담		진로상담		경제적 지원		취업지원		학업지원		기타		χ^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체	427	60	14.1	51	11.9	82	19.2	109	25.5	48	11.2	23	5.4	25	5.9	29	6.8	-
성별	남자	238	14.3	21	8.8	41	17.2	62	26.1	34	14.3	11	4.6	12	5.0	23	9.7	17.71*
	여자	189	13.8	30	15.9	41	21.7	47	24.9	14	7.4	12	6.3	13	6.9	6	3.2	(df=7)
연령대	17~19세	58	19.0	5	8.6	8	13.8	12	20.7	6	10.3	7	12.1	6	10.3	3	5.2	
	20세	111	14.4	15	13.5	12	10.8	31	27.9	13	11.7	6	5.4	9	8.1	9	8.1	25.66
	21세	167	12.0	18	10.8	39	23.4	45	26.9	18	10.8	6	3.6	9	5.4	12	7.2	(df=21)
가족 구성	22세 이상	91	14.3	13	14.3	23	25.3	21	23.1	11	12.1	4	4.4	1	1.1	5	5.5	
	양부모가정	217	15.7	26	12.0	41	18.9	45	20.7	27	12.4	11	5.1	13	6.0	20	9.2	
	한부모가정	121	11.6	15	12.4	22	18.2	36	29.8	10	8.3	9	7.4	9	7.4	6	5.0	13.79
기정 경제수준	부모 모두 안계심	89	13.5	10	11.2	19	21.3	28	31.5	11	12.4	3	3.4	3	3.4	3	3.4	(df=14)
	상	93	18.3	17	18.3	21	22.6	12	12.9	9	9.7	3	3.2	7	7.5	7	7.5	36.16**
학업중단 시점	중	152	15.1	15	9.9	37	24.3	30	19.7	21	13.8	7	4.6	6	3.9	13	8.6	(df=14)
	하	182	11.0	19	10.4	24	13.2	67	36.8	18	9.9	13	7.1	12	6.6	9	4.9	
학업중단 사유	초중학교때	104	18.3	10	9.6	17	16.3	21	20.2	14	13.5	12	11.5	5	4.8	6	5.8	15.21*
	고등학교때	323	12.7	41	12.7	65	20.1	88	27.2	34	10.5	11	3.4	20	6.2	23	7.1	(df=7)
학업중단 사유	개인 사정으로	53	17.0	6	11.3	10	18.9	15	28.3	1	1.9	4	7.5	6	11.3	2	3.8	
	학교 사유	229	13.5	34	14.8	36	15.7	62	27.1	27	11.8	12	5.2	10	4.4	17	7.4	35.15*
	대인교육을 원해서	100	17.0	10	10.0	22	22.0	23	23.0	10	10.0	4	4.0	9	9.0	5	5.0	(df=15)
이행 경로	문제행동	45	6.7	1	2.2	14	31.1	9	20.0	10	22.2	3	6.7	0	0.0	5	11.1	
	학업형	213	18.8	20	9.4	45	21.1	53	24.9	15	7.0	14	6.6	8	5.8	15	7.0	24.01*
	직업형	139	10.8	17	12.2	26	18.7	40	28.8	20	14.4	6	4.3	6	8.0	7	5.0	(df=14)
무업형	75	6.7	14	18.7	11	14.7	16	21.3	13	17.3	3	4.0	11	5.2	7	9.3		

* p<0.05, ** p<0.01.

91) 1~3순위 복수기입 문항이었으며 사례수와 비율은 1순위 응답만을 분석함.

92) ㉞ 건강지원, ㉟ 자기계발 기회, ㊱ 인간관계 필요, ㊲ 기타는 '기타'로 분류되었으며 케이스퀘어 값은 ㉞~㊱의 응답을 합하여 산출된 값임

(2) 문 17-1~3. 필요했던 도움, 구체적으로 필요했던 도움, 도움 받은 여부의 종합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후 필요했던 도움 중 어떤 항목들이 필요도가 높은지, 또한 필요도에 비해 충족률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로 문 17-1부터 문 17-3까지의 세 문항을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문 17-2의 요구도 비율이 3.0% 이상인 항목들을 주로 고려하였다.

우선, 문 17-1과 문 17-2를 보면, 경제적 지원(17.9%)과 진로상담(16.5%), 각종 정보제공(15.4%), 취업지원(15.1%), 심리상담(11.5%)의 필요도가 10%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 별로 필요도가 3.0% 이상인 항목들을 보면, 경제적 지원 영역에서는 학비나 학원비보다 기초생활비, 용돈, 주거비 등 생활비에 대한 필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상담은 직업 및 진학상담 모든 하위항목의 필요도가 높았다. 정보제공에 있어서는 검정고시 준비방법, 대입진학, 자격증, 일자리 정보 등 학업 및 취업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취업지원 영역에서는 일자리와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또한 심리상담에서는 우울, 불안, 무기력, 분노 등 정서적 문제 상담 요구가 높았다. 학업지원이나 자기계발, 인간관계 지원, 건강영역은 필요의 우선순위가 좀 떨어졌지만 ‘관심분야에 대한 자기계발’ 기회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았으며 학업지원영역의 ‘무료 검정고시 프로그램’, ‘삶을 이끌어 줄 멘토나 또래 등 인간관계’, 건강지원 영역의 ‘무료 건강검진’ 순으로 필요도가 높았다.

각 영역에서 핵심적으로 필요로 하는 항목 등에 대한 충족률을 연계하여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영역에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 항목은 기초생활비, 용돈, 주거비, 대학교 학비의 순이었다. 기초생활비와 용돈, 대학교 학비의 충족률은 30% 수준이며 주거비는 20% 수준이다.

진로상담영역에서는 직업상담과 진학상담을 매우 필요로 했다. 직업상담은 필요한 도움 항목 중 압도적인 1순위로, 전체 39개 항목 중 필요 순위가 가장 높았고, 진학상담이 2순위를 차지했다. 필요한 도움을 받았던 청소년 중에는 진학상담을 받은 청소년이 10% 포인트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진학상담 53.2%, 직업상담 42.0%) 직업상담에 대한 접근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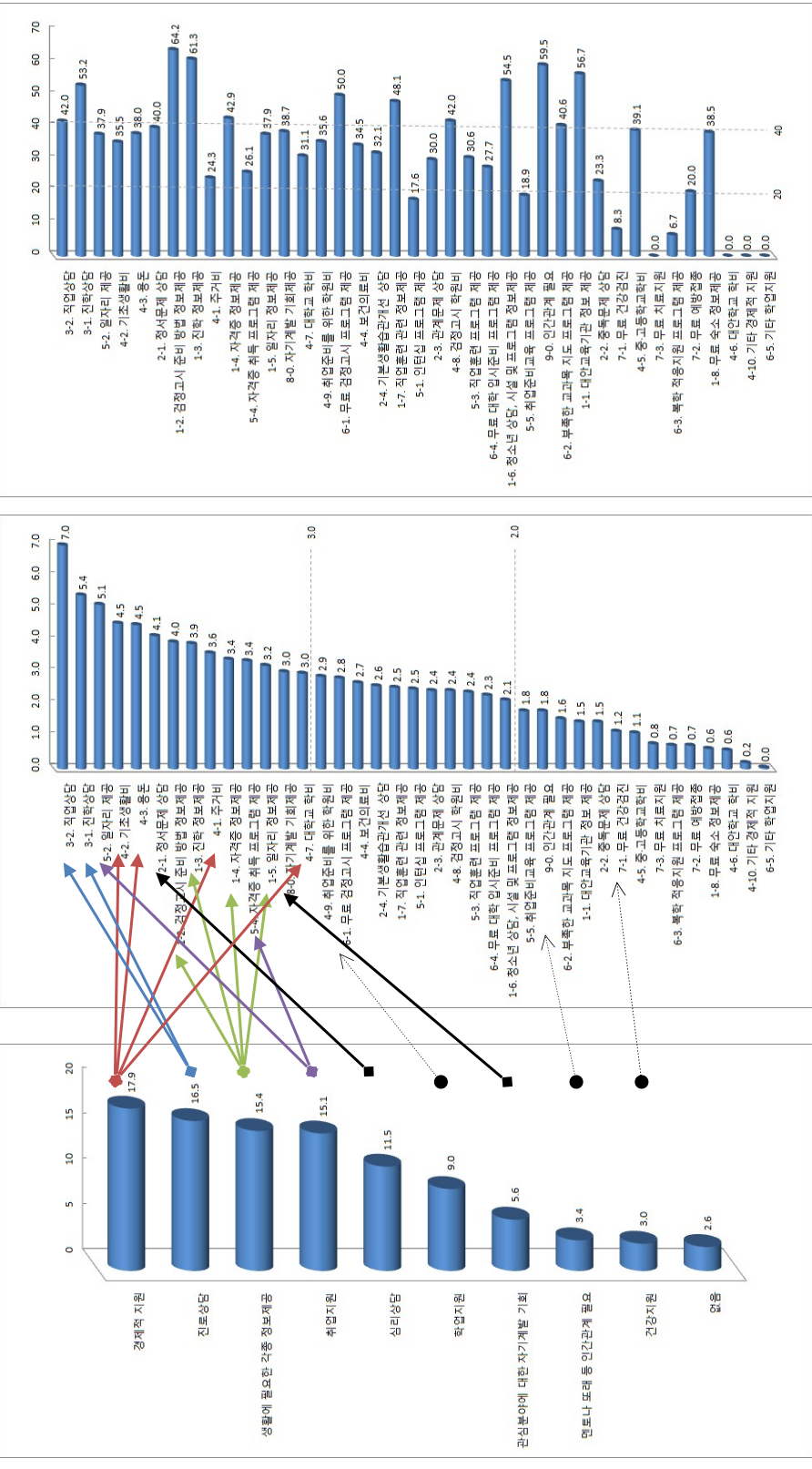
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영역에서 ‘검정고시 준비방법’(64.2%)이나 ‘진학정보’(61.3%)제공은 비교적 높은 충족률을 보이는데 반해 ‘자격증 정보’(42.9%), 일자리 정보(37.9%)에 대한 충족률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취업지원 영역에서는 가장 필요도가 높게 나타난 항목은 ‘일자리 제공’(37.9%),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제공’(26.1%)인데 충족률이 낮다.

심리상담 영역에서는 ‘정서문제’에 대한 상담 지원이 매우 필요한데 이에 대한 충족률은 40% 수준이다.

다음으로 필요도가 높았던 ‘관심분야에 대한 자기계발’ 기회, 학업지원영역의 ‘무료 검정고시 프로그램’, ‘삶을 이끌어 줄 멘토나 또래 등 인간관계’, 건강지원 영역의 ‘무료 건강검진’의 충족률을 살펴보면 각각 38.7%, 50.0%, 59.5%, 8.3%이다. 무료 검정고시 프로그램이나 또래·멘토 등 인간관계 지원은 50% 이상 필요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자기계발은 필요의 우선순위에 비해 충족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 무료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필요도 덜 느낄 뿐더러 충족률도 8.3%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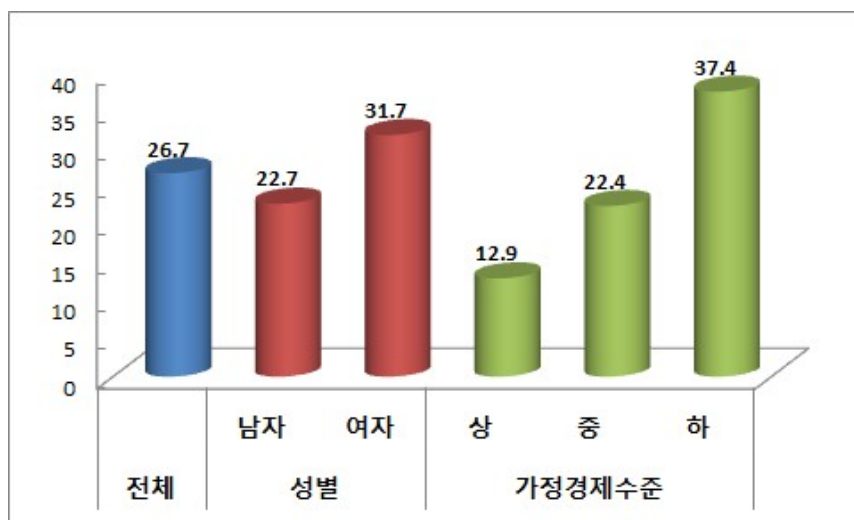
문 17-1. 필요했던 도움(다중응답) 문 17-2. 필요했던 도움: 구체적으로 문 17-3. 필요했던 도움: 항목별



【그림 II-98】 취업중단 후 필요했던 도움, 구체적인 항목과 도움 받은 정도(단위: %)

(3) 문 7.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의사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참여 의사를 변수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II-99>, 【그림 II-99】와 같다. 차이가 유의한 문항은 성별과 가정경제수준이었다. 성별을 보면, 여자가 31.7%, 남자가 22.7%에 ‘있음’에 응답하여, 남자보다는 여자가 참여의사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정경제수준에서는 ‘있음’에 응답한 비율이 하층이 37.4%, 중층이 22.4%, 상층이 12.9%로 가정경제수준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직업훈련 참여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99】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의사: 성별, 가정경제수준(N=427, 단위: %)

표 II-99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의사: 변수별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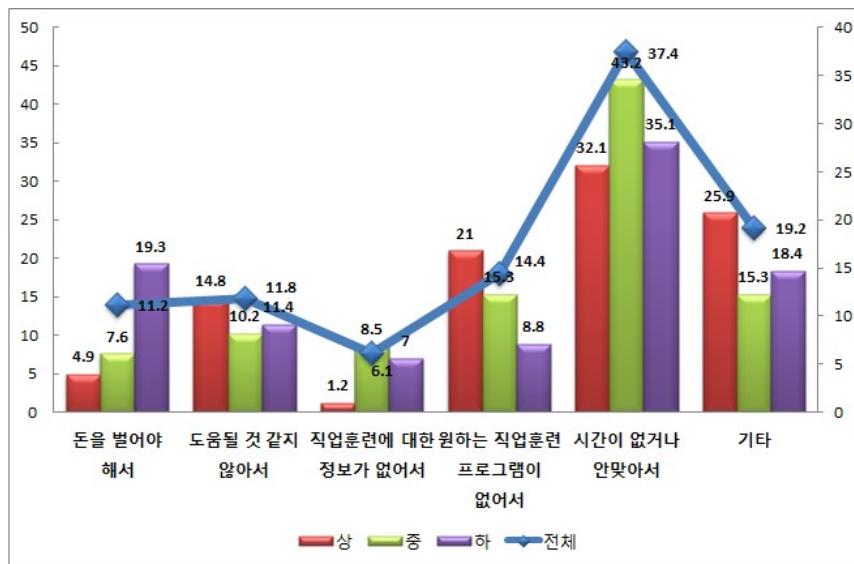
(단위: 명, %)

		전체		참여의사 있음		참여의사 없음		χ^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체		427		114	26.7	313	73.3	-
성별	남자	238		54	22.7	184	77.3	4.42* (df=1)
	여자	139		60	31.7	129	68.3	
		odds ratio=0.63 (95% 신뢰구간 0.41-0.97)						
연령대	고등학교 학령(17~19세)	58		13	22.4	45	77.6	1.53 (df=3)
	20세	111		34	30.6	77	69.4	
	21세	167		44	26.3	123	73.7	
	22세 이상	91		23	25.3	68	74.7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217		49	22.6	168	77.4	5.01 (df=2)
	한부모 가정	121		34	28.1	87	71.9	
	부모 모두 안계심	89		31	34.8	58	65.2	
가정 경제수준	상	93		12	12.9	81	87.1	21.08*** (df=2)
	중	152		34	22.4	118	77.6	
	하	182		68	37.4	114	62.6	
학업중단 시점	초등학교때	104		29	27.9	75	72.1	0.10 (df=1)
	고등학교때	323		85	26.3	238	73.7	
학업중단 사유	개인 사정으로	53		21	39.6	32	60.4	7.66 (df=3)
	학교 사유	229		61	26.6	168	73.4	
	대안교육을 위해서	100		19	19.0	81	81.0	
	문제행동으로	45		13	28.9	32	71.1	
이행 경로	학업형	213		49	23.0	164	77.0	4.46 (df=2)
	직업형	139		46	33.1	93	66.9	
	무업형	75		19	25.3	56	74.7	

* $p < .05$, *** $p < .001$.

(4) 문 7.5. 직업훈련 프로그램 미참여 이유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미참여 사유를 변수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II-100>, 【그림 II-100】과 같다. 차이가 유의한 문항은 가정경제수준이었는데, 모든 유형에서 ‘시간이 없거나 안 맞아서’가 가장 높았으나 상층과 중층은 기타가 두 번째로 높은 반면 하층은 ‘돈을 벌어야 해서’가 두 번째로 높았다. 또한 직업훈련 정보가 없다는 비율은 상층에 비해 중층과 하층이 높은 편이었으며, 원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없다는 비율은 상층, 중층, 하층 순으로 높았다. 즉 하층은 다른 집단에 비해 ‘돈을 벌어야 해서’, 상층과 중층은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100】 직업훈련 프로그램 미참여 이유: 가정경제수준(N=313, 단위: %)

표 II-100 직업훈련 프로그램 미참여 사유: 변수별 차이분석 (단위: 명, %)

	전체	돈을 벌어야해서		다음될 것 같지 않아서		정보가 없어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기타		χ^2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성	전체	313	11.2	37	11.8	19	6.1	45	14.4	117	37.4	60	19.2	-
연령	남자	184	13.6	25	13.6	11	6.0	27	14.7	63	34.2	33	17.9	5.05 (df=5)
	여자	129	7.8	12	9.3	8	6.2	18	14.0	54	41.9	27	20.9	
	고교학령(17~19세)	45	0.0	5	11.1	4	8.9	9	20.0	16	35.6	11	24.4	
가족 구성	20세	77	18.2	8	10.4	7	9.1	9	11.7	26	33.8	13	16.9	16.38 (df=15)
	21세	123	11.4	16	13.0	7	5.7	18	14.6	45	36.6	23	18.7	
	22세 이상	68	10.3	8	11.8	1	1.5	9	13.2	30	44.1	13	19.1	
거주 환경	양부모 가정	168	6.5	17	10.1	8	4.8	27	16.1	70	41.7	35	20.8	17.49 (df=10)
	한부모 가정	87	17.2	11	12.6	4	4.6	14	16.1	28	32.2	15	17.2	
	부모 모두 안계심	58	15.5	9	15.5	7	12.1	4	6.9	19	32.8	10	17.2	
직업준	상	81	4.9	12	14.8	1	1.2	17	21.0	26	32.1	21	25.9	25.95** (df=10)
	중	118	7.6	12	10.2	10	8.5	18	15.3	51	43.2	18	15.3	
	하	114	19.3	13	11.4	8	7.0	10	8.8	40	35.1	21	18.4	
학습중단	초중학교때	75	4.0	10	13.3	6	8.0	13	17.3	23	30.7	20	26.7	10.03 (df=5)
	고등학교때	238	13.4	27	11.3	13	5.5	32	13.4	94	39.5	40	16.8	
사유	개인 사정으로	32	6.3	2	6.3	0	0.0	4	12.5	13	40.6	11	34.4	
	학교 사유	168	12.5	21	12.5	13	7.7	25	14.9	62	36.9	26	15.5	18.12 (df=15)
	대안교육을 원해서	81	7.4	8	9.9	5	6.2	10	12.3	35	43.2	17	21.0	
이행	문제행동으로	32	18.8	6	18.8	1	3.1	6	18.8	7	21.9	6	18.8	
	학업형	164	22.6	5	5.4	4	4.3	6	6.5	38	40.9	19	20.4	55.34*** (df=10)
	직업형	93	16.1	15	26.8	4	7.1	13	23.2	8	14.3	7	12.5	
경로	무업형	56	3.0	17	10.4	11	6.7	26	15.9	71	43.3	34	20.7	

** p<.01, *** p<.001.

3.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 변화유형별 특성⁹³⁾

1) 이행경로 변화유형 분류방법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 변화유형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구분하였다. 먼저 윤철경 외(2015)의 연구에서 도출한 6개 경험유형(학업복귀형, 비행경험형, 학업지속형, 학업-직업전환형, 직업형, 무업형)을 기준으로 2016년(4차년도)에 조사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험유형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2016년에 조사된 표본의 경우 1~3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행경로 변화유형 분류 대상은 2013년(1차년도) 조사 이후 2016년(4차년도) 까지 학교 밖 청소년 패널조사에 모두 참여한 청소년들로 제한된다. 또한 윤철경 외(2015)의 연구에서는 첫 조사에서 파악한 경험사건 기간의 범위(2012년 7월~2013년 7월)에서 학업을 최초로 중단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유형을 분류하였기 때문에 전체 패널 중에 최종 333명에 한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6년 조사에서는 427명이 조사되었으나, 이들 중에는 1~3차년 조사 중 한, 두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패널이 존재하고 있고, 더불어 1~3차년도 조사에 모두 응답했던 패널 중에서도 4차년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1~4차년도 조사에 모두 응답한 청소년은 총 261명이며, 이들에 대한 경험사건의 이행경로 변화유형을 최종 분석하였다.

93) 이 부분은 김강호(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가 집필하였음.

표 II-101 이행경로 변화의 분포

(단위: 명, %)

기존 유형(1~3차)	최근 유형(4차)		학업형(군집1)		직업형(군집2)		무업형(군집3)		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학업복귀형	32	59.3	11	20.4	11	20.4			54 (100.0)
학업지속형	71	86.6	8	9.8	3	3.7			82 (100.0)
직업형	6	19.4	22	71.0	3	9.7			31 (100.0)
학업-직업전환형	18	35.3	27	52.9	6	11.8			51 (100.0)
무업형	3	10.3	10	34.5	16	55.2			29 (100.0)
비행경험형	3	21.4	3	21.4	8	57.1			14 (100.0)
계	133		81		47				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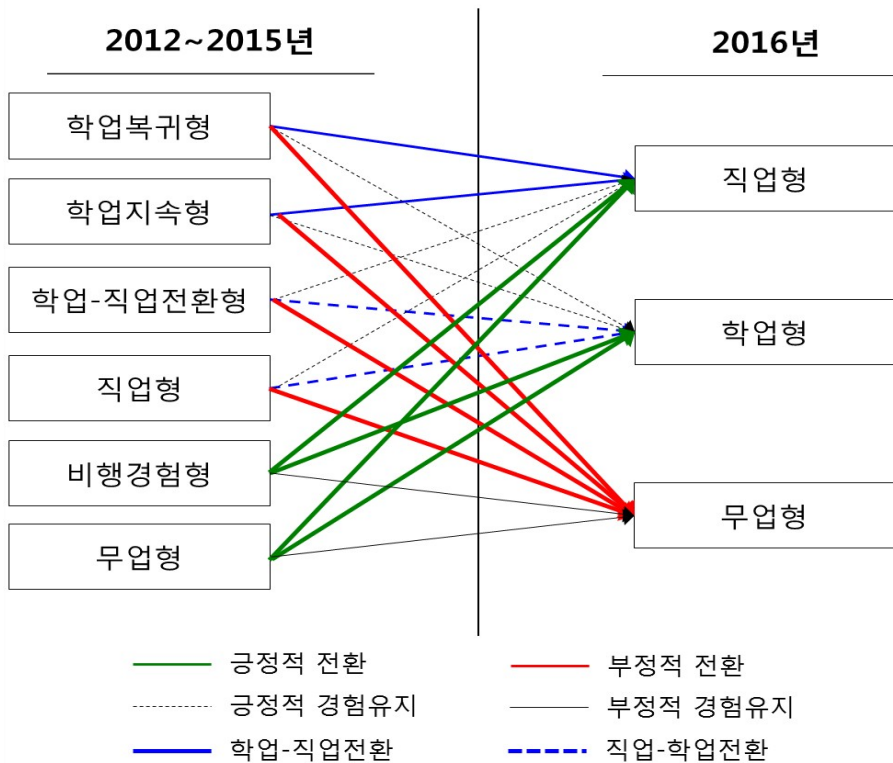
이행경로 변화유형은 크게 6개 유형에 대한 3개 유형으로의 전환 경로(6×3=18개) 모두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각 경로에 해당하는 사례수가 지나치게 적은 경우가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기존 이행경로를 크게 세 개의 범주로 재분류하고자한다. 즉, 기존 1~3차년 조사결과에 따라 분류된 학업복귀형과 학업지속형은 큰 범주에서 학업형으로, 학업-직업전환형과 직업형은 직업형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4차년도 조사결과에 따른 3개 유형을 연계하여 학업에서 학업형으로 또는 직업에서 직업형으로 이행한 경우 ‘긍정적 경로유지’(①+⑤=152명)으로, ‘학업에서 직업형 전환(②=19명)’, ‘직업에서 학업형 전환 (④=24명)’, 비행경험형 혹은 무업형에서 학업형 또는 직업형으로 전환한 경우, ‘긍정적 경로 전환 (⑦+⑧=19명)’, 반대로 학업형 혹은 직업형에서 무업형으로 전환한 경우 ‘부정적 경로 전환(③+⑥=23명)’, ⑥ 비행경험형 또는 무업형에서 무업형으로 이행된 ‘부정적 경로 유지(⑨=24명)’ 등 총 6개의 전환 경로(총 261명)로 구분하였다.

표 II-102 이행경로 변화유형의 분류

[단위: 명(%)]

기존 유형(1~3차)		최근 유형(4차)		긍정적 이행경로		부정적 이행경로
		학업형	직업형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학업복귀형	학업형	① 103 (39.5)	② 19 (7.3)	③ 14 (5.4)		
학업지속형						
직업형	직업형	④ 24 (9.2)	⑤ 49 (18.8)	⑥ 9 (3.4)		
학업-직업전환형						
무업형	부정적 이행경로	⑦ 6 (2.3)	⑧ 13 (5.0)	⑨ 24 (9.2)		
비행경험형						



【그림 II-101】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 변화 유형(N=261)

2) 변수의 구성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라 분석한 변수는 크게 인구학적 배경요인,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제도적 요인, 가치관으로 구성하였다. 개인적 요인에는 심리정서, 근로경험, 문제행동 관련 변수로 구성하였고, 환경적 요인에는 부모관계, 친구관계, 지역사회 특성 관련 변수로 구성하였다. 제도적 요인에는 학업중단 후 도움을 받은 기관 및 내용, 진로관련 경험 및 인식 변수를, 마지막으로 가치관에는 학업중단에 대한 심리정서와 학력에 대한 태도 변수로 구성하였다.

표 II-103 변수의 구성 및 내용

구분	변수	측정방법	
배경요인	성별	1=남자, 2=여자	
	연령	2016년 기준 만 나이	
	가족구성	1=양부모 가정, 2=한부모 가정, 3=부모 모두 안계심	
	가정경제수준	1=매우 못 산다~7=매우 잘 산다	
개인적 요인	심리 · 정서	자아존중감	①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②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③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같이 일을 잘할 수 있다. ④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⑤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5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자아탄력성	①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관촬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②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③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④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⑤나는 내가 매우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다 5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생활만족도	①나는 사는게 즐겁다. ②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③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3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우울감	①기운이 별로 없다. ②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진다. ③걱정이 많다. ④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⑤울기를 잘한다. ⑥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한다. ⑦외롭다. ⑧모든 일이 귀찮고 흥미가 없다. ⑨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⑩모든 일이 힘들다 10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구분	변수	측정방법
	충동성	①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②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③나는 위험하고 짜릿한 행동을 즐기는 편이다, ④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⑤나는 화가 나면 물건을 가리지 않는 편이다 5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사회적 낙인감	①사회는 나를 부정적으로 본다, ②나는 사회가 나를 열등하게 본다고 느낀다, ③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르게 취급받는다고 느낀다, ④나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⑤나는 사회가 나를 문제있는 존재로 본다고 느낀다, ⑥나는 사회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역코딩), ⑦나는 사회에 의해서 희생되었다고 느낀다, ⑧나는 유용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8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근로경험	근로여부	현재 일(아르바이트)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0=아니오, 1=예)
	월평균 근로소득	주당 근로일수×하루 평균 근로시간×시간당 임금(원)×4주
	근로기간	현재 일자리 시작 시점부터 2016년 5월까지의 개월 수
문제행동	게임중독	①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②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 ③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④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⑤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⑥게임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⑦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⑧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8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항상 그렇다)의 평균
	SNS 피해경험	①SNS 상에서 나의 개인정보(연락처, 하는 일, 학교 등)가 유출된 적이 있다, ②SNS 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③SNS 상에서 나를 놀리는 글을 본 적이 있다, ④SNS 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⑤SNS 상에서 나에게 대해 확인되지 않은 글(괴담, 소문)을 본 적이 있다 5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항상 그렇다)의 평균
	SNS 가해경험	①SNS를 통해 누군가를 따돌린 적이 있다, ②SNS를 통해 허락없이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올려 놓은 적이 있다, ③SNS를 통해 누군가에 대해 욕을 한 적이 있다, ④SNS를 통해 누군가를 놀린 적이 있다, ⑤SNS를 통해 남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글(괴담, 소문)을 올려 놓은 적이 있다 5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항상 그렇다)의 평균
	스마트폰 중독	①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②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③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려 해보았지만 실패했다, ④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계획한일(공부, 숙제, 또는 학원수강 등)을 하기 어렵다, ⑤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⑥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하고 초조해진다, ⑦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역코딩), ⑧스마트폰을 너무

구분	변수	측정방법	
환경적 요인		자주 또는 오래 사용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8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항상 그렇다)의 평균	
	부모 관계	부모의 정서적 지원	①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②나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③고민을 들어 주신다, ④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 ⑤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5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부모의 경제적 지원	①부모님(보호자)은 나에게 용돈을 주신다, ②부모님(보호자)은 내 공부나 생활에 필요한 것을 사 주신다, ③부모님(보호자)은 내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3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부모 방임	①부모님(보호자)께서는 다른 일(직장일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대(역코딩), ②나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으셨다, ③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으셨다, ④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았고, ⑤내가 아플 때도 귀찮아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5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부모 학대	①화를 낼 때는 주위에 아무거나 손에 닿는 대로 들고 때리셨다, ②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때리려고 하셨다, ③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때린 적이 많다, ④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 4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친구 관계	친한 친구 수	'현재 친한 친구가 몇 명입니까?'에 대한 응답값
		학업중단 친구수	'친한 친구 중에 학업 중단한 친구는 몇 명입니까?'의 응답값
		또래 애착	①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 ②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③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3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친구의 비행성향	①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잘 괴롭힌다, ②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잘 때린다, ③내 친구들은 물건을 잘 훔친다 3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지역사 회 특성	지역사회 통합	①우리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알고 지낸다, ②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③동네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면 우리 동네 어른들은 꾸짖는다, ④우리 동네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으면 혼내고 말린다 4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지역사회 무질서	①우리 동네는 관리하지 않는 빈 집이나 공터가 많다, ②우리 동네는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③우리 동네는 밤에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④우리 동네는 불량한 청소년들이 함께 돌아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의 4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구분	변수	측정방법
	지역사회 유익환경	①우리 동네에는 여가문화시설(청소년시설, 문화센터, 도서관 등)이 가까운 곳에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②우리 동네는 산, 공원, 하천 둔치 등이 있어 운동이나 산책하기 좋다 2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학업중단 후 도움 받은 기관유형	청소년시설, 복지시설, 보호시설, 상담기관, 보호관찰소, 직업훈련기관, 종교기관, 학원, 치료시설, 대안교육기관, 직장에 대해 도움을 받았으면 1, 없으면 0으로 코딩
	학업중단 후 필요한 도움	학업중단 후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심리상담, 진로상담, 경제적 지원, 취업지원, 학업지원, 건강지원 영역의 총 37개 세부내용(기타 제외)에 대해 필요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
	도움 받은 경험	학업중단 후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심리상담, 진로상담, 경제적 지원, 취업지원, 학업지원, 건강지원 영역 및 자기계발기회, 인간관계 등 총 37개 세부내용(기타 제외)에 대해 도움을 받은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도움이 필요했던 내용에 한정) ※ 회귀분석을 위해 별도로 37개 항목 모두에 대해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경우 0, 1개 이상 도움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우 1, 도움을 받은 경우 2로 더미변수 처리
제도적 요인	진로정보탐색 활동	진로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①진로에 대해 부모님(또는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②인터넷을 검색하였다, ③공공기관(교육, 복지, 고용관련 기관등)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④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해본 적이 있다, ⑤여가시간, 방과후, 방학 등을 활용해 직업체험을 해본 적이 있다 5개 문항에 대한 (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진로관 련 경험 및 인식	①나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잘 모르겠다, ②나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역코딩), ③나는 여러 가지 직업 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④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분야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⑤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교육 등에 대한 자료를 얻기가 어렵다, ⑥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⑦시대의 변화가 나의 진로에 대한 선택과 계획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⑧경기 불황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나의 진로에 영향을 준다, ⑨나는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 ⑩내가 원하는 진로와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 ⑪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없다, ⑫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⑬가정 환경이 열악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진로로 선택하기 어렵다 13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향후 진로결정 여부	향후 진로(진학·학업, 취업, 취업과 진학 병행, 시간제 근로나 아르바이트, 무급가족종사)에 대하여 진로를 결정한 상태인 경우=1, 결정하지 못한 경우=0로 코딩

구분		변수	측정방법
가치관	학업중 단에 대한 심리· 정서	부정적 심리·정서	①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친구나 친척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②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주위사람들이 문제아 취급을 하는 것 같(았)다, ③학교와 같이 소속된 곳이 없으니 불안하다 3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긍정적 심리·정서	①내가 선택한 결과이니 현재 생활에 만족한(했)다, ②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한(했)다(역코딩), ③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3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학력에 대한 태도	①우리 사회는 학력이 높을수록 대우를 받는다, ②우리 사회에서는 대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심하게 차별을 받는다, ③우리사회에서 중고등학교 중퇴 학력으로 취업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다 3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3) 분석결과⁹⁴⁾

(1) 배경요인

① 성별

성별에 따른 이행경로 변화유형 분포를 살펴본 결과 남자의 경우에는 ‘긍정적 경로유지(53.2%)’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정적 경로유지(13.5%)’가 많아 이행경로 전환이 많지 않았다.

여자의 경우에도 ‘긍정적 경로유지(64.2%)’가 가장 많았으나, 다음으로 ‘직업→학업형 전환’과 ‘긍정→부정적 경로전환’이 각각 10.0%로 나타나 남자에 비해서는 이행경로 전환이 많았다.

표 II-104 성별 이행경로 변화유형 분포 [단위: 명(%)]

구분	긍정적 경로유지	학업→직업형 전환	직업→학업형 전환	부정→긍정적 경로전환	긍정→부정적 경로전환	부정적 경로유지	계
남자	75 (53.2)	12 (8.5)	12 (8.5)	12 (8.5)	11 (7.8)	19 (13.5)	141 (100.0)
여자	77 (64.2)	7 (5.8)	12 (10.0)	7 (5.8)	12 (10.0)	5 (4.2)	120 (100.0)
계	152 (58.2)	19 (7.3)	24 (9.2)	19 (7.3)	23 (8.8)	24 (9.2)	261 (100.0)

② 연령

연령에 따른 이행경로 변화유형 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서 ‘긍정적 경로유지’ 유형의 청소년이 가장 많았다. 학령기(17-19세) 청소년의 경우 ‘긍정적 경로유지’ 유형 외에 ‘학업→직업형 전환(13.5%)’도 상대적으로 많았고, 20세와 21세 청소년의 경우에는 ‘직업→학업형 전환’ 유형이 각각 12.8%, 9.7%로 다음으로 많아 성인기로 진입한 청소년들의 경우 다시 학업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94) 6개 이행경로 변화유형 중 긍정적 경로를 유지하는 유형(학업→학업, 직업→직업)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경로유형 모두 30개 미만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고, 모집단의 분포를 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유형별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을 제외한 모든 분석은 비모수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II-105 연령별 이행경로 변화유형 분포

[단위: 명(%)]

연령	긍정적 경로유지	학업→직업형 전환	직업→학업형 전환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부정적 경로유지	계
17-19	26 (70.3)	5 (13.5)	1 (2.7)	0 (0.0)	2 (5.4)	3 (8.1)	37 (100.0)
20	41 (47.7)	5 (5.8)	11 (12.8)	8 (9.3)	10 (11.6)	11 (12.8)	86 (100.0)
21	64 (62.1)	8 (7.8)	10 (9.7)	5 (4.9)	8 (7.8)	8 (7.8)	103 (100.0)
22세 이상	21 (60.0)	1 (2.9)	2 (5.7)	6 (17.1)	3 (8.6)	2 (5.7)	35 (100.0)
계	152 (58.2)	19 (7.3)	24 (9.2)	19 (7.3)	23 (8.8)	24 (9.2)	261 (100.0)

③ 가족구성

가족구성별로 모든 가족구성 형태별로 ‘긍정적 경로 유지’ 유형이 많았으며, 특히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의 경우 ‘긍정적 경로유지’ 유형에 있는 경우가 62.3%로 비교적 많았다. 한편, 한 부모 또는 부모가 안 계신 경우에는 ‘부정적 경로유지’ 유형이 각각 11.5%, 11.1%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도 특징이다.

표 II-106 가족구성별 이행경로 변화유형 분포

[단위: 명(%)]

가족구성	긍정적 경로유지	학업→직업형 전환	직업→학업형 전환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부정적 경로유지	계
양부모	86 (62.3)	9 (6.5)	13 (9.4)	7 (5.1)	13 (9.4)	10 (7.2)	138 (100.0)
한부모	40 (51.3)	8 (10.3)	7 (9.0)	7 (9.0)	7 (9.0)	9 (11.5)	78 (100.0)
부모 안 계심	26 (57.8)	2 (4.4)	4 (8.9)	5 (11.1)	3 (6.7)	5 (11.1)	45 (100.0)
계	152 (58.2)	19 (7.3)	24 (9.2)	19 (7.3)	23 (8.8)	24 (9.2)	261 (100.0)

④ 주관적 가정경제수준

주관적 가정경제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가정경제수준에 상관없이 ‘긍정적 경로유지’가 약 60%를 밀도는 수준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한편, 가정 경제수준이 상인 청소년의 경우에는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17.0%)’, ‘직업→학업형 전환(14.9%)이 다음 순위로 많은 분포를 띠고 있었으며, 가정 경제수준이 하인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정적 경로유지(11.1%)’나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9.4%)’도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07 가정경제수준별 이행경로 변화유형 분포 [단위: 명(%)]

가정 경제수준	긍정적 경로유지	학업→직업형 전환	직업→학업형 전환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부정적 경로유지	계
상	27 (57.4)	3 (6.4)	7 (14.9)	0 (0.0)	8 (17.0)	2 (4.3)	47 (100.0)
중	57 (58.8)	9 (9.3)	8 (8.2)	10 (10.3)	4 (4.1)	9 (9.3)	97 (100.0)
하	68 (58.1)	7 (6.0)	9 (7.7)	9 (7.7)	11 (9.4)	13 (11.1)	117 (100.0)
계	152 (58.2)	19 (7.3)	24 (9.2)	19 (7.3)	23 (8.8)	24 (9.2)	261 (100.0)

(2) 개인적 요인

① 심리·정서

가. 자아존중감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비모수 통계분석방법인 Kruskal-Wallis 검증법⁹⁵⁾으로 분석하였다. Kruskal-Wallis 검증 결과 6개 이행경로 변화유형 간의 차이가 있는

95) Kruskal-Wallis 검증은 모수통계분석 방법인 ANOVA의 비모수적 분석방법이다. 이 방법은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성을 갖지 않거나, 특정 집단의 표본이 소규모일 경우 사용한다. 모수통계에서는 평균 차이를 분석하는데 반해 Kruskal-Wallis 검증에서는 전체 사례의 값을 적은 값부터 순위를 부여해 각 집단별로 산출된 순위합의 차이를 분석한다. 따라서 표에서 제시된 평균순위는 집단별 사례들에 부여된 순위의 합을 집단별 사례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또한 표에 제시된 평균과 표준편차는 Kruskal-Wallis 검증에서는 큰 의미를 갖지 않으며, 집단별 특성 값의 수준을 단순 비교하기 위해 제시하였다. 한편 Kruskal-Wallis 검증에서의 사후검증은 집단별 대응비교를 통해 도출하였다.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유형의 평균 순위값이 145.53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긍정적 경로유지’ 유형의 자아존중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집단별 쌍대비교를 통해 집단 간 차이를 사후검정한 결과에서는 ‘긍정적 경로유지’ 유형의 청소년들이 ‘부정적 경로유지’ 청소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08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이행경로 변화유형	평균	표준편차	평균순위	Kruskal-Wallis 검증	대응비교 (사후검증)
① 긍정적 경로유지	3.047	.502	140.70	$\chi^2=12.794$ (df=5) $p=0.025$	① > ⑥
② 학업→직업형 전환	2.853	.569	117.11		
③ 직업→학업형 전환	2.958	.445	127.38		
④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3.074	.482	145.53		
⑤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2.835	.438	110.83		
⑥ 부정적 경로유지	2.692	.547	92.04		
전체	2.976	.509			

나.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의 경우, 6개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평균순위값을 통해 살펴보면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 중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분포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음으로는 ‘긍정적 경로유지’, ‘학업→직업형 전환’ 유형의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부정적 경로유지’ 유형의 청소년들이 가장 다른 집단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낮은 청소년이 많이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집단에서 많았다.

표 II-109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

이행경로 변화유형	평균	표준편차	평균순위	Kruskal-Wallis 검증	대응비교 (사후검증)
① 긍정적 경로유지	2.820	.533	135.86	$\chi^2=6.303$ (df=5) $p=0.278$	-
② 학업→직업형 전환	2.726	.647	130.92		
③ 직업→학업형 전환	2.750	.476	128.08		
④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2.895	.641	142.55		
⑤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2.757	.562	128.54		
⑥ 부정적 경로유지	2.500	.556	96.40		
전체	2.777	.553			

다.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 역시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평균 순위를 살펴보면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청소년이 148.95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다음으로는 ‘직업→학업형 전환’, ‘긍정적 경로유지’ 유형이 생활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학업→직업형 전환’과 ‘부정적 경로유지’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는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0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

이행경로 변화유형	평균	표준편차	평균순위	Kruskal-Wallis 검증	대응비교 (사후검증)
① 긍정적 경로유지	2,575	.606	131.94	x 2=4.875 (df=5) p=0.431	-
② 학업→직업형 전환	2,526	.772	126.18		
③ 직업→학업형 전환	2,681	.525	142.50		
④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2,649	.490	148.95		
⑤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2,594	.541	129.39		
⑥ 부정적 경로유지	2,417	.654	104.69		
전체	2,573	.601			

라. 우울감

우울감에서는 6개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평균순위를 살펴보면 ‘학업→직업형 전환’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에서 우울감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많이 분포되었으며 다음으로 ‘부정적 경로유지’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에서 높은 우울감 수준을 보인 청소년이 많은 편이었다. 반대로 ‘직업→학업형 전환’ 유형의 청소년들의 우울감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II-111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

이행경로 변화유형	평균	표준편차	평균순위	Kruskal-Wallis 검증	대응비교 (사후검증)
① 긍정적 경로유지	2,059	.532	128.95	x 2=6.734 (df=5) p=0.241	-
② 학업→직업형 전환	2,247	.616	158.29		
③ 직업→학업형 전환	1,942	.475	112.50		
④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1,995	.443	118.13		
⑤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2,078	.421	128.72		
⑥ 부정적 경로유지	2,208	.633	153.27		
전체	2,072	.530			

마. 충동성

충동성에 대한 집단별 평균순위를 살펴보면, ‘학업→직업형 전환’에 속한 청소년의 충동감 수준(154.55)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다음으로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유형에서도 충동성이 높은 청소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반대로 ‘직업→학업형 전환’ 유형에서는 충동성이 낮은 청소년들의 비중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2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충동성의 차이

이행경로 변화유형	평균	표준편차	평균순위	Kruskal-Wallis 검증	대응비교 (사후검증)
① 긍정적 경로유지	1.762	.513	126.53	x 2=5.286 (df=5) p=0.382	-
② 학업→직업형 전환	1.937	.600	154.55		
③ 직업→학업형 전환	1.717	.433	119.25		
④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1.737	.529	124.11		
⑤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1.913	.511	152.52		
⑥ 부정적 경로유지	1.808	.492	137.25		
전체	1.786	.511			

바. 사회적 낙인감

사회적 낙인감 역시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집단별 평균순위를 살펴보면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에 속한 청소년들이 163.18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부정적 경로유지(143.10)’이며 이 두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에서 사회적 낙인감이 높은 청소년들의 비중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직업→학업형 전환’과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청소년들의 사회적 낙인감 수준은 각각 117.19, 114.61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II-113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사회적 낙인감의 차이

이행경로 변화유형	평균	표준편차	평균순위	Kruskal-Wallis 검증	대응비교 (사후검증)
① 긍정적 경로유지	1.984	.456	128.74	x 2=6.426 (df=5) p=0.267	-
② 학업→직업형 전환	2.072	.476	138.87		
③ 직업→학업형 전환	1.953	.301	117.19		
④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2.178	.277	163.18		
⑤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1.946	.341	114.61		
⑥ 부정적 경로유지	2.104	.536	143.10		
전체	2.010	.435			

② 근로경험

가. 근로여부

현재 일(아르바이트)을 하고 있는지에 따른 6개 이행경로 변화유형 분포를 살펴보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주로 ‘긍정적 경로유지(58.8%)’에 속했으며, 다음으로는 ‘학업→직업형 전환(10.9%)’ 유형이 많았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긍정적 경로유지(57.7%)’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부정적 경로유지(12.0%)’ 유형이 많은 편이었다.

표 II-114 근로여부별 이행경로 변화유형 분포 [단위: 명(%)]

구분	긍정적 경로유지	학업→직업형 전환	직업→학업형 전환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부정적 경로유지	계
아니오	82 (57.7)	6 (4.2)	13 (9.2)	9 (6.3)	15 (10.6)	17 (12.0)	142 (100.0)
예	70 (58.8)	13 (10.9)	11 (9.2)	10 (8.4)	8 (6.7)	7 (5.9)	119 (100.0)
계	152 (58.2)	19 (7.3)	24 (9.2)	19 (7.3)	23 (8.8)	24 (9.2)	261 (100.0)

나. 월평균 근로소득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 월평균 근로소득의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여기서 월평균 근로소득은 주당 근로일수, 근로시간, 시간당 급여를 곱해 4주로 계산한 값이다.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집단 간 근로소득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평균순위를 보면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과 ‘학업→직업형 전환’ 유형에서 비교적 많은 급여를 받는 청소년의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직업→학업형 전환’ 유형이 낮은 급여를 받은 청소년의 비중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I-115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월평균 근로소득의 차이

이행경로 변화유형	평균	표준편차	평균순위	Kruskal-Wallis 검증	대응비교 (사후검증)
① 긍정적 경로유지	317,043	341,292	57.09	$\chi^2=5.208$ (df=5) $p=0.391$	-
② 학업→직업형 전환	298,736	99,836	68.96		
③ 직업→학업형 전환	223,442	112,046	47.64		
④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356,462	216,823	75.45		
⑤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291,450	149,054	61.44		
⑥ 부정적 경로유지	337,100	202,006	68.21		
전체	309,162	279,568			

다. 근로기간

6개 이행경로 변화유형의 집단별 평균순위를 살펴보면 ‘긍정적 경로유지’ 유형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던 청소년들이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직업→학업형 전환’ 유형의 청소년들의 근로기간이 비교적 길었다. 반대로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과 ‘부정적 경로 전환’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근로기간이 적었다.

표 II-116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근로기간의 차이

이행경로 변화유형	평균	표준편차	평균순위	Kruskal-Wallis 검증	대응비교 (사후검증)
① 긍정적 경로유지	6.543	7.432	64.17	$\chi^2=3.188$ (df=5) $p=0.671$	-
② 학업→직업형 전환	5.538	8.100	55.08		
③ 직업→학업형 전환	6.182	10.935	57.59		
④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4.100	3.695	57.60		
⑤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2.250	1.753	48.06		
⑥ 부정적 경로유지	2.857	3.625	48.29		
전체	5.689	7.276			

③ 문제행동

가. 게임중독

이행경로 변화유형 집단별 게임중독 수준의 평균 순위를 살펴보면, ‘부정적 경로유지’ 유형에

속한 청소년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중독수준을 보인 청소년들의 비중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반대로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유형에 속한 청소년의 게임중독 수준은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적 낮았다. 집단별 대응비교를 통해 집단 간 차이를 사후검정한 결과에서도 ‘부정적 경로유지’ 유형의 청소년들이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유형의 청소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게임중독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7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게임중독 수준의 차이

이행경로 변화유형	평균	표준편차	평균순위	Kruskal-Wallis 검증	대응비교 (사후검증)
① 긍정적 경로유지	1,280	0.457	129.04	x 2=12.097 (df=5) p=0.033	⑥ > ⑤
② 학업→직업형 전환	1,349	0.568	127.71		
③ 직업→학업형 전환	1,203	0.335	114.75		
④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1,632	0.942	145.50		
⑤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1,272	0.690	109.93		
⑥ 부정적 경로유지	1,578	0.594	170.98		
전체	1,330	0.550			

나. SNS 피해경험

SNS 피해경험의 집단별 평균순위를 보면, ‘학업→직업형 전환’ 유형에 속한 청소년 중에 피해경험이 많은 청소년들의 비중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음으로는 ‘긍정적 경험유지’ 유형의 청소년이 많은 편이었다. 반대로 ‘부정적 경험유지’ 와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의 SNS 피해경험은 비교적 적었다. 그러나 대응비교 결과를 보면 6개 유형집단 간 SNS 피해경험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118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SNS 피해경험의 차이

이행경로 변화유형	평균	표준편차	평균순위	Kruskal-Wallis 검증	대응비교 (사후검증)
① 긍정적 경로유지	1,196	0.301	136.58	x 2=7.395 (df=5) p=0.193	-
② 학업→직업형 전환	1,253	0.332	147.18		
③ 직업→학업형 전환	1,108	0.167	124.33		
④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1,095	0.204	113.24		
⑤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1,174	0.297	128.39		
⑥ 부정적 경로유지	1,100	0.250	106.06		
전체	1,174	0.284			

다. SNS 가해경험

SNS 가해경험에서는 ‘학업→직업형 전환’ 유형에 속한 청소년 중에 가해경험이 많은 청소년의 비중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음으로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유형에 속한 청소년이 많은 편이었다. 반대로 가해경험이 비교적 적었던 집단은 ‘직업→학업형 전환’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이었다. 하지만, 집단 간 대응비교 결과에서는 6개 유형집단 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표 II-119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SNS 가해경험의 차이

이행경로 변화유형	평균	표준편차	평균순위	Kruskal-Wallis 검증	대응비교 (사후검증)
① 긍정적 경로유지	1.068	0.178	126.51	x 2=9.580 (df=5) p=0.088	-
② 학업→직업형 전환	1.147	0.209	158.32		
③ 직업→학업형 전환	1.033	0.096	119.92		
④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1.147	0.304	141.18		
⑤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1.130	0.253	144.39		
⑥ 부정적 경로유지	1.083	0.204	127.98		
전체	1.084	0.197			

라.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대한 집단별 평균순위를 살펴보면,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유형에서 스마트폰 중독수준이 높은 청소년 비중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직업→학업형 전환’ 유형의 청소년이 높은 편이었으나, 다른 나머지 집단과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비교적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낮은 집단은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이었다. 스마트폰 중독에서도 6개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120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수준의 차이

이행경로 변화유형	평균	표준편차	평균순위	Kruskal-Wallis 검증	대응비교 (사후검증)
① 긍정적 경로유지	1.660	0.482	126.97	x 2=10.448 (df=5) p=0.063	-
② 학업→직업형 전환	1.829	0.798	130.45		
③ 직업→학업형 전환	1.677	0.442	131.42		
④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2.039	0.509	183.84		
⑤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1.603	0.409	121.74		
⑥ 부정적 경로유지	1.651	0.495	123.58		
전체	1.695	0.512			

(3) 환경적 요인

① 부모 관계

가. 부모의 정서적 지원

부모의 정서적 지원에 대한 평균 순위를 보면, ‘긍정적 경로유지’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원을 높게 인식하는 청소년들이 많았고, 다음으로는 ‘직업→학업형 전환’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이었다. 6개 집단 중 부모의 정서적 지원을 낮게 인식하는 청소년이 많은 집단은 ‘학업→직업형 전환’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이었다. 그러나 사후검증 결과 집단 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II-121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부모의 정서적 지원 차이

이행경로 변화유형	평균	표준편차	평균순위	Kruskal-Wallis 검증	대응비교 (사후검증)
① 긍정적 경로유지	3.075	0.660	136.60	$\chi^2=4.969$ (df=5) $p=0.420$	-
② 학업→직업형 전환	2.832	0.575	105.08		
③ 직업→학업형 전환	3.058	0.326	134.83		
④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2.979	0.432	111.87		
⑤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3.026	0.625	133.07		
⑥ 부정적 경로유지	2.975	0.545	125.38		
전체	3.035	0.602			

나. 부모의 경제적 지원

부모의 경제적 지원의 경우, ‘직업→학업형 전환’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에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높게 인식하는 청소년들이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긍정적 경로유지’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이었다. 반대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낮게 인식하는 청소년이 많은 집단은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과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이었다. 그러나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역시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122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지원 차이

이행경로 변화유형	평균	표준편차	평균순위	Kruskal-Wallis 검증	대응비교 (사후검증)
① 긍정적 경로유지	2,765	0.824	135.01	x 2=3.721 (df=5) p=0.590	-
② 학업→직업형 전환	2,772	0.832	130.82		
③ 직업→학업형 전환	2,889	0.544	144.73		
④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2,579	0.867	115.05		
⑤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2,623	0.831	115.63		
⑥ 부정적 경로유지	2,694	0.629	119.40		
전체	2,745	0.787			

다. 부모 방임

부모의 방임수준에 대한 집단별 평균 순위에서는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에서 부모방임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청소년들이 많았고, 다음으로 ‘학업→직업형 경로 전환’,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의 순이었다. 반대로 부모방임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청소년이 많은 집단은 ‘긍정적 경로 유지’ 유형의 청소년들이었다.

표 II-123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부모의 방임 수준 차이

이행경로 변화유형	평균	표준편차	평균순위	Kruskal-Wallis 검증	대응비교 (사후검증)
① 긍정적 경로유지	1,834	0.548	123.60	x 2=4.411 (df=5) p=0.492	-
② 학업→직업형 전환	1,937	0.550	144.87		
③ 직업→학업형 전환	1,908	0.421	137.77		
④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2,032	0.401	151.66		
⑤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1,965	0.454	143.24		
⑥ 부정적 경로유지	1,900	0.521	132.06		
전체	1,880	0.518			

라. 부모 학대

부모 학대의 경우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에서 부모의 학대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청소년이 많았고, 다음으로는 ‘부정적 경로 유지’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이었다. 반대로 부모학대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청소년이 많은 집단은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이었다. 그러나 부모의 학대 수준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고, 평균값을

보아도 그 수준이 매우 적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한 부모의 학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124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부모의 학대 수준 차이

이행경로 변화유형	평균	표준편차	평균순위	Kruskal-Wallis 검증	대응비교 (사후검증)
① 긍정적 경로유지	1.413	0.624	127.33	x ² =2.871 (df=5) p=0.720	-
② 학업→직업형 전환	1.539	0.732	139.92		
③ 직업→학업형 전환	1.469	0.587	136.08		
④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1.487	0.510	145.18		
⑤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1.337	0.536	120.04		
⑥ 부정적 경로유지	1.510	0.601	141.40		
전체	1.435	0.609			

② 친구관계

가. 친한 친구 수

친한 친구의 수는 전체 평균 약 7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별 평균순위를 보면 ‘직업→학업형 전환’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 중 친구수가 많은 청소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학업→직업형 전환’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이었다. 반대로 친한 친구가 적은 청소년들이 많이 분포된 집단은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이었다. 그러나 친한 친구 수에 대한 이행경로 변화유형별 집단 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II-125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친한 친구 수의 차이

이행경로 변화유형	평균	표준편차	평균순위	Kruskal-Wallis 검증	대응비교 (사후검증)
① 긍정적 경로유지	7.579	10.613	128.96	x ² =5.801 (df=5) p=0.326	-
② 학업→직업형 전환	8.895	10.765	147.37		
③ 직업→학업형 전환	7.542	5.477	154.44		
④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5.263	4.067	106.84		
⑤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6.609	4.540	136.13		
⑥ 부정적 경로유지	5.792	4.000	121.73		
전체	7.253	9.010			

나. 학업중단 친구 수

학업중단 친구 수는 전체 평균 1명 정도였고, 학업중단 친구가 많은 청소년이 비교적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집단은 ‘학업→직업형 전환’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이었다. 그리고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유형에 속한 청소년 중에도 학업중단 친구가 많은 청소년이 비교적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학업중단 친구가 적은 청소년들이 비교적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집단은 ‘긍정적 경로유지’ 유형이었다.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증 결과 ‘학업→직업형 전환’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 집단이 ‘긍정적 경로유지’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보다 학업중단 친구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26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학업중단 친구 수의 차이

이행경로 변화유형	평균	표준편차	평균순위	Kruskal-Wallis 검증	대응비교 (사후검증)
① 긍정적 경로유지	0.809	1.296	119.69	$\chi^2=13.769$ (df=5) $p=0.017$	② > ①
② 학업→직업형 전환	2.211	2.463	169.42		
③ 직업→학업형 전환	1.500	2.246	138.08		
④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1.105	1.197	144.87		
⑤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1.652	2.208	155.72		
⑥ 부정적 경로유지	1.125	1.624	130.44		
전체	1.100	1.663			

다. 또래 애착

‘직업→학업형 전환’ 유형의 경우 또래 애착이 높은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집단이었고, 다음으로는 ‘긍정적 경로유지’ 유형이었다. 반대로 또래 애착 수준이 비교적 낮은 청소년이 많이 분포한 집단은 ‘부정적 경로 유지’ 유형과 ‘학업→직업형 전환’ 유형이었다. 그러나 6개 유형 집단 간에 또래애착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II-127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또래 애착의 차이

이행경로 변화유형	평균	표준편차	평균순위	Kruskal-Wallis 검증	대응비교 (사후검증)
① 긍정적 경로유지	3,154	0.536	133.62	x 2=1.590 (df=5) p=0.902	-
② 학업→직업형 전환	3,035	0.702	121.61		
③ 직업→학업형 전환	3,222	0.413	140.48		
④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3,123	0.601	123.45		
⑤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3,087	0.405	124.70		
⑥ 부정적 경로유지	3,028	0.728	124.42		
전체	3,132	0.552			

라. 친구의 비행성향

친구의 비행성향이 높은 청소년이 비교적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집단은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유형과 ‘학업→직업형 전환’ 유형이었다. ‘직업→학업형 전환’ 유형에서도 친구의 비행성향을 높게 인식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반대로 친구의 비행성향을 낮게 인식하는 청소년이 많은 집단은 ‘긍정적 경로유지’ 유형이었다. 그러나 친구의 비행성향에서도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아 이행경로 변화유형과 친구의 비행성향 수준은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128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친구의 비행성향 차이

이행경로 변화유형	평균	표준편차	평균순위	Kruskal-Wallis 검증	대응비교 (사후검증)
① 긍정적 경로유지	1,588	0.584	126.27	x 2=1.833 (df=5) p=0.872	-
② 학업→직업형 전환	1,667	0.588	140.66		
③ 직업→학업형 전환	1,653	0.560	137.40		
④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1,667	0.458	144.13		
⑤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1,638	0.602	133.41		
⑥ 부정적 경로유지	1,625	0.576	134.23		
전체	1,613	0.570			

③ 지역사회 특성

가. 지역사회 통합

지역사회 통합에 대해 높게 인식하는 청소년이 비교적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집단은 ‘부정적 경로유지’ 유형이었다. 다음으로는 ‘긍정적 경로유지’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이었다. 반대로 지역사회 통합 수준에 대해 낮게 인식하는 청소년이 많이 분포하는 집단은 ‘학업→직업형 전환’ 유형과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이었다.

표 II-129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 수준 인식의 차이

이행경로 변화유형	평균	표준편차	평균순위	Kruskal-Wallis 검증	대응비교 (사후검증)
① 긍정적 경로유지	2,092	0.662	132.73	x 2=5.688 (df=5) p=0.338	-
② 학업→직업형 전환	1,947	0.789	112.89		
③ 직업→학업형 전환	2,042	0.565	129.52		
④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2,079	0.707	125.53		
⑤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1,946	0.559	112.93		
⑥ 부정적 경로유지	2,271	0.634	157.48		
전체	2,080	0.655			

나. 지역사회 무질서

지역사회 무질서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청소년들은 ‘학업→직업형 전환’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 중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유형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반대로 지역사회 무질서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청소년이 많이 분포하는 집단은 ‘부정적 경로유지’ 유형이었고,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유형도 그 다음으로 많았다.

표 II-130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지역사회 무질서 수준 인식의 차이

이행경로 변화유형	평균	표준편차	평균순위	Kruskal-Wallis 검증	대응비교 (사후검증)
① 긍정적 경로유지	2,247	0.668	133.27	x 2=3.316 (df=5) p=0.651	-
② 학업→직업형 전환	2,263	0.637	144.32		
③ 직업→학업형 전환	2,198	0.643	127.38		
④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2,316	0.552	142.66		
⑤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2,130	0.686	116.35		
⑥ 부정적 경로유지	2,063	0.577	114.50		
전체	2,221	0.647			

다. 지역사회 유익환경

지역사회 유익환경을 높게 인식하는 청소년이 많이 분포한 집단은 ‘직업→학업형 전환’ 유형이었고, ‘긍정적 경로유지’ 유형도 비교적 지역사회 유익환경을 높게 인식하는 청소년이 많았다. 반대로 지역사회 유익환경을 낮게 인식하는 청소년이 가장 많은 집단은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유형이었고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과’ 부정적 경로유지’ 유형도 많은 편이었다. 그러나 지역사회 유익환경에서도 이행경로 변화유형 집단 간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131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지역사회 유익환경 수준 인식의 차이

이행경로 변화유형	평균	표준편차	평균순위	Kruskal-Wallis 검증	대응비교 (사후검증)
① 긍정적 경로유지	2,628	0.694	134.19	x 2=3.054 (df=5) p=0.692	-
② 학업→직업형 전환	2,553	0.832	127.68		
③ 직업→학업형 전환	2,750	0.643	145.79		
④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2,500	0.527	118.03		
⑤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2,543	0.656	119.70		
⑥ 부정적 경로유지	2,417	0.830	119.73		
전체	2,598	0.698			

(4) 제도적 요인

① 학업중단 후 도움 받은 경험

가. 기관 유형

학업중단 이후 도움을 받은 기관들을 이행경로 변화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유형에 상관없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이후 도움을 받은 기관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을 받은 기관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청소년 시설도 전체 응답자의 15.7%에 그쳤고, 상담기관과 학원이 각각 13.0%, 직업훈련기관이 11.1%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학교 밖 청소년들은 주로 전문기관보다는 주변 친구나 선배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행경로 변화유형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은 경우는 많지 않았으나, 주로 도움을 받은 기관의 유형의 순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긍정적 경로유지’ 유형의

경우 학원(15.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담기관(13.8%), 청소년시설(13.2%) 순이었다. ‘학업→직업형 전환’ 유형의 경우에는 청소년시설(31.6%)이 가장 많았고, 상담기관, 직업훈련기관, 학원이 다음을 이루었으나, 이 유형에 속한 청소년이 기관에서 도움을 받은 경험은 극히 적은 수에 그쳤다. 나머지 유형들에서도 기관에서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그 수가 매우 적었으나, ‘직업→학업형 전환’ 유형에 속한 청소년의 경우 상담기관이, ‘부정→공정적 경로 전환’ 유형에 속한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시설, ‘공정→부정적 경로 전환’ 유형에 속한 청소년의 경우 직업훈련기관, ‘부정적 경로유지’ 유형의 경우 청소년시설에서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II-132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학업중단 후 도움 받은 기관유형 분포 [단위: 명(%)]

구분	공정적 경로유지 (N=152)	학업→직업형 이행 (N=19)	직업→학업형 이행 (N=24)	부정→공정적 경로이행 (N=19)	공정→부정적 경로이행 (N=23)	부정적 경로유지 (N=24)	전체 ¹⁾
1.청소년시설	20 (13.2)	6 (31.6)	3 (12.5)	6 (31.6)	4 (17.4)	2 (8.3)	41 (15.7)
2.복지시설	2 (1.3)			1 (5.3)			3 (1.1)
3.보호시설				1 (5.3)	1 (4.3)	1 (4.2)	3 (1.1)
4.상담기관	21 (13.8)	2 (10.5)	5 (20.8)	2 (10.5)	1 (4.3)	3 (12.5)	34 (13.0)
5.보호관찰소	1 (.7)			3 (15.8)		4 (16.7)	8 (3.1)
6.직업훈련기관	14 (9.2)	2 (10.5)	2 (8.3)	5 (26.3)	5 (21.7)	1 (4.2)	29 (11.1)
7.종교기관	9 (5.9)			1 (5.3)	1 (4.3)	1 (4.2)	12 (4.6)
8.학원	23 (15.1)	2 (10.5)	3 (12.5)	3 (15.8)	2 (8.7)	1 (4.2)	34 (13.0)
9.치료시설	2 (1.3)						2 (.8)
10.대안교육기관	3 (2.0)	1 (5.3)	1 (4.2)		1 (4.3)		6 (2.3)
11.직장	4 (2.6)			1 (5.3)	1 (4.3)		6 (2.3)

주 1) 전체는 전체 응답자(261명) 중에서 도움 받은 기관으로 응답한 빈도와 백분율을 나타냄.

나. 도움의 필요여부와 도움 받았는지 여부

학업중단 후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심리상담, 진로상담, 경제적 지원, 취업지원, 학업지원, 건강지원 영역에 대한 37개 세부내용별로 필요했던 도움내용과 가족 또는 선배나 친구 외에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총 37개 도움내용 모두에 대해 필요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 1개 이상 필요한 도움이 있었고 해당 내용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 필요한 도움을 받은 경우 3개의 경우로 분류하였다.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상관없이 학업중단 후 필요한 도움이 있었고, 해당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많았다. 그러나 필요한 도움이 있었으나 받지 못했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긍정적 경험유지’ 유형과 ‘학업→직업형 전환’ 유형에서 상대적으로 적었던 반면, ‘직업→학업형 전환’과 ‘부정→긍정적 경험 전환’ 유형에서 많은 비율의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부정적 경험유지’ 유형에서는 전체 24명 중 20.8%가 학업중단 후 필요한 도움이 없었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표 II-133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학업중단 후 필요한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 [단위: 명(%)]

구분	긍정적 경험유지	학업→직업형 전환	직업→학업형 전환	부정→긍정적 경험전환	긍정→부정적 경험전환	부정적 경험유지	계
필요한 도움이 없었음	14 (9.2)	1 (5.3)	1 (4.2)	1 (5.3)	0 (0.0)	5 (20.8)	22 (8.4)
도움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함	42 (27.6)	5 (26.3)	10 (41.7)	8 (42.1)	7 (30.4)	8 (33.3)	80 (30.7)
필요한 도움을 받음	96 (63.2)	13 (68.4)	13 (54.2)	10 (52.6)	16 (69.6)	11 (45.8)	159 (60.9)
계	152 (100.0)	19 (100.0)	24 (100.0)	19 (100.0)	23 (100.0)	24 (100.0)	261 (100.0)

② 진로관련 경험 및 인식

가. 진로정보탐색 활동

진로정보탐색 활동이 많은 청소년이 비교적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집단은 ‘긍정적 경로유지’ 유형으로 평균 순위 값은 144.17이다. 또한 ‘직업→학업형 전환’과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유형도 진로정보탐색 활동이 많은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반대로 진로탐색활동이 적은 청소년들의 분포가 많은 집단은 ‘부정적 경로유지’ 유형이었다. 사후검증 결과를

보면 ‘긍정적 경로유지’ 유형의 청소년들이 ‘부정적 경로유지’ 유형의 청소년들에 비해 진로정보 탐색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34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진로정보탐색 활동의 차이

이행경로 변화유형	평균	표준편차	평균순위	Kruskal-Wallis 검증	대응비교 (사후검증)
① 긍정적 경로유지	2.407	0.585	144.17	x ² =19.745 (df=5) p=0.001	① > ⑥
② 학업→직업형 전환	2.211	0.583	121.79		
③ 직업→학업형 전환	2.308	0.387	131.10		
④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2.295	0.270	131.08		
⑤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2.130	0.469	108.15		
⑥ 부정적 경로유지	1.925	0.467	76.60		
전체	2.307	0.549			

나. 진로 장애

진로장애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많이 분포한 집단은 ‘부정적 경로유지’ 유형이었고, 다음으로 ‘학업→직업형 전환’과 ‘긍정적 경로유지’ 유형이었다. 반대로 진로장애 수준이 비교적 적은 청소년이 많이 분포한 집단은 ‘직업→학업형 전환’ 유형이었다. 그러나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135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진로장애 수준의 차이

이행경로 변화유형	평균	표준편차	평균순위	Kruskal-Wallis 검증	대응비교 (사후검증)
① 긍정적 경로유지	2.182	0.557	132.50	x ² =3.516 (df=5) p=0.621	-
② 학업→직업형 전환	2.150	0.550	132.29		
③ 직업→학업형 전환	2.006	0.511	107.94		
④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2.219	0.612	128.03		
⑤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2.197	0.533	129.22		
⑥ 부정적 경로유지	2.301	0.547	147.58		
전체	2.178	0.552			

다. 향후 진로결정 여부

미래 진로를 결정한 청소년들이 많이 분포한 이행경로 변화유형 집단은 ‘긍정적 경로유지’ 유형이었다. 또한 ‘부정적 경로유지’와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 중에도 미래 진로를 결정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미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청소년들 역시 ‘긍정적 경로유지’ 유형에서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직업→학업형 전환’ 유형이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후 경험이 미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기 위한 단계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긍정적 경로유지’ 유형에 속한 청소년 중에도 미래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청소년의 빈도가 더 많고 ‘부정적 경로유지’와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 중에 오히려 미래를 결정했다는 청소년들 비중이 꽤 나오는 것을 볼 때 진로지도가 상당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II-136 미래 진로결정 여부에 따른 이행경로 변화유형 분포 [단위: 명(%)]

구분	긍정적 경로유지	학업→직업형 전환	직업→학업형 전환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부정적 경로유지	계
미결정	90 (60.4)	8 (5.4)	18 (12.1)	9 (6.0)	12 (8.1)	12 (8.1)	149 (100.0)
결정	62 (55.4)	11 (9.8)	6 (5.4)	10 (8.9)	11 (9.8)	12 (10.7)	112 (100.0)
계	152 (58.2)	19 (7.3)	24 (9.2)	19 (7.3)	23 (8.8)	24 (9.2)	261 (100.0)

(5) 가치관

① 학업중단에 대한 심리·정서

가. 학업중단에 대한 부정적 심리·정서

학업중단에 대한 부정적 심리·정서가 높은 집단은 ‘학업→직업형 전환’ 유형이었고, 다음으로 ‘직업→학업형 전환’과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순이었다. 어떤 유형이든 경로의 전환을 하는 집단에서 학업중단에 대한 부정적 심리·정서가 강했다. 반대로 부정적 심리·정서가 낮은 집단은 ‘긍정적 경로유지’, ‘부정적 경로유지’ 순이었다. Kruskal-Wallis 검증결과 이행경로 변화유형별 집단 간에 부정적 심리·정서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검증에서는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대응집단이 발견되지 않았다.

표 II-137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학업중단에 관한 부정적 심리·정서 차이

이행경로 변화유형	평균	표준편차	평균순위	Kruskal-Wallis 검증	대응비교 (사후검증)
① 긍정적 경로유지	2,005	0.629	99.58	$\chi^2=15.168$ (df=5) $p=0.010$	na
② 학업→직업형 전환	2,510	0.800	141.44		
③ 직업→학업형 전환	2,397	0.680	138.19		
④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2,375	0.643	133.47		
⑤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2,275	0.715	127.93		
⑥ 부정적 경로유지	2,116	0.648	107.26		
전체	2,146	0.677			

나. 학업중단에 대한 긍정적 심리·정서

학업중단에 대한 긍정적 심리·정서가 높은 청소년이 가장 많이 분포한 집단은 ‘직업→학업형 전환’ 유형이었고, 그 다음은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유형이었다. 반대로 긍정적 심리·정서가 낮은 청소년이 많이 분포한 집단은 ‘부정적 경로 유지’ 유형과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유형으로 나타나 부정적 이행경로에 있는 청소년들이 학업중단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업중단 자체를 만족스럽게 느끼는 청소년들 중에 학업형 전환이나 긍정적 경로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보인다.

표 II-138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학업중단에 관한 긍정적 심리·정서 차이

이행경로 변화유형	평균	표준편차	평균순위	Kruskal-Wallis 검증	대응비교 (사후검증)
① 긍정적 경로유지	2,906	0.552	114.12	$\chi^2=1.852$ (df=5) $p=0.869$	-
② 학업→직업형 전환	2,863	0.737	114.94		
③ 직업→학업형 전환	2,984	0.500	122.07		
④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2,917	0.413	114.66		
⑤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2,812	0.530	102.24		
⑥ 부정적 경로유지	2,754	0.579	101.98		
전체	2,885	0.552			

② 학력에 대한 태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학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청소년이 많이 분포한 집단은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유형이었고, 반대로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청소년이 많은 집단은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과 ‘부정적 경로유지’ 유형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직업→학업형 전환’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이 비교적 학력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이들 청소년들이 학력보완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진입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여러 진로들을 모두 고려한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6개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I-139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따른 학력에 대한 인식 차이

이행경로 변화유형	평균	표준편차	평균순위	Kruskal-Wallis 검증	대응비교 (사후검증)
① 긍정적 경로유지	2,862	0.605	135.59	x ² =5.833 (df=5) p=0.323	-
② 학업→직업형 전환	2,912	0.637	139.82		
③ 직업→학업형 전환	2,792	0.403	129.67		
④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2,947	0.591	143.34		
⑤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2,594	0.603	108.78		
⑥ 부정적 경로유지	2,583	0.624	107.79		
전체	2,816	0.597			

4) 이행경로 변화유형 결정요인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대한 관련변인 탐색을 위해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간소화를 위해 설명변수는 앞서 각 변인별로 비모수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된 변수를 투입하였으며, 일부 유형별 분포만을 탐색한 변수도 투입하였다. 총 6개의 이행경로 변화유형에 대한 다항로지스틱 분석은 표본수가 적어 정규성을 가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유형별 표본수의 차이에 따른 집단 간 불균형으로 인해 이분산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 표준오차를 Huber-White sandwich 추정법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⁹⁶⁾.

분석결과, 긍정적 경로 유지 유형의 경우 학업중단 친구가 적을수록, 진로정보탐색활동이

96) 다만, 이를 통해 추정오차를 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분산성이 강한 소규모 표본에 대한 비선형모형의 경우에는 추정 계수가 편의되어 불일치 추정량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많을수록, 학업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적을수록 긍정적 경로를 유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에서 직업형으로 전환되는 유형의 경우 학령기 연령대에 속한 청소년보다는 22세 이상의 성인기에 진입한 청소년이 직업형으로 전환될 확률이 적었고, 반대로 학업중단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많은 청소년이 직업형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았다.

직업형에서 학업형으로 전환되는 유형의 경우에는 학령기 청소년보다는 20-21세 청소년이, 그리고 진로결정을 하지 못한 청소년이 학업형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았다.

부정적 경로에서 긍정적 경로로 전환되는 유형의 경우 학령기 청소년보다는 성인기로 접어드는 청소년(20세 이상)이, 그리고 가정경제수준을 상층으로 인식하는 청소년보다는 중층, 하층으로 인식하는 청소년일수록, 게임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정보탐색이 활발할수록 긍정적 경로로 전환될 확률이 높았다.

반대로 긍정적 경로에서 부정적 경로로 전환되는 유형의 경우에는 가정경제수준을 중층보다는 상층이라고 인식할수록, 학업중단 친구가 많을수록, 도움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들 보다는 도움을 받았거나 못 받았거나와 상관 없이 도움이 필요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 일수록 부정적 경로로 전환될 확률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경로를 유지한 유형에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현재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진로정보탐색활동이 적을수록 부정적 경로를 유지할 확률이 높았다.

표 II-140 이행경로 변화유형 결정요인 분석결과(한계효과)

구분	긍정적 경로유지	학업→직업형 전환	직업→학업형 전환	부정→긍정적 경로 전환	긍정→부정적 경로 전환	부정적 경로유지	
여자	0.080 (0.069)	-0.022 (0.043)	0.014 (0.040)	-0.020 (0.033)	0.048 (0.043)	-0.099* (0.041)	
연령 (기준: 학령기) (17-19세)	20세	-0.144 (0.106)	-0.184 (0.099)	0.140* (0.056)	0.066* (0.027)	0.059 (0.083)	0.062 (0.059)
	21세	0.028 (0.094)	-0.153 (0.104)	0.097** (0.034)	0.044* (0.022)	-0.026 (0.070)	0.011 (0.051)
	22세 이상	-0.057 (0.117)	-0.210* (0.101)	0.047 (0.041)	0.198** (0.072)	0.014 (0.084)	0.008 (0.078)
가족구성 (기준: 양부모)	한부모	-0.091 (0.071)	0.027 (0.039)	0.015 (0.045)	0.022 (0.033)	-0.002 (0.046)	0.029 (0.048)
	부모 없음	-0.018 (0.093)	-0.028 (0.045)	-0.006 (0.053)	0.055 (0.052)	-0.007 (0.064)	0.004 (0.063)
	중	0.108 (0.088)	0.032 (0.048)	-0.110 (0.079)	0.127*** (0.035)	-0.184* (0.079)	0.026 (0.045)
가정경제수준 (기준: 상)	하	0.133 (0.085)	0.008 (0.043)	-0.114 (0.078)	0.063** (0.022)	-0.133 (0.081)	0.043 (0.048)
자아존중감	0.101 (0.061)	-0.034 (0.040)	-0.004 (0.039)	0.039 (0.028)	-0.032 (0.034)	-0.071 (0.040)	
현재 근로(아르바이트) 상태	0.108 (0.065)	0.052 (0.032)	0.036 (0.038)	-0.040 (0.037)	-0.072 (0.043)	-0.084* (0.041)	
게임중독	0.020 (0.077)	-0.025 (0.043)	-0.068 (0.058)	0.068** (0.022)	-0.013 (0.092)	0.017 (0.031)	
학업중단 친구 수	-0.044* (0.020)	0.012 (0.008)	0.021 (0.012)	-0.005 (0.012)	0.024* (0.010)	-0.008 (0.013)	
학업중단 후 도움 필요여부 (기준: 도움이 필요치 않은 경우)	도움 받지 못한 경우	-0.144 (0.100)	0.000 (0.053)	0.120*** (0.036)	0.026 (0.039)	0.109** (0.041)	-0.112 (0.071)
	도움 받은 경우	-0.133 (0.093)	0.028 (0.055)	0.090** (0.034)	0.009 (0.038)	0.118*** (0.033)	-0.112 (0.071)
진로정보탐색	0.151* (0.064)	-0.003 (0.047)	0.030 (0.041)	0.043* (0.021)	-0.074 (0.041)	-0.146*** (0.042)	
진로결정	-0.041 (0.063)	0.014 (0.036)	-0.098* (0.039)	0.038 (0.034)	0.020 (0.043)	0.067 (0.040)	
학업중단에 대한 부정적 심리·정서	-0.137** (0.044)	0.062* (0.031)	0.045 (0.030)	0.012 (0.022)	0.007 (0.032)	0.010 (0.033)	

주: ()는 표준오차임. N=224. * $p < 0.1$, ** $p < 0.5$, *** $p < 0.01$, **** $p < 0.001$

제 Ⅲ 장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실태

1. 조사개요
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현황
3. 요약 및 논의

제 III 장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실태*

1.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한 핵심 기관으로 2015년에 설치되기 시작하여 2016년 현재 전국에 202개소가 설치되어 있다⁹⁷⁾.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일대일 상담을 통해 그들이 갖고 있는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재취학재입학 등의 복교, 비진학 청소년 진학지원, 대안학교 진학 지원, 검정고시 지원, 상급학교 진학지원, 학업중단 예방 지원 등의 교육지원, 직업체험·진로교육활동, 경제활동 참여나 취업 지원, 건강검진·생활지원·문화공간지원·의료지원·정서지원·경제교육·법률교육 등의 자립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지원 활동에 대한 욕구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이용 실태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을 어떻게 개선시켜 나가야 할지를 살펴보는 데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2) 조사 설계

조사대상은 두 집단이다. 먼저, 기존 패널로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서비스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청소년이다. 기존 패널 중 대학진학 경험이 있거나 조사 시점에 군 복무 중인

* 이 장은 유성렬(백석대학교 교수)이 집필하였음

97) 여성가족부 정책안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3_05.jsp?viewfnc1=0&viewfnc2=0&viewfnc3=0&viewfnc4=0&viewfnc5=1&viewfnc6=0 (검색일: 2016.10.25.)

청소년은 학교 밖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없어 연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두 번째 집단은 신규 패널로 이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 중 중·고교 학령기(98년 3월 이후 ~2014년 2월 까지 출생자)이면서 지난 1년 이내(2015년 7월 이후)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다.⁹⁸⁾

이렇게 두 개 집단으로 조사대상 패널을 구축한 이유는 학교 밖 지원센터가 학교에서 바로 연계된 학교 밖 청소년 뿐 아니라 학업중단이 경과된 청소년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학교 밖 지원센터의 서비스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며 제공되고 있는지를 학업중단 한 지 얼마 경과하지 않은 집단과 비교해 보고자 함이며 또 서비스의 성과가 집단 간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함이다.

표 III-1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 사례조사에 관한 조사대상

구분	조사 대상	담당 기관	조사 유형	표본 수
1	한국리서치에서 제공하는 기존 학교 밖 청소년 (기존 패널)	청소년 거주지 인근 센터	사례관리 체크리스트로 사례관리자가 작성 (초기 상담 포함)	센터 당 0~3명(예상) 내외
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소속된 청소년 중 최근 1년 이내 학업중단 청소년 (신규 패널)	전국 100여개 센터	사례관리 체크리스트로 사례관리자가 작성	센터 당 2명

(1) 기존 패널 사례조사 대상자 구축

기존 패널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례조사는 기존 패널 4차 조사 완료자(427명)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면서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1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이 중 77명(48.1%)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연계되어 초기상담을 완료하였다. 기존 패널 전체(427명 기준)로 볼 때 학교 밖 지원센터 서비스 연계율은 18.0%로 나타났다. 사례조사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조사인센티브를 주었던 것을 감안하면 학교밖에 이미 나와 있는 청소년들의 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율은 실제 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98) 이는 기존 패널의 최초 구축 시 조건과 동일한 것으로 추후 기존 패널과의 비교를 위해 설정한 조건이다(윤철경 외, 2013: 89-92).

(2) 신규 패널 사례조사 대상자 구축

신규 패널 구축은 전국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소속된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전국 202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명의의 조사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담당자 확인을 요청하였다. 이 중 지역(수도권/경상권/전라·제주권/충청·강원권)과 지역규모(특광역시/중소도시/읍면도시)를 고려하여 100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각 센터 당 2명의 조사대상자 선정을 요청하였다. 담당자는 센터에 소속된 청소년 중 98년 3월 이후부터 2004년 2월까지 출생한 청소년 중에서 최근 1년 이내에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을 선정하여 조사 참여 의향을 확인하였다. 최초 접촉한 꿈드림센터 100곳 중 4개 기관이 ‘조사 대상 없음’으로 조사 협조를 거절하였고, 2개 기관은 ‘조사 대상 부족’으로 청소년 1명만 조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조사 협조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6개 기관, 청소년 10명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역 구분에 해당되는 센터로 대체하여 추가 신규패널 구축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국 101개 기관에서 총 197명을 신규 패널로 구축하였다.

표 III-2 신규 패널 표본 설계 및 조사 완료 수 (단위: 개소, 명)

지역 구분	모집단		표본 수		조사 완료 수		
	센터 수	학생 수	센터 수	학생 수	센터 수	학생 수	
전 체	194	1,536	100	200	101	197	
특광역시	전체	71	501	32	64	33	64
	수도권	33	189	12	24	12	24
	경상권	28	187	12	24	12	24
	전라/제주권	6	79	5	10	5	10
	충청/강원권	4	46	3	6	4	6
중소도시	전체	82	849	56	112	56	109
	수도권	28	302	20	40	20	40
	경상권	20	232	15	30	16	30
	전라/제주권	15	141	9	18	8	16
	충청/강원권	19	174	12	24	12	23
읍면지역	전체	41	186	12	24	12	24
	수도권	2	20	2	4	2	4
	경상권	10	57	3	6	3	6
	전라/제주권	12	37	3	6	3	6
	충청/강원권	17	72	4	8	4	8

주: 모집단 기준은 2016년 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확인된 학교 밖 청소년 수 기준임.

신규패널 꿈드림센터 조사는 전국 100개 센터를 대상으로 총 200명의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구축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꿈드림센터 조사 신규패널 구축 수는 총 101개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197명의 청소년으로 200명 목표 대비 98.5%의 성공률을 보인다. 지역 규모별로는 특광역시가 100.0%, 중소도시가 97.3%, 읍면지역이 100.0%의 수준에서 조사를 성공하였다.

표 III-3 신규 패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조사 성공현황 (단위: 개소, 명, %)

패널 유형	목표 패널		성공 패널				
	센터 수	학생 수	센터 수	목표 대비 비율	학생 수	목표 대비 비율	
전체	100	200	101	101.0	197	98.5	
특광역시	전체	32	64	33	103.1	64	100.0
	수도권	12	24	12	100.0	24	100.0
	경상권	12	24	12	100.0	24	100.0
	전라/제주권	5	10	5	100.0	10	100.0
	충청/강원권	3	6	4	133.3	6	100.0
중소도시	전체	56	112	56	100.0	109	97.3
	수도권	20	40	20	100.0	40	100.0
	경상권	15	30	16	106.7	30	100.0
	전라/제주권	9	18	8	88.9	16	88.9
	충청/강원권	12	24	12	100.0	23	95.8
읍면지역	전체	12	24	12	100.0	24	100.0
	수도권	2	4	2	100.0	4	100.0
	경상권	3	6	3	100.0	6	100.0
	전라/제주권	3	6	3	100.0	6	100.0
	충청/강원권	4	8	4	100.0	8	100.0

3) 조사 도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실태조사는 센터별로 사례관리자를 지정하여 향후 1년간 지속하도록 되어 있다.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의 사례관리조사 내용은 동일하며 신규 패널의 경우, 초기 사정기록지(의뢰경로)가 추가되었다.

사례조사 내용 구성은 ① 센터 및 사례관리자 정보, ② 사정기록지, ③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 ④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 ⑤ 제공 서비스별 세부 내용, ⑥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

- ⑦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와 그 이유, ⑧ 해당사례에 대한 총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4>와 같다.

표 III-4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 사례조사 내용

대영역	세부 영역	조사내용
사정 기록지	기본 정보	성명
		성별
		출생년/월/일
		소속기관
		주소
가족력	가족력	연락처
		가족사항
		가족형태
		보장구분
의뢰 경로 ⁹⁹⁾	의뢰 경로 ⁹⁹⁾	거주사항
		본인, 기관
목표 유형	목표 유형	개인별 목표유형(학업복귀형, 사회진입형, 미결정형)
		학업복귀형, 사회진입형 구체적 목표
청소년이 가장 원하는 서비스 목록	청소년이 가장 원하는 서비스 목록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청소년이 요청한	학업중단 후 생활에 대한 정보 제공	심리상담, 진로상담 등 상담 정보
		경제적 지원 정보(특별지원 등)
		취업에 유용한 자격증 정보
		일자리 정보
		직업교육, 직업훈련 기관 및 프로그램 정보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정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
		대입 등 진학정보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의료에 관련된 정보
		청소년 활동 시설 및 프로그램 정보
		청소년 쉼터 등 숙소 정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정보(동아리활동, 학습 등)
		근로권익침해 및 부당처우에 관련한 신고 및 지원 정보
법률자문 관련 정보		

대영역	세부 영역	조사내용
서비스 &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	심리 상담	우울 및 불안, 무기력, 분노 등 정서문제 중독 문제(흡연, 음주, 인터넷 등) 관계 문제(가족관계 혹은 대인관계 등) 생활태도 개선(시간관리 등)
	진로 상담	적성 및 능력 파악을 위한 심리검사 등 자기이해상담 직업탐색을 위한 직업세계이해 진로계획상담 진학상담 취업상담
	경제적 지원	심리상담, 심리검사 등 상담비 지원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비 지원 검정고시비 지원 청소년활동비 지원 긴급한 치료비 지원 월세 등 주거비 집에서의 식비, 옷(의류비), 전기세 등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외식비, 통신비, 교통비, 교양오락비, 이·미용비 등 용돈 대안학교 학비 법률상담비, 소송비 등 법률서비스비
	취업지원	직업탐색 및 체험 인턴십 프로그램 일자리 알선 직업기술훈련 및 자격증 취득지원 모의면접 등 취업준비교육 (두드림프로그램, 근로교육 등)
	학업지원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기초학력 지원 복학 지원 대학입시 지원(수능준비반 등) 학습지원(학습클리닉, 나는 내 인생의 매니저 등)
문화·예술, 스포츠 등 관심분야에 대한 자기계발 기회 제공	문화·예술(악기, 그림그리기, 사진촬영 등) 신체단련(수영, 태권도, 농구 등) 봉사활동(일손 돕기, 위문활동 등)	

대영역	세부 영역	조사내용
		환경보존 (숲·갯벌체험, 생태·환경탐사, 환경·시설보존 등) 과학정보 (컴퓨터·IT, 모형·로봇, 우주·천체탐구 등)
	건강 및 주거지원	건강검진 예방접종 무료치료병원 등 알선 건강교육(성교육 등) 주거지원
	기타서비스	기타
제공 서비스별 세부 내용	서비스에 대한 정보	서비스 번호 서비스 이름 제공 방법(직접 지원/연계 지원) (연계서비스의 경우) 연계기관 번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보	해당 서비스의 제공기간 해당 서비스의 제공 계획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이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월 해당 서비스가 계획된 대로 제공되었는지 여부 서비스가 계획대로 제공되지 못한 이유 해당 서비스가 도움이 된 정도 도움이 되었거나, 되지 않은 이유 (직접 지원 서비스의 경우) 학업중단 후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심리상담, 진로상담의 제공방법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 번호 제공하지 못한 이유
해당 사례 관리에 대한 총평	해당 청소년과 서비스에 대한 성과와 한계 및 중도탈락 사유	해당 청소년과 서비스에 대한 성과와 한계(청소년의 특징, 특이사항, 특별히 성과가 있었거나 없었던 서비스, 느낀 점, 문제점 등) 및 해당 청소년이 중도탈락한 경우, 그 사유

99)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 사례관리자용에만 추가된 내용임

4) 자료수집과정 및 검증

(1) 기존 패널

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연계

기존 패널 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에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패널을 대상으로 센터 연계를 진행하였다. 기존 패널 대상 1:1 대면면접을 진행한 후 면접원은 해당 패널에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소개 및 방문 의향을 확인한 후, 패널이 방문 가능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후 한국리서치 담당 연구원은 패널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해당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전달하였다.

담당자는 한국리서치에서 전달 받은 기본 정보를 활용하여 패널에게 직접 연락하여 방문 가능한 시간을 확정하였다. 패널이 방문 가능한 지역에 따라 연계가 진행되기 때문에 센터별 연계 학생 수가 상이하였으며, 센터별로 최소 1명에서 최대 9명의 학생이 연계되었다.

② 기존 패널 사례관리 조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담당자는 센터로 연계된 기존 패널과의 전화 접촉을 통해 방문 일시를 확정하였다. 약속된 시간에 패널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방문하면 담당자와의 초기상담을 진행한다. 초기상담을 통해 해당 패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하고, 이후 해당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 지원센터에서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과 동일하게 사례관리를 진행하였다.

(2) 신규 패널

사례관리 조사는 담당자가 조사 참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및 서비스를 진행하고 해당 청소년에 대한 사례조사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신규 패널 청소년은 조사 이전부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던 청소년으로, 담당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사례관리를 진행하되, 조사 시작 시점인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간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서만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3) 조사지 회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신규 패널 설문지와 기존 패널/신규 패널 사례조사지의 회수는 면접원이 직접 센터에 방문에서 현장에서 조사 물품을 확인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일회성으로 작성하는 설문지는 원본을, 주기적인 작성이 필요한 사례조사지는 복사본으로 회수하였다.

2016년 신규 패널의 설문조사지와 사례조사지는 2차에 걸쳐 회수되었다. 8월말까지 총 146부의 조사지 회수가 이루어졌고 11월 중순까지 총 197부의 조사지가 회수되었다. 이는 연구일정상 신규 패널에 대한 조사를 잠정적으로 완료하여 연구결과를 산출하되 본 연구가 차년도까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1차년도 패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신규 패널의 설문조사 결과분석은 기존 패널의 사례관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차년도 연구에서 다루어진다.

(4)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례조사지 검증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사례조사지는 7~8월을 기준으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1차 회수(복사본)가 진행되었다. 사례조사지 회수는 면접원 방문 회수로 진행되었으며, 회수 당시 면접원 1차 확인, 이관 후 담당 연구원 2차 확인을 통해 검증되었다.

우선 센터에 방문한 면접원은 센터 담당자에게 사례조사지 복사본을 전달 받고, 1차 회수 대상이 되는 표지, 사정기록지, 패널이 요청한 서비스, 패널에게 제공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별 세부 내용,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 등의 페이지가 제대로 복사되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패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표시된 서비스 중에서 조사 기간 이전(2016년 6월 이전)에 제공된 서비스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지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응답을 수정하도록 하였다.

2차로 담당 연구원은 이관 받은 설문지와 사례조사지의 인적 정보를 매칭을 통해 회수 여부를 확인하였고, 신규 패널의 경우 조사 대상 조건이 되는 생년월일과 학업중단 시기를 확인하였다. 또한 누락된 페이지 및 응답이 추가적으로 발견된 센터들의 경우 담당자 재접촉을 통해 팩스 또는 이메일로 회신 받는 형식으로 누락된 응답을 보완하였다. 2차로 회수된 사례조사지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12월 23일까지 조사지 검증을 실시하였다.

5)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례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를 살펴보면 <표 III-5>와 같다. 신규 패널의 경우, 1차로 회수된 146명을 기준으로 하였다.

두 패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기존 패널의 경우 남자 청소년의 비율이 여자 청소년의 비율보다 높은 반면, 신규 패널에서는 반대로 여자 청소년의 비율이 남자 청소년의 비율보다 약 10%p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패널은 이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의 이용 정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기존 패널은 이미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년 간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진행한 표본이기 때문에 신규 패널보다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더 높았고,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를 그만 둔 시기도 기존 패널에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인 경우가 35.4%인 반면, 신규 패널에서는 17.1%로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가 기존 패널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5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실태조사 참여 응답자 분포 (단위: 명, %)

구 분	기존 패널		신규 패널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 체	65	100.0	146	100.0	
성	남자	37	56.9	65	44.5
	여자	28	43.1	81	55.5
연령	중학교 학령 (만13~15세)	-	-	12	8.2
	고등학교학령 (만16~18세)	-	-	134	91.8
	고등학교 학령 (만 17~19세)	15	23.1	-	-
	20세	12	18.5	-	-
	21세	28	43.1	-	-
	22세 이상	10	15.4	-	-

구 분		기존 패널		신규 패널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가족구성	양부모 가정	24	36.9	83	56.8
	한부모 가정	22	33.8	42	28.8
	부모 모두 안계심	19	29.2	21	14.4
가정경제 수준	상	11	16.9	24	16.4
	중	20	30.8	53	36.3
	하	34	52.3	69	47.3
학업중단 시점	초중학교때	23	35.4	25	17.1
	고등학교때	42	64.6	121	82.9
학업중단 사유	개인 사정으로	12	18.5	29	19.9
	학교 사유	33	50.8	79	54.1
	대안교육을 위해서	14	21.5	27	18.5
	문제행동으로	6	9.2	11	7.5
이행경로	학업형	22	33.8	-	-
	직업형	30	46.2	-	-
	무업형	13	20.2	-	-

가족 구성 분포를 살펴보면, 기존 패널에서는 양부모 가정과 한부모 가정이 약 35% 내외로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고, 부모가 모두 안 계신 경우가 29.2%로 세 집단의 구성 비율에 있어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나, 신규 패널에서는 양부모 가정이 56.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부모가 모두 안 계신 경우는 14.4%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 시간에 센터를 방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신규 패널의 경우 한부모 가정이나 부모가 모두 안 계신 경우 센터 이용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정경제수준은 두 패널에서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학업중단 사유도 두 집단 모두 학교 사유로 학교를 그만 둔 경우가 50%를 초과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대안교육을 위해서 또는 개인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 둔 경우가 2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패널에서는 학교를 그만 둔 이후의 경로를 추적하였는데, 기존 패널의 65명 가운데에는 직업형 청소년이 30명으로 46.2%로 가장 많았고, 학업형 청소년은 22명(33.8%), 무업형 청소년은 13명(20.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에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제반 서비스를 제공한 센터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이들이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무엇이며,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지원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원받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주요

지원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직원들에게서 수집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주요 지원 내용에 관한 부분은 2016년 조사 시작 시점부터 2017년까지의 실태를 사례관리의 관점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조사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매우 단편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서비스 내용과 관련한 분석은 서비스 제공 방법(센터 직접 지원 또는 외부 연계 지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나머지 상세한 부분은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논의를 미루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조사에 참여한 집단이 기존의 패널 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과 신규로 표집된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용 현황을 살펴보는 과정에서는 이들 집단을 구분하여 응답 분포 정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이용 요구나 이용 정도가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별에 따른 분석도 아울러 실시하였다.

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현황

1)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와 청소년에게 제공된 서비스

먼저 본 조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처음 방문하여 상담한 시점 또는 이후 상담 중에 요청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총 8개 영역 - 학업중단 후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심리상담, 진로상담, 경제적 지원, 취업지원, 학업지원, 문화예술 및 스포츠 등 관심분야에 대한 자기계발 기회 제공, 건강 및 주거 지원 - 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 서비스에 대해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를 모두 표시하게 하였다. 각 서비스별로 청소년이 요청한 정도에 대한 분포는 <표 III-6>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6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 분포

(단위: %)

서비스	전체(N=207)		성별		신·구패널별	
	비율	순위	남 (N=97)	여 (N=104)	신규 패널 (N=142)	기존 패널 (N=65)
1. 상담 정보	40.1	3	40.2	39.4	45.1*	29.2*
2. 경제적 지원 정보	15.9	19	15.5	13.5	16.9	13.8
3. 자격증 정보	20.3	9	17.5	22.1	18.3	24.6
4. 일자리 정보	18.4	12	16.5	18.3	16.9	21.5
5. 직업훈련 관련 정보	17.9	16	15.5	18.3	18.3	16.9
6. 대안교육기관 정보	0.5	51	0.0	1.0	0.7	0.0
7. 검정고시 준비 방법	58.0	1	52.6	60.6	75.4***	20.0***
8. 진학 정보	27.5	5	21.6	32.7	34.5**	12.3**
9. 의료 관련 정보	18.4	12	17.5	17.3	20.4	13.8
10. 청소년활동 관련 정보	14.5	20	11.3	15.4	18.3*	6.2*
11. 숙소 정보	1.4	47	2.1	1.0	2.1	0.0
12. 공간 관련 정보	11.6	25	9.3	12.5	16.2	1.5
13. 근로권익침해 등 지원 정보	3.4	43	3.1	1.9	2.1	6.2
14. 법률자문 관련 정보	0.0	53	0.0	0.0	0.0	0.0
15. 정서 문제	18.4	12	21.6	14.4	21.1	12.3
16. 중독 문제	7.7	32	6.2	7.7	7.7	7.7
17. 관계 문제	22.7	8	13.4**	29.8**	28.2**	10.8**
18. 생활태도 개선	14.0	21	12.4	14.4	15.5	10.8
19. 자기이해상담	18.4	12	17.5	18.3	13.4**	29.2**
20. 직업세계 이해	10.6	26	10.3	9.6	9.9	12.3
21. 진로계획상담	24.2	6	19.6	27.9	24.6	23.1
22. 진학상담	17.9	16	13.4	21.2	21.8*	9.2*
23. 취업상담	12.1	24	10.3	12.5	9.2	18.5
24. 상담비 지원	5.8	37	4.1	5.8	3.5*	10.8*
25. 취업관련 학원비 지원	9.2	28	7.2	10.6	10.6	6.2
26. 검정고시비 지원	14.0	21	12.4	14.4	18.3**	4.6**
27. 청소년활동비 지원	4.8	39	3.1	4.8	7.0*	0.0*
28. 긴급한 치료비 지원	1.4	47	0.0	2.9	1.4	1.5
29. 주거비	4.8	39	5.2	4.8	1.4**	12.3**
30. 기초생계비	5.8	37	8.2	2.9	5.6	6.2
31. 용돈	9.7	27	12.4	5.8	7.0	15.4
32. 대안학교 학비	0.0	53	0.0	0.0	0.0	0.0

서비스	전체(N=207)		성별		신·구패널별	
	비율	순위	남 (N=97)	여 (N=104)	신규 패널 (N=142)	기존 패널 (N=65)
33. 법률서비스비	0.5	51	0.0	1.0	0.7	0.0
34. 직업탐색 및 체험	20.3	9	20.6	18.3	24.6*	10.8*
35. 인턴십 프로그램	6.3	35	1.0**	10.6**	8.5	1.5
36. 일자리 알선	8.7	29	7.2	9.6	6.3	13.8
37. 직업기술훈련 등 지원	23.7	7	23.7	24.0	25.4	20.0
38. 취업준비교육	6.3	35	5.2	5.8	7.7	3.1
39.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55.1	2	49.5	58.7	71.0***	20.0***
40. 기초학력지원	12.6	23	13.4	8.7	17.6**	1.5**
41. 복학 지원	2.9	44	3.1	2.9	3.5	1.5
42. 대학입시 지원	8.7	29	6.2	9.6	11.3	3.1
43. 학습지원	7.7	32	4.1	9.6	11.3**	0.0**
44. 문화예술	19.8	11	16.5	20.2	24.6*	9.2*
45. 신체단련	17.4	18	21.6	12.5	16.9	18.5
46. 봉사활동	7.2	34	3.1	9.6	9.2	3.1
47. 환경보존	1.9	45	2.1	1.0	2.1	1.5
48. 과학정보	1.4	47	2.1	1.0	0.7	3.1
49. 건강검진	30.4	4	33.0	26.0	29.6	32.3
50. 예방접종	1.9	45	2.1	1.9	2.1	1.5
51. 무료치료병원 등 알선	1.4	47	0.0	2.9	0.7	3.1
52. 건강교육	8.2	31	3.1*	11.5*	12.0**	0.0**
53. 주거지원	3.9	42	5.2	1.9	3.5	4.6
54. 기타 서비스	4.8	39	2.1	7.7	4.9	4.6

주: * α .05, ** α .01, *** α .001 수준에서 성별 집단 간 또는 패널 구분 집단 간 유의한 차이

먼저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요청한 서비스는 검정고시 준비 방법에 대한 정보제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207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 가운데 58%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꼽고 있었다. 동시에 두 번째로 많은 청소년들이 요청한 서비스는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등과 같은 학습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7명의 청소년들 가운데 55.1%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요청한 서비스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요구가 있었던 서비스의 비율이 40.2%로 전체의 50%에 못

미친 반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등을 요청한 비율은 모두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이들이 학업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거나 학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적어도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린 청소년들의 절반 이상은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을 원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청소년들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 중 52.6%, 여자 청소년 중 60.6%가 관련 정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규 패널의 경우에는 75.4%, 기존 패널의 경우에는 20.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패널 구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이 학업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요구가 조금 더 높았으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로 구성된 신규 패널의 경우가 기존 패널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 구분과 관련한 차이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우선 학업 지속과 관련한 요구도가 더 높은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택 편이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이용 이후 학업 지속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30명의 직업형 청소년들 가운데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한 청소년은 20%(30명 중 3명), 학업형 청소년의 경우에는 18.2%(22명 중 4명), 무업형 청소년은 23.1%(13명 중 4명) 집단 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¹⁰⁰⁾.

다음으로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에 대한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49.5%, 여자 청소년의 58.7%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검정고시 대비를 위한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었으며, 패널 구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검정고시 준비와 관련한 정보제공과 매우 유사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패널의 학업중단 이후 경로유형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직업형의 23.3%, 학업형의 18.2%, 무업형의 15.4%로 무업형의 경우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무업형의 경우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요청한 서비스들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요구가 있는 서비스는 심리상담이

100) 기존 패널의 경로유형별 분포는 직업형 30명, 학업형 22명, 무업형 13명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나 진로상담과 같은 상담 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40.1%). 이에 대한 성별 분포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신규 패널에서는 45.1%, 기존 패널에서는 29.2%가 상담과 관련한 정보를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학교에 재학 중일 때는 상담교사나 진학담당교사 혹은 담임교사 등을 통해 심리상담이나 진로상담 등에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었으나, 학교를 그만 둔 이후에는 이와 관련한 상담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 패널을 대상으로 경로유형에 따른 요구 정도를 살펴보면, 직업형 청소년의 30%, 학업형 청소년의 18.2%, 무업형 청소년의 46.2%가 상담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이미 특정 영역에서 주로 생활을 영위하는 직업형이나 학업형 청소년들에 비해 그렇지 않은 무업형 청소년들에게서 상담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네 번째로 많은 청소년들이 요청한 서비스는 건강검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7명 청소년들 가운데 30.4%가 건강검진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성별로는 남자청소년의 33%, 여자 청소년의 26%가, 신규 패널에서는 29.6%, 기존 패널에서는 32.3%가 건강검진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기존 패널의 경로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업형의 30%, 학업형의 31.8%, 무업형의 38.%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무업형 청소년들에게서 조금 더 높은 비율의 요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내에서와 달리 학교 밖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거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요구정도가 높은 서비스는 대입 등 진학정보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5%의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이를 요구하였으며, 성별로는 남자의 21.6%, 여자의 32.7%로 여자 청소년에게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신규 패널에서는 34.5%, 기존 패널에서는 12.3%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정보와 관련한 분포는 앞서서의 검정고시와 관련한 분포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기존 패널의 경로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직업형의 8.7%, 무업형의 15.4%, 학업형의 18.2%가 진학과 관련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형에서 가장 높은 수치가 나타나는 것은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 유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의 요구도를 보이는 서비스는 진로계획상담이었다. 24.2%의 청소년들이 진로계획상담을 원하고 있었는데,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 도움을 받기 쉽지 않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남학생의 19.6%, 여학생의 27.9%가, 신규 패널의 24.6%, 기존 패널의 23.1%가 진학계획

상담을 요청하였으며, 기존 패널의 경로유형별 분포는 직업형의 10%, 학업형의 31.8%, 무업형의 38.5%가 진로계획 상담을 요청하였다. 특히 학업형의 경우 진학 방향 등 학업을 계속하는 것과 관련하여, 무업형의 경우에는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직업기술훈련 및 자격증 취득지원에 대해 23.7%가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성별 분포나 패널 구분별 분포는 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기존 패널의 경로유형별 분포에서는 무업형의 7.7%, 학업형의 13.6%가 이 서비스를 요구한 반면, 직업형의 경우에는 30%가 직업기술훈련이나 자격증 취득지원 서비스를 요청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조금 더 숙련된 노동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여덟 번째로 높은 수준의 요구를 보인 서비스는 가족관계나 대인관계 등 관계 문제와 관련한 심리상담으로 22.7%가 이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특히 남자 청소년(13.4%)보다는 여자 청소년(29.8%)들이 관계 문제와 관련한 심리상담을 더 요청하였으며, 기존 패널(10.8%)보다는 신규 패널(28.2%)에서 이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 발생하는 가족과의 관계나 대인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존 패널의 경로유형별로 보면, 무업형의 경우(23.1%)가 다른 두 유형에서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무업형으로 지내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에 더 봉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취업에 유용한 자격증 정보에 대한 요구가 20.3%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직업기술훈련 및 자격증 취득지원에 대한 요구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성별 분포나 패널구분 분포에서 집단 간에 주목할 만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기존 패널의 경로유형별 분포에서는 직업형의 경우 36.7%로 다른 두 유형(무업형의 15.4%, 학업형의 13.6%)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형 청소년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 자격증에 관심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취업에 유용한 자격증 정보와 같은 수준의 요구도를 보인 서비스는 직업탐색 및 체험 등과 같은 취업지원으로 20.3%의 청소년들이 이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성별 분포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기존 패널(10.8%)에서보다는 신규 패널에서(24.6%) 이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10개의 서비스를 내용별로 구분해 보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진학정보 등 학업 지속과 관련한 지원, 심리상담이나 진로상담 등과 같은 상담정보 제공이나 진로계획상담, 가족관계나 대인관계 등의 관계 문제에 대한 상담 지원, 직업훈련기술이나 자격증 취득, 직업탐색 및 체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 정보 등과 같은 취업 관련 지원, 건강검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학업 지속에 필요한 정보나 지원, 심리·진로·관계 등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상담, 취업과 관련한 도움, 건강 유지에 필요한 지원 등임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많은 서비스들에 대한 요구가 있으나, 207명의 청소년들 가운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 정도는 20%에 미치지 않았으며, 28개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정도는 10%를 초과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법률자문 관련 정보, 대안학교 학비 지원을 요구한 경우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이러한 청소년들의 요구를 적절히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표 III-7>은 청소년들에게 실제 제공된 서비스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표 III-7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 분포 (단위: %)

서비스	전체(N=207)		성별		신·구패널별	
	비율	순위	남(N=97)	여(N=104)	신규 패널(N=142)	기존 패널(N=65)
1. 상담 정보	51.2	3	45.4	53.8	58.5**	35.4**
2. 경제적 지원 정보	15.0	16	13.4	13.5	16.2	12.3
3. 자격증 정보	12.1	19	14.4	9.6	11.3	13.8
4. 일자리 정보	4.3	34	5.2	3.8	2.8	7.7
5. 직업훈련 관련 정보	23.7	7	20.6	24.0	24.6	21.5
6. 대안교육기관 정보	1.0	45	1.0	1.0	1.4	0.0
7. 검정고시 준비 방법	57.5	1	55.7	56.7	75.4***	18.5***
8. 진학 정보	20.3	9	19.6	22.1	23.9	12.3
9. 의료 관련 정보	43.5	4	42.3	42.3	50.0**	29.2**
10. 청소년활동 관련 정보	13.5	17	11.3	12.5	16.9*	6.2*
11. 숙소 정보	1.4	44	1.0	1.9	2.1	0.0
12. 공간 관련 정보	16.4	14	18.6	10.6	22.5***	3.1***
13. 근로권익침해 등 지원 정보	6.8	30	5.2	5.8	9.2*	1.5*
14. 법률자문 관련 정보	0.0	52	0.0	0.0	0.0	0.0

서비스	전체(N=207)		성별		신·구패널별	
	비율	순위	남 (N=97)	여 (N=104)	신규 패널 (N=142)	기존 패널 (N=65)
15. 정서 문제	20.3	9	17.5	20.2	23.2	13.8
16. 중독 문제	6.3	31	8.2	3.8	6.3	6.2
17. 관계 문제	20.8	8	13.4*	27.9*	26.1**	9.2**
18. 생활태도 개선	16.4	14	13.4	19.2	21.1**	6.2**
19. 자기이해상담	13.0	18	11.3	13.5	12.0	15.4
20. 직업세계 이해	10.1	25	6.2	13.5	14.1**	1.5**
21. 진로계획상담	20.3	9	17.5	23.1	23.2	13.8
22. 진학상담	11.1	22	9.3	13.5	14.1*	4.6*
23. 취업상담	3.9	35	2.1	5.8	2.1	7.7
24. 상담비 지원	1.0	45	1.0	1.0	0.7	1.5
25. 취업관련 학원비 지원	4.8	33	4.1	4.8	5.6	3.1
26. 검정고시비 지원	8.2	28	8.2	6.7	10.6	3.1
27. 청소년활동비 지원	1.9	39	3.1	1.0	2.8	0.0
28. 긴급한 치료비 지원	1.0	45	2.1	0.0	1.4	0.0
29. 주거비	1.0	45	1.0	1.0	0.0	3.1
30. 기초생계비	2.9	37	3.1	1.9	3.5	1.5
31. 용돈	10.6	24	11.3	8.7	12.7	6.2
32. 대안학교 학비	0.0	52	0.0	0.0	0.0	0.0
33. 법률서비스비	0.0	52	0.0	0.0	0.0	0.0
34. 직업탐색 및 체험	17.4	13	16.5	16.3	23.9***	3.1***
35. 인턴십 프로그램	3.4	36	5.2	1.9	4.2	1.5
36. 일자리 알선	1.9	39	2.1	1.9	0.7	4.6
37. 직업기술훈련 등 지원	11.1	22	8.2	13.5	14.8*	3.1*
38. 취업준비교육	8.7	26	9.3	7.7	12.0*	1.5*
39.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54.6	2	46.4	59.6	73.9***	12.3***
40. 기초학력지원	12.1	19	9.3	11.5	16.9**	1.5**
41. 복학 지원	1.0	45	1.0	1.0	1.4	0.0
42. 대학입시 지원	2.4	38	3.1	1.9	3.5	0.0
43. 학습지원	7.2	29	5.2	9.6	10.6**	0.0**
44. 문화예술	24.6	6	20.6	26.0	33.8***	4.6***
45. 신체단련	8.7	26	6.2	8.7	10.6	4.6
46. 봉사활동	5.8	32	1.0*	7.7*	8.5*	0.0*
47. 환경보존	0.5	50	0.0	1.0	0.7	0.0

서비스	전체(N=207)		성별		신·구패널별	
	비율	순위	남 (N=97)	여 (N=104)	신규 패널 (N=142)	기존 패널 (N=65)
48. 과학정보	1.9	39	3.1	1.0	2.1	1.5
49. 건강검진	40.1	5	37.1	41.3	50.7 ^{***}	16.9 ^{***}
50. 예방접종	1.9	39	2.1	1.9	2.1	1.5
51. 무료치료병원 등 알선	1.9	39	0.0	3.8	2.1	1.5
52. 건강교육	17.9	12	7.2 ^{***}	26.0 ^{***}	26.1 ^{***}	0.0 ^{***}
53. 주거지원	0.5	50	1.0	0.0	0.7	0.0
54. 기타 서비스	11.6	21	7.2	15.4	15.5 [*]	3.1 [*]

주: * α .05, ** α .01, *** α .001 수준에서 성별 집단 간 또는 패널 구분 집단 간 유의한 차이

우선 청소년들이 요청한 서비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와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지원이었는데, 실제 제공한 서비스에서도 검정고시 준비 방법이 58%,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이 55.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서비스에서 모두 여자 청소년들에게 제공된 비율이 남자 청소년들에게 제공된 비율보다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기존 패널에서보다는 신규 패널에서 제공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패널의 경로유형별 제공 비율의 경우 이 두 가지 서비스에서 모두 무업형의 청소년들에게 제공된 비율이 다른 두 유형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청소년들의 요구수준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많이 제공된 서비스는 심리상담이나 진로상담 등과 관련한 상담정보로 40.1%의 청소년들에게 제공되었는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신규 패널의 청소년들에게 제공된 정보가 기존 패널의 청소년들에게 제공된 비율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경로유형별로는 무업형(46.2%)과 학업형(45.5%)의 경우가 직업형(23.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형의 경우 이 서비스를 요청한 비율보다 제공된 비율이 더 높았는데, 이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의료관련 정보 제공(43.5%)과 건강검진(40.1%)이 그 다음으로 많이 제공된 서비스였는데, 이는 건강검진에 대한 요청 정도가 네 번째로 높았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료관련 정보 제공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성별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기존 패널에서보다는 신규 패널에서 제공된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에게 제공된 서비스 가운데 여섯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이 악기, 그림 그리기, 사진촬영 등의 문화예술 등 관심 분야에 대한 자기계발 기회 제공이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들의 요구 정도가 19.8% 수준이었는데, 실제 제공된 비율은 24.6%였으며, 이는 센터가 갖추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서비스를 제공받은 청소년들의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기존 패널(4.6%)에서 보다 신규 패널(33.8%)에서의 제공 비율이 훨씬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많이 제공된 서비스는 직업교육, 직업훈련 기관 및 프로그램 정보의 제공이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들의 요구도는 17.9%이었는데, 실제 제공된 비율은 23.7%였으며, 성별이나 패널 구분에 따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여덟 번째로 많이 제공된 서비스는 가족관계나 대인 관계 등의 관계 문제에 대한 심리상담으로 20.8%의 청소년들이 이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이, 기존 패널보다는 신규 패널의 청소년들이 관계문제로 인한 상담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받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청소년들의 요구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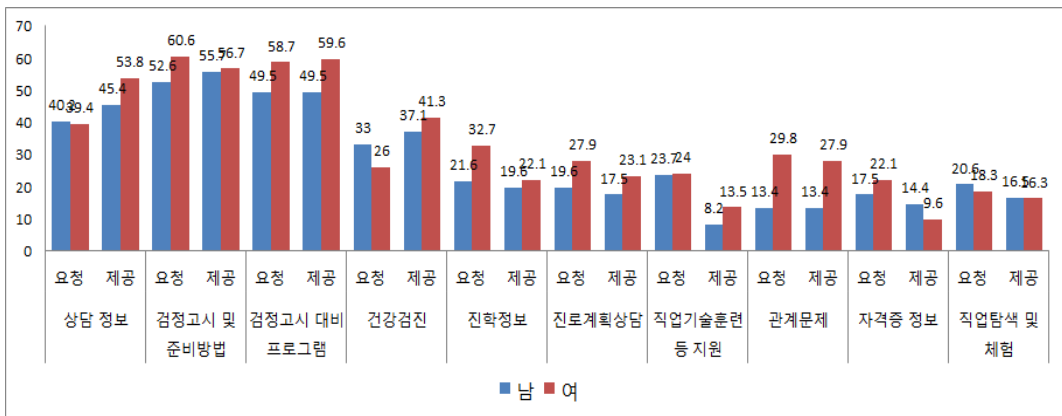
그 다음으로 많이 제공된 서비스는 우울이나 불안, 무기력, 분노 등 정서문제와 관련한 심리상담으로 20.3%가 제공받았는데, 이 서비스를 요청한 비율은 18.4% 수준이었다. 특히 관계 문제 등에 대한 상담과 정서문제에 대한 상담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서비스의 제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은 특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정서 문제에 대한 서비스에서의 성별 및 패널 구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정서문제에 대한 상담지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된 서비스는 진학정보의 제공이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학정보 제공에 대한 청소년들의 요구도가 높은 상황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것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진학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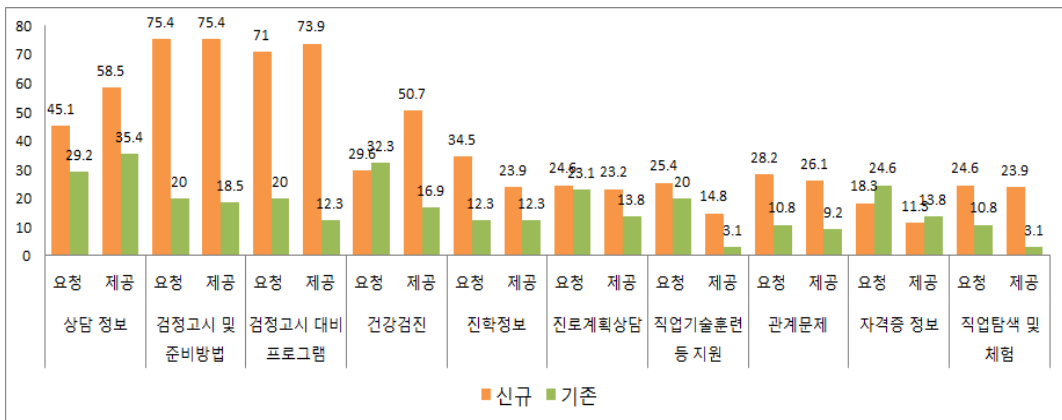
그 외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청소년활동 시설 및 프로그램 정보 제공,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정보 제공, 근로권익침해 및 부당처우에 관련한 신고 및 지원 정보 제공, 시간 관리 등 생활태도 개선과 관련한 상담, 직업탐색을 위한 직업세계의 이해, 진학상담, 직업탐색 및 체험, 직업기술훈련 및 자격증 취득 지원, 모의면접 등 취업준비 교육, 기초학력지원, 학습지원, 봉사활동, 건강교육 등에서 패널 구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서비스들의 제공 비율이 기존 패널에서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에서 표집된 신규 패널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차이는 패널 구성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선택 편익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와 제공된 서비스 가운데 발생 비율이 높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성별 및 패널별 분포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III-1】 및 【그림 III-2】와 같다.



【그림 III-1】 청소년이 요청 및 제공한 서비스: 성별



【그림 III-2】 청소년이 요청 및 제공한 서비스: 신·구패널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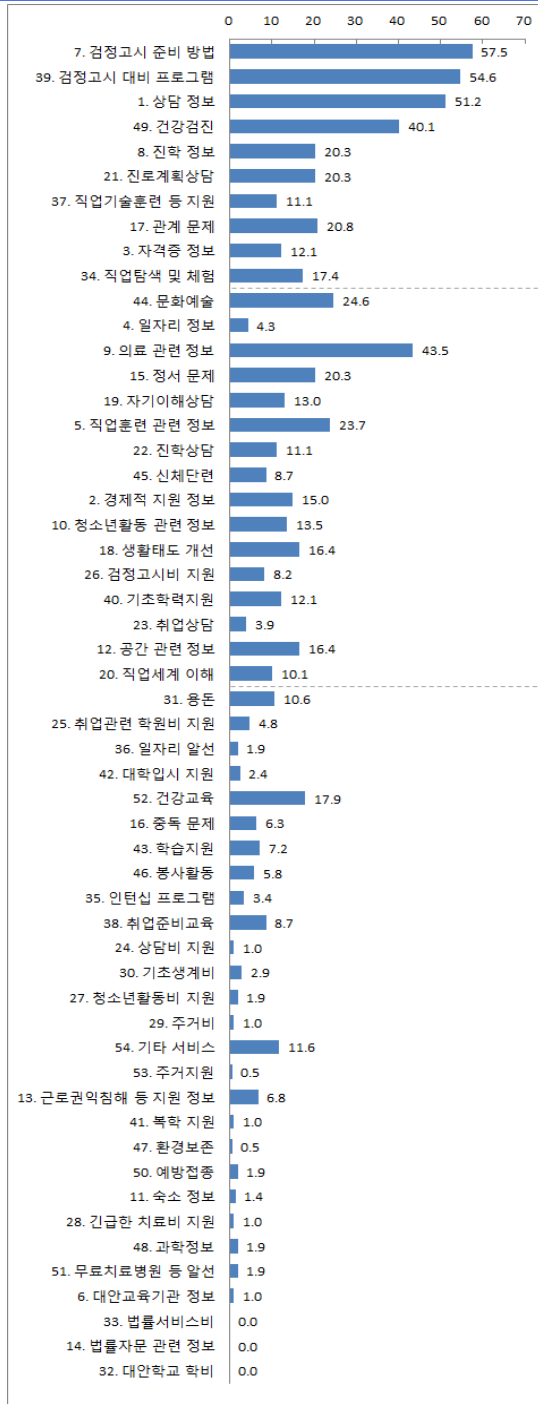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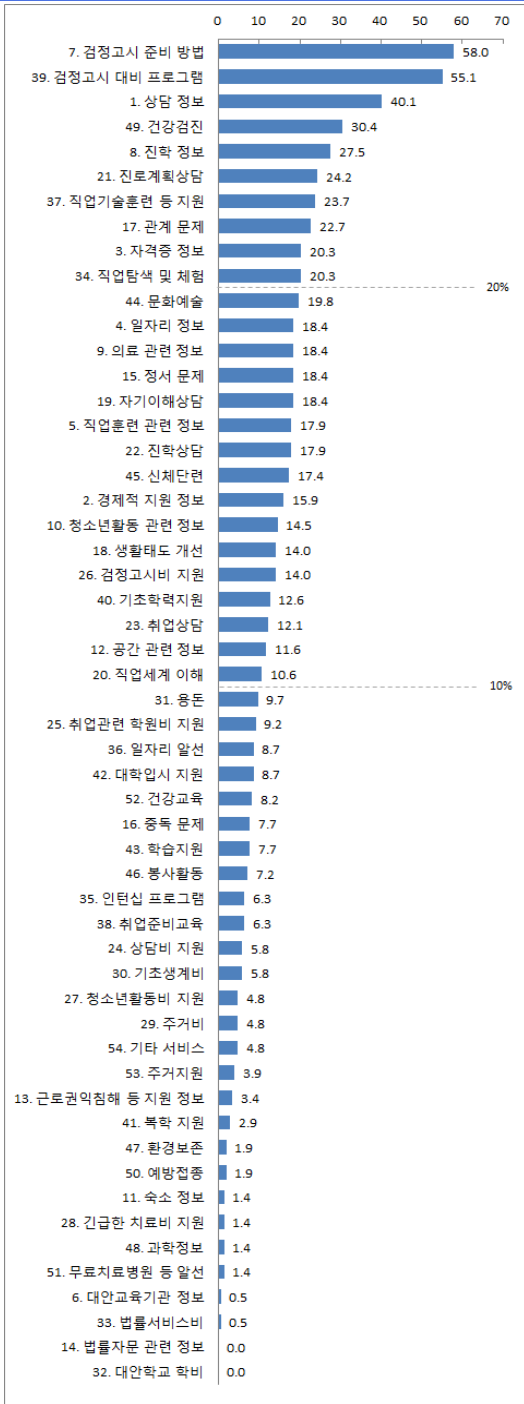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와 실제 청소년들에게 제공된 서비스 비율을 직접 비교해 보면(【그림 III-3】 참조), 검정고시 준비 방법과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의 경우 청소년들이 요청한 비율과 실제 제공된 비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심리상담이나 진로상담 등과 같은 상담정보의 제공, 건강검진, 의료 관련 정보 제공, 직업훈련 관련 정보, 건강교육 등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요청한 비율보다는 제공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이 서비스들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주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진학정보의 제공, 진로계획상담, 직업기술훈련 등 지원, 자격증 정보의 경우에는 실제 제공된 비율보다 청소년이 요청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두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결과는 실제 청소년들이 요청하는 바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충족시키고 있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진로나 직업과 관련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진로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진로나 직업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훨씬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고유 업무 가운데 하나가 진학을 비롯한 진로와 관련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결과는 이 분야에서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진로 및 직업과 관련한 다양한 요구를 모두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도 아울러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



【그림 Ⅲ-3】 청소년이 요청 및 제공한 서비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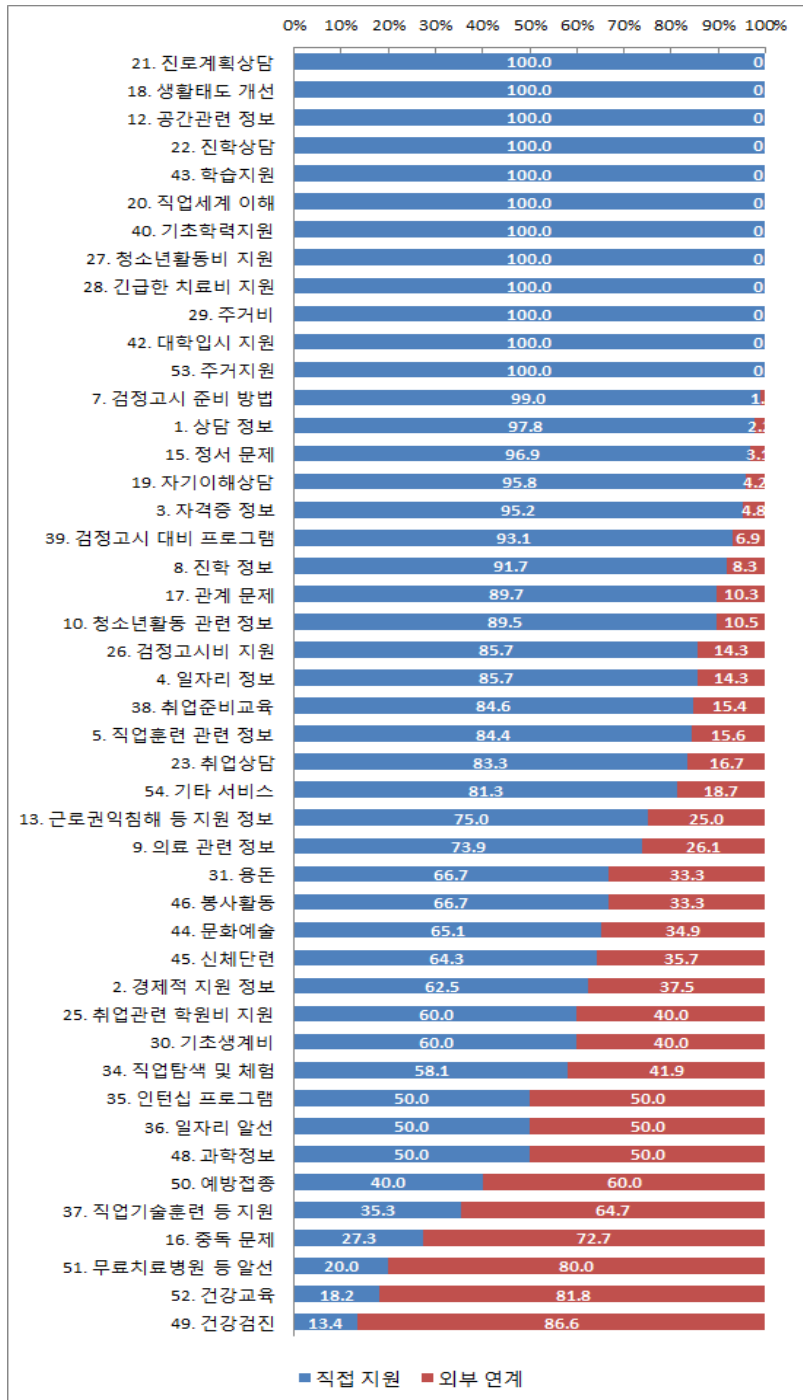
2) 서비스 제공 방법

앞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한 청소년들이 요청한 서비스와 실제 제공된 서비스들의 전반적인 분포 현황을 살펴보았다. 본 조사에서는 실제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관련 문항들은 조사 시작시점(2015년 6월)부터의 내용을 기입하도록 하여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는 매우 일부분의 내용만을 담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차년도에 조사 결과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데 더 적절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절에서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상세 내용보다는 청소년들에게 실제 제공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직접 지원한 경우와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한 경우의 분포를 살펴보고, 외부 기관과 연계한 경우 어떠한 기관과 연계하였는지에 대한 분포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III-8 서비스별 제공 방법 (단위: 명, %)

서비스	제공 인원	제공 방법	
		직접 지원	외부 연계
1. 상담 정보	89	97.8	2.2
2. 경제적 지원 정보	24	62.5	37.5
3. 자격증 정보	21	95.2	4.8
4. 일자리 정보	7	85.7	14.3
5. 직업훈련 관련 정보	32	84.4	15.6
6. 대안교육기관 정보	1	100.0	0.0
7. 검정고시 준비 방법	101	99.0	1.0
8. 진학 정보	36	91.7	8.3
9. 의료 관련 정보	69	73.9	26.1
10. 청소년활동 관련 정보	19	89.5	10.5
11. 숙소 정보	1	100.0	0.0
12. 공간 관련 정보	27	100.0	0.0
13. 근로권익침해 등 지원 정보	12	75.0	25.0
14. 법률자문 관련 정보	0	-	-
15. 정서 문제	32	96.9	3.1
16. 중독 문제	11	27.3	72.7
17. 관계 문제	39	89.7	10.3
18. 생활태도 개선	28	100.0	0.0

서비스	제공 인원	제공 방법	
		직접 지원	외부 연계
19. 자기이해상담	24	95.8	4.2
20. 직업세계 이해	13	100.0	0.0
21. 진로계획상담	36	100.0	0.0
22. 진학상담	19	100.0	0.0
23. 취업상담	6	83.3	16.7
24. 상담비 지원	1	100.0	0.0
25. 취업관련 학원비 지원	5	60.0	40.0
26. 검정고시비 지원	14	85.7	14.3
27. 청소년활동비 지원	2	100.0	0.0
28. 긴급한 치료비 지원	2	100.0	0.0
29. 주거비	2	100.0	0.0
30. 기초생계비	5	60.0	40.0
31. 용돈	18	66.7	33.3
32. 대안학교 학비	0	-	-
33. 법률서비스비	0	-	-
34. 직업탐색 및 체험	31	58.1	41.9
35. 인턴십 프로그램	6	50.0	50.0
36. 일자리 알선	4	50.0	50.0
37. 직업기술훈련 등 지원	17	35.3	64.7
38. 취업준비교육	13	84.6	15.4
39.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102	93.1	6.9
40. 기초학력지원	13	100.0	0.0
41. 복학 지원	1	100.0	0.0
42. 대학입시 지원	2	100.0	0.0
43. 학습지원	14	100.0	0.0
44. 문화예술	43	65.1	34.9
45. 신체단련	14	64.3	35.7
46. 봉사활동	6	66.7	33.3
47. 환경보존	0	-	-
48. 과학정보	2	50.0	50.0
49. 건강검진	67	13.4	86.6
50. 예방접종	5	40.0	60.0
51. 무료치료병원 등 알선	5	20.0	80.0
52. 건강교육	22	18.2	81.8
53. 주거지원	2	100.0	0.0
54. 기타 서비스	16	81.3	18.7



【그림 III-4】 서비스별 제공 방법 (단위: %)101)

101) 제공 인원이 1명 이하인 서비스(8개)는 제외하였으며, 직접지원 비율이 동일한 서비스는 제공 인원이 많은 순으로 제시함.

전체 54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제공 방법에 관한 분포는 <표 III-8>과 【그림 III-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외부 기관과의 연계 없이 전적으로 직접 지원한 서비스는 54개 서비스 가운데 12개로 진로계획상담, 생활태도 개선 관련 상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관련 정보 제공, 진학상담, 학습지원, 직업세계의 이해, 기초학력지원, 청소년활동비 및 긴급한 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대학입시 지원이었다. 이 서비스들은 주로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생활과 관련한 정보 제공 및 상담지원과 관련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서비스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한 비율이 10% 미만으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직접 지원한 경우가 90%를 초과하는 경우는 검정고시 준비 방법, 상담 정보, 정서문제, 자기이해 상담, 자격증 정보,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진학 정보의 7개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외부기관과의 연계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는 인턴십 프로그램, 일자리 알선, 과학 정보, 예방접종, 직업기술훈련 등 지원, 중독 문제, 무료치료병원 등 알선, 건강교육, 건강검진의 9개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거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특정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외부기관과 연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관들과 주로 연계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제공된 서비스 가운데 건강검진이 다섯 번째로 많았고, 건강검진을 제공함에 있어 외부기관과의 연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감안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장 많이 연계된 기관으로 나타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연계된 기관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WEE Center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정서적인 문제나 생활 태도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필요성이 높음을 감안하면, 다른 기관에 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 실적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사료된다.

앞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요구 정도가 높으나 실제 제공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서비스가 이들의 진로 및 직업과 관련한 것임을 언급한 바 있다.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것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가운데 하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

터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외부 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표 III-9>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진로나 직업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연계한 실적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센터, 기타 취업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실적은 각각 3건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조사 초기인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가 갖는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계 실적이 낮다는 것은 진로나 직업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외부 자원의 활용이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9 연계기관별 서비스 제공 건수 (단위: 건, %)

연계기관 명	연계서비스 건수	
	서비스 건수	비율
국민건강보험공단	13	22.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청소년지원단 등)	11	19.3
특별지원 (주민자치센터 및 시군구청)	6	10.5
기타 (학업지원 관련기관)	6	10.5
취업성공패키지	3	5.3
긴급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5.3
기타 (취업지원 관련기관)	3	5.3
성문화센터	2	3.5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디딤돌, 취업사관학교 제외)	2	3.5
정신건강증진센터	1	1.8
병원 및 약국	1	1.8
검정고시 등 학원	1	1.8
청소년문화의 집	1	1.8
청소년 쉼터	1	1.8
기타 (경제적 지원 관련기관)	1	1.8
기타 (건강 지원 관련기관)	1	1.8
기타 (기타 서비스 관련기관)	1	1.8
총 계	57	100.0

3)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이 요청하였으나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가 무엇이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었던지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는데,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II-10>과 같다.

청소년들이 요청하였으나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모두 149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일자리 정보(6.7%), 문화 예술 등 자기계발 기회 제공(6.0%), 일자리 알선(5.4%), 신체단련 기회 제공(5.4%), 검정고시비 지원(4.7%)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서비스들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직접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밖에도 자격증 정보 제공, 가족관계나 대인 관계 등 관계문제에 대한 상담, 진로계획상담, 취업관련 학원비 지원, 청소년활동비 지원, 직업탐색 및 체험, 건강검진 등도 다른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표 III-10 청소년이 요청하였으나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 분포 (단위: 명, %)

서비스	사례 수	비율
1. 상담 정보	3	2.0
2. 경제적 지원 정보	2	1.3
3. 자격증 정보	5	3.4
4. 일자리 정보	10	6.7
5. 직업훈련 관련 정보	3	2.0
6. 대안교육기관 정보	-	-
7. 검정고시 준비 방법	2	1.3
8. 진학 정보	4	2.7
9. 의료 관련 정보	2	1.3
10. 청소년활동 관련 정보	3	2.0
11. 숙소 정보	1	0.7
12. 공간 관련 정보	1	0.7
13. 근로권익침해 등 지원 정보	-	-
14. 법률자문 관련 정보	-	-
15. 정서 문제	2	1.3

서비스	사 례 수	비 율
16. 중독 문제	3	2.0
17. 관계 문제	5	3.4
18. 생활태도 개선	1	0.7
19. 자기이해상담	2	1.3
20. 직업세계 이해	1	0.7
21. 진로계획상담	5	3.4
22. 진학상담	1	0.7
23. 취업상담	2	1.3
24. 상담비 지원	1	0.7
25. 취업관련 학원비 지원	5	3.4
26. 검정고시비 지원	7	4.7
27. 청소년활동비 지원	5	3.4
28. 긴급한 치료비 지원	1	0.7
29. 주거비	4	2.7
30. 기초생계비	4	2.7
31. 용돈	3	2.0
32. 대안학교 학비	-	-
33. 법률서비스비	-	-
34. 직업탐색 및 체험	5	3.4
35. 인턴십 프로그램	2	1.3
36. 일자리 알선	8	5.4
37. 직업기술훈련 등 지원	4	2.7
38. 취업준비교육	2	1.3
39.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3	2.0
40. 기초학력지원	3	2.0
41. 복학 지원	-	-
42. 대학입시 지원	3	2.0
43. 학습지원	2	1.3
44. 문화예술	9	6.0
45. 신체단련	8	5.4
46. 봉사활동	2	1.3
47. 환경보존	2	1.3
48. 과학정보	1	0.7
49. 건강검진	5	3.4

서비스	사 례 수	비 율
50. 예방접종	-	-
51. 무료치료병원 등 알선	-	-
52. 건강교육	-	-
53. 주거지원	2	1.3
54. 기타 서비스	-	-
합계	149	100.0

본 조사에서는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해 그 이유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의 <표 III-10>에서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별 사례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서비스별로 이유를 분석하는 것은 결과 해석에 있어 큰 의의를 지니지 못한다.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사유별로 발생 빈도를 분석할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각 서비스별이 아닌 전체 서비스를 대상으로 청소년이 원했지만 제공하지 못한 이유의 발생 빈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II-1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II-11 청소년이 요청하였으나 제공하지 못한 이유 (단위: 명, %)

서비스	사 례 수	비 율
센터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이 없어서	8	5.4
센터에서 해당 서비스를 운영할 재원이 없어서	16	10.8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기관이 없어서	6	4.1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기관은 있지만 청소년이 사업대상이 되지 않아서	18	12.2
청소년과 서비스 제공시간이 맞지 않아서	46	31.1
기타	54	36.5
합계	148	100.0

이를 살펴보면, 우선 어느 특정한 이유로 분류하기 어려운 기타의 경우가 36.5%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¹⁰²⁾, 그 다음으로 청소년과 서비스 제공시간이 맞지 않아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102) 기타에는 '지원을 준비 중'이거나 '청소년의 변심이나 아직 청소년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청소년의 여건이 안 되어서' 등 청소년의 사정으로, '청소년이 아직 센터에서 하는 교육을 받지 않아서', '심리상담 등 사정 준비가 필요해서' 등의 이유가 지적되었다.

못한 경우가 31.1%였고, 청소년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기관은 있지만 청소년이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 제공하지 못한 경우가 12.2%, 센터에서 서비스를 운영할 재원이 없어서 제공하지 못한 경우가 10.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것 가운데 우선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 시간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이 원하는 서비스를 센터가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과 서비스 제공시간이 맞지 않아서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센터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다 유연성을 지녀야 함을 시사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주로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학업형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일을 하고자 하는 직업형 청소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주로 운영되고 있는 일과시간에는 이들도 학원이나 직장 등에 머물러야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과 동시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정작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높다.

3.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들의 생활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함과 더불어 기존의 패널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된 65명의 청소년과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 선정된 142명의 청소년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에게 지원되는 서비스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아울러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54개의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들의 요청 정도에 실제 제공 여부에 대한 문항과 더불어 각 청소년별로 이들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주요 현황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었는데, 본 장에서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제공 방법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요청하였으나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그 빈도와 더불어 제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청소년들이 요청한 서비스와 청소년들에게 제공된 서비스 가운데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서비스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III-12>와 같다(【그림 III-3】 참조).

표 III-12

청소년이 요청한 주요 서비스와 청소년에게 제공된 주요 서비스 (각 상위 10개)

영역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		청소년에게 제공된 서비스	
	서비스	순위	서비스	순위
학업중단 후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심리상담, 진로상담 등 상담정보	3	심리상담, 진로상담 등 상담정보	3
	취업에 유용한 자격증 정보	9	-	-
	-	-	직업교육, 직업훈련 기관 및 프로그램 정보	7
	검정고시 준비 방법	1	검정고시 준비 방법	1
	대입 등 진학정보	5	대입 등 진학정보	9
	-	-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의료에 관련된 정보	4
심리상담	-	-	우울 및 불안, 무기력, 분노 등 정서문제	9
	가족관계 혹은 대인관계 등 관계문제에 대한 심리상담	8	가족관계 혹은 대인관계 등 관계문제에 대한 심리상담	8
진로상담	진로계획상담	6	진로계획상담	9
취업지원	직업탐색 및 체험	9	-	-
	직업기술훈련 및 자격증 취득지원	7	-	-
학업지원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2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2
자기계발 기회 제공	-	-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자기계발 기회 제공	6
건강 및 주거지원	건강검진	4	건강검진	5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검정고시 준비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학업중단 이후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심리상담이나 진로상담 등 상담정보, 취업에 유용한 자격증 정보, 검정고시 준비 방법, 대입 등 진학정보에 대한 요구가 상위 10개 서비스에 포함되었으며, 심리상담 서비스로는 가족문제나 대인관계 등 관계 문제에 대한 심리상담, 진로상담 서비스로는 진로계획상담, 취업지원 서비스로는 직업탐색 및 체험, 직업기술훈련 및 자격증 취득지원, 학업지원 서비스로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건강 및 주거지원 서비스로 건강검진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이에 비해 청소년들에게 제공된 서비스로 가장 높은 비율은 보인 것은 검정고시 준비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과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에 관한 것으로서 청소년들이 요청한 서비스와 일치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서비스 관련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학업중단 이후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심리상담이나 진로상담 등 상담정보, 직업교육, 직업훈련 기관 및 프로그램 정보, 검정고시 준비 방법, 대입 등 진학정보,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의료에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었으며, 심리상담 서비스로는 우울 및 불안, 무기력, 분노 등 정서문제에 대한 심리상담, 가족문제나 대인관계 등 관계 문제에 대한 심리상담, 진로상담 서비스로는 진로계획상담, 학업지원 서비스로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자기계발 기회 제공 서비스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자기계발 기회 제공, 건강 및 주거지원 서비스로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요청한 상위 10개 서비스와 그들에게 제공된 상위 10개 서비스를 비교해보면, 청소년들이 요청한 상위 10개 서비스 가운데 7개의 서비스가 청소년들에게 제공된 상위 10개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서비스 관련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이 요청한 서비스 중 실제 제공된 10개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취업에 유용한 자격증 정보, 직업탐색 및 체험, 직업기술훈련 및 자격증 취득지원으로 주로 취업과 관련한 서비스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서비스들이 제공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이 요구한 정도에 비해 실제 제공된 비율을 그 요구도에 부합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취업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청소년들의 요구도가 높은 서비스는 아니지만 청소년들에게 제공된 비율이 높은 서비스로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 기관 및 프로그램 정보,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의료에 관련된 정보, 우울 및 불안, 무기력, 분노 등 정서문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자기계발 기회 제공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 기관 및 프로그램 정보 제공 서비스의 경우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요구한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관점에 따라 청소년들이 요구한 서비스에 선행되어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서문제와 관련한 심리상담이나 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은 관계문제에 대한 심리상담과 건강검진 서비스와 쉽게 구분되는 서비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청소년의 요구와는 관계없이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특히 자기계발 기회 제공과 관련한 서비스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구성이나 입지 등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요구와는 관계없이 제공되고 있다면,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적으로 청소년들의 요구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청소년의 요구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서비스를 단지 기관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제공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현재 상황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판단에 기초하여 제공할 서비스를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직접 지원한 경우와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한 경우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적지 않은 수의 서비스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직접 지원하는 경우가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서비스들은 정보 제공이나 상담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부분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턴십 프로그램, 일자리 알선, 과학 정보, 예방접종, 직업기술훈련 등 지원과 같은 서비스들은 외부기관과 연계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연계한 외부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 등과 관련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과의 연계 실적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진로나 직업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외부 자원의 활용이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이 요청하였지만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로는 일자리 정보, 문화 예술 등 자기계발 기회 제공, 일자리 알선, 신체단련 기회 제공, 검정고시비 지원 등이었으며, 제공하지 못한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기타’인 경우를 제외하면 청소년과 서비스 제공시간이 맞지 않아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원하는 서비스를 센터가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과 서비스 제공시간이 맞지 않아서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과 동시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됨을 의미하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 제시된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와 실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이해함에

있어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요청한 서비스와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한 항목에 대한 응답자가 청소년 자신이 아닌 해당 청소년을 담당하는 사례관리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 비율과 실제 제공된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와 실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응답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응답자의 편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현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학업을 지속하는 것과 관련한 서비스에서 남자 청소년들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이, 기존 패널의 청소년들보다는 신규 패널의 청소년들이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남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따라서 학교를 그만 둔 남자 청소년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제공한 서비스에 관련한 설문조사는 종료된 조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년도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서비스 제공 현황은 본 장에서 논의된 현황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장에서 논의된 서비스 제공 현황에 대한 내용은 최종적인 결론이라기보다는 중간보고서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본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현황 분석과 더불어 이에 기초한 정책 제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 IV 장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및 국내외 정책사례 분석

1.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2.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와 지원정책 현황
3. 국외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제 IV 장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및 국내외 정책사례 분석*

1.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학교 밖 청소년이란 통상적으로 학교를 다녀야 할 연령에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 여기서 학교란 모든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다닐 것으로 기대하는 초·중·고 정규 학교를 의미하며 좀 더 확대하면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공교육체계 상의 학교, 더 정확히는 ‘초·중등 교육법’상의 학교를 포함한다.

국가가 가장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정규학교를 어떤 사유로 떠나든 개인에게는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공교육에서 제공하는 자기개발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교육관계망에서 일찍이 이탈하게 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은 보편적 청소년 집단보다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더 취약하게 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범위를 논의할 때 숙고해야 할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기로의 순조로운 이행이라는 생애과정적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청소년이라는 용어나 연령에 대한 법적 규정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학교를 통한 성장과 발달, 학교 이후 사회적 자립에 이르는 연령까지를 광범위하게 포함하게 된다. 청소년 정책의 연령범위를 18세나 24세가 아니라 실제 29세, 35세, 40세까지 포함시키는 국가들이 있는 것은 이러한 정책과제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의 출발점인 7세에서 24세까지를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범위로 상정하였다. 본 연구가 시작된 2013년부터 초·중·고 학령기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연구대상으로 해왔는데 이들이 학령기를 벗어나 20대 초반이 된 점을 감안하였다.

* 이 장은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2)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와 국제이동, 인구사회학적 특성

(1)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학령인구(만 7~18세) 중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윤철경 외(2015: 25-33)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표 IV-1>은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학령인구와 해당 학령인구 중 공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수의 격차를 산출한 것이다. 그 격차는 387,702명으로 산출되었다.

표 IV-1 1996~2007년생 주민등록상 인구와 학생 수 (단위: 명)

출생연도	주민등록상 인구수	학생 인구수						격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방계학제	합계	
07	495,224	464,558				429	464,987	30,237
06	449,137	436,191				671	436,862	12,275
05	435,763	422,129				766	422,895	12,868
04	473,601	456,716				863	457,579	16,022
03	493,067	475,187				1,012	476,199	16,868
02	494,435	406,880	2,192			1,675	410,747	83,688
01	558,936	63,806	456,608			2,836	523,250	35,686
00	638,534	807	602,485			3,872	607,164	31,370
99	619,017	569	597,520	3,547		3,937	605,573	13,444
98	638,766		57,452	547,674		3,108	608,234	30,532
97	670,072		1,207	618,953		3,037	623,197	46,875
96	683,691		160	614,729	7,413	3,552	625,854	57,837
합계	6,650,243	2,726,843	1,717,624	1,784,903	7,413	25,758	6,262,541	387,702

출처: 안전행정부(2014). 주민등록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 교육통계연보.

주: 1) 2014. 12. 31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 통계 현황

2) 2014. 04. 01 기준 재적 학생 수

3) 출생신고 기준 학령인구 수는 사망자와 이민자를 제외한 총 6,662,186명이며 해외체류, 사망신고 등을 주요 사유로 하는 거주불명 등록자 총 11,943명을 제외한 수치임

4) 격차는 주민등록상 인구수에서 학생 인구수의 합계를 뺀 수임

5) 방계학교는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를 의미함.

이러한 격차에 더 고려해 주어야 할 사항은 첫째, 학령기에 있는 외국인 입국자와 학생 수이다. 윤철경 외(2015)에서는 주민등록인구에 학령기 외국인 순입국자를 포함시켰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주민등록상 학령인구와 재학생 수의 산출 기준 일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이다.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 학령인구를, 교육통계의 재학생 수는 201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학생 수여서 2014년 4월 1일 이후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할 학업중단자 수가 학생 수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 간 순학업중단자 수를 추정하여 학생 수에서 감해 주었다. <표 IV-2>는 학업중단과 복교가 매월 동일한 비율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9개월간 순 학업중단자 수로 추정한 결과이다. 이 기간 동안 학업중단을 할 것으로 추정된 총 21,413명을 학생 수에서 감하였다(윤철경 외, 2015: 26).

마지막으로 만 7~18세에 해당되지만 조기에 졸업하여 이미 고등학교 졸업자가 된 청소년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표 IV-2 2014학년도 9개월간 순학업중단자 수(추정, 2014.4.1~12.31) (단위: 명)

구분		2014학년도 학업중단자 수(A)	2014학년도 복귀자 수(B)	2014년도 순학업중단자 수 (A-B)	9개월간 순학업중단자 수 (추정)
기간 학 제	초등학교	14,886	11,752	3,134	2,350
	중학교	11,702	6,676	5,026	3,769
	고등학교	25,318	5,269	20,049	15,036
방 계 학 제	특수학교	-	-	-	-
	공민학교	-	-	-	-
	고등공민학교	-	-	-	-
	고등기술학교	109	-	109	81
	각종학교(초·중·고)	236	-	236	177
	산업체부설 고등학교	-	-	-	-
	산업체 특별학급	-	-	-	-
	방송통신고등학교	-	-	-	-
총계		52,251	23,697	28,554	21,413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 교육통계연보(학생변동 상황).

주: 1) 학업중단자 및 복귀자 수는 2014.3.1~2015.2.28 기준임.

2) 2014학년도 학업중단자 및 복귀자 수의 월별 데이터가 없어 매월 동일한 비율로 학업중단과 복귀가 일어났다고 가정하여 2014학년도 순학업중단자 수 × 9/12로 하여 추정함. 학업중단이 월별로 분산되는 반면 복귀는 3월초에 집중되는 경향을 고려할 때 9개월간 순학업중단자 수 추정치는 최소 수치라고 할 수 있음.

3) 방계학제인 특수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산업체부설 고등학교/산업체 특별학급/방송통신고등학교의 복귀자 수에 대한 데이터는 없음.

이렇게 추정된 2014년 12월 31일 기준 학령기(만 7~18세) 학교 밖 청소년 총 규모는 428,663명이었다(<표 IV-3> 참조). 3개년 간 변화를 보면 학령인구와 학생 수의 감소가 일어나고 있으며 외국인 학령인구의 증가와 학업중단자 수의 감소가 일어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3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규모(2014.12.31. 기준) (단위: 명)

구 분	인구 수			비 고	
	2012.12.31 기준	2013.12.31 기준	2014.12.31 기준		
학령 인구	주민등록상 학령인구 (A)	7,126,098	6,862,319	6,650,243	· 2014.12.31. 기준. · 안전행정부(2014).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외국인 자녀 중 학령 인구 (B)	13,372	14,780	23,158	· 2003~2014 간 누적된 학령 인구 순입국자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03~2014) 원 자료 활용.
학생 수	교육통계상 학생인구 (C)	6,715,622	6,460,545	6,262,541	· 2014.4.1. 기준 재학생수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년 교육통계연보 .
	순 학업중단자수 (D)	29,895	26,044	21,413	· 2014.4~2014.12 9개월간 발생한 학업중단자 수(추정치)
	고등학교 조기졸업자 수 (E)	-	-	3,610	· 2011년 만 14세 이하, 2012년 만 15세 이하, 2013년 만 16세 이하 고3학생 중 졸업자 수 (추정치) · <표 II-> 참조
학교 밖 청소년 수 (F)	453,743	442,598	428,663	· $F=(A+B)-(C-D+E)$	

(2) 학령기(만 7~18세) 학교 밖 청소년 국제이동

학령기 청소년의 국제이동이 활발하다. 윤철경 외(2015)가 산출한 바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약 1/4이 국제이동과 관련되었다. 전년도에 이어 동일한 방식으로 국제이동 관련 학교 밖 청소년 수를 추정하였다.

<표 IV-4>는 법무부 출입국 통계를 활용하여 2014년 기준 초1에서 고3 학령인구의 출입국 실태를 최대 12개년 간 누적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즉, 고3의 경우 12개년 간 출입국, 고2의 경우 11개년 간, 초 1의 경우 1개년 것만 반영하였다. 초1~고3 학령인구 중 순 출국자는 75,787명으로 산출되었다.

표 IV-4 2014년 학령인구 기준 내국인 순 출국자수 및 외국인 순 입국자 (단위: 명)

년도	내국인 순 출국자	외국인 순 입국자
2003	3,156	-3
2004	4,985	-54
2005	8,583	42
2006	15,092	31
2007	10,251	488
2008	8,435	557
2009	-734	698
2010	7,401	1,197
2011	6,258	2,689
2012	3,532	2,565
2013	4,041	6,558
2014	4,787	8,390
합계	75,787	23,158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2003-2014), 국제인구이동통계.

- 주: 1) 국제인구이동통계 원자료(각세별 자료)를 활용하여 2014년 기준 학령인구의 국제이동을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종단적으로 파악한 것임.
 2) 국제인구이동이란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의 이동을 의미함. 내국인 순출국자(출국자-입국자), 외국인 순입국자(입국자-출국자)를 산출하였음.

다음으로는 교육통계를 활용하여 재학생 중 순출국 학생(출국학생-귀국학생)을 알아보고자 한다. 교육부 출·귀국 학생 통계는 2005년부터 산출되었다. 2014년 12월말 현재 학령기 청소년의 출입국 현황을 종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2014년 12월말 현재 고3 학생들의 초등학교 1학년 때(2003년)부터의 국제이동을 파악해야 한다. 2003~2004년은 통계가 없어 10개년 간 출·귀국 학생 격차의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교육부 출·귀국 학생 통계는 학년별 현황이 없어 초1~고3까지 포함된 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12개 학년에서 동일하게 출·귀국

격차가 일어난다고 가정하고 연도별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2014년 자료는 초1~고3 12개 학년 수치를 모두 반영하고 2013년 자료는 초1~고2 11개 학년 수치만 반영하고 2012년 자료는 10개 학년, 2011년 자료는 9개 학년 것만 반영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된 순 출국 학생 수는 91,075명이다(<표 IV-5> 참조).

표 IV-5 2014학년도 재학생 기준 순 출국 학생 수(추정) (단위: 명)

구분	출국			귀국			출입국 격차 A-B	가중치 n=1 ~12	순출국 학생수
	유학	해외 출국	출국학 생합계 (A)	유학	파견 동행/ 이민	귀국 학생 합계(B)			
2003	-	-		-	-		16,544	1/12	1,379
2004		-		-	-		16,544	2/12	2,757
2005	22,330	14,994	37,324	6,204	7,382	13,586	23,738	3/12	5,934
2006	31,910	16,296	48,206	9,683	8,679	18,362	29,844	4/12	9,948
2007	30,981	16,148	47,129	11,126	9,151	20,277	26,852	5/12	11,188
2008	31,019	14,024	45,043	11,248	11,015	22,263	22,780	6/12	11,390
2009	20,883	11,953	32,836	12,150	11,548	23,698	9,138	7/12	5,330
2010	20,982	11,921	32,903	10,306	9,679	19,985	12,918	8/12	8,612
2011	19,747	11,928	31,675	8,696	10,502	19,198	12,477	9/12	9,357
2012	17,030	10,967	27,997	8,082	9,676	17,758	10,239	10/12	8,532
2013	13,892	11,606	25,498	6,619	9,268	15,887	9,611	11/12	8,810
2014	12,371	10,539	22,910	6,619	8,453	15,072	7,838	12/12	7,838
10개년 합계	221,145	130,376	351,521	90,733	95,353	186,086	165,435		
연평균							16,544		
12개년 추정치									91,075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05-2014), 각년도 교육통계연보(유학현황, 귀국현황).

주: 1) 12개년간 출국 후 미복귀 학생 추정치는 2014학년도 재학생 기준으로 2003~2004년도에는 데이터를 산출할 수
가 없어 10개년 간 평균값을 대입하여 추정함. [추정식: $\sum(A-B) \times n / 12$, ($n=1\sim12$)]

2) 구분 연도는 법무부 출입국 통계와 일치시키기 위해 당해 연도로 수정함. 즉 2005년도는 2005.3.1~2006.2.28 기
준임.

3) 유학(미인정 유학, 인정유학, 자비유학, 미취학자 미인정 유학 포함), 해외출국(해외이주, 파견동행, 미취학자 해외출
국 포함)

교육통계 상 순 출국 학생 수와 법무부 출입국 통계상 학령인구 순 출국자 수를 비교해보면, 순 출국 학생 수는 91,075명이나, 학령인구 순 출국자 수는 75,787명으로 추정된다. 91,075명의 해외 출국 학생 중 2014년 12월말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학령기 청소년은 75,787명이며 나머지 15,288명은 귀국하였으나 복교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학령기 외국인 청소년의 출입국과 학생 수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학령기 외국인 순 입국자는 23,158명이고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 수는 10,302명(2014.4.1.기준)이어서 나머지 12,869명은 외국인 학교 밖 청소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난 3년간 학교 밖 청소년의 국제이동 변화를 살펴보면 순출국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청소년 숫자에는 별 변화가 없어 귀국 후 복교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외국인 청소년의 경우, 순입국자가 같은 기간 1만 여명 증대하였으나 외국인 학생 수에는 별 변화가 없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중도입국 외국인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IV-6>에 의하면 2014년 기준 만 7세~18세 연령 학교 밖 청소년은 428,663명이다. 해외체류자 75,787명(추정치)을 제외하면 352,876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수치이다(중도입국 및 외국인 청소년 포함). 또한 이 중 귀국 후 미복교자와 외국인 학교 밖 청소년 등 국제이동 관련자를 제외한 학교 밖 청소년은 324,719명이다. 본 연구의 학교 밖 청소년 패널조사 대상에는 이들 집단이 빠져 있다. 따라서 본 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윤철경 외, 2015: 34).

표 IV-6 학령기(만 7~18세) 학교 밖 청소년의 국제이동

구 분	인구			산출근거		
	2012.12.31 기준*	2013.12.31. 기준*	2014.12.31 기준			
학교 밖 청소년 수(A)	453,743	442,598	428,663	· <표 IV-3> 참조		
국내 거주 학교 밖 청소년 수(B)	368,661	370,302	352,876	· B= A-E		
국제이동을 뺀 학교 밖 청소년 수(C)	336,760	336,550	324,719	· C= A-D-I		
국제이동	내국인	순출국 학생수 (D, 추정)	110,375	100,988	91,075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05~2014) 각 년도 교육통계연보(유학 및 귀국현황) 가공·추정
		순출국자 수 (E, 추정)	85,082	72,296	75,787	· 2003~2014 간 누적된 학령 인구 순출국자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2003~2014) 원 자료 활용.
		귀국 후 미복교자 (F, 추정)	25,293	28,692	15,288	· F= D-E
	외국인	외국인 순입국자(G)	13,372	14,780	23,158	· 2003~2014 간 누적된 학령 인구 순입국자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2002~2014) 원 자료 활용.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 수(H)	6,764	9,720	10,302	· 2014. 4.1 기준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년 교육통계연보(다문화현황).
		학교 밖 청소년 수 (I, 추정)	6,608	5,060	12,869	· I= G-H

주 : 1) 2012.12.31., 2013.12.31.의 산출근거는 윤철경 외 (2015), p. 30-31 참조.

(3)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인구사회학적 특성

윤철경 외(2015)의 학교 밖 청소년 집단 특성 분석 기준에 따라 2014년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집단의 특성을 국내체류 여부별, 연령(연령 데이터가 없어 학교급으로 대체)별, 성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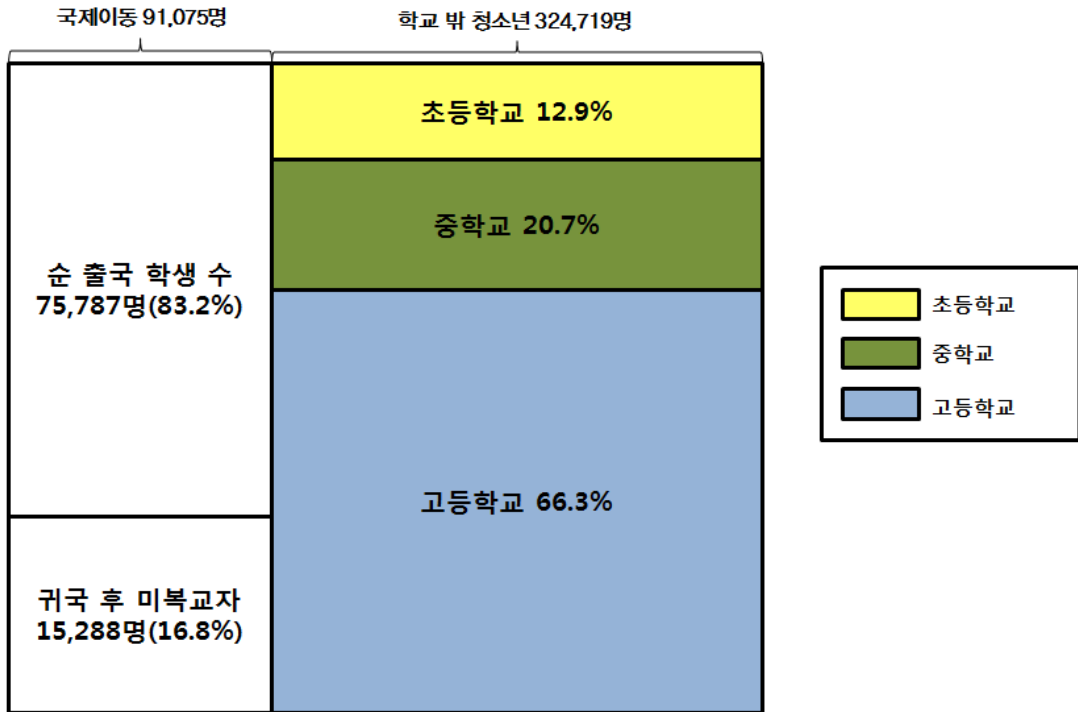
표 IV-7 학교 밖 청소년 규모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구 분		구성비	인구(%)	산출근거	비고
학교 밖 청소년	전체	100.0	428,663	〈표 IV-6〉 참조	
	국내거주 학교 밖 청소년	82.3	352,876	〈표 IV-6〉 참조	
	국제이동 제외 학교 밖 청소년	75.8	324,719	〈표 IV-6〉 참조	교육통계와 패널조사 의 기준집단
연령별	초등학교 연령	12.9	41,889	$324,719 \times 0.129$	2003~2014 각년 도 학교급별 순학업 중단자수(학업중단 자수-복귀자 수)와 구성비를 산출
	중학교 연령	20.7	67,217	$324,719 \times 0.207$	
	고등학교 연령	66.3	215,289	$324,719 \times 0.663$	
교급별 · 성별	초등학교 연령 여자	12.5 ¹⁾	17,291 (41.3) ²⁾	$41.3=17,291 \div 41,889$ $\times 100$	1) 2003~2014 각 년도 교급별 여자 순학업중단자 수 및 구성비 산출 후 성 별구성비 산출 2) ()은 교급별 학 업중단자 수를 100 으로 본 여자청소년 비율임
	중학교 연령 여자	23.9	33,061 (49.1)	$49.1=33,061 \div 67,217$ $\times 100$	
	고등학교 연령 여자	63.6	87,978 (40.9)	$40.9=87,978 \div 215,289$ $\times 100$	
	전체	100.0	138,330 (42.6)	$138,330=324,719 \times$ 0.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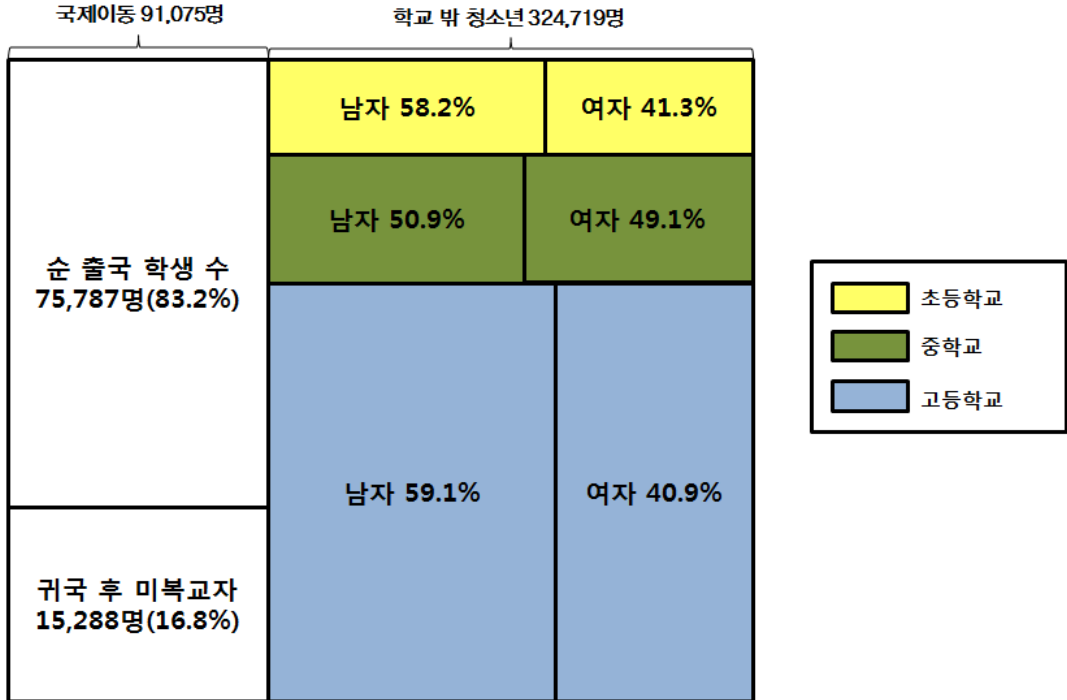
먼저, 전체 42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 중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은 82%인 35만 명으로 추정되었고, 국제이동 순출국 청소년을 뺀 학교 밖 청소년은 약 32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교급별 학교 밖 청소년 수를 파악하기 위해 2003년도부터 2014년까지 각급 학교 순학업중단자 수(당해년도 중단자 수-복귀자 수)를 합한 후 전체에서 교급별 구성 비율을 산출한 결과 초등학교는 12.9%, 중학교는 20.7%, 고등학교는 66.3%로 나타났다. 324,719명을 기준으로 할 때 초등학교 연령이 41,889명, 중학교 연령이 67,217명, 고등학교 연령이 215,289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연령에 비해 고등학교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1】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급별 구성

다음으로는 성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여자 학교 밖 청소년의 구성비를 산출하였다. 구성비 산출을 위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각 년도 순학업중단자 수의 합, 각 년도 여자 순학업중단자 수의 합을 구해 여자청소년 구성비를 산출하고, 전체 학업중단자 수에 이 비율을 곱하여 전체 여자 학업중단자 수를 산출하였다. 이 인구 수에 여자 청소년의 교급별 비율을 곱하여 교급별 여자청소년의 비율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IV-2】와 같다. 전반적으로 약 60% 정도가 남자청소년임을 알 수 있으며, 중학교 연령에서는 남자 청소년과 여자청소년의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림 IV-2】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규모의 교급별·성별 비율

3) 만 1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규모 (2014.12.31.기준)

이제까지 학령기(만 7세~18세, 출생년도: 96~07년)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여기에서는 2014년 12월 말 기준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백혜정과 송미경(2015: 20-26)의 방법을 참조하였다. 백혜정과 송미경(2015)은 해당 연령 범위의 주민등록인구를 산출한 후, 그 중 초·중·고 과정 재학생 수와 고교 졸업자 수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를 추정하였다. 추정 방식을 단계별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 12월 31일 기준 만 19세~24세가 되는 출생년도인 90년~95년생의 주민등록인구를 산출하고, 그 중에서 기간학제 및 방계학제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재학생 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기간학제의 만 19~24세 고등학교 졸업자 수를 산출하였다. 교육통계연보에서는 연령별 졸업자 수를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추정방법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도별 고 3 학생 중 2014년 12월 31일 기준 만 19~24세 이하인 청소년 수를 제시한 후, 이들의 졸업률이 해당연도의 고 3 졸업률과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만 19세~24세 이하의 고교졸업자 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를 산출한 이유는, 2014년 12월 31일 기준 만 19세부터 24세인 청소년이 주로 고 3 학생이 되는 해는 2008년~2013년까지이지만, 해당 연령의 청소년들이 2008년 이전에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조기졸업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고자 2005~2007년의 3개년을 더 포함시켰다.

셋째, 방계학제의 만 19~24세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수를 산출하였다. 방계학제 중 고등학교 과정이 있는 학제는 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 학교이다. 그러나 교육통계연보에서는 이들 학제의 연령별 고 3 학생 수와 졸업생 수를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간학제와 같은 방식으로의 추정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 12월 31일 기준 만 19세~24세가 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연도인 2009~2014년의 졸업생 수를 총계로 제시한 다음, 백혜정과 송미경(2015)이 임의로 설정한 졸업률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백혜정과 송미경이 설정한 졸업률은 특수학교 95%,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 학교 80%이다(백혜정, 송미경, 2015: 25).

이와 같은 단계를 따라 만 19세~24세의 학교 밖 청소년 인구를 산출하고자 한다. 첫째,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주민등록상 인구와 초·중·고 과정 재학생 수를 알아보면, 주민등록상 인구는 4,181,483명이었으며 초·중·고 과정의 학생 수는 182,452명으로 나타났다.

표 IV-8 1990~1995년생 주민등록상 인구와 초·중·고과정 학생 수 (단위: 명)

출생년도	주민등록상 인구수	초·중·고과정 학생 수			
		중학교	고등학교	방계학제	합계
1995	705,892	63	52,489	15,568	68,120
1994	711,196	224	1,479	18,232	19,935
1993	707,222		187	20,666	20,853
1992	721,777		314	26,690	27,004
1991	698,906			25,798	25,798
1990	636,490			20,742	20,742
합계	4,181,483	287	54,469	127,696	182,452

출처: 안전행정부(2014).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 교육통계연보.

주: 1) 2014. 12. 31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 통계 현황, 2014.4.1.기준 재적학생 수

2) 출생신고 기준 만 19~24세 인구 수는 사망자와 이민자를 제외한 총 4,196,433명이며 해외체류, 사망신고 등을 주요 사유로 하는 거주불명 등록자 총 14,950명을 제외한 수치임

3) 방계학교는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를 의미함.

4) 백혜정, 송미경(2015)은 2014.4.1.을 기준으로 학령기 이후의 연령범위를 만 18~24세로 설정(출생년도: 95~89년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령범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백혜정, 송미경(2015)과 차이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이후 연령범위를 만 19~24세로 설정함(출생년도: 95~90년생)

둘째, 기간학제의 만 19~24세의 졸업자 수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한 만 19세~24세의 졸업자 수는 총 3,716,899명이다. 그런데, 교육통계연보에서는 만 14세 이하와 만 21세 이상은 연령별로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05~2010년의 고 3 학생 중 만 19~24세 청소년 수에는 만 14세 이하가 일부 포함되었으며, 2012~2013년은 만 25세 이상이 일부 포함되었다. 즉, 만 19세~24세의 기간학제 졸업자 수가 실제보다 과대 계상되었음을 고려해야 한다.

표 IV-9 2005~2013 연도별 만 19~24세 기간학제 졸업자 수(추정) (단위: 명)

연도	고 3 학생 수	이듬 해 졸업자 수	졸업률 (%)	고 3 학생 중 2014.12.31.기준 만 19세~24세 청소년 수		만 19~24세 기간학제 졸업자 수 (추정)
				당해년도 연령범위 (2014.4.1. 기준)	연령범위의 청소년 수	
2005	569,844	568,055	99.69	만 9세~14세	5	5
2006	573,008	571,357	99.71	만 10세~15세	65	65
2007	583,325	581,921	99.76	만 11세~16세	11,159	11,132
2008	577,167	576,298	99.85	만 12세~17세	533,316	532,516
2009	634,336	633,539	99.87	만 13세~18세	630,588	629,768
2010	649,515	648,468	99.84	만 14세~19세	649,416	648,377
2011	637,536	636,724	99.87	만 15세~20세	637,400(15)	636,571(15)
2012	631,835	631,197	99.90	만 16세~21세	631,752(83)	630,566(83)
2013	633,676	632,938	99.89	만 17세~22세	628,590(3,516)	627,899(3,512)
합계	4,856,566	4,847,559	-	-	3,722,291 (3,614)	3,716,899 (3,610)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학년 및 연령 별 학생 수, 졸업 후 상황(매년 4월 1일 기준).

- 주 1) 졸업률(%)=(고3 학생 수/이듬 해 졸업자 수) X 100
 2) 24세 이하 졸업자 수= 고3 학생 중 2014년 기준 만 19~24세 청소년 수 X 해당 연도 졸업률
 3) 교육통계연보에서는 만 14세 이하와 만 21세 이상 연령을 세분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05~2010년은 만 14세 이하 연령까지 포함된 수치이며, 2012~2013년은 만 21세 이상 연령까지 포함된 수치임.
 4) 2011~2013년과 합계의 괄호 안 수치는 각 연도별로 만 14세 이하, 만 15세 이하, 만 16세 이하 고 3학생 수와 이들의 졸업률이 당해연도의 졸업률과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산출한 졸업자 수임. 이 수치는 연령범위의 청소년 수와 기간학제의 졸업자 수에 포함되지 않음.

셋째, 방계학제의 졸업생 수이다. 연도별 만 24세 이하 졸업생 수를 보면, 특수학교는 13,967명, 고등기술학교는 2,182명, 각종 학교는 9,708명으로 총 25,857명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교육통계연보 상 연령별 고 3 학생 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 18세 이하와 만 25세 이상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표 IV-10

2009~2014년 방계학제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수

(단위: 명)

구분	연도						계	만 24세 이하 졸업생 수(추정)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특수학교	2,231	2,301	2,428	2,537	2,536	2,669	14,702	13,967
고등기술학교	565	438	437	431	435	421	2,727	2,182
각종 학교	2,229	2,119	2,255	2,210	824	2,498	12,135	9,708
합계	5,025	4,858	5,120	5,178	3,795	5,588	29,564	25,857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졸업 후 상황(매년 4월 1일 기준).

주 1) 특수학교 만 24세 이하 졸업생 수 = 특수학교 졸업자 수 합계 × 0.95

2) 고등기술학교, 각종 학교 만 24세 이하 졸업생 수 = 고등학교, 각종학교 졸업자 수 합계 × 0.80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2014년 만 19세~24세의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총 256,275명이다(<표 IV-11> 참조). 앞서 산출한 기간학제와 방계학제의 만 19~24세의 졸업생 수가 다소 과대 계상되었음을 고려할 때, 256,275명은 만 19~24세 학교 밖 청소년을 최소로 추정한 수치이다.

표 IV-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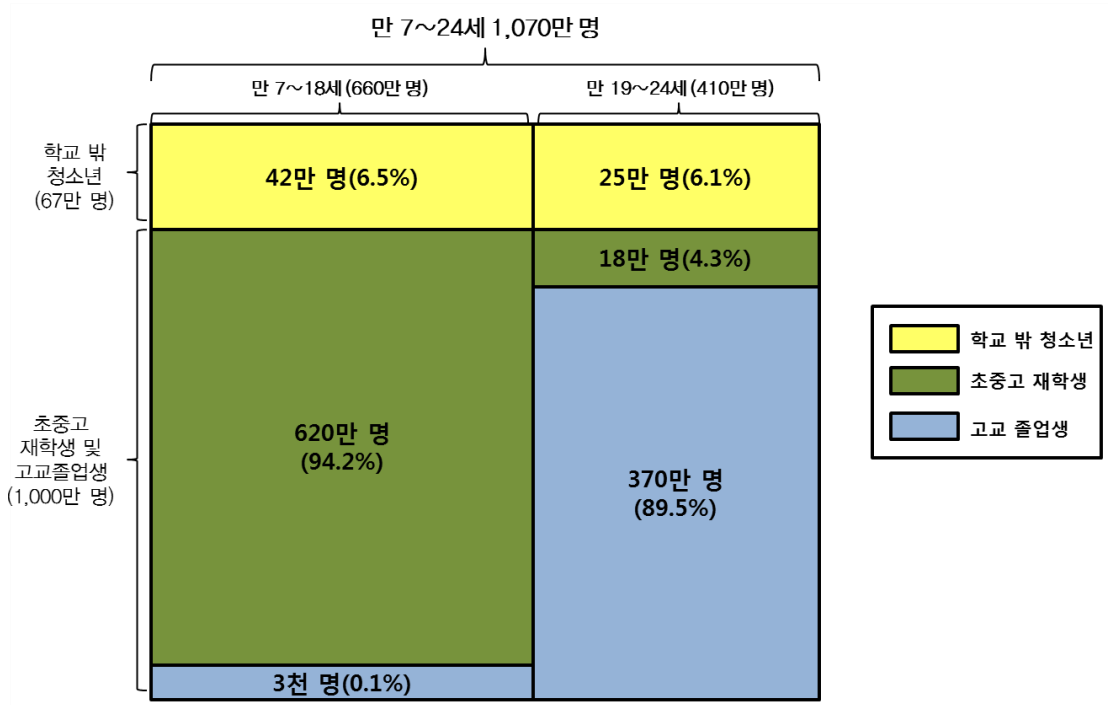
만 19~24세 학교 밖 청소년 규모(2014.12.31. 기준)

(단위: 명)

구분	만 19~24세	비고
주민등록상 만 19~24세 인구 (A)	4,181,483	· 2014.12.31. 기준. · 안전행정부(2014).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학생 수	초중고 과정 재학생 수 (B)	· 2014.4.1. 기준 재학생 수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14). 2014년 교육통계연보
	기간학제 고등학교과정 졸업생 수(추정치) (C)	· 2014년 기준 만 19~24세 고3 졸업생 수(추정치)
	방계학제 고등학교과정 졸업생 수(추정치) (D)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매년 4월 1일 기준)
	소계 (B+C+D)	
만 19~24세 학교 밖 청소년 수 (E)	256,275 ¹⁰⁴⁾	· E = A-(B+C+D)

104) 이 숫자에는 학교를 그만 두고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생이 된 만19~24세 청소년은 포함될 수 있음.

이제까지의 규모 산출을 토대로 만 7~24세의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도식화하면, 【그림 IV-3】과 같다.



【그림 IV-3】 만 7~24세의 학교 밖 청소년 규모

2.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와 지원정책 현황

1)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

본 연구는 학업중단 후 청소년의 경험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를 유형화하는 작업을 시도해 왔다. 2013년 연구(윤철경 외, 2013)에서는 학업형, 직업형, 니트형, 비행형, 그리고 이 4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로 분류되었다. 2015년 연구(윤철경 외, 2015)에서는 학업중단 후 지난 3년간의 경험내용에 대한 시컨스 분석방법을 통해 이행경로를 학업지속형, 학업복귀형, 직업형, 학업-직업전환형, 무업형, 비행경험형으로 세분화하였으며 크게는 종전과 동일하게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비행경험형으로 분류하였다. 2016년 연구는 지난 1년간의 경험내용을 토대로 이행경로에 대한 시컨스 분석을 적용한 결과, 비행경험형과 무업형이 하나로 묶여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으로 분류되었다. 무업형은 지난 1년간 가출·비행 등 경험이 있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이 주요 경험인 집단이다.

윤철경 외(2010)는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는 지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 분류를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연구에서 ‘주로 집(자기 방)에서 보낸다’고 응답한 청소년을 은둔형, ‘친구들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논다’고 응답한 청소년을 ‘배회형’, ‘부모님 일을 돕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을 소일형으로 분류하였다. 당시 연구에서 전체 응답자 중 은둔형(12.7%), 배회형(21.0%), 소일형(13.2%)로 분포되었다. 당시의 연구 표본은 응답자의 38.8%가 비행경험자인 가출·비행 청소년이 과표집된 표본이다(윤철경 외, 2010: 52).

학교의 학업중단자 명단을 기초로 구축한 본 연구 패널에서는 비행경험자 비율이 실제 숫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추정치가 도출되고 있어¹⁰⁵⁾, 무업형과 비행형의 세분화가 어렵다. 무업형은 크게 가출비행형과 은둔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은둔형은 조사표본으로 확보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2010년의 연구에서 은둔형으로 조사된 집단도 사실상 가출·비행형으로 확인되었다(윤철경 외, 2010: 54). 조사표본에 들어온 무업형 청소년의 특성은 사실상 가출·비행형 청소년과 유사하다.

학교 밖 청소년 중 은둔 무업형 청소년의 규모가 얼마가 될지 현재로서는 추정할 수가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2014~2015년에 중앙자활센터를 통해 실시한 ‘희망리본사업’의 결과는 그

105) 전체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에서 비행형은 6.0%, 약 2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실제 범죄 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은 17,214명으로 추정되었음 (윤철경 외, 2015: 31-35).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희망리본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근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3년 이상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탈락자 등을 지원 대상으로 했다. 2015년에는 신규 참여가 불가능했고 2016년부터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로 흡수된 사업이다(중앙자활센터, 2015: 5).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집에 머물면서 일을 하지 않는’ 청소년층이 대거 발굴되었다. 2014년 참여자 중 20세 미만이 4.8%, 20대가 12.8%가 발굴되어 참여하였다. 이 사업 참여자 중 중학교 이하 학력은 27.5%였다(중앙자활센터, 2015: 19). 빈곤계층 청소년 중 은둔형 청소년(20대까지 포함)의 비율이 15% 정도 되고 있다. 빈곤계층 청소년은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로부터 ‘학교도 다니지 말고 노동하지 말도록’ 하는 압력을 받고 집에 머물고 있다. 자칫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다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라는, 국가가 부여하는 혜택에서 밀려나는 것이 더 위협적이기 때문이다.¹⁰⁶⁾

이러한 실태를 고려할 때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는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으로 구분하되 무업형은 가출·비행형(또는 배회형)과 은둔형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현황

한국에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이후이다. 청년실업문제의 대두와 더불어 2010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청년의 고용 확대와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 절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시행된 정책을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을 살펴보았다.

(1) 학업지원정책 현황

① 방송통신중·고등학교(교육부)

방송통신 중·고등학교와 검정고시 제도는 정규 중고등학교를 중단한 학생들의 학업과 학력취득을 돕는 전통적인 정책이다. 2014년 기준으로 방송통신중학교의 10대 재학생은 40명(전체의 4.8%), 방송통신고등학교 10대 재학생은 2,654명(전체의 21.9%)이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15a: 18). 방송통신교육은 성인 위주로 지원하는 평생교육적 성격이 더 강하다.

106) 본 사업에 참여한 민간단체 사업담당자와의 인터뷰 내용(2016.09.23)

② 검정고시(교육부)

이에 비해 학력 취득 기회를 주는 검정고시제도는 2016년 기준 19세 이하 합격자가 초졸 55.8%, 중졸 62.9%, 고졸 63.1%로(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2016c), 고졸 검정고시의 경우 해당 연령의 청소년이 2만 명이 넘는다.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비해 이용률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V-12 2016년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현황 (단위: 명, %)

급별	연령	사례수	비율
초졸	19세 이하	1,905	55.8
	20~29세	217	6.4
	30세 이상	1,290	37.8
	전체	3,412	100.0
중졸	19세 이하	6,069	62.9
	20~29세	533	5.5
	30세 이상	3,048	31.6
	전체	9,650	100.0
고졸	19세 이하	20,101	63.1
	20~29세	5,362	16.8
	30세 이상	6,396	20.1
	전체	31,859	100.0

출처: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2016c). 2016 검정고시 연령별 합격자 현황. 내부자료.

③ 대안교육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2016년 사업계획의 중점 추진방향은 크게 공교육 내 대안교육 활성화, 학업중단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이라는 두 축으로 추진되었다(<표 IV-13 참조>,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2016b). 학교 내 대안교실은 학교 교육 활동의 일환이라면 대안교육 위탁과 공사립 대안학교 지원은 학교 밖의 대안학교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2016년 교육부가 지원하는 위탁교육기관 예산이 18억 원, 대안학교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11억 원이다. 이 외 2016년에는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설치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추진방향	세부 추진 과제	소요 예산
공교육 내 대안교육 활성화	① 학교 내 대안교실 활성화 지원	6,878
	②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확대	1,800
	③ 공·사립 대안학교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1,100
학업중단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①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 실시	1,000
	② 위기학생 돌봄 공간 「친구랑」 운영 지원	450

출처: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2016b). 사업추진 방향 및 추진과제. 내부자료.

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확대

대안교육위탁교육제도는 일반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 학교가 맞지 않는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기관에 가서 학습을 해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원래 다니던 소속 학교에 학적을 둔다는 것이 전학이나 대안학교와 다르다. 위탁 기간은 6개월 이상 장기위탁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과정 중 국민공통기본교과의 3분의 1만 이수하면 나머지는 인성과 진로 분야의 다양한 교과를 배치할 수 있어 대체로 체험활동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된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92-9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내부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 현재 시도교육청이 지정한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은 총 272개 기관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학생 총 정원은 7,380명이다(<표 IV-14> 참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2016). 교육부의 위탁교육기관 재학생 1인당 지원 금액은 연간 약 30만원이었다. 이는 재학생의 1인당 연간 교육비 768만원에 비해 너무 작은 금액이다(김병욱의원실, 2016. 10. 7.).

표 IV-14 시도별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현황(2016.7.)

(단위: 개소, 명, %)

시도	기관 수		총 정원 수		전체 예산 (단위: 백만원)	1인당 예산 (단위: 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서울	37	17.9	1,320	21.6	1,800	294,985
부산	11	5.3	430	7.0		
대구	1	0.5	60	1.0		
인천	7	3.4	405	6.6		
광주	9	4.3	322	5.3		
대전	5	2.4	140	2.3		
울산	11	5.3	289	4.7		
세종	3	1.4	70	1.1		
경기	29	14.0	650	10.7		
강원	36	17.4	534	8.8		
충북	4	1.9	100	1.6		
충남	25	12.1	1,025	16.8		
전북	9	4.3	211	3.5		
전남	0	0.0	0	0.0		
경북	7	3.4	121	2.0		
경남	11	5.3	380	6.2		
제주	2	1.0	45	0.7		
전체	207	100.0	6,102	100.0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 대안교육지원센터(2016). 2016학년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현황 내부자료

- 주 1) 충북 기관 및 총 정원 수는 해당 지역 한 곳에만 포함시킴
- 2) 단기위탁교육기관은 제외

나. 공·사립 대안학교 교육 지원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과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설립」에 의거하여 인가를 받아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이다. 각종학교로의 대안학교 25개교,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13개교,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 25개 등 총 63개교가 학력을 인정받는 대안학교로 운영되고 있다(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2016b). 교육부는 2016년에 전국에 5개의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신규 설립을 추진하는 등 대안학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다. 학업중단 학생 교육지원

학업중단 학생 교육지원은 사실상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다. 미인가 대안학교는 학교 밖 학생의 학업을 지원하는 한 축을 이루고 있지만 정부에 의해 학교로 인정받지 못해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하는 학교이다. 교육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총 313개 시설에서 약 15,000명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표 IV-15> 참조). 교육부는 학교부적응 등을 사유로 중단한 학생을 지원하는 전일제 대안교육시설을 선정하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등 교육활동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표 IV-15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2015년 기준) (단위: 개소, 명)

설립목적	다문화	탈북	종교 교육	국제 교육	미혼모	부적응	대안 교육	예술 교육	합계
시설 수	6	8	50	35	1	86	120	7	313
학습자수	127	224	3,719	1,888	2	2,547	5,786	181	14,474

출처: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2016a).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 내부자료.

라. 위기학생 돌봄 공간 「친구랑」 운영 지원

「친구랑」은 학업중단, 가출 등 위기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업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 어울림 기회를 갖게 하는 돌봄 공간으로 서울(관악구), 대구(중구), 강원(춘천시)에 총 3개소가 있다. 지하철역 주변, 상권 밀집지역 등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서 학업중단 학생들이 돌봄, 상담, 어울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된 카페 형식의 공간으로 길거리 상담, 휴식, 문화예술 바우처, 학업복귀 및 학력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2016년 기준 1개소 당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2016b).

④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2014.5.28. 제정)에 의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 2016년 3월 기준 전국에 202개 센터를 설치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전방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임무는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 및 학교 밖 청소년의 필요에 맞게 학업, 취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을 제공하는 것이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6: 3).

- 가)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활동하는 동반자와 협력하여 센터에 방문 독려
- 나) 무업형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맞춤형 상담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특성 및 유형 등 파악
 - 학교 밖 청소년 욕구에 따른 정보 안내 및 자립동기 강화
 - 지원목표설정 후 지원계획 수립
- 다) 학업형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 학업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 대한 학업 동기 강화 및 학업능력 증진 프로그램 제공
 -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 지원
 - 센터 내 검정고시반 운영, 검정고시 학원 연계 등을 통해 지원
 - 기존학교, 대안학교, 상급학교 등 학교로의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절차 안내
 - 대학 입시 지원
 - 고졸 자격 취득 이후 대학입시반 운영, 인터넷 강의 제공 등을 통해 대학 진학 지원
 - 대학입시설명회 참여, 대학캠퍼스 투어 등 대학 입시 정보 제공
- 라) 취업형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 직업적성 발견을 위한 직업탐색 프로그램, 직업체험 프로그램제공
 - 직업훈련, 자격취득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사관학교, 취업성공패키지2 등에 적극적으로 연계할 것
 - ※ 두드림 프로그램 이수 시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대상이며,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고용주와 취업자의 매칭이 이루어져야 함
 - 지역 내 민간 직업훈련기관을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
- 마)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학교 밖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 체육, 봉사활동 등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운영

[그림 IV-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사업내용

출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6). 2016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매뉴얼 (일부 축약본). p. 3. (내부자료).

2015년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성과는 <표 IV-16>과 같다. 학업지원과 취업지원을 포함하여 총 5,795명이 수혜를 받았다. 전체 수혜인원 중 학업지원 수혜율은 90%이며 취업지원 수혜율은 10% 수준에 있다. 즉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서비스는 주로 학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성과 (단위: 명)

구분	학업지원				취업지원				
	계 (실인원)	학교 복귀	검정 고시	대학 진학	계 (실인원)	취업	직업 훈련	자격 취득	자기 계발
인원	4,948	1,015	3,743	398	4,002	847	566	2,114	738

출처: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201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성과. 내부자료.

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시행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 밖 청소년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은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도 제공되어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2항, 동법 시행령 제8조 2항).

⑥ 청소년 한부모 대상 교육비 지원¹⁰⁷⁾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7조의2에 근거하여 2010년 4월부터 실시되었으며 사업대상은 한부모 가족 중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이다. 지원내용은 아동양육비 월 1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원,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자산형성계좌지원금 월 5~20만원으로, 고교생의 경우, 교육비는 실비로 지급된다(여성가족부, 2015c: 278). 2014년의 지원 실적을 보면 총 2,096가구에, 총 15억 원이 지원되었다(여성가족부, 2015c: 279).

⑦ 복교지원 프로그램

부산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996년부터 학업중단 청소년 복교 프로그램 ‘학교로 가는 길’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지역의 중·고교 학업중단 청소년 중 복교 희망자를 대상으로 연 2회(2월, 8월) 실시한다. 프로그램 내용은 복교에 대한 동기 부여와 학교 재적응을 위한 학습방법 교육, 갈등관리 방법과 복교 후 새로운 다짐을 위한 상담 및 등이며(중앙일보, 2016.01.24). 교육이 끝난 후에도 상담전문가가 3개월 간 사후관리를 하는 등 복교 후 학교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이다(뉴시스, 2016.7.18.) 96년도부터 2010년까지 총 4,542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하였다(교육부·여성가족부, 2013.11.28.).

107) 여성가족부 정책안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6_05_02b.jsp?viewfnc1=0&viewfnc2=0&viewfnc3=0&viewfnc4=1&viewfnc5=0&viewfnc6=0) (검색일: 2016.5.26.)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2) 진로·직업 상담 및 훈련, 취업지원 정책 현황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직업 정보 및 상담에 대한 욕구, 취업지원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높다. 고용노동부가 청소년의 직업훈련 및 고용 지원, 근로보호 등 주요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부가 진로·직업 교육 및 상담, 직업체험 등을 담당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는 진로·직업 상담 및 직업 체험 등의 일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① 진로·직업 정보 및 상담¹⁰⁸⁾

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진로·직업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인터넷 사이트로 교육부의 커리어넷과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이 있다. 커리어넷(<http://www.career.go.kr/>)은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199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로, 직업 및 학과에 대한 정보 등 진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진로심리검사와 온라인 진로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을 하면 연령과 학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워크넷(<http://www.work.go.kr/>)은 진로 상담뿐만 아니라 구직 및 구인정보, 직업 및 진로정보, 고용정책을 통합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공공 취업포털사이트이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구직자와 기업 등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로, 직업심리검사, 직업 및 학과 정보, 진로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워크넷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진로교육센터를 통해 무료로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다.

나. 상담시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 밖 청소년도 이용한 가능한 상담시설로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진로진학정보센터와 Wee센터,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다. 전국 시·도 교육청별로 설치되어 있는 진로진학정보센터는 진로정보 및 진로적성검사, 고교 및 대학진학정보에 대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며 게시판을 통한 온라인 진로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원하는 날짜를 예약하여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108) 진로·직업 정보 및 상담과 관련한 내용은 교육부,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2015). 학교 밖 진로 가이드북: 학교 밖 또 다른 길 찾기, p. 30~32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인 Wee센터는 2016년 기준 전국 203개가 설치되어 있다.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 및 학부모,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진로상담뿐만 아니라 가족, 대인관계 등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상담, 전화상담, 온라인 상담 모두 가능하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6년 기준 전국 221개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진로고민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상담을 제공하며 방문, 전화,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② 직업훈련

가. 취업사관학교¹⁰⁹⁾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사관학교는 학업중단과 가출 등의 이유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다. 2010년 발표된 청년고용종합대책을 기반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11년 2월에 취업사관학교 3개소가 선정되었다(고용노동부, 2012: 67). 사업대상은 만 15세 이상 24세 미만의 학교 밖 청소년이며, 훈련기간은 각각 6개월 총 700시간 이상이다. 운영기관에는 훈련비용으로 교육생 실비를 지원하며, 교육생에게는 자립장려금을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2016년 2월 기준 서울, 대구, 인천, 강원, 충남, 전남에 각 1개소, 경남에 2개소로 총 8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기계 및 가공 프로그램, 헤어 및 미용, 인테리어 등의 훈련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16a).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도별 참여현황을 보면, 2012년까지는 약 110명, 2013년부터는 연간 약 15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 취업사관학교 운영지원 예산은 29억 원이었다(고용노동부, 2015: 35).

표 IV-17 연도별 취업사관학교 참여자 수 (단위: 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정원 수	100	130	150	150	150	680
참여자 수	111	127	152	148	155	693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2016b). 취업사관학교 사업 현황. 내부자료.

109) 한국산업인력공단: 청년 및 취약층 일자리 지원사업-취업사관학교 <http://www.hrdkorea.or.kr/3/1/4/2> (검색일: 2016. 5. 26.)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나.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¹¹⁰⁾

내일배움카드제는 취업 및 창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이 필요한 재직자 및 실업자에게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를 지원하여 실시하는 훈련 제도이다. 2008~2009년에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라는 명칭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 후 2011년 7월에 내일배움카드제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고용노동부, 2011: 214), 2016년부터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 실업자 대상 내일배움카드제가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사업’으로 통합되었다. 선정된 대상자는 발급받은 카드로 먼저 결제한 후 훈련과정을 수강하면 차후에 국비지원을 받게 된다. 1인당 200만원 한도로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으며, 카드발급일로부터 1년이 유효기간이다. 훈련비의 50~80%는 정부가 지원하고 20~5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훈련 분야는 매우 다양하며 경영·회계·사무관련직, 음식서비스 관련직, 미용·숙박 등 관련직, 보건 및 의료직 등 총 23개 분야가 있다(고용노동부, 2016a: 52). 훈련 종류는 재직자 대상 훈련과 실업자 대상 훈련으로 구분되는데, 재직자 훈련의 사업대상은 현재 근로자이어야 하며 학력 제한은 없다. 실업자 훈련의 사업대상은 만 15세 이상의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전직 실업자, 신규 실업자뿐만 아니라 비진학 예정의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소속 학교장이 직업훈련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도 포함된다(고용노동부, 2016a: 16). 학교 밖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15세 이상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다.

2015년 12월 말의 훈련생 현황을 보면, 전체 20만 명의 훈련생 중 초졸과 중졸 훈련생은 9,613명으로 전체의 4.9%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 미진학자인 고졸 훈련생은 약 7만 명(38.0%)이었다. 연령별 훈련생을 보면 19세 이하는 8,841명(44%)으로, 19세 이하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10) (사)한국이러닝산업협회 홈페이지: 내일배움카드제 사업 안내(http://www.daumjob.com/portal/intro/main.intro01.user?topmenu_id=intro&submenu_id=01)(검색일: 2016.5.26.)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표 IV-18 2015년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실시현황(2015.12월말 기준) (단위: 명, %)

유형		사례수	비율
성	남성	52,457	26.5
	여성	145,183	73.5
연령	19세 이하	8,805	4.4
	20~29세	63,071	31.9
	30세 이상	125,764	63.6
학력	고졸 이하	9,613	4.9
	고졸	75,057	38.0
	대졸 이상	91,301	46.2
	기타	21,669	11.0
전 체		197,640	100.0

출처: 고용노동부(2016a).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훈련생 특성별 훈련실시 현황. p. 54.

내일배움카드제의 중도탈락률과 취업률을 보면 <표 IV-19>와 같다. 2014년 기준 탈락률은 10% 수준이며 취업률은 35% 수준이었다.

표 IV-19 2013-2014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중도탈락률 및 취업률 (단위: 명, %)

유형	실시인원 수	중도탈락인원 수	중도탈락률	취업률
2012	307,287	40,338	13.1	31.5
2013	411,606	46,298	11.2	33.1
2014	242,553	25,087	10.3	34.6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DB.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계좌제) 사업성과 현황. (재구성)

주 1) 원자료는 월별 실시인원수와 중도탈락인원수, 취업률을 표기하고 있음. 실시인원수, 중도탈락인원 수는 12개월 합계이며, 취업률은 12개월 간 평균임.

2) 중도탈락률=중도탈락인원수 / 실시인원 수 × 100

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¹¹¹⁾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국가의 기간산업과 전략사업 등의 분야에서 현재 부족하거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체로 기계, 금속, 전기, 동력 등 우리나라의 중요 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

111) 고용노동부 정책 안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http://www.moel.go.kr/policyinfo/new/reclamarion/view_content01.jsp (검색일: 2016.10.13.)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련이라고 볼 수 있다(고용노동부, 2016a: 17). 80년대 공공훈련이나 사업 내 직업훈련을 통해 실시가 곤란한 분야의 훈련을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이 맡아 훈련하는 ‘인정직업훈련’이 모태가 되었으며, 이 훈련이 1999년도에는 우선선정직종훈련, 2010년에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으로 명칭과 성격이 변경되었다(이상준 외, 2012: 13). 사업 대상은 15세 이상 실업자, 고 3 재학생 중 상급학교 비진학자, 대학 최종학년 재학자 중 대학원 미진학자이며, 희망자는 고용센터와의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훈련기간은 3~12개월(350시간 이상)이며, 180일 이상 취업 및 창업 전 최대 3회까지 훈련수강이 가능하다(고용노동부, 2016a: 19). 훈련기관에게는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고 훈련생에게는 훈련 장려금으로 최대 월 31만 6천 원을 지원한다. 훈련 직종은 2015년 기준 총 114개이며, 기계가 32개, 건설이 17개, 전기 및 전자가 15개로 대체로 기계와 건설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고용노동부, 2016a: 170).

2015년의 훈련생 현황을 보면, 총 74,207명이 훈련을 받았으며 그 중 19세 이하는 9.5%(7,055명), 20대는 57.4%(42,627명)이었고, 학력별로 보면 초졸이 371명(0.5%), 중졸이 1,477명(2.0%), 고졸이 23,264명(31.4%)이었다. 2015년 수수료율은 87.4%(탈락률 12.6%)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16: 62).

훈련종류별로 보면 19세 이하가 많이 받은 훈련직종은 기계(34.2%)와 문화·예술·디자인·방송(16.0%), 정보통신(13.0%)이었으며 20대는 정보통신이 23.0%, 문화 관련과 기계가 23.2%, 정보통신 23.0% 순으로 많았다(고용노동부, 2016a: 54, 57).

표 IV-20 2015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실시 현황(2015.12월말 기준) (단위: 명, %)

유형		사례수	비율
성	남성	48,829	65.8
	여성	25,378	34.2
연령	19세 이하	7,055	9.5
	20~29세	42,627	57.4
	30세 이상	24,525	33.0
학력	고졸 이하	1,848	2.5
	고졸	23,264	31.4
	대졸 이상	38,612	52.0
	기타	10,483	14.1
전 체		74,207	100.0

출처: 고용노동부(2016a).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훈련생 특성별 훈련 실시 현황. p. 54.

라. 일학습병행제¹¹²⁾

2013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2014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학습병행제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고자 기업이 청년 취업희망자를 채용하여,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훈련이 끝나면 역량을 평가하여 자격 또는 연계학교의 학력 등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기업은 자체적으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에 설치된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6개월~4년의 양성훈련 및 일반근로자에 준하는 급여와 혜택을 제공한다.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모집할 때 신청하면 학습근로자가 될 수 있으며, 연령과 학력은 무관하다. 훈련과정이 종료되면 기업(1차) 및 외부(2차)의 평가를 거치게 되고, 1차 평가 결과를 채용과 연계하는 기업은 평가 결과에 따라 일반근로자로 전환한다. 학습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다면 교육훈련기간이 종료됨과 함께 훈련근로계약도 종료되나, 외부가 실시하는 2차 평가 최종합격생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업의 일반근로자로 전환된다(강경중 외, 2014: 21). 2015년도의 고용유지율은 98%로 나타나, 대부분이 학습근로자에서 일반근로자로 전환됨을 알 수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6: 59). 2016년 일학습병행제 운영지원 예산은 총 3,525억 원이었고, 1인당 평균훈련비용은 약 1,816만 원으로 나타났다(국회예산정책처, 2016: 20, 56).

2015년의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수는 약 3천 개였다. 기업 규모는 10~49인의 소규모 기업들이 많다. 업종은 기계분야가 39.3%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전자 14.4%, 정보통신 14.1% 순으로 많았다(국회예산정책처, 2016: 23-26).

<표 IV-21>에 의하면 2015년의 학습근로자는 총 7,672명으로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2배 정도 인원이 증가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16: 68).

특성별 현황을 보면,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20대 미만이 약 25% 정도였다(2015년 약 2천 명 수준). 대졸 이상 학력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더 강해졌다. 고졸 미만은 0.3% 정도였는데 2015년에는 처음으로 고등학교 재학생이 참가하였으며, 검정고시나 학점은행 등으로 학위를 취득한 인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세 미만의 중도탈락율은 34.7%로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높은 편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16: 68).

112) 김종숙 외(2014). 일학습병행제 실태조사, p. 4-9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일학습병행제는 대부분의 학습근로자가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 등의 긍정적 영향이 있으나 목표 수치를 채우기 위해 기업참여 요건이 완화되면서 소규모 기업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학습근로자의 참여요건을 6개월 내 입사자에서 2년 이내 입사자로 확대하면서 기존 재직자의 참여비율이 높아지는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6: vii)

표 IV-21 2014-2015년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 특성별 현황 (단위: 명, %)

유형		2014		2015		중도탈락율 (2016.6.기준)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성	남성	2,701	84.5	6,418	83.7	31.4	
	여성	496	15.5	1,254	16.3	32.5	
연령	20세 미만	819	25.6	1,921	25.0	34.7	
	20~24세	865	27.1	2,021	26.3	33.0	
	25~29세	878	27.5	2,091	27.3	28.9	
	30대 이상	635	19.9	1,639	21.4	30.4	
학력	고등 재학생	0	0.0	974	12.7	-	
	졸업생	고졸 미만	10	0.3	25	0.3	-
		고졸	1,488	46.5	2,651	34.6	33.9
		대졸자 이상	1,575	49.3	4,022	52.4	30.0
	기타(검정고시, 학점은행 등)	124	3.9	0	0.0	27.4	
전 체		3,197	100.0	7,672	100.0	31.6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6). 일학습병행제 성과분석, p. 30, 68(재구성)

주: 중도탈락률은 16년 6월 30일 기준 훈련종료일자 도래 인원 중 중도에 포기한 학습근로자의 비율임.

마. 일-교육·훈련-자격 연계 고졸인력 양성¹¹³⁾

일-교육·훈련-자격 연계 고졸인력 양성 사업은 선정된 3개 특성화 고등학교(양영디지털고, 충남기계공고, 광주공고)에서 기업맞춤형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2013년 3개 특성화고등학교가 선정되어 2016년까지 학교 당 연 7억 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2016년 예산은 17억 원이다(고용노동부, 2015: 55). 선정된 학교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개발된 현장 중심 교육과정을 학교의 기본 교육과정으로 설정하고, 지역산업대, 한국기술대, 폴리텍 등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기반학습과 현장실습 등의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기존의 자격증 취득방식과 달리 교육과 훈련 도중에 학습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평가형

113) 고용노동부 정책 안내: 일-교육·훈련-자격 연계 고졸인력 양성 사업

http://www.moel.go.kr/policyinfo/new/young/view_content12.jsp(검색일: 2016.10.13.)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자격제도¹¹⁴⁾를 통해 국가기술자격 과정에 참여한다. 양영디지털고는 4개 학과 18학급, 충남기계공고는 7개 학과 28학급, 광주공고는 7개 학과 28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¹¹⁵⁾

2015년 말에 시작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자체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유망직종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공동운영기관으로써 총괄운영하고 있으며, 훈련이 종료되면 청년인턴으로 연계하거나 취업, 창업을 지원한다. 2016년 4월 기준 삼성, SK 등 대기업 16개, 한국전력, 석유공사 등 공공기관 17개 기업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업대상은 만 15~34세의 청년 구직자로 직업훈련을 받을 시에는 청년에게 월 2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원하고, 청년인턴으로 연계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 시에는 기업에게는 인턴지원금과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청년에게는 정규직전환 시 취업지원금 최대 300만원을 제공한다. 2016년 예산은 417억 원이다(고용노동부, 2015: 8).

③ 취업지원

가.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는 진단 및 상담, 의욕증진 및 능력개발, 알선에 이르는 취업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2009년도에는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며, 2011년에 취업성공패키지로 관련 사업들이 통합되었다(고용노동부, 2010: 2). 취업성공패키지는 참여대상에 따라 I 유형과 II 유형, 그리고 청년 내일찾기 패키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은 주로 I 유형의 사업 대상이 된다(고용노동부, 2016b: 4).

I 유형은 만 18세~64세 이하의 생계급여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학교 중도탈락, 가출, 폭력, 학대피해 등 제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은

114)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평가를 거쳐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생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2014년 도입됨. 2016년 기준 시행종목은 총 30개임(기계 17, 재료 3, 건설, 전기·전자,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인쇄·목재·가구·공예 각 2개, 화학, 경영·회계·사무 각 1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2016a). 과정평가형자격 운영실태 및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115) 고용노동부 정책 안내: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http://www.moel.go.kr/policyinfo/new/young/view_content13.jsp(검색일: 2016.10.13.)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만 15세~24세도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I 유형에서는 니트족도 참여대상으로 밝히고 있는데, 최근 2년 동안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만 18세~34세 이하의 청년을 니트로 규정하고 대상자 적합도 문답표를 작성하여 기준 점수 이상이면 니트족으로 판정한다.

I 유형은 고용센터가 전담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II 유형은 중위소득 청년층과 중장년층 사업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청년층은 만 18~34세 고졸 이하 비진학 청년, 고교·대학·대학원의 재학생, 대졸 이상 미취업자, 영세자영업자, 고용촉진 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맞춤 특기병이 대상이다. 대학 중퇴자도 고졸이하 비진학자로 간주하여 사업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II 유형은 민간위탁기관 전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I 유형과 II 유형은 1단계(초기상담), 2단계(국가·폴리텍기능사, 내일배움카드 등 훈련 적극연계), 3단계(취업알선 및 직업정보제공), 사후관리(취업알선, 근속유도)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I 유형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취업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전단계가 추가되며 청년내일찾기패키지에는 4단계에 청년층 니즈 파악을 위한 자가진단을 추가하고 있다. 1단계를 수료하면 참여수당으로 최대 2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2단계 과정 중 최대 6개월 간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I 유형의 참여자는 추가로 취업성공 시 취업성공수당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표 IV-22>의 2014~2015년의 연령별 참여자를 보면 19세 이하가 2014년 10,395명(5.4%), 2015년 18,882명(8.4%)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고무적이다.

표 IV-22 2014-2015 연령별·유형별 취업성공패키지 신규참여현황 [단위: 명(%)]

연도	연령별 사례수(비율)			유형별 사례수(비율)			계
	19세 이하	20~29세	30대 이상	I 유형 (저소득)	II 유형 (중장년층)	III 유형 (청년층)	
2014	10,395 (5.4)	73,373 (37.9)	109,621 (56.7)	106,762 (55.2)	18,483 (9.6)	68,144 (35.2)	193,389 (100.0)
2015	18,882 (6.4)	138,339 (47.0)	136,896 (46.6)	136,792 (46.5)	24,469 (8.3)	132,856 (45.2)	294,117 (100.0)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DB(각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연령별 신규참여건수(년누적), <http://statistics.keis.or.kr>에서 2016년 10월 13일 인출.

주: 매년 12월 기준.

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¹¹⁶⁾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미취업 청년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참여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5년에 폐지되었으나 청년실업문제고착화 등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2009년 부활하였다(고용노동부, 2013: 13). 인턴지원대상자는 취업 경력이 12개월 미만인 만 15세~34세 미취업자로, 고교, 대학 재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인턴을 채용한 기업은 월 60만원씩 최대 3개월(180만 원 한도)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1년 이상 근무할 때 청년은 제조업 생산직은 300만 원, 그 외는 180만 원을 지원받으며 기업은 이와 별도로 최대 390만 원을 지원받는다. 2013~2015년 선발된 청년인턴의 연령대를 보면, 대부분이 20대이며 19세 이하의 비율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이다. 2016년 예산으로 청년지원금은 420억 원, 기업지원금은 1,940억 원이다(고용노동부, 2015: 31, 46).

표 IV-23 2013-2015 연령별 청년인턴 신규선발건수(매년 12월 기준) [단위: 명(%)]

연도	사례수 (비율)					중도 탈락율
	전체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세 이상	
2013	44,346 (100.0)	8,038 (18.1)	33,958 (76.6)	2,350 (5.3)	0 (0.0)	29.5
2014	37,023 (100.0)	3,299 (8.9)	30,412 (82.1)	3,312 (8.9)	0 (0.0)	26.0
2015	33,324 (100.0)	2,351 (7.1)	27,855 (83.6)	3,118 (9.4)	0 (0.0)	22.4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DB(각년도). 청년인턴 연령별 신규참여건수(년누적). <http://statistics.keis.or.kr>에서 2016년 10월 13일 인출.

④ 근로보호

근로보호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기보다 모든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서는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감독하고 청소년 근로권익 홍보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여성가족부, 2015a: 331-333),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불법고용행위를 점검하거나 현장 도우미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중재방안을 논의하는 청소년근로보호사업을 제공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326-328).

학교 밖 청소년은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청소년의 근로가 집중된 사업장에 대한 근로보호대책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사업을 정리하면 <표 IV-24>와 같다.

116) 고용노동부 정책 안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http://www.moel.go.kr/policyinfo/new/young/view_content02.jsp (검색일: 2016.10.13.)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표 IV-24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정책 현황

지원 분류	정책과제	시작 년도	정책대상	정책내용		청소년이 받는 혜택		2015년 수혜인원		2016 예산 (단위:백만원)	10년 예산* (단위:백만원)	
				훈련기간 및 내용	훈련분야	경제적	비경제적	청소년 수 (20세미만)	청소년 수혜율*			
직업 훈련	취업사관학교	2011	만 15세 이상 24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	6개월 700시간 이상 직업훈련	기계, 미용 등 8개 프로그램	자립장려금 월 30만원	-	155	155 ⁵⁾	2,930	18.9	
				최대 1년 (일반직종) 직업훈련	경영, 미용, 보간·의료 등 23개 분야	직업훈련비 50~80% 지원 (최대 200만원)	-	197,640	8,805	4.4		
	내일배움 카드제	2011	만 15세 이상 실업자(비진학 고3출연예정자포함)	3~12개월, 350시간이상 (국가기간· 진학선임) 직업훈련	기계, 건설, 전기전자 등 114개 직종	훈련장려금 월 31만6천원	-	74,207	7,055	9.5	494,923	1.8
				국가기간 · 진학선임 직종훈련								
일학습병행제	2014	제한 없음		6개월~4년 직업훈련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재료 등 3,688개 기업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4대 보험 등 근로자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해당기업취업 + 자격취득 (자격형), 또는 학점취득 (자격/학위형)	7,672	1,921	352,500	45.9	
일·교육·훈련- 자격 연계 고졸인력 양성	2013	3개 특성화고등학교 (양양다지탈고, 춘남기계공고, 광주공고)		기업맞춤형 진공 및 심화학습	3개교 18개학과 (다지탈 기계 등)	-	-	-	-	1,795	-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2015	만 15세~34세 청년 (학력무관)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 서의 직업훈련	대기업 16개, 공공기관 17개 총 33개 기관	월 20만원 훈련수당 + 취업지원금 최대 300만원	필요시 해당기업 청년인턴 연계	-	-	41,700	-	

지원 분류	정책과제	시작 년도	정책대상	정책내용	청소년이 받는 혜택		2015년 수혜인원		2016 예산 (단위: 백만원)	1인당 예산 ⁶⁾ (단위: 백만원)
					경제적	비경제적	전체	청소년 수 (20세미만)		
취업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2011	유형: 저소득층 만 18~64세 (우기청소년은 만 15세부터 가능)	2~10주 초기상담, 약 12개월 취업지원 (전체 4단계) ※ 고용센터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생계급여수급자는 취업가능성 판단을 위한 2주의 사전단계를 가침	1단계 25만원 +	비경제적	136,792	18,882	116,800	0.9
					2단계 월 40만원 (최대 6개월)과 훈련비 (최대 300만원)					
					취업성공수당 100만원					
취업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2011	II 유형: 중위소득 100% 이하 장년층 (만 35~64세) 청년내일찾기패키지: 청년층 (만 18~34세, 소득무관)	3~4주 초기상담, 12개월 취업지원 (전체 4단계) 자기진단, 4주 초기상담, 18개월 취업지원 (전체 5단계)	1단계 20만원 +	-	24,469	6.4 ⁶⁾	45,900	1.9
					2단계 월 40만원 (최대 6개월)과 훈련비 (10~30% 자부담)					
					장규직 전환 후 1년 이상 근무 시 생산직 300만원 그 외 180만원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2009	취업경력 12개월 미만 15세 ~ 34세 미취업청년	기업에서의 인턴기회 제공		해당기업 취업(인턴)	33,324	2,351	14,700	7.1 (1.3) ⁷⁾

주 1) 내일배움카드제는 실업자 대상과 재직자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실업자 대상 사업만을 제시함.

2)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은 2015년 신규 사업으로 현황자료가 없어 기재하지 않음.

3) 청소년수혜율 = 20세 미만 청소년 수 / 2015년 수혜인원 수

4) 1인당 예산 = 전체 수혜인원 / 2016년 예산

5) 취업사관학교 수혜인원은 만 15세~24세임.

6) 취업성공패키지의 청소년수혜율은 유형별 연령 데이터가 없어 전체 20세 미만 청소년 수/전체 수혜인원(N=294,117)으로 계산함.

7)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의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수혜인원 / 청년예산임.

8)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 예산 출처: 고용노동부(2015). 2016회계연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p.58.

<표 IV-24>에 의하면 고용노동부가 학교 밖 청소년에 초점을 두고 시행하는 정책은 취업사관학교이다. 2011년 3개소에서 2016년 8개소로 확대되었지만 총 정원이 150명 수준으로 미미하다. 1인당 투입비용은 연간 약 1,900만 원이다. 위탁교육기관 교육비 연간 약 30만 원에 비하면 상당한 비용이다. 이러한 사업이 청소년에게 외면당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산규모로 볼 때 고용노동부의 중점사업은 내일배움카드제와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일학습병행제, 취업성공패키지이다. 10대 참여율이 높은 것은 일학습병행제(25.0%),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9.5%), 취업성공패키지(6.4%), 내일배움카드제(4.4%) 순이다. 일·교육·훈련·자격연계 고졸인력 양성은 특성화고등학교와 연계한 사업이기 때문에 모두 10대 청소년일 것이고 고용디딤돌은 2016년 신규 사업으로 아직 결과가 없다. 직업훈련 실제 참여자 수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7천여 명), 내일배움카드제(9천여 명), 일학습병행제(2천여 명)을 합쳐 1만 8천명이며 취업성공패키지(1만 9천명), 중소기업청년인턴제(2천명)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2만 1천명이 참여하고 있다. 각 사업의 고졸 미만 학력자의 수를 볼 때 내일배움카드제가 49%,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2.5%, 일학습병행제는 0.3%로 매우 적다.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적음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1인당 투입비용으로 볼 때 일학습병행제는 연간 4천 6백만 원 수준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참여자는 근로자에 준하는 급여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국가자격, 또는 대학과 연계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어 경제적·비경제적 혜택이 큰 사업이다. 2015년 기준 고졸미만의 참여비율은 0.3%지만 고교 재학생의 참여 비율은 12.7%이다. 많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의 학습근로자 모집 시 관련 정보가 청소년에게 원활히 소통되도록 함과 동시에 고졸미만 학력자에 대한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훈련과 더불어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혜택은 20~30만 원 수준인데 내일배움카드제는 200만 원 한도 내의 훈련비 외에 별 다른 경제적 지원은 없고 훈련비 일부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어서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저소득계층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장벽이 된다. 이 프로그램의 촉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저소득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훈련비 및 수당의 보존이 필요하다. 고용디딤돌 사업의 경우, 수당과 더불어 취업지원금, 대기업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게 얼마나 기회가 주어질지 확신하기 어렵다.

청소년들은 직업훈련보다 당장 취업을 통해 소득을 얻기를 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살펴보면 10대 청소년 참여자는 약 1만 9천명이다. 이 중 학교

학교 밖 청소년 참여자 수에 대한 통계는 없다. 학교 밖 청소년이 주로 참여하는 취업성공패키지I의 취(창)업률은 2015년 기준 30.3%로 취업사관학교(79%)에 비해 대단히 낮다(고용노동부, 2015; 백혜정, 송미경, 2015: 60에서 재인용).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 무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I 유형은 고용센터가 전담·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위기·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발굴과 지도 경험이 부족한 고용센터 인력이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비롯한 청소년기관에서 본 사업을 위탁하는 민간위탁방식을 확대하거나 고용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업을 펼치도록 학교 밖 청소년 비율, 10대 청소년 참여비율 등을 고용센터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고용센터 인력을 연수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중소기업 인턴 기회를 늘려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는 정책인데 10대 취업률이 감소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이 사업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실제적인 수혜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기회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취업지원체계가 취약하다.

(3) 무업형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 현황

무업형 청소년 중에는 집 밖으로 나와 할 일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과 집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청소년들이 있다. 가출·비행형 청소년의 경우, 야간에 친구들과 어울리며 돌아다니다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이 거리에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점 공간과 주거 지원, 이들에게 맞는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집단으로 효과적인 발굴대책과 무기력을 극복하고 삶에 대한 동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정신보건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① 가출·비행형 학교 밖 청소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쉼터 사업은 가출 청소년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일시쉼터는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 발굴하기 위한 아웃리치와 거리 상담 사업, 숙박 제공과 기본적인 생활 및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차량에 설비를 장착하고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이동해 다니며 24시간 이내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이동형 쉼터와 고정 공간을 확보하고 7일 이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고정형 쉼터가 있다. 3~9개월 이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기쉼터,

3년 이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중장기쉼터는 주거 지원과 더불어 청소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a: 654-655).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에 119개의 쉼터(일시 28, 단기 51, 중장기 4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여성가족부, 2016a: 676) 쉼터 이용자수는 22,676명이다(청소년쉼터 행정지원시스템, 2014; 백혜정, 좌동훈, 남기곤, 정경석, 2015: 30에서 재인용). 쉼터 이용 청소년의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은 약 43%로 조사되었다(백혜정 외, 2015: 67). 주거가 안정되지 않고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 중 학업중단율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윤철경 외(2013~2015)의 연구결과, 무업형 청소년과 비행형 청소년 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설문조사에 응한 본 연구 패널의 속성 상 은둔형이기보다 가출·비행, 또는 배회형 청소년에 더 가깝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출·비행 청소년 대책으로는 이들이 거리에 오래 방치되지 않도록 조기 발굴과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위해 유관기관(경찰, 지자체, 학교 밖 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협업체계 및 핫라인(비상연락망)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a: 16-17).

서울시에서는 학교이탈 전·후 위기청소년에 대한 발굴체계를 다양화하기 위해 2015년에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경찰의 순찰·사건 현장에서의 개입·지원 사업은 지역경찰과 학교전담경찰관이 유해환경, 청소년 고용업소 등을 순찰하거나 112신고 혹은 실종아동 등의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위기청소년을 발견하면 1388 상담 또는 학교 밖 지원센터에 연계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개입 및 지원 후 조치결과는 경찰청으로 환류하여 사례관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있다(서울특별시 평생교육정책관, 2015.5).

②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가장 발굴하기 어렵고 변화시키기 어려운 집단이 은둔형 청소년이다. 특정 사업의 데이터로 빈곤계층(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10대 은둔형 청소년의 비율이 4.8%로 도출되고 있다(중앙자활센터, 2015: 12). 학령기 기초생활수급자(6세~19세) 수는 435,531명이다(보건복지부, 2016: 19). 기초생활수급자 중 20,905명이 산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학령기 청소년 수만 추정 한 숫자이기엔 최소치이지만 적지 않은 수이다. 보건복지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교육부의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향후 은둔형 청소년의 발굴이 보다 체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은둔형 청소년이 발굴된다 해도 이들의 은둔 기간과 은둔 사유 등에 따라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임상사례에 따른 대응과 치료 대책이 입안되지 되지 못하고 있다.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정책으로 방문상담이 가능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동반자', 지방자치단체의 '심리치료 지원사업'을 살펴보았다.

가. 발굴: 보건복지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문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위기가구를 직접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4개소를 시범사업지역으로 하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함으로써 은둔형 생활자 등 다양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사례가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4.9.10.). 이러한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2016년 말까지 총 933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될 것이며, 2018년에는 모든 읍면동에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업무에 대한 지역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표준 업무 매뉴얼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고취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2016.5.31.).

나. 발굴: 교육부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사업

2016년에 시작된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 대응 사업은 아동학대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이나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둔형 청소년을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사업은 특별한 사유 없이 결석하는 초·중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의 결석이 1~2일인 경우 유선연락, 3~5일은 가정방문, 6~8일은 보호자 학생 면담, 9일 이후에는 월 1회 이상 출석을 독려하고 소재 확인을 실시한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부처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6년 2월에 지침을 담은 관련 매뉴얼을 학교 현장에 배포했으며(교육부, 2016)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교육부, 2016.3.18.).

다. 상담지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은 청소년 동반자가 위기청소년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심리적, 정서적 지지와 함께 지역사회 자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만 9~24세의 중·고위험군 청소년이며, 그 중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16b:

572-574). 그러나 청소년이 직접 신청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둔형 청소년의 발굴에는 한계가 있다.

2015년 기준 청소년동반자 수는 1,044명(여성가족부, 2016a: 364)으로 2008년 407명에서 꾸준히 확대되어 왔고 수혜 청소년 수도 확대되어 오는 추세이다.

표 IV-25 2008-2015 청소년동반자 및 수혜 청소년 수 (단위: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청소년동반자 수	470	1,270 (추경 800명)	880	880	980	985	1,000	1,044
수혜 청소년 수	14,510	24,515	25,675	26,324	31,226	31,190	33,471	-

출처 1) 여성가족부(2015b). 2015 청소년 백서. p. 197. (2008~2014)

2) 여성가족부(2016a). 2016년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p. 364. (2015)

라. 발굴과 지원: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 지원

울산의 중구보건소와 정신건강지원센터가 2015년부터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건소에서 관내 PC방과 음식점 등 100곳에 자살예방 및 은둔형 외톨이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조직인 통정회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한 후, 정신보건전문요원이 1대1 가정방문 심리상담 등의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한다(중앙일보, 2015.25). 울산 중구보건소에 따르면 2015년도에 발굴된 은둔형 외톨이는 총 8명으로 20대 3명, 30대 1명, 40대 1명, 50대 2명, 60대 1명이었고 10대는 없었다. 은둔형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으로 2016년도에는 발굴은 하지 않고 지난 해 발굴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지속하고 있다(울산 중구보건소, 2016).

<표 IV-26>은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예산을 정리한 것이다. 예산규모로 볼 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쉼터, 청소년 동반자 순으로 사업규모가 크며 1인(또는 건)당 수혜액으로 볼 때는 한부모 교육비 지원이 가장 많아 1인당 1백 10만 원이었고 청소년 동반자는 1건당 수혜액이 1만 원이었다. 나머지 사업은 1인당 20만 원에서 50만 원이었다. 교육부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사업과는 1인당 연간 수혜액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고용노동부 사업과는 큰 차이가 났다. 고용노동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

표 IV-26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예산 현황

사업명	2015년 수혜 현황	2016년 예산 (단위: 백만원)	1명(건) 당 예산 (단위: 백만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33,718명	14,920	0.4
청소년 특별지원	6,456건	1,415	0.2
청소년 한부모 교육비 지원	2,096가구 ¹⁾	2,276	1.1
청소년 쉼터	23,928명 ¹⁾	12,666	0.5
청소년 동반자	752,260건	7,449	0.01

출처 1) 여성가족부(2014), 2014년도 성과보고서, p. 21. (청소년 쉼터 수혜현황)

2) 여성가족부(2015c),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참고자료, p. 279 (청소년 한부모 교육비 지원 수혜현황)

3) 여성가족부(2016a) 2016년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p. 25(학교 밖 청소년 수혜현황), 363(청소년 동반자 예산, 수혜현황), 469(한부모 교육비 지원 예산), 470(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예산), 482(청소년 쉼터 예산), 508(특별지원 예산, 수혜현황).

주 1) 청소년 한부모 교육비 지원 이용 가구 수와 청소년 쉼터 이용자 수는 2014년도 기준임.

3. 국외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1) 학업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업지원 프로그램(미국 연방정부)

미국 교육부가 실시하는 TRIO 프로그램¹¹⁷⁾은 8개의 다양한 하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만 13세~19세 저소득 청소년에게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진학을 위한 지원을 해 주는 Upward Bound,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돕는 Talent Search, 취약계층 고등학생의 대학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Student Support Services(SSS)가 있다. Upward Bound는 저소득층이거나 부모 모두 학사학위가 없는 고등학생에게 튜터링, 상담, 멘토링, 일-공부 프로그램,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Upward Bound는 반드시 수학, 실험과학, 작곡, 문학, 외국어에 대한 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여름에 집중적으로 수학과 과학 훈련을 실시하는 Upward Bound Math and Science도 있다.

117) U.S. Department of Education: Federal TRIO Programs <http://www2.ed.gov/about/offices/list/ope/trio/index.html> (검색일: 2016.7.25.)를 요약·정리하였다.

Talent Search는 학업적, 직업적, 재정적 상담을 지원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 진학을 격려하는 한편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한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튜터링 서비스와 직업 체험, 적성검사, 상담, 멘토링, 워크샵, 고등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SSS는 취약계층의 대학진학을 동기화하며 대학 진학 및 졸업률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학업지원을 위한 튜터링, 장학금과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개별 상담 등이 제공된다.

(2) 대안교육 프로그램(미국 주 정부, 영국)

미국 캘리포니아 주¹¹⁸⁾에서는 공동체 학교(Community Schools), 계속학교(Continuation Schools), 자기주도학습(Independent Study) 등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승현, 박학모, 김성기, 2014: 67). 공동체 학교에서는 취학 전 아동부터 12학년까지의 퇴학당한 청소년이나 행동 혹은 출석 문제로 인해 의뢰된 청소년, 가출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학업과 생활 기술을 가르치며, 하루 최소 240분의 교육이 실시된다. 계속학교는 16~18세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지도와 직업 상담을 실시하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이며, 계속학교의 학생들은 1주일에 적어도 15시간 혹은 하루에 3시간은 학교에 출석해야 한다. 자기주도학습에서는 학생이 교사에게 지도를 받지만 다른 학생들처럼 매일 수업을 듣지는 않으며,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모든 학구에서 실시되는 것은 아니며 이 학생들도 다른 학생들이 듣는 정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자기주도학습에는 홈스쿨링, 온라인 강좌, 차터스쿨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영국에서는 평생교육기관(CFEs: Colleges of Further Education), 사립대안교육제공기관(IAPs: Independent Alternative Providers), 자유학교(Free School) 등 다양한 형태로 대안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이승현 외, 2014: 163). 평생교육기관은 16세 이상의 학생들을 위해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대부분 수학 및 영어와 같은 기본적인 과목과 직업 관련 과목을 개설하며, 시간제 수업이 대부분이다. 16세 이하의 학생들의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직업교육 중점 평생교육기관이 일정한 요건(재학생의 80% 이상이 16~19세)을 충족하면 대학준비과정학교 전환을 허용하고 있다(장익현, 2016: 214). 자유학교¹¹⁹⁾는 정부로부터 기금지원을 받으나 보다

118)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Specialized Programs—Educational Options <http://www.cde.ca.gov/sp/eo/cc/> (검색일: 2016.7.25.)를 요약·정리하였다.

119) Childcare and parenting: Schools and education—Free schools <https://www.gov.uk/types-of-school/free-schools> (검색일: 2016.7.25.)를 요약·정리하였다.

자율적인 새로운 사립학교로서 학기와 하루 일과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주로 교회, 대학 등이 운영하고 있다. 기술과 건설에 특화된 기술 대학(University technical colleges)과 소규모 학교인 실질적인 기술과 경험 등을 제공하는 공립중등학교 모델로 스튜디오 스쿨(studio school) 등이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동향·데이터분석센터, 2012: 250).

(3) 학교복귀 프로그램(미국, 영국, 일본)

미국의 학교 밖 청소년 학교복귀기관으로 Re-Engagement Center가 있다. 2013년 현재 시카고에 2개, 볼티모어에 2개 등 전국에 20개 정도가 있다. 이 센터에서는 학습에 관련한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자유로이 레크리에이션, Workshop, 검정고시 준비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가기에 안전한 장소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¹²⁰).

지역에 따라서는 아웃리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메사추세츠 주에서는 보스톤의 공립학교에 Re-Engagement Center를 설립하여 아웃리치, 교육지원 등 다양한 학업복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아웃리치 사업은 보스톤 공립학교를 중단한 학생들의 리스트를 받아 전화, 편지 등의 방법으로 학생이 학교로 복귀하도록 장려하는 사업이다.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은 직접 Re-Engagement Center에 방문하도록 초대한다. 인테이크 시에는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비디오를 보여주고, 멘토와 연결을 해 주는 등 학업복귀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Rennie Center for Education Research & Policy, 2012: 6).

또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학업성적, 개인적인 환경과 자신의 선호에 따라 적절한 학교 혹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저녁 주 2회 수업을 듣는 야간학교(Twilight School), 1주일에 5일, 섬머스쿨(Summer Review), 온라인 수업을 통한 보충 등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을 제공하고 있다(Rennie Center for Education Research & Policy, 2012: 8).

영국은 지방교육청에서 학생복귀위탁기관(PRUs: Pupil Referral Units)을 운영한다. 교육청에 따라 NGO 등 다른 기관에 위탁하기도 하는데 2014년 기준으로 421개 학생복귀위탁기관이 있다(이승현 외, 2014: 153). 학생복귀위탁기관은 퇴학생뿐만 아니라 질병을 앓고 있는 청소년, 미혼모 청소년, 장애청소년 등 다양한 위기 청소년을 대상이 재적응 과정을 거쳐 학교로 돌아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생들은 주당 최소 5시간의 수업을 참석해야 하며, 전체 학교 커리큘럼은

120) 윤철경, 2013, 시카고 교육청 면담자료.

아니지만 영어, 수학, 과학, IT 등 학교교육과정의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다.

일본의 학교복귀프로그램은 초·중학교 부등교학생과 고등학교 중퇴자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부과학성의 부등교에 대한 주요 시책(121)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에서는 교육지원센터(적응지도교실)를 정비하고 있다. 이는 교육위원회가 배치·운영하는 센터로, 부등교아동의 학습 의욕과 자립심을 성취하고 학교복귀를 지원 하는 곳이다. 상담과 적응지도, 교과목 지도, 보호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한다. 상담 및 적응지도가 가능한 지도원을 아동 10명 당 2명 정도씩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122). 또한 학교 외 지역사회기관(교육지원센터, 민간시설 등)에서 지도를 받을 수도 있는 데 이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장이 학교생활기록부 상 출석을 인정해주고 있다. 부등교로 인해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중학교 졸업자격 인정시험을 확대하고 있다. 고등학교 중퇴자가 복교를 희망할 경우 교육위원회에서는 편입학 기회 제공 및 학생·학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원활하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고등학교 중퇴자의 2할 이상이 대학진학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문부과학성에서 고등학교 졸업 인정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민간차원의 부등교 학생 복귀사업도 활발하다. 사단법인 부등교지원센터는 전국에 1개 본부와 7개 지부를 운영하며 부등교 학생과 부모를 지원하고 있다. 카운슬링, 학교 복귀를 위한 학업지원을 실시하며 각 지부별 학부모 세미나도 개최한다. 발달장애 부등교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민간기관의 경우, 기본 상담은 무료로 실시하나 학업지원과 발달장애 지원 프로그램은 유료로 실시하고 있다(123).

2)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정책 사례

(1) 직업훈련정책(미국)

① 견습생 제도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미국과 영국은 견습생 제도를 활용하고

121) 문부과학성의 부등교에 대한 주요 시책 http://www.mext.go.jp/a_menu/shotou/futoukou/03070701/004.pdf (검색일: 2016.7.25.)을 요약·정리하였다.

122) 문부과학성의 교육지원센터(적응지도교실) 정비지침 (시안)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3/siryo/06042105/001/006/001.html (검색일: 2016.7.25.)를 요약·정리하였다.

123) 일반사단법인 부등교지원센터 <https://www.futoukou119.or.jp/> (검색일: 2016.6.27.)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있다. 미국 연방정부가 실시하는 Registered Apprenticeship¹²⁴⁾은 고숙련 노동자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다. 훈련과정은 OJT 교육, 교실수업, 멘토에 의한 도제 작업과 수업지도, 도제 보수 등을 포함하는 양질의 훈련으로 구성된다. 16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건설, 제조업, 정보통신 및 네트워크, 서비스/유통,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분야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다. 훈련기간은 다양하나 평균 4년 정도이다. 예산은 연방정부와 기업이 분담하는데 연방정부는 도제과정의 운영 및 관리비용을, 사업주는 훈련비용을 부담한다(이승렬 외, 2010: 116-117).

영국 역시 최근 견습생 제도(Apprenticeship)를 강화하고 있다(장익현, 2016: 210). 25세 이하의 견습생을 고용하면 고용주가 부담하는 국가보험 비용을 면제해주는 동시에 견습생 1인당 1,500파운드(약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장익현, 2016: 212).

② 건설현장에서의 직업훈련

Youth Build USA¹²⁵⁾는 16~24세의 저소득 학교중퇴자에게 학력 취득을 위한 교육 서비스와 건설현장에서의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이들은 노숙자들과 저소득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주거공간, 학교, 놀이공원, 지역센터 등) 건설에 참여한다. 지역사회의 멘토나 청년의회와의 연결되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한다. Youth Build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93%가 고교 학업중퇴자여서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교 진학을 위한 교육서비스도 제공한다. 46개 주·260개의 기관에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 재원은 주로 미국노동부가 부담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나 대학 및 공공기관이 지원하기도 한다.

(2) 직업능력개발정책 (미국, 영국)

① 미국의 Job Corps

직업능력개발은 한 직종에 특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직업기술 훈련이 아닌, 학업, 직업기술, 자립생활 서비스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직업발달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1964년부터 시작된 Job Corps¹²⁶⁾는 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에서 실시하는

124) U.S. Department of Labor: Apprenticeship <https://www.dol.gov/general/topic/training/apprenticeship> (검색일: 2016.8.4.)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125) Youth Build USA 홈페이지 <https://www.youthbuild.org/> (검색일: 2016.8.5.)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126) Job Corps <http://www.jobcorps.gov/> (검색일: 2016.8.5.)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무상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학업중단·저소득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16~24세)을 대상으로 학업, 직업기술, 자립생활 서비스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직업발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업복귀를 위한 GED프로그램도 제공하며, 상담, 건강, 거주 등 다양한 방면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Job Corps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CDSS(Career Development Services System)이라는 프로그램을 2001년에 도입하였다. CDSS는 Outreach and Admissions (OA), Career Preparation Period(CPP), Career Development Period(CDP), Career Transition Period(CTP)로 구성된 4단계 프로그램이다. OA는 청소년의 발달 관련된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학생과 상담을 진행한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CCDS의 체계에 대해서 알게 되며,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게 된다. CPP 단계에서 학생들은 Job Corps 센터에서의 생활에 대해 알게 되며, 직장에서의 관계와 윤리, 의사소통, 문제해결방법 등 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 개개인에 맞춘 직업계획을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게 세울 수 있다. CDP 기간 동안에 학생들은 학업과 기술을 습득하며, 고용가능성과 자립생활기술을 발달시켜 간다. 또한 고등학교 중퇴자를 위해서 GED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마지막 단계인 CTP는 CDSS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서, 모든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21개월까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 체제이다. 이 단계에서는 이전까지 받은 교육보다 더 높은 차원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거나, 거주지를 찾아주는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U.S. Department of Labor, 2009: 27). Job Corps의 2008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이용자의 69%가 10대였고, 71.4%는 고등학교 중퇴자였으며 대부분 기초적인 읽기 수준이나 수학 수준이 낮은 편이었다(U.S. Department of Labor, 2009: 10).

② 미국의 WIA Youth Program

미국의 WIA Youth Program¹²⁷⁾은 Workforce Investment Act of 1998에 의해 실시되는 프로그램으로, 학업중단, 가출, 미혼부모 등 14~21세의 취약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교육과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19~21세의 경우에는 취업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이승렬 외, 2010: 120). 주로 튜터링, 대안교육 제공, 하계취업기회제공, 직업경험 제공, 직업훈련, 리더십 발달, 멘토링,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27) U.S. Department of Labor: WIA Youth Formula Funded Program

https://www.doleta.gov/youth_services/wiaformula.cfm (검색일: 2016.8.5.)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③ 영국의 워크 프로그램

영국의 워크프로그램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2011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다(정연순 외, 2013: 200). 최대 2년간 실시되며, 2년이 경과하면 잡센터플러스에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면담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JSA의 3개월 이상 수혜자이거나 ESA를 받고 있으면서 Work-Related Activity Group에 속해 있으면 가능하다¹²⁸⁾. 워크프로그램에서는 대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취업집중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적응 훈련, 신체 및 심리건강 수준 고취, 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한다(정연순 외, 2013: 201).

④ 영국의 근로경험제

근로경험제는 16~24세의 청년 니트에게 2~8주 정도의 직업경험을 제공하며, 구직수당과 교통비 등의 실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근로경험은 고용센터(Jobcentre Plus)에서 연계한 업체에서 쌓으며 기간이 끝나면 견습직으로 전환하여 4주간 근무가 가능하다(정연순 외, 2013: 201).

미국과 영국의 직업능력개발정책을 정리하면 <표 IV-27>과 같다.

128) JSA와 ESA 관련 설명은 <표 V-28> 참조.

표 IV-27 직업능력개발정책사례(미국, 영국)

국가	프로그램 명	주요 목적 및 내용
미국	Job Cor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 사업대상: 학업중단·저소득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16~24세) - 내용: Career Development Services System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utreach and Admissions: 상담자와의 개별면담을 통한 인테이크 ○ Career Preparation Period: 업무용 스킬 습득 및 직업계획 작성 ○ Career Development Period: 실제 학업과 기술 습득 기간 ○ Career Transition Period: 사후관리체제
	WIA Youth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 취업서비스 제공 - 사업대상: 학업중단, 가출, 미혼부모 등 14~21세의 취약 저소득 청년층 - 내용: 튜터링, 대안교육 제공, 하계취업기회제공, 직업경험 제공, 직업훈련, 리더십 발달, 멘토링, 상담 등
영국	워크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맞춤형 고용 서비스 - 사업대상: JSA수혜자, ESA의 Work-related Activity Group - 내용: 취업집중서비스, 사회적응 훈련, 신체 및 심리건강 수준 고취, 생활지원서비스 등 - 사업기간: 최대 2년
	근로경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16~24세의 청년 니트 - 내용: 2~8주의 직업경험 제공, 기간 만료 후 견습직 전환하여 4주간 근무 가능

(3) 취업지원정책(영국, 일본)

① 일본의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¹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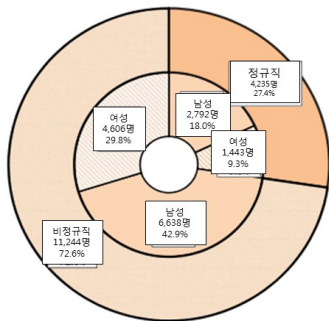
일본의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은 청년 니트를 위한 취업 연계서비스가 목적이다. 일도 학업도 하고 있지 않은 15~39세의 청년 니트를 대상으로 커리어 컨설턴트 등의 전문적인 상담, 커뮤니케이션 훈련 등에 따른 스텝업(Step up), 협력기업에의 직장체험 등에 의한 취업지원을 실시한다. 운영주체는 전국의 청년지원의 실적이나 노하우가 있는 NPO 법인, 주식회사 등이 있으며, 후생노동성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에 160개 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129) 후생노동성: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이란?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shokugyououryoku/for_worker/ys-station/index.html (검색일: 2016.7.22)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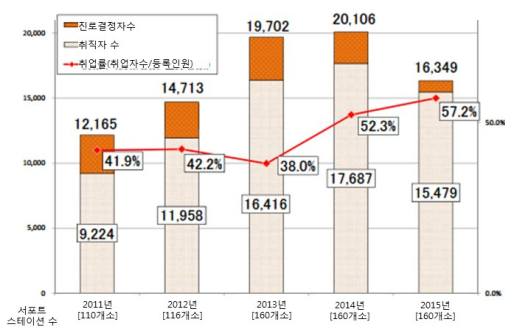
사업내용은 주로 3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상담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서도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나 커리어 컨설팅 등 전문적인 상담, 고등학교 중퇴자의 욕구에 따른 아웃리치형 상담, 각종 세미나를 통한 계발, 기타 청년지원기관과의 연계 등을 제공한다. 두 번째는 정착·스텝업 사업으로, 서포트스테이션 졸업자를 대상으로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직장정착상담 또는 보다 안정된 고용을 위한 스텝업 상담을 실시하며, 졸업자 간담회도 실시한다. 세 번째는 집중훈련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은 일부 서포트스테이션만이 실시한다. 합숙형 프로그램으로써 직장체험실습, 자격취득지원, 취직활동을 위한 기초지식 취득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무료이며, 취업알선은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취업지원기관(헬로워크, 잡카페 등), 교육기관(고등학교, 교육위원회 등), 보호·복지기관(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정신보건복지센터, 복지사무소 등), 행정기관(지자체의 청년자립지원 담당부서 등), 지역사회(자치회 등), NPO법인 등 다양한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예산 규모는 서포트스테이션마다 다른데, 정부 지원만 받는 곳이 있으며 정부 지원과 지자체의 지원을 모두 받는 곳도 있다.

【그림 IV-5】는 2015년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의 실적보고 자료이다. 이에 따르면 등록자는 27,046명이었으며, 실제 취직을 한 사람은 15,479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정규직 취업자 수는 취업자의 27.4%인 4,235명이며, 11,244명(72.6%)은 비정규직으로 취직하였다. 최근 5년간의 취업률을 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하락 추세에 있었으나 2013년을 기준으로 2014년에는 14.3%p, 2015년에는 19.3%p 상승하여 3년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취업 현황



○ 실적 추이



※ 2015년도에는 취업자의 기준을 고용보험피보험자로 한정함

【그림 IV-5】 2015년도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 사업실적

출처: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의 2015년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 사업실적

<http://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800000-Shokugyounouryokukaihatsukyoku/h27jisseki.pdf> (검색일: 2016.7.22.)를 번역함

② 일본의 헬로워크와 잡카페

일본의 청년 헬로워크는 공공직업안정소인 헬로워크 내의 기관으로써 정규고용을 지원 하는 거점기관이다. 2015년 4월 1일 기준으로 전국에 2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청년 헬로워크에는 청년 지원코너, 청년지원창구 등이 설치되어 청년 취업지원을 전담하고 있다. 주로 구직자의 희망을 반영한 취직계획 작성, 개별 취직상담, 구직자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잡카페는 청년에게 직업상담, 직업소개, 각종 세미나 등을 실시하는 청년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센터이다. 2015년 4월 기준 46개 도도부현에 설치되어 있다. 잡카페에서는 도도부현의 요청에 따라 헬로워크를 병설하기도 한다(内閣府, 2016: 61).

③ 일본의 청년고용 촉진수당

일본의 후생노동성에서는 청년고용촉진법(若年者雇用促進法)에 근거하여 청년을 고용한 고용주에게 지원금(시범고용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¹³⁰⁾. 고용주에게 1인 당 최대 3개월 간 최대 4만 엔(약 43만 원)을 지원하며, 청년대상자가 35세 미만이거나 미혼부모일 경우에는 1인 당 5만 엔(약 54만 원)을 지원한다.

④ 영국의 구직자,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영국은 18세 이상 구직 중인 학교 밖 청소년과 장애인 및 질병으로 실직상태인 학교 밖 청소년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다(<표 IV-28> 참조).

Jobseeker's Allowance(JSA)¹³¹⁾는 일종의 구직수당으로써, 18세 이상이며(16, 17세의 경우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음) 전일제 학교에 다니지 않고 1주일에 16시간 이하로 일하고 있거나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다. 최대 3년간 18~24세에게는 1주일에 최대 57.90파운드(약 8만 원), 25세 이상에게는 73.10파운드(약 10만 원)를 제공하며 둘이 모두 18세 이상인 커플에게는 최대 114.85파운드(약 16만 원)가 제공된다.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ESA)¹³²⁾는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어 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수당이다.

130) 후생노동성: 시범고용장학금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koyou/kyufukin/trial_koyou.html (검색일: 2016.8.10.)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131) Jobseeker's Allowance (JSA) <https://www.gov.uk/jobseekers-allowance/overview> (검색일: 2016.8.10.)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132)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ESA) <https://www.gov.uk/employment-support-allowance> (검색일: 2016.8.10.)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이 제도는 JSA와 다르게 일하고 있거나 학교에 다녀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나 질병의 정도가 근로능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평가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미 JSA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평가를 통해 일 할 가능성이 있는 Work-related Activity Group과 일할 능력이 없는 Support Group으로 구분되며, Work-related Activity Group은 1주일 당 102.15파운드(약 14만 원)를 받을 수 있고 Support Group은 109.30파운드(약 15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질병이나 장애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표 IV-28 **영국의 구직 및 실업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정책사례**

프로그램 명	주요 목적 및 내용
Jobseeker's Allow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종의 구직수당의 성격을 가짐 - 사업대상: 18세 이상이며, 전일제 학교에 다니지 않고 1주일에 16시간 이하로 일하고 있거나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 - 수당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24세: 57.90파운드/1주일 ○ 25세 이상 : 73.10파운드/1주일 - 지급기간: 최대 3년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환자 및 장애인을 위한 구직지원수당 - 사업대상: 질병 및 장애로 일할 수 없는 사람 - 수당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24세: 57.90파운드 X 13주 ○ 25세~ : 73.10파운드 X 13주 ○ Work-related Activity Group: 102.15파운드/1주일 ○ Support Group: 109.30파운드/1주일

3) 무업형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사례

(1) 가출·비행형 청소년을 위한 정책 사례

① 미국

연방정부는 1974년에 제정된 가출·거리 청소년법을 제정한 이래 지속적으로 확대, 개정해 오면서 The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of 2013, The Runaway and Homeless Youth and Trafficking Prevention of 2014를 개정하였다. 미국 보건부 산하의 가족·청소년 서비스국

(Family & Youth Services Bureau)은 가출 청소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길거리 아웃리치 프로그램(Street Outreach Program)과 더불어 기초적인 생활 및 주거안정, 학업지원, 건강 및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다.¹³³⁾

비영리 단체로는 1999년도부터 시작된 필라델피아 유스 네트워크(Philadelphia Youth Network)가 있다¹³⁴⁾. 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자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전경숙, 이아름, 2013: 66). 이들은 크게 4가지 모델을 갖고 있는데, 학교를 다니고 있는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모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모델, 하계직업경험 모델, 파일럿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이 중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모델을 주로 살펴보자면, 첫째, 고등학교 학력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GED 시험을 위한 자원이다. 또한 대학교에서의 적응을 위해 대학 준비 강좌를 실시하기도 한다. 둘째, 고등학교 학력취득자를 위한 사업으로써 필라델피아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에서 참여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E3 Power Center은 자립, 교육, 직업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지역사회 기반 통합 프로그램으로 대상은 16~21세의 학교 밖 청소년이나 소년원을 출소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Education), 고용(Employment), 역량강화(Empowerment) 3개의 영역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교육 영역에서는 학업 성취를 위해 문맹교육, GED 준비 교실, 고등학교 입학 준비를 위한 계획 등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고용 부문에서는 직업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보조금이 없는 고용 시장에서도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인턴십 기회, 직업훈련 등 실제 직업을 위한 경험 및 기술습득 뿐만 아니라 직업 알선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생산적이고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삶의 기술들을 발달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보스턴에 위치한 민간단체인 The Bridge over Troubled Waters¹³⁵⁾은 가출, 노숙, 고위험 청소년들이 지지적인 관계형성과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단체이다(김지연, 정소연, 이용혜, 2014: 102). 주된 사업은 거리 아웃리치, 24시간 핫라인 운영, 상담 및 서비스, 주간 쉼터 제공(Transitional Day Program, TDP), 의료 클리닉, 교육 및 직업발달 프로그램, 쉼터 제공 등이 있다(<표 IV-29 참조>). 거리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Mobile Medical Van을 활용하여 보스턴과 캠브리지의 가출청소년 밀집지역을 매주 평일 저녁 순회하는 프로그램

133) U.S. Family & Youth Services Bureau: Street Outreach Program Fact Sheet <http://www.acf.hhs.gov/programs/fysb/resource/sop-fact-sheet>(검색일: 2016.8.9.)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134) The Philadelphia Youth Network <https://www.pyninc.org/> (검색일: 2016.8.8.)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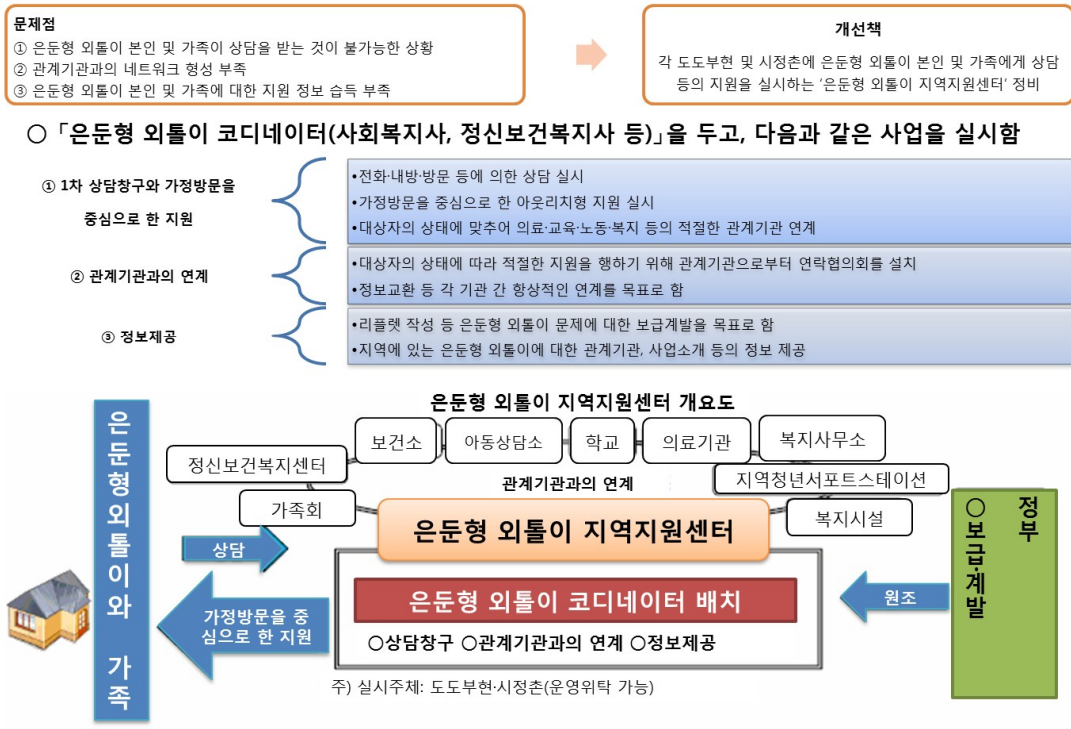
135) The Bridge over Troubled Waters <http://www.bridgeotw.org/> (검색일: 2016.8.9.)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이다. 이 차량에는 의료기구와 음식, 옷 등이 구비되어 있다. 24시간 핫라인은 청소년들을 위해 존재하는 전화상담 프로그램이다. 전화를 통해 연결된 14~17세의 청소년들에게는 72시간까지의 긴급쉼터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훈련받고 경험이 풍부한 상담자들이 직접 거리로 찾아가 이들을 만나 도움을 주며, follow-up 상담은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쉼터에서 진행하거나 혹은 기관 밖에서 진행한다. TDP는 주간 쉼터로, 이곳에서는 낮 시간 동안 식사, 목욕, 세탁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TDP의 사례관리자들을 통해 신분증이나 성적증명서, 범죄기록부 등 다양한 서류를 받을 수 있으며, 삶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워크샵에도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의료 클리닉을 통해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 및 직업발달 프로그램은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소규모의 교실에서 어느 때에나 참가 가능한 유연한 교육과정을 통해 고등학교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일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시간을 오전과 오후 수업으로 조정하기도 한다. 둘째, 대학입학을 원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대학 입시에 필요한 가이드를 해 주는 한편으로 재정 원조 프로그램을 소개해 준다. 직업발달 프로그램으로 간단한 기술에 대한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주간 쉼터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쉼터를 제공하는데, 단기형 프로그램 Emergency Residence (ER), 장기형 프로그램으로써 18~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Transitional Living Program (TLP), 미혼부모와 그 자녀를 위한 Single Parent House (SPH) 등을 제공한다.

표 IV-29 The Bridge over Troubled Waters의 사업내용

실시 주체	주요 목적 및 내용
거리 아웃리치 프로그램	- Mobile Medical Van을 활용하여 매주 평일 저녁 가출청소년 밀집 지역 순회 - 차량에는 의료기구 및 음식, 옷 등이 구비되어 있음
24시간 핫라인 운영	- 전화상담 프로그램 - 전화를 통해 연결된 14~17세의 청소년에게 긴급쉼터 제공
상담 및 서비스	- 거리로 찾아가는 상담 - follow-up 상담 역시 실시(쉼터 등)
주간 쉼터 제공	- 낮 시간 동안 식사, 목욕, 세탁 등 필요한 지원 제공 - 각종 서류 발급 및 워크샵 참가 가능
의료 클리닉	- 치과진료 등 무료 의료지원
교육 및 직업발달 프로그램 제공	- 교육프로그램: 고등학교 학위취득 프로그램 및 대학 입시 지원 - 직업발달 프로그램: 간단한 기술에 대한 직업훈련 제공
쉼터 제공	- Emergency Residence: 단기 주거형 프로그램 - Transitional Living Program: 장기 주거형 쉼터 - Single Parent House: 미혼부모와 그 자녀를 위한 쉼터

은둔형 외톨이 지역지원센터의 개요



【그림 IV-6】 은둔형 외톨이 지역지원센터 개요

출처: 후생노동성: 은둔형 외톨이 지역지원센터의 개요

http://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seikatsuhogo/hikikomori/images/hikikomori01.gif

(검색일: 2016.6.3.)를 번역함

② 사회적 기업에 의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은둔형 외톨이 지역지원센터 외에 사회적 기업이 많이 참여하여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확산되고 있다. K2 인터내셔널, 소다테아게넷 등 사회적 기업의 활동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발굴과 지원을 살펴볼 수 있다.

K2137)의 주된 사업은 청년 취업지원사업·해외유학사업·요식업 사업·비영리 단체 운영의 4가지로 볼 수 있다(<표 IV-30 참조>).

K2에서는 청년 니트나 은둔형 외톨이의 취업지원을 위해 Y-MAC 요코하마 Apprenticeship Center, 쇼난·요코하마 청년서포터스테이션, Youth Work 후지사사와를 운영하고 있다. Y-MAC에

137) K2인터내셔널 <http://k2-inter.com/> (검색일: 2016.7.21.)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서는 합숙생활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생활습관개선뿐만 아니라 직업적성검사, 커리어컨설팅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봉사활동, 직장체험 등의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쇼난·요코하마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과 Youth Work 후지사와는 니트나 은둔형 외톨이 상태의 청년의 자립과 취업을 위한 상담기관으로, 적성검사와 상담업무,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의 청년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직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장의 정직원 중 80%는 K2의 프로그램을 졸업한 졸업생들이다(더퍼스트미디어, 2014.12.11.). 카페나 식당, 제과점, 세탁소 등 6개의 다양한 사업장을 운영하여 청년 고용을 창출한다.

표 IV-30 K2 인터내셔널의 주요사업

사업명	주요 목적 및 내용
취업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Mac 요코하마 Apprenticeship Center: 합숙생활을 기반으로 한 생활습관개선, 취업을 위한 교유과정 및 직업체험형 프로그램 - 쇼난·요코하마 청년서포트스테이션 & Youth Work 후지사: 니트나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기관. 적성검사, 상담 등 취업지원
해외유학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식업 위주의 직장체험을 기반으로 국가 별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직장체험 및 고등학교 졸업자격 취득 프로그램 ○ 뉴질랜드: 어학학습 프로그램, 영어능력시험 응시프로그램 ○ 한국: 어학학습 및 문화교류활동
요식업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업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사업장 운영 - 사업장 정직원의 80%는 K2프로그램의 졸업자
비영리단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PO코론부스 아카데미, 특정비영리활동법인 휴먼펠로우십, 청년자립취업지원협회, 운메몬시, K2드림프로젝트 등 다양한 비영리단체 운영

NPO법인인 소다테아게넷(育て上げネット)¹³⁸⁾ 역시 청년 니트나 은둔형 외톨이 등 직업을 구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구직을 포기한 젊은이들을 돕는 사회적 기업이다. 주된 사업내용은 자주사업과 기업연계사업, 행정연계사업 및 기타사업으로 구분된다(<표 II-7 참조>).

138) 인정NPO법인 소다테아게넷 <http://www.sodateage.net/> (검색일: 2016.7.21.)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표 IV-31 소다테아게넷의 주요사업

사업명	주요 목적 및 내용
자주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잡 트레이닝: 취업훈련 프로그램. 기초직업훈련→직업훈련교육→직장체험→구직 및 취직의 4단계 프로그램 - 부모회 유이 & 온라인 유이: 니트 등의 상태로 취업이 어려운 자녀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대면상담 및 화상전화를 통한 상담 실시, 어머니 모임 개최 등 - 지역사회 출장사업: 부등교나 니트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교 등 지역사회로 나가 금전교육 프로그램인 MoneyConnection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인 Mobile Connection 실시
기업연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기업과 연계하여 잡 트레이닝 연수생에게 직업훈련 기회 제공 - 마이크로소프트, 신세이 은행 등 다양한 기업과 연계
행정연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단체 운영 - 5개 지역청년서포터스스테이션, 요코하마 동부유스플라자 등 8개 기관 운영
기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카마츠 학습공간: 고등학교 미진학자 및 고교중퇴생을 위한 학업지원 프로그램 -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강연 등

자주사업은 소다테아게넷의 중심 사업이며, 잡 트레이닝(ジョブトレ), 부모회 유이(ゆい), 교육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잡 트레이닝은 취업훈련 프로그램으로써, 기초직업훈련, 직업 훈련교육(IT강좌, 판매강좌 등), 실제 직장에서의 체험, 구직 및 취직에 이르는 단계적 프로그램이다. 훈련 내용은 IT나 판매직 등의 전문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간단한 기술에 대한 훈련도 제공한다. 원칙적으로 참여 비용은 본인부담이지만 감당이 어려운 대상에게는 기업의 기부금으로 부담한다. 매월 40명 정도가 잡 트레이닝을 받고 있으며, 각 단계의 기간은 약 1개월 정도이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난 이후에는 추적조사를 통해 현재 취직상태를 점검한 후 해고자와 자발적 실직자에 대해서도 재교육을 실시한다(경향신문, 2016.2.23.). 취업률은 종료자 290명 중 250명(85%)에 달하며, 3년 이상 취업을 유지한 사람은 205명(70%)에 달한다(16.5.30.기준).

부모회 유이에서는 정신보건복지사, 가족상담사, 커리어 컨설턴트 등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들이 부등교, 은둔형 외톨이, 니트 상태에 있거나 취직이 잘 되지 않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월 1회 50분의 개별 대면상담을 제공하며, 부모 간의 교류회도 실시한다. 또한 직접 걸음하기 힘든 부모들을 위해서 ‘온라인 유이’서비스를 통해 화상통화를 통한 상담도 실시한다. 소다테아게넷 역시 부모가 상담하고 은둔한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방식이기에 학부모 대상의 세미나, SNS, 만화 등을 제작하여 부모를 적극적으로 공략한다.

또한 부등교나 니트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나 지역사회를 방문하여 출장수업을 실시한다.

수업 내용은 금전교육 프로그램인 Money Connection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인 Mobile Connection, 일생의 주요사건 체험을 통해 프리터 상태의 지속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Life Connection 등이 있다. 대상학교는 교육위원회가 학교를 소개해 주는 방식도 있으며, 직접 접촉하기도 한다. 소다테아게넷에서 연수를 받고 인증된 강사를 파견하며 강의료는 교육위원회나 학교에서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외 잡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준비생들에게 연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연계사업과 지자체에서 위탁 받은 행정연계사업을 운영한다.

농업을 중심으로 은둔형 외톨이나 니트 청소년을 자립하게 하는 사회적 기업도 있는데, 도야마 현에 소재한 민간 NPO 법인인 Peaceful House 하구레구모¹³⁹⁾는 부등교생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들이 입소할 수 있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생활을 통해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있을 수 있는 곳을 만들고자 하며, 더불어 자립과 취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기숙사에서의 공동생활은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몸에 익히게 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과 스케줄에 따라 일상생활이 진행된다. 생산된 농작물은 농업생산법인 Farm Farm에서 판매한다. 이외에도 하구레구모의 비전을 부모에게 이해시키는 한편으로 자녀에 대한 시각을 다르게 보게 하기 위해 2개월에 1번 정도 1박 2일으로 부모연수회를 열고 있다. 이 연수회에는 부등교나 은둔형 외톨이, 청년 니트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나 지역의 학교교사, 지역의 농업종사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출석하여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③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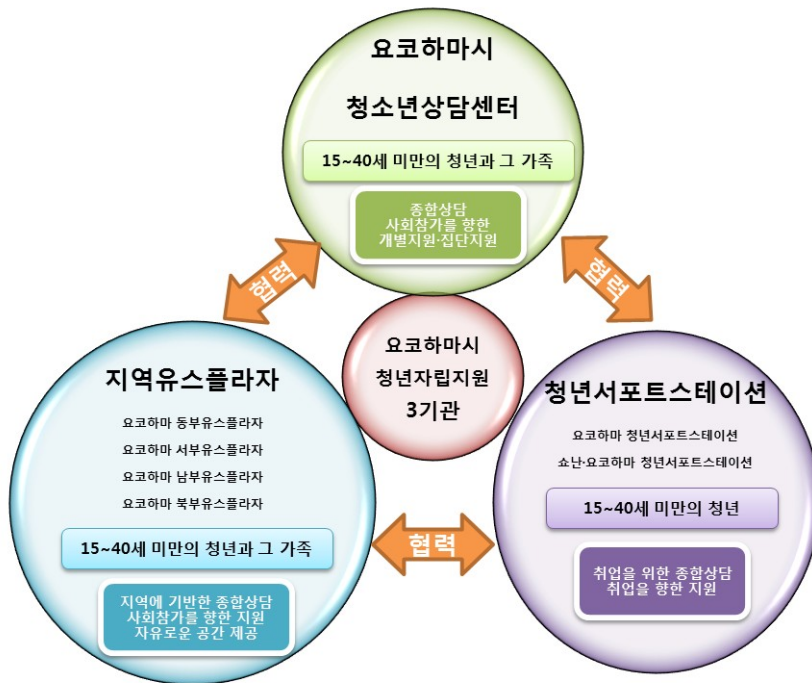
일본은 은둔형 외톨이 현황파악을 위해 국가와 민간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실태조사는 후생노동성과 내각부에 의해 진행된 바 있다. 후생노동성에서는 2004년 「지역역학조사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20~40대 1,186명 중 14명(1.18%)이 일생동안 은둔형 외톨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974세대 중 20세대(0.67%)의 자녀가 현재 은둔형 외톨이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三宅由子, 立森久照, 竹島 正, 川上憲人, 2004). 내각부가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일본국민 3,287명을 대상으로 2010년 청년층 의식 조사(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은둔형 외톨이 발생률은 1.79%로 나타났으며, 해당 연령대의 인구가 3,880만 명임을 감안할 때 전국의 은둔형 외톨이는 약 69.6만 명으로 추정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内閣府, 2010).

139) NPO Peaceful House 하구레구모 홈페이지 <http://www.haguregumo.com/> (검색일: 2016.7.21.)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④ 요코하마시의 사례

요코하마시는 2015년 기준 인구가 약 22만 명의 정령도시로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 대책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요코하마시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대책의 주요 특징은 ‘요코하마시 청년자립지원 3기관연계’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인데, 요코하마청소년상담센터, 지역유스플라자(Youth Plaza), 청년서포트스테이션이 협력하여 청년 자립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그림 IV-7】 참조).



【그림 IV-7】 요코하마시 3기관연계 모델

*출처: 요코하마시 청소년상담센터, 요코하마시 청년자립지원 3기관연계 팸플릿을 번안함

1961년에 개소한 요코하마시 청소년상담센터¹⁴⁰⁾는 조례에 근거한 공공기관으로 요코하마시 아동·청소년국 아동·청소년부에 속해 있다. 요코하마시 청소년상담센터는 지역유스플라자, 청년서포트스테이션 등 3기관 연계를 지칭하는 ‘유스 트라이앵글’의 중심 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 유스플라자는 상담센터의 지부와 같은 곳으로 요코하마시에 4개소가 있으며 비영리기

140) 요코하마시 청소년상담센터(2016). 요코하마시 청소년상담센터 개요(내부자료)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관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청년서포터스테이션은 취업을 통한 자립 지원의 역할을 맡고 있다.

상담센터에는 2015년 기준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12명이 상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2014년의 상담사례 509건 중 약 65.6%인 334건이 은둔형 외톨이가 주 호소 문제일 정도로 은둔형 외톨이 비율이 높고, 상담 지원기간이 긴 편이며 10년 이상 지속되는 사례도 있다. 또한 후생노동성의 은둔형 외톨이 서포터 파견사업의 실시를 위해 ‘유스 서포터 (Youth Supporter)’를 양성하고 파견하고 있다. 요코하마 시내 대학 중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홍보를 통해 인원을 모집한다. 모집된 서포터들은 센터만의 양성연수를 통해 등록하게 되며 매칭을 통해 파견하게 된다. 양성연수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와 분류 등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를 이해하고, 서포터 활동의 사례를 통해서 대응의 방법을 습득한다. 또한 서포터로서 지켜야 할 비밀유지의 의무, 신용유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부모가 자진 의뢰하지 않는 경우 외에는 가정방문을 할 법적 권한이 없어, 가족공부회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에 의한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2012년 15세 이상 39세 미만의 주민 3,000명을 대상으로 은둔형 외톨이 현황을 파악한 결과 내각부 조사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약 8,000명(0.72%)이 은둔형 외톨이 상태이며, 친화군은 52,000명(4.55%)으로 나타나 내각부 조사(1.79%)보다는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쿄도에서 실시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비율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0.72%)(<표 IV-32 참조>).

표 IV-32 요코하마시, 내각부, 도쿄도 은둔형 외톨이 발생률 비교

실시 주체 (실시 연도)	요코하마시 (2012년)	내각부 (2010년)	도쿄도 (2007년)
표본수	3,000명	5,000명	3,000명
응답수 (응답수/표본수)	1,386명 (46.2%)	3,287명 (65.7%)	1,388명 (46.3%)
은둔형 외톨이 발생률	0.72%	1.79%	0.72%
은둔형 외톨이 친화군 발생률	4.55%	3.99%	4.76%

출처: 요코하마시 청소년상담센터, 요코하마시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결과개요(내부자료) (내각부와 도쿄도의 수치는 본 자료에서 재인용함)

주 1) 내각부: 2010년 청년 의식에 대한 조사(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

2) 도쿄도: 2007년 청년 자립지원 조사연구 ※ 대상자는 15~34세

제 V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시사점
2. 정책제언

제 V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시사점

1)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와 특성

(1)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별 특성

학업중단 4년차 청소년들의 지난 1년간의 이행경로를 분석했을 때 학업형 50%, 직업형 32%, 무업형 18%로 나타났다. 개인 사정이나 대안교육을 위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중에는 학업형이 압도적으로 더 많았고 학교 사유나 문제행동으로 중단한 청소년 중에는 직업형이 더 많았다. 학교 사유로 중단한 청소년 중에는 무업형이 많아, 중단 사유를 고려한 지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즉 학교 문제나 문제행동으로 중단하는 경우, 직업형이나 무업형이 될 가능성이 더 많으므로 이러한 사유로 중단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진로지도가 필요하다.

① 학업적 특성

중단 후 4년차가 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중 50%만 정규 중·고등학교 중단 상태였고 나머지 50%는 학업중단 상태가 아니었다. 35%는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나머지 15%는 중·고등학교를 다니거나 졸업한 상태였다. 정규 중·고등학교를 중단한 경우라도 검정고시를 통한 고졸자격 취득자가 29%, 미취득자가 21%였다.

많은 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나와 검정고시를 치르고 대학에 진학했다. 진학자 중 원래 대학진학 계획을 갖고 그만 둔 청소년은 약 40%이며 나머지는 부모님이 권유해서(18.8%),

* 이 장은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또는 졸업장이 필요해서(15.6%),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15.6%)이다. 이들은 주로 2, 3년제 전문대학(45%), 4년제 대학(37%)과 기타 대학학위과정이 있는 직업전문학교에 진학하였다. 이들이 진학한 대학은 95% 이상이 사립대학이었다.

지난 1년 간 검정고시를 준비했던 청소년들 중 혼자서(32.6%) 공부한 청소년이 가장 많았다. 검정고시 준비자 중 실제 응시자는 67%였고 전 과목 합격률은 58%였다. 지난 1년 간 검정고시에 응시할 의사를 갖고 준비했던 청소년 중 전 과목 합격자 비율은 38.9%로 약 4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학업형(48%)과 직업형(46%)에 비해 무업형 합격자는 더 낮아 20%가 채 안 되게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이 ‘혼자서’가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적 지원체계가 필요한 이유이다.

② 직업훈련 및 근로 경험의 특성

본 연구 결과 직업형으로 분류된 학교 밖 청소년은 32% 수준이었다. 그런데 직업기술을 배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8.7%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음식점 서빙이나 카운터, 배달’, ‘카페 및 주점 서빙(10.1%)’ 등 전문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서비스 노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직업기술을 배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 공공기관의 직업훈련에 참여한 청소년이 40%, 자비 부담 민간 사설학원에 참여한 청소년이 30%, 정부 지원 민간 사설학원에 참여한 청소년이 19% 수준이다. 즉, 학교 밖 청소년 중 공적 기술훈련 프로그램 접근 비율은 총 5.2% 수준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 공공기관의 직업훈련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훈련받은 기간은 평균 6~7개월(26.24주)이었고

학업형이 약 9개월(36주), 직업형이 약 8개월(32주), 무업형은 7주로 나타나 무업형의 참여기간이 매우 짧았다. 이는 무업형 특성의 청소년들이 기존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직업훈련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소수이기는 하지만 그들 중 95%는 만족하였고 89%의 응답자는 자신이 받은 직업훈련이 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직업훈련 참여의사가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전체의 27%에 불과하고 나머지 73%는 참여의사가 없었다. ‘시간이 없거나 안 맞아서(38%)’,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14%)’, ‘도움 될 것 같지 않아서(12%)’ 또는 ‘돈을 벌어야 해서(11%)’가 그 이유이다. 학업형과 직업형 청소년 모두 ‘시간이 없거나 안 맞음’이 제일 큰 이유였으며 직업형 청소년 중에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응답도 주된 이유였다. 무업형 청소년의 응답은 다소 다르게 나타났는데, 도움 될 것 같지

않다거나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직업훈련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한 일과표를 가진 직업훈련과정이 필요하며, 당장 생계비를 벌어야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일정수준 소득 대체가 가능한 훈련수당 제공이 매우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업훈련 참여 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자격증 취득여부(37.7%)이며 그 다음이 흥미·적성 부합여부(34.2%), 취업가능성(25.4%)이었다. 학업형과 직업형은 자격증 취득을 가장 중시했고 무업형은 흥미적성 부합여부와 취업 가능성을 더 중시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장 희망하는 프로그램은 기술훈련과 취업연계 프로그램이었다. 그 다음은 기술훈련과 멘토링과 문화활동을 결합한 프로그램이었는데, 무업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조사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학교 밖 청소년이 약 45%, 지난 1년 간 근로경험(하루 8시간 이상 아르바이트 및 취업)이 있는 청소년이 62%로 아르바이트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보편적 경험이다. 평균 근무기간은 3.25개월이며 구직기간은 2.08주였다. 지난 1년간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이 35%였고 한 번 이상 중단한 청소년이 65%였다. 4대 보험 가입비율은 30% 수준이었는데 직업형 청소년들은 40% 수준으로 10%p 정도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58%가 1년 이내에 그만 둘 의사를 갖고 있었으며 35%만이 계속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직업형 청소년 중에는 43%가 계속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유형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 1년 이내에 그만두겠다는 비율이 49.5%로 이보다 많았다. 이러한 경향을 종합해 볼 때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제활동에 많이 참여하고는 있으나 전문기술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단순 서비스 직종의 저임금 노동자로 충원되고 있고 지속할 의사가 강하지 않음에도 전문기술을 쌓을 수 있는 직업훈련과정으로 유입되고 있지 못하다. 일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업진로지도와 직업훈련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③ 무업적 특성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며 노는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노는 것이 좋아서'(30%)이거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21.4%)이다. 군 입대·복학·대학입학 등을 기다린다(14.3%)는 사유 다음으로는 '하고 싶은 게 없어서'(13.6%)라는 이유가 많았다. 무업형 청소년 역시 '노는 것이 좋아서'(38%),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22.5%), '하고 싶은 게 없어서'(18.3%) 순으로 응답이 많았는데 '노는 것이 좋아서'와 '하고 싶은 게 없다'는 응답이 학업·직업형에 비해 더 많았다.

④ 진로관련 특성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은 부모님과의 대화(80.1%), 인터넷 검색(71.2%), 직업종사자와의 만남과 대화(42.2%)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형은 직업형이나 무업형에 비해 진로정보 탐색이 더 활발했고 무업형은 직업형에 비해 진로정보 탐색에 소극적이었지만 인터넷 검색을 통한 탐색에서는 약간 더 많았다. 이러한 특성은 진로장애 중 '진로정보 부족'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무업형은 학업형에 비해 진로정보가 부족하였다.

향후 진로계획에 있어서는 미결정자가 20%선이었는데 그 중 무업형의 미결정 비율이 33.3%로 가장 높았다. 높은 학력성취가 없어도 비교적 성취가 가능한 분야를 장래 희망으로 선택한 현실형 청소년이 62%, 높은 학력성취가 필요한 분야를 장래 희망으로 응답한 청소년(이하 비현실형)이 22%, 장래 희망이 없다는 체념형 청소년이 10%, '미정, 또는 모른다'고 응답한 방황형 청소년이 6%였다. 약 40%의 청소년은 장래 희망에 대한 현실적 조정을 위해서, 또는 미래에 대한 동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진로지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

⑤ 이행경로별 개인적·환경적 특성

이행경로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학업형은 학력주의에 대한 인식,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는 가장 높았으며 학업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 우울과 충동성, 게임 중독 수준, 음주와 흡연 경험률은 가장 낮았다. 환경적으로 부모의 정서적 지원 수준은 가장 높은 반면 방임 수준은 가장 낮았다. 친한 친구 수, 학업중단 후 사귀 친구 수도 가장 많아 모든 지표에서 학업형은 가장 좋은 상태에 있었다.

직업형은 학업중단에 대한 만족도, 사회적 낙인감, 우울, 음주와 흡연율, 자아탄력성이 가장 높고 생활만족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 수준이 가장 낮으며 친한 친구, 학업중단 후 사귀 친구 수가 가장 적었다. 직업형의 경우 학업 중단에 대해 만족하고, 학교 밖 생활에 대한 적응 수준은 높으나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지는 못하며 사회적 낙인감도 높고 우울하다. 또한 친구도 적고 음주와 흡연을 많이 하고 있다. 직업형 학교 밖 청소년은 사회적응 능력은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업형은 학력주의에 대한 인식,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은 반면, 충동성, 자아탄력성, 게임중독 수준이 가장 높았고 자신이 부모로부터 방임되어 있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다. 자신의 미래를 낙관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심리·정서가 강한 상태에 있다.

⑥ 이행경로별 일상생활 특성

이행경로별로 보았을 때 학업형 청소년은 평일 가장 잠을 적게 자며 하루 생활시간 중 취미 및 운동 경험률이 가장 높다. 평일 생활시간 평균으로 볼 때 혼자 지내는 시간, 취미 및 운동시간,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 그 외 여가시간이 가장 적고 휴일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가장 적다. 취침시각은 24시에서 새벽 1시가 가장 많다. 학업형 청소년들은 학업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무업형 청소년은 평일 가장 많이 잠을 자며 하루 일과 중 취미와 운동을 하는 비율은 가장 낮았다. 하루 일과 시간 중 평일 혼자 지내는 시간, 취미 및 운동시간,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 그 외 여가시간이 가장 길고 휴일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가장 길다. 취미와 운동을 하는 비율은 낮지만 하루 일과시간이 길기 때문에 무업형 청소년들은 학업형 청소년보다 취미생활과 운동에 더 긴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업형 청소년들의 취침시각은 24시와 새벽 1시 사이가 상대적으로 적고 새벽 4시에 이후에 취침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휴일에도 그대로 나타나 무업형 청소년들의 수면시간이 가장 불규칙했다. 주거생활을 볼 때 무업형 청소년이 부모와의 동거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직업형의 하루 평균 생활시간은 대체로 이 두 집단의 중간 지점에 있다. 취침시각은 24시가 가장 많고 학업형 청소년에 비해서 새벽 6시, 7시까지 취침하지 못하는 비율이 많다. 이는 새벽시간까지 일하는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직업형 청소년들은 식생활이 가장 불규칙했다. 아침, 점심, 저녁 주 2회 이하로 식사한다는 응답과 주 3회 이상 라면을 먹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주거생활도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월세 자취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직업형 청소년들은 수면시간과 식생활 등의 불규칙함 등으로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⑦ 제도적으로 도움 받은 경험

학업중단 후 지역사회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경험은 50%수준이었는데 주요 기관은 청소년시설(17.1%), 학원(13.3%), 상담기관(12.9%), 직업훈련기관(12.2%)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는 청소년은 28%에 불과했고 전체의 약 12%만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경험이 있었다.

향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에 참여할 의향은 33%였으며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응답자는 67%였는데 이들이 참여하고 싶지 않은 주된 이유는 ‘시간이 없거나’, ‘방문하기 귀찮아서’였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접근 가능한 시간으로 서비스 일과표를 맞추는 노력, 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로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⑧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 특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패널조사 결과 여러 문항에서 성별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남자청소년은 여자청소년보다 더 많이, 더 많은 시간 일을 하고 있다. 여자청소년들은 남자청소년들보다 인터넷을 통해 진로정보를 더 많이 탐색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진로장애를 더 많이 겪고 있다.

심리·정서적으로 여자청소년들은 남자청소년보다 우울하며 스마트폰 중독에 있어 금단 증상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남자청소년은 게임중독이 더 높았으며 환경적인 면에서 부모의 방임 수준과 친구의 비행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여자 청소년은 남자청소년보다 학교나 대안학교,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학습과 훈련을 하는 비율이 높고 여가시간에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 반면, 남자청소년은 여자 청소년보다 평일 수면 시간, 일하는 시간,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노는 시간, 휴일에 혼자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았다. 그러면서도 남자청소년은 여자 청소년보다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여자청소년들이 미래를 위해 준비는 하지만 심리·정서적으로 더 우울하고 불안함을 알 수 있다. 여자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심리·정서적 개입이 보다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⑨ 학교 밖 청소년이 필요한 도움

학교 밖 청소년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도움은 경제적 지원(25.3%)과 진로상담(19.2%)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높은 항목은 생활에 필요한 정보(14.1%), 심리상담(11.9%), 취업지원(11.2%)이었다. 이행경로별로 볼 때 학업형은 타 유형에 비해 진로상담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더 필요로 했으며 직업형은 경제적 지원을, 무업형은 심리상담을 더 필요로 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도움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사회적으로 도움 받은 비율은 38%로 나머지 62%는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받지 못하고 있었다.

경제적 지원 영역에서 필요 대비 충족률이 가장 낮은 서비스는 주거비이며 진로상담 영역에서는 직업상담이었다. 직업상담은 39개 서비스 중 청소년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필요로 한 서비스이다.

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영역에서는 자격증 정보(42.9%), 일자리 정보(37.9%)였으며 취업지원 영역에서는 일자리 제공(37.9%),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제공(26.1%)이 필요 대비 충족률이 낮았다. 심리상담 영역에서는 정서문제에 대한 상담 지원이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은 이행경로 등 여러 변수별로 차이가 있었다. 이행경로별로 볼 때 학업형과 직업형은 무업형에 비해 진로상담이 더 필요했으며 무업형은 학업형, 직업형에 비해 심리상담, 취업지원을 필요로 했다. 학업형은 직업·무업형에 비해 정보에 대한 욕구도 매우 높았다. 주목할 만한 것은 무업형 경로로 분류된 패널들 중에는 심리상담과 취업지원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한 패널도 있는 반면, ‘아무 도움도 필요 없다’고 응답한 패널도 많았다. 아무 도움도 필요 없다는 응답은 사회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것인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사회에서 고립될 위험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업중단 이후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정경제수준별로 볼 때 하층일수록 현격하게 경제적 지원을 더 많이 필요로 했으며 상층과 중층은 진로상담, 정보제공 등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을 필요로 했다. 고등학교 때 그만 둔 청소년들은 초·중학교 때 중단한 청소년들보다 경제적 지원, 진로상담, 심리상담 등을 더 필요로 했으며 초·중학교 때 중단한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시점 중단자보다 정보제공과 학업지원을 필요로 했다. 학업중단 사유에 따라서도 특징이 드러났는데, 가장 큰 특징은 문제행동으로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진로 상담이나 취업지원 욕구가 매우 높았으며 없다는 응답도 많았으나 개인 사정이나 학교 사유로 중단한 청소년은 정보제공이나 진로상담을 더 필요로 했다. 학교 사유로 중단한 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보다 심리 상담을 더 필요로 했다. 문제행동으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은 학교에 대한 기대를 접고 일찌감치 직업상담, 취업 등을 진로를 설정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이들의 가정경제수준, 학업중단시점, 학업중단 사유를 고려한 접근이 매우 필요함을 시사한다.

(2) 이행경로의 변화 분석

① 이행경로의 변화

학업형 유지(39.5%), 직업형 유지(18.8%) 등 긍정적 이행경로를 그대로 유지하는 비율이 58.3%, 무업형 등 부정적 이행경로를 유지하는 비율은 9.2%로 약 68%가 중단 후 3년까지의 경험을 4년 차까지 그대로 이어가고 있었다. 이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긍정적 이행경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중단 후 초기에 긍정적 경험을 해나가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행경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청소년들은 32% 정도인데, 긍정적 이행경로 내에서의 전환은 16.5%(학업형으로 전환 9.2%, 직업형으로 전환 7.3%), 부정적 이행경로에서 긍정적 이행경로로 전환은 7.3%, 긍정적 이행경로에서 부정적 이행경로의 전환은 8.8%로 나타나 부정적 경로로의 전환이 긍정적 경로로의 전환보다 약간 더 많았다.

② 이행경로 변화의 결정 요인

배경요인에 따른 이행경로의 변화 유형의 차이는 크게 발견할 수 없었다. 특히 성이나 연령에서는 특기할만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았고, 일부 소수 사례에서만 차이를 보였는데 성의 경우 남성은 특정 경험사건을 유지하는 경향이 많았고, 여성의 경우에는 학업과 관련한 경험을 하게 된 경우가 좀 더 많았다는 점이다. 또한 연령별로는 성인기로 진입한 청소년들의 학업복귀 경향이 다른 연령에 비해 약간 더 많았다는 특징이 있었고, 가구 구성에서는 부모님이 모두 안 계신 경우 부정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경향이 좀 더 많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전체 사례 중에서 20%에 밀도는 정도여서 이행경로 변화 유형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긍정적 경로 유지 확률은 학업중단 친구 수가 적고 진로정보탐색을 많이 할수록, 학업중단에 대한 부정적 심리·정서가 낮을수록 높았다.

학업형에서 직업형으로의 전환 가능성은 학업중단에 대한 부정적 심리·정서가 높을수록, 22세 이상 성인기보다는 17~19세 학령기 청소년일수록 높았다. 학령기 청소년보다 22세 이상 집단에서 직업형으로의 전환이 더 적게 일어나는 이유는 향후 탐구해 보아야 할 과제이지만 군 입대 등의 사유나 또는 단순 아르바이트보다는 직업 수준에서 일을 찾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직업형에서 학업형으로의 전환 가능성은 학령기보다는 20~21세 청소년일수록 높았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청소년일수록 학업형으로 전환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학교를 나와 일을 하던 청소년들 중 나이가 어릴수록 장래에 대해 덜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장래를 생각한다 해도 무엇을 할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을 때는 우선 학업으로 복귀할 확률이 높음을 보여준다.

부정적 경로에서 긍정적 경로로의 전환 가능성은 학령기보다는 20세 이상 성인기로 접어든 청소년일수록 더 많고 가정경제수준이 상층이라고 인식하는 청소년보다는 중층, 또는 하층이라

고 인식하는 청소년들일수록, 진로정보탐색이 활발할수록 많았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장래에 대한 생각을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보이며 가정경제수준이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일수록 자기 미래에 대한 책임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 경로에서 부정적 경로로의 전환 가능성은 가정경제수준을 중층보다는 상층이라고 인식할수록, 학업중단 친구가 많을수록, 도움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에 비해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 일수록 더 높았다. 가정경제수준이 상층이라고 인식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장래에 대한 책임감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필요한 도움을 받은 여부보다 도움 필요 인식 여부가 부정적 경로로의 전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신의 필요에 대한 불충족감이 더 많기 때문으로 보이며, 도움을 받았더라도 그 서비스가 그 필요로 충족시킬 만큼 충분히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부정적 경로를 유지할 가능성은 남자 청소년,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청소년, 진로정보탐색 활동이 적은 청소년일수록 많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부정적 경로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집중해야 할 정책대상은 남자 청소년이며 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③ 제도적인 도움과 이행경로 변화

한편 학업중단 이후 전문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은 매우 희박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도움을 받은 경우라도 주로 청소년시설이나 상담기관이 많았고, ‘부정→긍정적 경험 전환’ 유형에서는 직업훈련기관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학업중단 이후 생활이나 진로와 관련해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을 거의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과 함께, 도움을 받았더라도 받은 곳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설이나 기관에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학업중단 이후 필요한 도움에 대해 질문한 결과에서, 상당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이는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간주하기 보다는, 해당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봐야할 것으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표본들이 학령기에서 성인기로 진입한 초기 성인기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을 잘 인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많은 수가 도움이 필요했다고 응답한 내용으로는 직업 상담이나 학업상담, 그리고 일자리 정보와 관련한 사항이 있었다. 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상당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만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러한 도움을 원하는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은 비율은 50% 이하로, 전반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실태

(1) 사례관리자 응답을 통해 본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와 제공한 서비스의 비교

기존 패널 65명(연계율 15.2%)과 신규 패널 142명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실태에 대한 사례관리자의 응답결과, 청소년들이 20% 이상 요청한 서비스 중, 20% 이상 제공했다고 응답한 서비스는 검정고시 준비방법에 대한 정보,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심리 및 진로상담정보 제공, 건강검진, 진학정보, 진로계획 상담, 관계문제 상담 등이었다. 센터의 주요 서비스가 검정고시 정보 및 준비, 진학정보 및 진로계획 상담, 건강검진 및 심리상담 위주로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요구가 20% 이상이지만 10%p 정도의 격차로 제공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서비스는 직업기술 훈련 지원, 자격증 정보 제공이었다. 청소년들의 요청에 대해 가장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10%이상 20% 미만으로 요청되는 서비스 중에도 그 이상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의료관련정보, 문화예술 프로그램, 직업훈련관련 정보 등이었으며 훨씬 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일자리 정보, 신체단련 프로그램, 취업상담 등의 서비스였다. 10%미만으로 요청되는 것 중 그 이상 제공한 서비스는 건강교육이었다.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묻는 문항에서도 일자리 정보(6.7%), 문화 예술 등 자기계발 기회 제공(6.0%), 일자리 알선(5.4%), 신체단련 기회 제공(5.4%), 검정고시비 지원(4.7%)이 많이 나타나, 사례관리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직업관련 욕구에 대한 대응이 매우 취약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427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한 4년차 패널조사 결과에서도 가장 필요했던 도움이 직업

상담, 자격증 정보, 일자리 정보 등의 순이었지만, 필요한 만큼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많이 나타났다. 다시 말해 사례관리자와 학교 밖 청소년 모두 이러한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청소년들의 요구에 적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업진로 상담과 자격증·일자리 정보, 취업상담 역량을 강화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직업관련 서비스 외에 사례관리자들이 부족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검정고시비 지원이었다. 청소년 요구조사에서는 무료 검정고시 프로그램이나 검정고시비 지원이 39개 세부 항목 중 중간 이하 순위였고 요구 충족률은 40% 이상으로 비교적 높지만 사례관리자들은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과 검정고시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력 취득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이한 점은 자기계발 프로그램 중 신체단련 프로그램은 수요에 비해 적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청소년 당사자나 사례관리자 모두가 일관된 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수요에 비해 많이 제공된 서비스로 분석되었음에도 사례관리자들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왜 이 문항에 대해서만 응답결과가 어긋나고 있는지는 추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아마도 사례관리자들이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서비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성별 이용실태를 보면 대체로 모든 서비스에 있어 여자 청소년이 더 많이 요청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제공 받고 있었다. 신·구패널 간 이용실태에서도 신규 패널이 요구도 많은 동시에 제공도 많이 받았다. 남자 청소년들과 중단 후 경과 기간이 긴 청소년일수록 건강검진과 자격증 정보, 직업탐색·체험 등 취업지원을 더 필요로 했는데, 이들의 요구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 서비스의 제공방법과 해당 서비스의 지역기관 연계 실태

서비스 제공방법을 살펴보면 46개 서비스(제공인원이 1명 이하인 서비스 제외) 중 직접 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100% 직접 지원 서비스가 12개, 90~99% 7개, 80~89% 8개, 70~79% 2개, 60~69% 7개로, 총 36개의 서비스가 센터 직접 지원 비율이 60% 이상이었다.

주로 외부기관 연계를 많이 하고 있는 서비스는 건강검진, 건강교육, 무료치료병원 알선, 중독문제 상담, 예방접종 등 건강관련 서비스였으며 직업기술훈련 등 지원, 일자리 알선, 인턴십

프로그램, 취업지원은 절반 정도 외부기관 연계를 통해 지원되었다. 가장 많이 연계된 기관 및 프로그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특별지원이었다. 취업관련기관 연계실태를 보면,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건 수가 3건(5%), 고용센터 2건(3%)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 상담과 취업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3)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

청소년들이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이유로 사례관리자들이 지적한 이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청소년과 서비스 제공시간이 맞지 않아서’였다. 청소년들 역시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이 ‘시간이 없어서’였다.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센터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다 유연성을 지녀야 함을 시사한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 이유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기관은 있지만 청소년이 사업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적은 인력과 취약한 예산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서비스를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현 상황에서 청소년의 필요에 맞는 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앙부처, 또는 지역 내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지역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기관 간 네트워크가 강화되어야 한다. 진로나 직업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무엇보다 적극적인 외부 자원의 활용이 필요하다.

3)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와 국내 외 비교 및 시사점

(1)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학령기부터 만 24세까지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하여 보았을 때 만 7~18세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약 42만 명(해당 연령의 6.5%), 이 중 유학 등 국제이동을 제외한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은 약 32만 명으로 추정되었고 만 19~24세 연령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청소년은 최소 25만 명(해당 연령의 6.1%)으로 추정되었다.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의 교급별·성별 비율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연령 13%, 중학교 연령 21%, 고등학교 연령이 66%를 차지하였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연령대에서는 남자 청소년이

7~8%p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학교 밖 청소년, 특히 남자 청소년에 대한 정책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2) 국내외 정책현황 분석 및 시사점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별 맞춤형 학업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일본은 초·중학교의 부등교 학생과 고등학교 중단 학생의 복교에 대해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다. 초·중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적응지도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초·중학교 의무교육 단계 학교 밖 청소년은 어떠한 형태이던 학교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적 교육경험을 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들의 복교와 재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청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우면 대안교육기관에 위탁운영을 할 수도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복교율이 낮다. 즉, 한번 중단하면 돌아오기가 어렵다. 이들이 활용하는 것은 고졸 검정고시이다. 그러나 국가는 검정고시제도를 유지할 뿐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에게 개별적 지원은 하고 있지 않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일부 검정고시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50%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나와 학업을 지속하고 있다. 그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는 학교 때문이다. 이들이 학교를 나와도 학교에는 여전히 동일한 교육재정이 투입된다. 이 비용을 학교를 나온 청소년들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교를 나와 혼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지 않고 학원이나 지역기관 등 원하는 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 바우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존의 학교가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교육경험을 제공하는 대안교육 시설 확충이 매우 취약하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투입되는 1인당 공교육비는 30만원 이내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차터스쿨은 기존 학교와 동일한 1인당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영국의 자유학교 역시 일반학교의 60~70%를 지원받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가 지역사회에서 교육기능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각 주와 영국의 대안교육 프로그램은 학생의 일과 등을 고려한 다양한 학교 형태를 운영하고 있다. 학습 내용도 학교에 따라 인문교육부터 직업기술까지 다양하며, 학교 형태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일과를 고려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야간 학교, 일주일에 몇 회만 참여해도 되는 프로그램, 온라인강좌, 홈스쿨링 등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지역사회에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지원비의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청 책임 하의 학교 밖 청소년 학교복귀지원기관이 필요하다.

미국의 Re-Engagement Center와 영국의 PRUs는 서비스 내용은 다소 다르나, 교육청이 운영하는 학교복귀지원기관이다. Re-Engagement Center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거점문화공간으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화된 시설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명부를 받아서 전화, 편지로 연락하거나 센터에 초대하는 등 학교 복귀를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국의 PRUs는 퇴학, 위기학생의 복교에 책임을 지고 대안교육을 운영하는 시설이다.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교육청이 학업중단 학생, 퇴학 학생에 관심을 갖고 복교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한국에는 부산교육청 외에 복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없으며, 이 경우에도 교육청 책임 하에 운영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교육부가 설치·운영하는 ‘친구랑’은 앞서 소개한 미국과 영국의 센터와 비교했을 때 규모면에서는 작지만 유사한 기능을 하도록 설계되어 운영되는 센터이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협의하여 청소년이 접근하기 좋은 입지에 있는 휴(休)카페나 청소년 문화의 집, 수련관 등에 같은 거점 공간을 두고 청소년들이 찾아와 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학업복귀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교육청에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지원을 돕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미국의 연방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민간기관들에 위탁하여 다양한 학업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학력격차의 해소,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이 연방정부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교육이 보통교육으로 그 책임이 시도교육감에 위임되어 있지만, 교육격차 해소의 문제는 국가적 책임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맡아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교 밖 청소년에 초점을 둔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하다.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취업사관학교 외에는 없는데, 학교 수와 수용

정원이 매우 적은 편이다. 일학습병행제는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혜택이 크나 참여자가 매우 제한적이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내일배움카드제는 청소년참여율과 취업률이 상당히 낮다. 학교 밖 청소년이 사업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역시 청소년참여율과 취업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청소년에 초점을 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설계 자체가 청소년에게 호응이 낮을 수밖에 없는 점, 청소년들이 성인들과 같이 훈련을 받는데 익숙하지 않은 점, 사업홍보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상담과정이 청소년 친화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점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 청년 헬로워크과 같이 청소년에 초점을 둔 기관을 두고 있다. 이는 청소년에 초점을 두어 청소년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이고 청소년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이다.

여섯째, 청소년의 취업역량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바로 취업이 가능한 집단, 취업을 위해 약간의 준비가 필요한 집단, 취업을 위해 많은 도움이 필요한 집단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서로 다르다. 바로 취업이 가능한 집단은 헬로워크와 잡카페에서, 취업을 위해 약간의 준비가 필요한 집단은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집단은 은둔형 외톨이 지역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즉, 청소년들의 취업역량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세분화되어 있다.

미국의 Job Corps와 WIA Youth Program도 취약, 위기 청소년에 맞게 상담, 교육, 검정고시준비, 생활기술, 취업지원 등 청소년의 직업능력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다. 영국의 워크 프로그램 역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고용과 복지를 결합하여 통합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역량을 고려한 통합적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일곱째,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①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수를 2만여 명으로 추정할 수 있었을 뿐이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학령기 청소년을 추정한 수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치일 뿐이며, 전체 규모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일본의 경우, 내각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②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이 되지 않고 있다. 여러 단발적 사업들이 은둔형 청소년을

발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향후 추진될 복지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교육부 미취학·장기결석자 관리대응사업을 통해 발굴되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의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기능을 확보하여 발굴과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③ 일본에는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외에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태조사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의 규모를 추정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는 이들이 은둔형 외톨이가 된 것이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라 일본 경제 침체기라는 사회구조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여덟째, 진로직업 상담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서비스는 학업지원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핵심적 요구는 진로직업상담과 취업지원이다. 학습 및 진학지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교 밖 청소년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진로직업 상담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진로직업상담을 전문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은 인터넷 상의 커리어넷과 워크넷 뿐이다. 온라인 상담 외에는 가능하지 않아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심층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확충하여야 한다.

2. 정책제언

1) 기존 연구의 정책제언 및 추진현황 평가

2013년부터 2015년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지원정책은 지난 3년간 급속도로 발전해 왔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법과 전달체계도 마련이 되었고 <표 V-1>과 같이 많은 제안들이 받아들여져 추진되고 있다. 학업중단 후 청소년들이 쌓아가는 삶의 이력은 서로 다르고 요구도 다르며 성장과정도 다르다. 정책의 기틀은 잡혀가고 있지만 청소년 개인의 요구에 기반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지원의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이행경로에 따른 요구와 그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표 V-1 2013-2015 기존 연구 정책제언 및 추진현황 평가

영역	과제	정책 제언 ¹⁴¹⁾	추진 현황 및 평가
		세부과제	
예방 정책	발굴	학업중단 조기경보제 도입	(교육부) 학업중단 위기학생 진단도구 개발 및 숙려제 대상 자퇴자에서 위기 학생으로 확대
	인적 지원	위기학생 사례관리와 맞춤형지원을 위한 학교 전문인력 확보	(여성가족부) 교육부와 Wee Class가 없는 학교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 하도록 합의했으나 현실적으로 미흡
		위기청소년에 대한 멘토링 강화	(교육부) 꿈키움 멘토단 운영 (여가부) 꿈드림 멘토단 운영
		학업중단 다수발생학교에 상담인력 증원	(교육부) 학업중단 50명 이상 다수발생 고등학교에 교육복지사 배치
		교대와 사범대생의 학습지원 멘토링 강화	추진된 바 없음
	프로그램	학업중단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보급	(교육부) 학업중단 예방 매뉴얼 개발 보급 (교육부) 학업중단예방 콘텐츠 개발 (교육부)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 및 우수사례집 개발 · 보급
		특성화고등학교 예방대책 수립	(교육부) 학업중단 다수발생 학교 컨설팅 실시 (교육부) 해당 학교에 교육복지사 우선 배치
		방과 후 학교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	(교육부) 대안교실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하나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는 미흡
		고 1 대상 학교적응 프로그램 지원	(고등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학교자체에 실시 가능하나 학업중단 다수발생 학교 등에 확인 필요
	추진 체계	학업중단 다수발생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 강화	(교육부) 해당 학교 컨설팅 이루어지고 있으나 담당 장학사 참석 의무화가 필요함

영역	과제	정책 제안 ¹⁴¹⁾	추진 현황 및 평가
		세부과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발굴 · 연계	학업중단 시 정보제공 강화	(교육부) 학교밖 청소년 진로 가이드북 발간· 보급 등 정보 제공 노력 강화 (여가부) 개인정보 동의 학업중단학생 정보를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하도록 법제화. (교육부) 미취학· 장기결석자 범부처 전담기구 운영 법제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순기능하도록 지원 필요함
		청소년증 홍보 및 발급 시 안내	(여가부) 청소년증 홍보 및 발급은 2014년 5만 건에서 2015년 9만5천 건으로 증가 ¹⁴²⁾
		학교, 고용센터 등 지역기관과의 연계 강화	(여가부)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전국 88개) ¹⁴³⁾ 와 연계 미흡
	학업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자에 대한 보호와 학업지원	(교육부) 교육(지원)청에 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자 전담기구 법제화
		대안교육기관 확대 및 운영지원(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대안교사 양성과정 설치, 대안교육기관 신고제)	(교육부) 대안교실,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확대 추진,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등에 대한 재정 지원 미흡. → (지방자치단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조례에 근거한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함
		검정고시 지원	(여가부) 특별지원을 통해 검정고시 학원비 등이 일부 지원되고 있으나 부족한 상태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검정고시 학원비 등 지원 의무화 필요함
		복교 지원체계 구축	(교육부) 학업중단 이력정보 시스템 구축하여 교육청에서 중단학생 현황 파악 가능함. 복교지원 프로그램은 부산교육청에서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음. →복교 지원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 강화 필요함
	직업	일반고 직업체험 프로그램 확대	(고용노동부) 고교재학생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친화적 직업훈련 프로그램 도입 지원	(여가부) 직업역량키움 교실 추진 노력 중이며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직업훈련기회 제공을 위해 민관협력 강화 추진 (여가부) 직업훈련· 인턴십까지 제공하는 사업장 개설 등 창업캠프 지원 (여가부) 고용부 취성패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위탁 요청
		고용노동부 기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및 청소년 참여율 평가	(여가부) 청소년 사업안내 매뉴얼에 홍보됨, 고용센터 평가에 반영되지는 않음.→고용노동부사업에 청소년참여 제고 노력 계속되어야 함
커리어넷 보안을 통한 자격증 정보 통합 지원		시행되지 않음	
진로교육 담당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진로교육 기회 제공		시행되지 않음	

영역	과제	정책 제안 ¹⁴¹⁾	추진 현황 및 평가
		세부과제	
무업		비행청소년 원스톱 지원시설 확대	(중앙정부) 미실시, 여성가족부는 법무부와 MOU를 통해 학교 밖 지원센터에 연계
		비행형 청소년 사회적 포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여가부) 보호관찰청소년 지원
		무업형 청소년 거점 문화공간 설치	(교육부) 친구랑 센터 (서울시) 휴 카페 설치 운영함 → 지역 내 거점 공간확대, 무업형 청소년대상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상담인력 배치 필요
		또래관계형성을 위한 자조모임 지원	(여성가족부) 거점공간을 기반으로 추진할 필요 있음.
		무업형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여가부) 미실시
		생활지도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 지원	(여가부) 자기계발 프로그램 및 건강검진 등 프로그램 실시
추진 체계	조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중앙/지역)	(교육부) 학업중단예방센터 설치, (여성가족부) 학교 밖 지원센터 설치 확대, (교육청별) 대안교육지원 센터 설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 규정 마련
		지역교육청 전담부서 설치	(서울시 교육청) 외 미실시
	계획	지역별 대책 수립	(지역교육청) 계획 수립, 교육부 제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법적 근거 마련
	평가	청소년 참여적 평가체계 수립	(여가부) 꿈드림지원단 구성, 정책제안참여시—정책평가는 없음
		학교평가지표에 반영	(교육부)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여 실시
	실태 파악	중단사유 조사 및 기입 지침 마련	(교육부) NEIS시스템 상 중단사유 세부화
		학업중단 청소년 추적조사체계 구축	(여가부) 학교 밖 청소년 매 3년 조사 계획 수립 →그러나 학업중단자에 대한 추적조사체계는 없음
		학업중단 청소년 통계 구축	(여가부) 고용노동부 등 사업 참여자 연령별 통계 산출시 학력사항 분석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심층 연구	(국무총리실)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대책 연구 지원

141) 윤철경 외(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 276.

142) 여성가족부(2016a), 2016년도 청소년사업안내, p. 93.

14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www.workplus.go.kr/index.do>에서 2016년 10월 27일 인출.

2) 영역별 정책과제

표 V-2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영역	세부 과제	담당부처	정책 유형
학업지원 대책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급여 제공	교육부	신규
	2. 학업중단자 수, 결석일수를 학교예산 배분기준에 반영	교육부	신규
	3. 연령별·성별 학교 밖 청소년 규모와 특성에 따른 학습 지원 프로그램 확보	교육부	기존 확대
	4.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복귀지원기관 설치·운영	교육청	신규
	5. 인문교양교육과정의 확대	교육청	신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대책	6. 고졸이하 청소년층에 초점을 둔 진로상담, 직업능력개발, 취(창)업지원에 이르는 통합적 프로그램 개발·운영	여가부	신규
	7. 취업사관학교용 모듈형 선택적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여가부	기존 개선
	8.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직업 상담 체계 구축: 한국고용정보원과 연계한 실무자 연수 및 진로직업 전문가 확충	여가부	신규
	9. 일 학습병행제 TYPE II 개발	고용노동부	신규
	10. 취약·위기 청소년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별도 운영	고용노동부	개선
	11. 청소년 일자리 센터 설치	여가부	신규
은둔 무업형 청소년 지원 대책	12. 지역 고용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통합운영 시범 실시	여가부	신규
	13. 은둔 무업형 학교 밖 청소년 규모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여가부	신규
	14. 은둔 무업형 학교 밖 청소년 발굴체계 구축	여가부	신규
	15. 은둔 무업형 청소년 지원에 대한 홍보 및 부모 세미나 운영	여가부	신규
	16. 찾아가는 상담체계 구축 및 치료형 캠프	여가부	기존 개선
	17. 무업형 청소년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자립 생활관 설치	여가부	신규
전달체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강화	1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설계	여가부	개선
	1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실무자 직무분석, 업무체계 및 임금체계의 개선	여가부	개선
	20. 오후와 야간, 휴일 근무체계를 갖춘 학교 밖 지원센터 시범 운영	여가부	신규
	21.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여가부	개선
	22. 학교밖지원센터 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운영	여가부	개선
다각적인 학교 밖 청소년 발굴체계 구축	23.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촘촘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체계 강화	지자체	신규
	24. 교육(지원)청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간 신속한 정보 연계 체계 구축	여가부	신규

과제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급여 제공

학교 때문에 학교를 나와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은 전체 학교 밖 청소년 중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를 나와 검정고시를 치고 대학까지 진학했다. 2015년 학교에 투입된 1인당 공교육비는 770만 원 수준, 본교에 학적을 두면서 위탁교육을 받는 청소년의 교육비는 1인당 30만 원 수준이어 그 격차가 너무 심하다. 검정고시를 혼자서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상당하며 그들 중 전 과목 합격률은 40%가 안 된다. 학교가 맞지 않아 학교를 나와 다른 교육을 택한 조세부담자들의 자녀,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을 지속하고는 있지만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학습을 하는가에 관계 없이 학력을 취득하기 위한 학습의 과정에 있다면 1인당 공교육비 수준에 상응하는 학습 바우처가 제공되어야 한다. 검정고시 학원,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프로그램, 홈스쿨링 등에 대한 학습자의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학교를 중단하면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교육급여와 청소년증을 받도록 한다. 교육급여의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하며 주기적인 상담절차를 통해 교육급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제 2. 학업중단자 수, 결석일수를 학교예산 배분기준에 반영

재학생이 학교를 중단할 때 학교는 그에 상응하는 재정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학업중단자 수, 또는 결석자 수에 상응하는 교육비의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의 Accountability 논의와 더불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조치이다. 교육청과 학교 간의 회계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 학업중단학생 수, 결석자 수를 반영하여 학교 전입금을 배분하는 절차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결석자 수가 실시간으로 교육청에 파악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학교와 교육청은 장기결석자에 대한 관리를 꾸준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절감되는 비용은 지자체의 학교 밖 청소년 학습바우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과제 3. 연령별·성별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학습지원 프로그램 확보

초·중학교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약 11만 명(조기유학자 등 제외한 추정), 고등학교 학령기 22만 명에 대한 학습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초·중학교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공동체적 경험을 수반한 교육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고등학교 단계 학교 밖 청소년은 직업훈련 또는 취업지원과 더불어 검정고시 준비가 결합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들이 확대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일과표,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이 설치·운영되어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과제 4.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복귀지원기관 설치·운영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교육청이 학생의 학교복귀를 책임지는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 미취학·장기결석자 관리에서 자퇴, 퇴학자 등 학교교육에서 이탈한 청소년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들의 학교적응을 돕는 정책 주체가 필요하다. 미국의 Re-Engagement Center는 아웃리치 성격이 강한, 거점문화공간을 중심으로 복교를 추진하는 기관이라면 영국의 PRUs는 대안교실처럼 학생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복교를 돕는 기관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청이 그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지원)청 단위에 취학관리기구가 설치되면 학령기에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교육(지원)청이 관리하게 된다.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 이들의 학교복귀를 지원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상담복지센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에 사업을 위탁·운영을 할 수 있지만 학생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주체는 교육청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과제 5. 인문교양교육과정의 확대

학교로부터 이탈한 많은 청소년들은 배움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입시위주 학교교육과정이 본인의 삶과 유리되어 배움의 의미를 찾지 못해 중단하게 되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지주의 교과목이 아니라 자신의 발견, 삶의 가치와 진로교육, 시민으로서의 성장과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문교양교육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디에 있던 일정 시간의 인문교양교육과정을

학습하도록 하고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교 밖 학습시간 누적을 통한 학력인증제도에 적용할 있도록 한다.

영역 2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대책

과제 6. 고졸 이하 청년층에 초점을 둔 진로상담, 직업능력개발, 취(창)업지원에 이르는 통합적 프로그램 개발·운영

고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 취업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를 떠나 저임금 노동시장에 투입되어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당장의 생계비에 묶여 직업능력은 개발하지 못한 채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청소년의 취업역량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조금만 도와주면 바로 취업이 가능한 청소년 집단은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고용노동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지만 취업역량이 떨어지는 청소년들, 중증 무업청소년 같은 경우는 평균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 이 프로그램으로는 도와줄 수가 없다.¹⁴⁴⁾ 대상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이다.

현재 청소년 대상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은 직업탐색, 직업 및 직장견학, 직업체험, 직무연수와 인턴십, 이후 세미창업/취업실전능력들이 하나로 연결되지 못하고 분절되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이들에게 필요한 생활기술, 학업, 복지적 지원 등을 통합한 프로그램, 청소년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유연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보편적 학습은 교육부가, 보편적 직업훈련은 고용노동부가, 취약·위기 청소년의 학습과 일, 생활기술과 복지 지원을 담는 통합적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여성가족부는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비와 사업비를 확보해야 한다.

과제 7. 취업사관학교용 모듈형 선택적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2017년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던 ‘취업사관학교’ 사업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된다. 고용노동부가 2011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이고 총 정원이 150명에 불과하지만 참여기관은 참여자

144) 사회적 기업가 인터뷰 내용

모집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단일 직종에 대한 강도 높은 훈련과정과 취업이라는 성과지표를 장착하고 있어 학교밖청소년이 성공적으로 이수하기에는 너무 경직되어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학교밖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모든 청소년이 일제히 시작하고 일제히 종료하는 방식을 떠나 월별, 쿼터별 프로그램, 특강형 프로그램 등 훈련과정을 다양화하여 모듈화하고 훈련 기간, 훈련 직종 등 개인에게 맞게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쉼터, 학교밖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모집과 직업훈련수요를 측정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모듈형의 선택적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현재의 8개 기관에 개설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자 이동이 가능한 방식도 고려해 볼 만 하다.

과제 8.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직업 상담 체계 구축: 한국고용정보원과 연계한 실무자 연수 및 진로직업 전문가 확충

청소년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진로직업 상담에 대한 전문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워크넷이나 커리어넷이 있지만 실제적이고 심층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체계가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서비스는 현재 학업지원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 학교 밖 지원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국고용정보원과 연계하여 진로·직업상담 집중연수를 실시하여 진로직업 및 취업지원 서비스 역량을 키운다. 또한 향후 인력 충원 시 진로직업전문가, 사례관리자 등을 충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즉시적으로는 직업 상담 욕구가 있는 청소년을 고용센터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조사 결과 54건의 지역자원연계건 수 중 고용센터 연계와 취업성공 패키지 연계 건수는 5건에 불과하다(<표 III-9> 참조). 전국 88개에 불과한 고용센터와 청소년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서비스 공백을 시급히 메우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과제 9. 일 학습병행제 TYPE II 개발

15세 이상 청소년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은 고용노동부가 맡고 있다. 청소년의 참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

일학습병행제는 수입을 얻으면서 학력 취득, 또는 취업 기회도 갖는 참여자 인센티브가 매우 큰 사업이지만 기업이 주도권을 갖고 재직자 참여비율을 늘리는 등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하여 사업 원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고 취약 위기 청소년 입장에서는 참여기회가 매우 제한된 사업이다.

취약·위기 청소년들이 일하면서 학력도 취득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 II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목공, 도예, 염색, 디자인, 인테리어, 자동차수리, 지역전통문화기관 등 지역사회 다양한 업종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등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작업장을 제공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을 개발·운영한다. 작업장을 통해 청소년들은 도제훈련을 받으며 학력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일학습병행제를 운영하는 작업장에서는 청소년 대상 직업체험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직업체험 과정을 거쳐 도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일학습병행제 운영 작업장에 대한 산업인력관리공단 지역본부 프로그램 인증위원회에는 학교밖지원센터장 등이 참여하여 지역 청소년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과제 10. 취약·위기 청소년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별도 운영

학교 밖 청소년들은 취업성공패키지 I에 참여할 수 있는데 고용센터 실무자들은 성과를 내기 쉬운 성인, 또는 경쟁력 있는 청소년 위주로 사업 대상을 선발하는 경향이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의 실적 평가지표가 취업이기 때문에 사업실무자들이 성인에 비해 중도탈락률이 높은 청소년의 선발을 기피하고 있다.

일본이 지역 청년 서포트스테이션, 청년헬로워크 등 청년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청년층에 초점을 둔 홍보를 통해 청년층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이다.

청소년들은 성인과 함께 훈련을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다.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프로그램은 이러한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실시되고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도 부족하다. 고용센터 실무자들은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업무를 추진하도록 훈련되어 있지 않다. 미성년자의 경우, 취업을 위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 동의서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청소년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위기 청소년 대상 취업성공패키지를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하고 성과지표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에 학교밖지원센터 등 청소년기관 등이 참여 하도록 독려하는 동시에 이 기관들이 고용노동부 훈련실시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양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취약·위기 청소년 대상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실적 뿐 아니라 학교밖 청소년의 상담참여 실적도 평가지표로 활용하도록 차별화한다.

이와 더불어 고용센터의 직업상담사 대상 취약·위기 청소년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연수가 필요하다. 고용센터 직업상담사와 학교밖지원센터 상담사의 공동 워크숍과 같은 교류와 연수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 대상 직업상담사를 훈련·배치하여 청소년의 취업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담당하도록 한다.

과제 11. 청소년 일자리 센터 설치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센터가 필요하다. 학교밖 청소년의 구직 통로는 알바몬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청소년들이 적성과 장래를 고려한 취업보다는 당장의 용돈, 생활비 벌이로 취업하고 중단하고 있다.

취업전망과 성장가능성, 장래를 고려한 노동경험과 일자리 제공,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소년 일자리 센터가 필요하다.

고용센터의 경우 성인 대상 프로그램만으로도 과부화인 상태에서 취약계층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에 집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조직이 필요하다.

과제 12. 지역 고용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통합운영 시범 실시

고용노동부는 지역단위로 몇 군대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여 고용복지+센터의 운영을 시도하고 있다. 좋은 성과에 대해서는 홍보를 통해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통합한 운영성과 발굴과 이에 대한 성과 홍보를 통해 고용복지+센터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용분야와 청소년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청소년의 진로직업상담과 고용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에서 고용센터와 학교밖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을 시도해 볼만하다. 역시 좋은 성과가 있다면 홍보하고 이를 확산해 나갈 수 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지역단위별 모델 개발을 시도한다. 좋은 사례를 개발하여 예산을 집중하여 성과를 내게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지역고용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통합운영이 청소년의 진로직업상담과 취업지원에 일정한 성과를 거둔다면 이러한 성과는 학교밖지원센터의 직업상담 대응능력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영역 3 무업형 청소년 지원 대책

과제 13. 은둔 무업형 학교 밖 청소년 규모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은둔 무업형 청소년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일본의 내각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문조사를 통해 은둔 무업형 청소년의 숫자를 추계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은둔 무업형 청소년 대책을 추진해 왔다. 우리 사회에도 청소년층 은둔 무업형 청소년의 숫자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다. 정책대상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먼저 실태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

과제 14. 은둔 무업형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체계 구축

은둔형 청소년은 발굴하여 집 밖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큰 과제이다. 향후 추진될 보건복지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교육부의 취학관리 전담기구 사업은 은둔 무업형 청소년 발굴의 단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읍면동 사회복지사, 아동보호전담기관, 교육청과 학교, 경찰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협조하여 실시하는 적극적인 아웃리치를 통해 가정에 은둔해 있는 청소년의 존재를 파악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사례관리와 필요한 지원을 담당한다.

과제 15. 은둔 무업형 청소년 지원에 대한 홍보 및 부모 세미나 운영

은둔형 청소년은 가출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정 상태가 좋을 수 있다. 자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며 집에 남아 있는 상태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은 부모이다. 부모가 자녀의 상태를

개선 시키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한다 해도 본인의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 부모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방문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은둔 무업형 청소년을 둔 부모와의 상담, 부모 세미나 등을 통해 부모들을 치료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부모 상담과 만남을 통해 신뢰를 쌓고 부모-자녀관계를 변화시키면서 서서히 시간을 두고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제 16. 찾아가는 상담체계 구축 및 치료형 캠프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발굴과 지원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상담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사, 청소년동반자의 방문상담을 활성화해야 한다. 가정방문 상담사를 양성해 가정방문 전담 상담사를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지만 인력 확보 전에는 가정방문이 가능한 인력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읍면동 사회복지 허브화 사업 등에서 취약계층 지원과정 및 가정방문 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면 이에 대한 정보 연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학교 밖 지원센터 상담사, 청소년동반자, 또는 방문상담자가 방문상담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을 밖으로 유인하기는 대단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배려하며 점진적으로 접근하여 캠프 등으로 유도해 내야 한다.

과제 17. 무업형 청소년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자립생활관 설치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의 은둔 계기는 교육실패, 취업실패, 정신적 장애 등으로 다양하다. 무업 기간이 얼마나 경과 했는지에 따라 초기 무업자가 있고 중증 무업자가 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한 무업자, 가족공동체·사회관계가 해체된 무업자 등 유형이 다양하므로 이들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여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장 학업이나 취업, 직업훈련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 서비스 제공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이것은 실제적인 임상경험의 축적에서 나올 수 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사례들이 꾸준히 쌓일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은둔 무업형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으로 공동생활 기숙사, 자립생활관을 운영하고 있다. 기본적인 생활습관의 개선, 직업적성검사 및 진로 컨설팅, 봉사활동, 직장체험 등을 청소년의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자립생활관 설치가 필요하다.

과제 1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설계

2016년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직원은 시도센터 5명 이상, 시군구 센터 2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매우 작은 규모의 조직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가 다양한데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여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적은 인원으로 어떻게 업무설계를 하여 효과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담당해야 할 주요 업무는 우선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과 사례관리이다. 교육청과 보호관찰소 등 지역기관들로부터 의뢰되는 사례 뿐 아니라 숨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기관 실무자들과의 협조, 부모의 의뢰에 따른 찾아가는 상담 등이 주요 업무로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뢰된 청소년만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발굴 업무가 배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과 협력체계 구축이다. 진로직업상담, 취업지원 등 청소년의 긴급한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지역사회 발굴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적으로 작동하려면 지역의 사정에 정통하고 끊임 없이 발로 뛰어야 한다. 필요한 지역자원이 없다면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동으로 요청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직접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다. 학교 밖 생활을 위한 정보제공과 상담 외 이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현재, 진로와 학습, 자기개발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사회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 밖 지원센터 마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면 학교밖지원센터의 존재가 위협을 받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두 명의 인력으로 프로그램 제공을 강조하게 되면 프로그램 위주 운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놓치게 될 것이다. 프로그램은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충원과 함께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과제 1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실무자 직무분석, 업무체계 및 임금체계의 개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 기존의 상담인력, 위기청소년 안전망과 동반자인력,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인력 등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여러 가지 사업의 확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인력충원이 이루어 왔지만, 인력 부족은 여전히 호소되고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상담인력의 인건비 수준이 가장 낮아 조직 내 사기가 떨어져 실무자 교체와 이동이 심하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 밖 청소년 상담사의 업무 능력 축적을 방해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상담복지센터의 전신인 '청소년대화의 광장'(중앙), 청소년 상담실(지자체) 설치 당시와는 정책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청소년의 상담수요도 변화하였다. 새로운 정책수요가 생길 때마다 동일 전달체계에 다양한 업무와 신규 인력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직 확대가 이루어져 왔지만 정책환경과 상담 수요 변화 등을 반영한 전체적인 직무개선 조치는 없었다. 상담복지센터 등의 사업추진 방향과 시·도센터와 시·군·구센터의 직무 분석과 더불어 센터의 업무를 정책 환경 변화,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새롭게 설계하고 직무조정, 임금체계의 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

과제 20. 오후와 야간, 휴일 근무체계를 갖춘 학교 밖 지원센터 시범 운영

학교 밖 청소년은 지원센터의 시간이 자신의 일과시간과 맞지 않아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다고 한다. 청소년에게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시간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일, 또는 야간근무체계 구축하여 운영해 보고 그 성과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가 지역별로 상이할 것으로 보이므로 우선적으로 몇 개 시범 센터를 선정하고 교대근무를 위한 추가적인 인력 배치, 야간근무 수당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과제 21.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적은 인력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지역사회 자원의 분포가 지역상황에 따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학교 밖 지원센터의 지역연계 서비스 제공 실적은 너무 적다. 청소년들이 분야별로 필요로 하는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차년도 연구가 계속되면서 지역실정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지겠지만 지역 내 서비스제공 기관과의 네트워크 작업에 힘을 기울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허브 기관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과제 22. 학교밖지원센터 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운영

학교 밖 지원센터의 본 조사의 결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필요한 것은 진로직업 상담과 일자리 정보, 취업지원 서비스 등이었고 학교밖 지원센터는 이러한 수요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학교밖 지원센터의 진로직업상담, 취업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실무자에 대한 집중연수가 필요하다.

지자체 내 고용센터와 학교밖지원센터 실무자 공동 워크숍 등 실무자간 교류와 협력을 늘리는 방법,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한국고용정보원과 MOU를 통해 학교밖지원센터 상담사 대상 진로직업 및 취업지원 서비스 연수를 실시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상담사의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사례관리 방법 및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협력에 대한 연수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

영역 5 좀 더 촘촘하고 빠른 학교 밖 청소년 발굴체계 구축

과제 23.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촘촘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체계 강화

학교 밖 청소년의 주요 발굴 수단은 교육청으로부터 이관 받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과 이미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경찰, 법원, 소년원, 보호관찰소, 비행예방센터, 지역 내 청소년 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주민센터 등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이하 유관기관)과 연계망을 구축·활용하는 것이다(여가부, 2016: 824-825). 아직 학교 밖 청소년 발굴체계가 촘촘하지 못해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이 센터의 주요 당면과제가 되어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양적으로 많이 발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집단을 발굴하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은 청소년이 거주하고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사업은 찾아오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찾아 들어오지 못하거나 중도 탈락자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들어오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자체 행정단위는 지역 주민의 사정 등을 알기 때문에 접근성 면에서 발굴이 좀 더 쉽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주민센터(행복e음) 재가복지사업 과정에서 읍면동 사회복지사가 지역 사회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있다. 청소년증 발급과정에서도 읍면동 실무자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 홍보가 가능하며 은둔 무업형 청소년을 가정에 접근이 가능하다.

각 시도, 시군구가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중심이 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에 나서야 할 것이다.

과제 24. 교육(지원)청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간 신속한 정보 연계 체계 구축

학업중단 청소년 발생 시 신속히 정보가 연계된다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중단 후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학업을 중단 한 후 가장 어려운 시기는 중단 후 1년이며 신속히 학교 밖 지원센터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 연계되면 향후 긍정적인 진로 설정을 촉진할 수 있다.

학교밖지원센터가 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면 숙려제 후 학업 중단하는 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정보 입수가 가능하다.

2016년 10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으로 취학관리 전담기구 구성·운영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사가 전담기구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미취학·장기결석자 중 학교 부적응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정보 연계가 가능하다.

학업중단숙려제, 취학관리전담기구 등에 참여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학업중단 학생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접하게 됨으로써 해당 청소년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지원 또한 신속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국내자료]

- 강경중, 김종우, 박천수, 황성수, 전승환, 이한별 외 (2014). **일학습병행제의 경제·사회적 성과분석** (연구보고 2014-16).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경향신문 (2016.2.23.). 취업만 외치다 실패한 일본, 이제 청년 삶을 들여다본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32257555&code=940100에서 2016년 6월 7일 인출.
- 고용노동부 (2010).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추진성과 분석.
<http://www.prism.go.kr>에서 2016년 10월 18일 인출.
- 고용노동부 (2011).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시장의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http://www.prism.go.kr>에서 2016년 10월 18일 인출.
- 고용노동부 (2012). 위기청소년의 취업능력향상을 위한 취업사관학교 발전방안.
<http://www.prism.go.kr>에서 2016년 10월 18일 인출.
- 고용노동부 (2013).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고용영향평가.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https://www.keis.or.kr>에서 2016년 10월 18일 인출.
- 고용노동부 (2015). **2016회계연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3&smode=1&smenu=2&bbbs_cd=110&seq=1452585468775&div_cd=&mode=view에서 2016년 10월 13일 인출.
- 고용노동부 (2016a). **2016년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7&mode=view&pimSeq=1&piSeq=1&bbbs_cd=OP0302&state=A&seq=1469428587140에서 2016년 10월 13일 인출.
- 고용노동부 (2016b). **2016년 취업성공패키지 매뉴얼**.
<http://www.work.go.kr/pkg/succ/index.do>에서 2016년 5월 26일 인출.

- 교육부 (2016).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6.3.18.)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 시행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 (보도자료).
<https://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tPage=0&encodeYn=N&boardSeq=62628&mode=view>에서 2016년 5월 26일 인출.
-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2016a).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 내부자료.
-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2016b). 사업추진 방향 및 추진과제. 내부자료.
-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2016c). 2016 검정고시 연령별 합격자 현황. 내부자료.
- 교육부, 여성가족부 (2013.11.28.)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http://www.mogef.go.kr>에서 2016년 5월 27일 인출.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각년도). **교육통계연보**. kess.kedi.re.kr에서 2016년 4월 5일 인출.
- 교육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2015). **학교 밖 진로 가이드북: 학교 밖 또 다른 길 찾기**. 세종: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7). **대안교육백서**.
<http://www.moe.go.kr/web/100063/ko/board/view.do?bbsId=147&pageSize=10&boardSeq=47943¤tPage=18&encodeYn=Y&mode=view>에서 2016년 5월 26일 인출.
- 국회예산정책처 (2016). **일학습병행제 성과 평가** (사업평가 16-16).
<http://www.nabo.go.kr/>에서 2016년 10월 13일 인출.
- 김병욱의원실 (2016. 10. 7.). 김병욱의원, 교육여건 지역별 천차만별, 학생 1인당 교육비 세종 2,048만원 전국 최고, 경기 645만원 전국 최저 (국회의원 보도자료).
<http://blog.naver.com/777byung/220834770564>에서 2016년 10월 24일 인출.
- 김성식, 남궁지영 (2008). **한국교육중단연구 2005(IV)** (연구보고 PR 2008-29).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희, 최보영, 이인희 (2013). 학교밖 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욕구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4), 1-28.
- 김종숙, 신선임, 강순희 (2014). **일학습병행제 실태조사** (연구보고 14-15-01). 세종: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http://www.dbpia.co.kr/>에서 2016년 10월 19일 인출.
-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I** (연구보고 10-R0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경, 이광호, 김종성, 정윤미 (2013).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Ⅱ: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13-R0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선, 홍영오 (2011). **전국범죄피해조사 2010**.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연, 정소연, 이용해 (2014).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연구보고 14-R10).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남기성, 이성재, 오하준 (2013). **2013년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연구보고 2013-12).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뉴스시스 (2016.7.18.). 부산시, 청소년 심성수련교육 '학교가는 길'운영.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18_0014227476&cID=10201&pID=10200에서 2016년 10월 13일 인출.
- 더퍼스트미디어 (2014.12.11.). 은둔형 외톨이, 사회 부적응 청년들, 세상으로 나오다.
<http://www.thefirstmedia.net/ko/?p=4265>에서 2016.5.31.인출.
- 민인철, 이용교 (2011). **광주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 보고서**. 광주: 광주발전연구원.
- 배주미, 정익중, 김범구, 김영화 (2010).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백혜정, 방은령 (2009).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 (연구보고 09-R08).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백혜정, 송미경 (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 15-R0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백혜정, 좌동훈, 남기곤, 정경석 (2015). **가출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쉼터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위탁** (연구보고 2015-2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보건복지부 (2014.9.10.) 읍면동, 가가호호 방문으로 위기가구 발굴·지원 (보도자료).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04896&SEARCHKEY=TITLE&SEARCHVALUE=%B0%A1%B0%A1%C8%A3%C8%A3%20%B9%E6%B9%AE%C0%B8%B7%C

- E에서 2016년 5월 26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16). **2015년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 수급자 현황**.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에서 2016년 10월 26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16.5.31.) 16년 말까지 624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 설치 (보도자료).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32247&SEARCHKEY=TITLE&SEARCHVALUE=16%B3%E2%20%B8%BB%B1%EE%C1%F6에서 2016년 10월 13일 인출.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정책관 (2015.5.)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체계 수립 (결재문서).
<http://opengov.seoul.go.kr/sanction/4951512>에서 2016년 5월 26일 인출.
- 신혜령, 박은미, 강현아, 이현주, 한규제, 김경희 (2008).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고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
- 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201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1-R2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안전행정부 (2014).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에서 2016년 4월 5일 인출.
- 여성가족부 (2014). **2014년도 성과보고서**.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policy05a.jsp?func=view¤tPage=0&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702366에서 2016년 10월 26일 인출.
- 여성가족부 (2015a). **제 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5b). **2015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5c).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참고자료**.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policy05a.jsp?func=view¤tPage=0&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700782에서 2016년 10월 12일 인출.
- 여성가족부 (2016a).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7_01.jsp?func=view¤tPage=0&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703562에서 2016년 10월 26일 인출.
- 여성가족부 (2016b). **2016년도 청소년사업 안내**.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7_01.jsp?func=view&idx=701395에서 2016년 5월 26일 인출.
-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201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성과. 내부자료.
- 오은진, 박성경, 민현주, 김난주, 송창용, 김지현 (2008).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욕구조사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www.prism.go.kr>에서 2016년 5월 12일 인출.
- 울산 중구보건소 (2016). 내부자료.
- 윤철경, 류방란, 김선아 (2010). **학업중단 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 (2014).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I** (연구보고 14-R1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 (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연구보고 13-R18).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최인재, 유성렬, 김강호 (2015).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II** (연구보고 15-R1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상, 백혜정 (2005).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III** (연구보고 05-1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상, 백혜정, 이종원, 김지영 (2011).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II: 사업보고서** (연구보고 11-R1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상, 서정아, 배상률, 성은모, 김지영, 강현철 (2012).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III: 사업보고서** (연구보고 12-R1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상, 유성렬 (2007).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IV: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실태의 변화와 특성** (연구보고 07-R01-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상준, 이수경, 이지은, 김한준 (2012).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운영실태 분석 및 성과평가** (연구보고 2012-00).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승렬, 김주영, 박혁, 황규성, 옥우석 (2010). **청년 일자리지원 사업 심층연구: 외국의**

- 청년층 고용정책 검토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이승현, 박학모, 김성기 (2014). **학업중단 예방 법령 제도 국제비교 및 시사점 도출연구** (2014년 교육부 정책 연구과제 2014-10). 세종: 교육부.
- 이종원, 황진구, 서정아, 한영근, 허효주, 이영화 (2013).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IV: 사업보고서** (연구보고 13-R1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창호, 김경희, 장상아 (2013).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 보호방안 연구** (연구보고 13-R08). 서울: 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창호, 성윤숙, 정낙원 (2012).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연구** (연구보고 12-R05). 서울: 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희길 (2006). **범죄성의 세대 간 전이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장익현 (2016). 영국의 직업교육 제도 개혁에 대한 동향. **The HRD Review**, 19(3), 210-219.
- 전경숙, 이아름 (2013).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정책보고 2013-06). 경기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전영실, 김지영, 박성훈 (2013).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연구보고 13-R18-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전영실, 신동준 (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및 가해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12-AA-01).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연순, 변정현, 황여정, 宮本みち子 (2013).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 니트 실태조사**.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주금옥 (2002). **정규교육 중도탈락 청소년의 진로장애 지각에 관한 탐색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중앙일보 (2015.2.5.) 울산 중구보건소 ‘은둔형 외톨이’ 심리치료 지원.
<http://news.joins.com/article/17102585>에서 2016년 5월 26일 인출.
- 중앙일보 (2016.1.24.) 학업중단 청소년 복교 프로그램 ‘학교로 가는 길’2월 개최.
<http://news.joins.com/article/19465416>에서 2016년 5월 27일 인출.
- 중앙자활센터 (2015). **희망리본사업 성과분석보고서 (2014년~2015년)**. 서울: 중앙자활센터 (내부자료).
- 최인재, 모상현, 이선영 (201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II**:

-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2-R1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03-2014). 국제인구이동통계.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2/2/5/index.board에서 2016년 4월 5일 인출.
- 하정화, 박금식, 허두진 (2012).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사회적응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2-05).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DB (각년도).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계좌제) 사업성과 현황.
<http://statistics.keis.or.kr/stats/subIndex/1319.do>에서 2016년 10월 26일 인출.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DB (각년도). 청년인턴 연령별 신규참여건수(년누적).
http://statistics.keis.or.kr/user/statistics/stats/eisWorknet/1364/NR_eisNewWantedATypeSearch.do?category=A에서 2016년 10월 13일 인출.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DB (각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연령별 신규참여건수(년누적).
http://statistics.keis.or.kr/user/statistics/stats/eisWorknet/1364/NR_eisNewWantedATypeSearch.do?category=A에서 2016년 10월 13일 인출.
- 한국교육개발원 (2015).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브로슈어**.
http://openschool.kedi.re.kr/files/brochure/2014/2014_br_kr.pdf에서 2016년 5월 26일 인출.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6a). **과정평가형자격 운영실태 및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www.hrdkorea.or.kr/cms/download/downloadFile.hrd?attachSeq=2034670에서 2016년 10월 19일 인출.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6b). 취업사관학교 사업 현황. 내부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한 진로개발 지원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동향·데이터분석센터 (2012). [동향] 해외. **The HRD Review**, 15(1), 250-272.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6). **2016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매뉴얼(일부 축약본)**. 내부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2016). 2016학년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현황. 내부자료.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황여정, 김정숙, 이수정, 변정현 (2015).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연구보고 15-R0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외자료]

横浜市青少年相談センター. (2016). 「横浜市子ども・若者実態調査」結果概要 [요코하마시 청소년상담센터(2016) 요코하마시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결과개요]. 내부자료.

横浜市青少年相談センター. 「横浜市若者自立支援 3機関連携のしくみ」パンフレット (요코하마시 청소년상담센터. 요코하마시 청년자립지원 3기관연계 팜플렛).

横浜市青少年相談センター. 横浜市青少年相談概要 (요코하마시 청소년상담센터. 요코하마시 청소년상담센터 개요). 내부자료.

内閣府 (2010). 若者の意識に関する調査 (ひきこもりに関する実態調査) 報告書 [내각부, 2010, 청년 의식에 대한 조사(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파악)].

http://www8.cao.go.jp/youth/kenkyu/hikikomori/pdf_index.html에서 2016년 6월 7일 인출.

内閣府 (2016). 平成28年版 子ども・若者白書 (내각부, 2016, 2016년판 아동·청소년백서).

http://www8.cao.go.jp/youth/whitepaper/h28honpen/pdf_index.html에서 2016년 8월 9일 인출.

三宅由子, 立森久照, 竹島 正, 川上憲人 (2004). 地域疫学調査による「ひきこもり」の実態調査 (미야케 유코 외, 2004, 지역역학조사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의 실태조사).

http://www.ncnp.go.jp/nimh/keikaku/report/pdf/epi_16-3.pdf에서 2016년 6월 7일 인출.

Grasmick, H. G., Tittle, R. C., Bursik, R. J. J., & Arneklev, B. J. (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5-29.

Rennie Center for Education Research & Policy (2012). *Forgotten youth: Reengaging students through dropout recovery*. http://www.renniecenter.org/topics/forgotten_youth.html에서 2016년 8월 8일 인출.

US. Department of Labor (2009). *Job corps annual report: program year 2008 (July 1, 2008 - June 30, 2009)*.

<http://www.jobcorps.gov/Libraries/pdf/py08report.sflb>에서 2016년 8월 5일 인출.

[인터넷 사이트]

고용노동부 정책안내: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http://www.moel.go.kr/policyinfo/new/young/view_content13.jsp에서 2016년 10월 13일 인출.

고용노동부 정책안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http://www.moel.go.kr/policyinfo/new/reclamarion/view_content01.jsp에서 2016년 10월 13일 인출.

고용노동부 정책안내: 일·교육·훈련·자격 연계 고졸인력 양성 사업

http://www.moel.go.kr/policyinfo/new/young/view_content12.jsp에서 2016년 10월 13일 인출.

고용노동부 정책안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http://www.work.go.kr/intern/busi/emp_busiInfo.do에서 2016년 5월 26일 인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http://www.workplus.go.kr/index.do>에서 2016년 10월 27일 인출.

여성가족부 정책안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3_05.jsp?viewfnc1=0&viewfnc2=0&viewfnc3=0&viewfnc4=0&viewfnc5=1&viewfnc6=0에서 2016년 10월 25일 인출.

여성가족부 정책안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6_05_01.jsp?viewfnc1=0&viewfnc2=0&viewfnc3=0&viewfnc4=1&viewfnc5=0&viewfnc6=0에서 2016년 5월 26일 인출.

한국산업인력공단: 청년 및 취약층 일자리 지원-취업사관학교

<http://www.hrdkorea.or.kr/3/1/4/2>에서 2016년 5월 26일 인출.

한국이러닝산업협회: 내일배움카드제 사업 안내

http://www.daumjob.com/portal/intro/main.intro01.user?topmenu_id=intro&submenu_id=01에서 2016년 5월 26일 인출.

一般社団法人 不登校支援センター (일반사단법인 부등교지원센터)

<https://www.futoukou119.or.jp/>에서 2016년 6월 27일 인출.

厚生労働省 : トライアル雇用奨励金 (후생노동성: 시범고용장학금)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koyou/kyufukin/trial_koyou.html에서 2016년 8월 10일 인출.

厚生労働省: ひきこもり対策推進事業 (후생노동성: 은둔형 외톨이 대책추진사업)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seikatsuhogo/hikikomori/에서 2016년 6월 3일 인출.

厚生労働省: ひきこもり地域支援センターの概要 (후생노동성: 은둔형 외톨이 지역지원센터의 개요)

http://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seikatsuhogo/hikikomori/images/hikikomori01.gif에서 2016년 6월 3일 인출.

厚生労働省: 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って何? (후생노동성: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이란?)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shokugyunouryoku/for_worker/ys-station/index.html에서 2016년 7월 22일 인출.

厚生労働省: 平成27年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事業の実績 (후생노동성: 2015년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사업의 실적)

<http://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800000-Shokugyunouryoku-kaihatsukyoku/h27jissemi.pdf>에서 2016년 7월 22일 인출.

認定NPO法人育て上げネット (인정NPO법인 소다테아게넷)

<http://www.sodateage.net/>에서 2016년 7월 21일 인출.

文部科学省: 教育支援センター(適応指導教室)整備指針(試案) [문부과학성: 교육지원센터(적응지도교실) 정비지침(시안)]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3/siryu/06042105/001/006/001.htm에서 2016년 7월 25일 인출.

文部科学省: 文部科学省の不登校に関する主な施策 (문부과학성: 문부과학성의 부등교에 대한 주요 시책)

http://www.mext.go.jp/a_menu/shotou/futoukou/03070701/004.pdf에서 2016년 7월 25일 인출.

K2インターナショナル (K2인터내셔널) <http://k2-inter.com/>에서 2016년 7월 21일 인출.

NPO Peaceful House はぐれ雲 (NPO Peaceful House 하구레구모)

<http://www.haguregumo.com/>에서 2016년 7월 21일 인출.

The Bridge over Troubled Waters <http://www.bridgeotw.org/>에서 2016년 8월 9일 인출.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Specialized Programs-Educational Options

<http://www.cde.ca.gov/sp/eo/>에서 2016년 7월 25일 인출.

Childcare and parenting: Schools and education-Free schools

<https://www.gov.uk/types-of-school/free-schools>에서 2016년 7월 25일 인출.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ESA)

<https://www.gov.uk/employment-support-allowance>에서 2016년 8월 10일 인출.

Job Corps <http://www.jobcorps.gov/>에서 2016년 8월 5일 인출.

Jobseeker's Allowance (JSA)

<https://www.gov.uk/jobseekers-allowance/overview>에서 2016년 8월 10일 인출.

The Philadelphia Youth Network <https://www.pyninc.org/>에서 2016년 8월 8일 인출.

U.S. Department of Education: Federal TRIO Programs

<http://www2.ed.gov/about/offices/list/ope/trio/index.html>에서 2016년 7월 25일 인출.

U.S. Department of Labor: Apprenticeship

<https://www.dol.gov/general/topic/training/apprenticeship>에서 2016년 8월 4일 인출.

U.S. Department of Labor: WIA Youth Formula Funded Program

https://www.doleta.gov/youth_services/wiaformula.cfm에서 2016년 8월 5일 인출.

U.S. Family & Youth Services Bureau: Street Outreach Program Fact Sheet

<http://www.acf.hhs.gov/fysb/resource/sop-fact-sheet>에서 2016년 8월 9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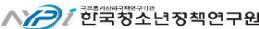
Youth Build USA <https://www.youthbuild.org/>에서 2016년 8월 5일 인출.

부 록


1. 부록 1(설문지: 기존패널용 4차 설문지)
2. 부록 2(체크리스트: 신규패널용)

부 록

1. 설문조사지: 기존패널용 4차 설문지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종단 조사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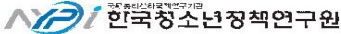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계속되는 연구로서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의식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귀하가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의해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2016년 5월

조사주관기관	조사수행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사회정책동(D동)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79								
윤철경 선임연구위원(044-415-2140) 성운숙 연구위원(044-415-2218)	황 인 창 부장(02-3014-0086) 박 중 경 대리(02-3014-0988)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PID (기록하지 마세요)</td>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15%;"></td> </tr> </table>	PID (기록하지 마세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본인 이름</td> <td style="width: 50%;"></td> </tr> </table>	본인 이름	
PID (기록하지 마세요)									
본인 이름									

부 록

1. 학업중단 및 복학 현황

※ **지금부터** 응답하는 모든 문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응답 기준이 없는 한 지난 조사(2015년 6월)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지난 조사(2015년 6월)를 언제 했는지 기억나지 않으면 면접원 선생님께 확인**해주세요. 응답 도중 잘 모르겠는 문항이 있으면 면접원 선생님께 질문하거나 기타 또는 빈 칸에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을 적어 주세요.

문 1. 귀하는 **현재** 다음 중 어떤 **상태**입니까?

- ※ 여기에서 학교란 정규 학교를 가리키며 학력 인정을 위해 검정고시를 볼 필요가 없는 학교를 말함
- ※ **인가** 대안학교는 정규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며, **미인가** 대안학교는 정규 중·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음
- ※ 학교를 휴학 중인 경우도 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태로 봄
- ※ 중학교를 마치고 정규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경우도 학교를 그만둔 상태에 포함됨
- ※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한 경우도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로 봄
- ※ 방송통신중학교나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정규 중·고등학교임

- ①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고교 미진학/미인가 대안학교, **검정고시 합격 후 미진학자 포함**) → 「문 1-1」로
- ② 정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상태(휴학/방학 포함) → 「문 2」로
- ③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검정고시 합격 제외) → 「문 2」로
- ④ 대학에 진학한 상태(휴학/방학 포함) → 「문 2」로
- ⑤ 기타() → 「문 2」로

문 1-1.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여부는?

- ①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않았다
- ②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였다

문 2. **지난 조사(2015년 6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고등학교에 **복학한 경험**이 있습니까?

※ 중학교, 고등학교 복학 모두 포함

- ① 복학한 경험이 없다 → 「문 3, 으로
- ② 복학한 경험이 있다 → 「문 2-1」로

문 2-1. **지난 조사(2015년 6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귀하가 **복학한 중·고등학교**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학교 유형을 잘 모르는 경우 기타에 학교명을 기입
 ※ 실업계고는 특성화고에 해당

- ① 중학교 ② 일반고 ③ 특성화고
- ④ 자율고 ⑤ 특목고 ⑥ 방통중
- ⑦ 방통고 ⑧ 대안학교 ⑨ 기타(_____)

문 2-2. **지난 조사(2015년 6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언제** 중·고등학교에 **복학**했습니다?

※ 예: 2016년 3월에 복학한 경우, 2016년 03월로 기입
 ※ 지난번 조사 이후 현재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것만 기입
 ※ **지난 조사(2015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복학한 경우, **마지막 복학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복학한 때	201□년 □□월
-------	-----------

문 3. **지난 조사(2015년 6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규 중·고등학교를 중단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중단한 경험이 없다
- ② 중단한 경험이 있다



II. 생활 경험과 인식

문 4. **지난 조사(2015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아래 각각의 일을 경험한 달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 해당 기간은 지난 조사(2015년 6월) 이후 현재까지임
- ※ 해당 기간 동안 월별로 최소 1개 이상 항목에 응답해야 하며 각 항목마다 경험한 달에 모두 표시해야 함
- ※ 월별로 한 일을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음
- ※ **방학기간이나 휴학기간도 학교에 속해 있으면 학교를 다닌 것으로 표기함**
- ※ 응답자가 해당 일에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없는 경우 '9)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을 선택
- ※ 앞의 문항에서 복학, 학업중단, 8시간 이상 일(아르바이트) 경험 등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해당 내용이 꼭 표시되어야 함
- ※ 복학이나 학업중단을 여러 번 한 경우 해당 기간을 더 주의 깊게 표시
- ※ 학교를 그만둔 시점은 학교를 나가지 않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함

[응답 예시]

2014년 11월에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승호는 **2015년 6월에 지난 설문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조사 (2015년 6월) 이후 현재까지 기간 중 2015년 10월~2016년 1월은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2016년 2월은 집 앞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2016년 3월에는 전에 다니던 학교에 복학하여 **2016년 5월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 ☞ 승호가 **지난 설문조사를 한 이후인 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 현재까지** 무엇을 했는지를 응답합니다.
- ☞ 1) 복학하여 중고등학교에 다님 의 보기 ⑨ 2016년 3월 ~ ⑪ 2016년 5월에 모두 동그라미 합니다.
- ☞ 8)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의 보기 ④ 2015년 10월 ~ ⑥ 2016년 2월에 모두 동그라미 합니다.
- ☞ 학업중단 기간 중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은 9)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의 보기 ① 2015년 7월 ~ ③ 2015년 9월에 동그라미 합니다.

	2015년						2016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1) 복학하여 중·고등학교에 다님 (휴학/방학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8)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9)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승호가 응답해야 할 기간											

	2015년						2016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1) 복학하여 중·고등학교에 다님 (휴학/방학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2) 대안학교에 다님 (인가/미인가 모두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3) 검정고시 공부를 함(검정고시 학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4) 대학입시 공부를 함(대입 학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5) 대학에 다님(휴학/방학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6) 직업기술을 배움(직업학교나 학원,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함)	①	②	③	④	⑤	⑦	⑦	⑧	⑨	⑩	⑪
7) 자격증 및 취직시험(공무원 시험 등) 준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8)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9)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자녀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10) 취미나 동아리활동 등에 참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11)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12)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13) 군 복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문 4-1. 「문 4. 에서 “2) 대안학교에 다님” 에 응답한 경우, 다닌 적이 있는(또는 현재 다니고 있는) 대안학교 이름은 무엇이며, 학교 있는 곳(학교 소재지)은 어디입니까?

대안학교 이름: _____ 학교

학교소재지: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읍/면/동)

- 문 4-1-1. 「문 4. 에서 “2) 대안학교에 다님” 에 응답한 경우,
다음 중 어떤 유형의 대안학교에 다니셨습니까(또는 다닙니까)?
- ① 공립 또는 사립 인가 대안학교(학력 인정이 됨)
 - ② 미인가 대안학교(학력인정을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해야 함)
 - ③ 위탁교육기관(중전에 다니던 학교의 졸업자격을 줌)
 - ④ 잘 모르겠음

문 4-2. 「문 4」에서 “3) 검정고시 공부를 함”에 응답한 경우 주로 어떻게 검정고시 공부를 하셨습니까?

※ 지난 조사(2015년 6월) 이후 현재까지 검정고시 공부를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문 4-3」로

- ① 혼자서 (방송이나 인터넷 강의를 듣는 등)
- ②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면서
- ③ 청소년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동네 기관에서 지원하는 검정고시 공부
- ④ 교육청이나 보호관찰소 등에서 지원하는 검정고시 공부
- ⑤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 ⑥ 기타(_____)

문 4-2-1. 작년 8월 또는 올해 4월에 검정고시에 응시하셨습니까?

- ① 응시한 적 있다 → 「문 4-2-2」로
- ② 없다 → 「문 4-3」으로

문 4-2-2. (응시한 적이 있다면) 합격하셨습니까?

- ① 전과목 합격
- ② 부분 합격
- ③ 불합격

문 4-3. 「문 4」에서 “5) 대학에 다님(휴학/방학 포함)”에 응답한 경우,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후 대학에 진학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원래 대학진학 계획을 갖고 학교를 그만둔
- ② 학교를 그만둔 후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 ③ 학교를 그만둔 후 일을 해 보니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대우를 받아서
- ④ 부모님이 대학을 가라고 권유해서
- ⑤ 일을 해 보니 대학에 가야만 내 직업능력 개발을 할 수 있어서
- ⑥ 기타(_____)

문 4-4. 「문 4」에서 “5) 대학에 다님(휴학/방학 포함)”에 응답한 경우, 귀하가 진학한 대학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 4-4-1. 학교소재지 및 학교명	1. 학교 소재지: _____ 시/군 2. 학교명(정확한 학교명을 기록해 주세요): _____ 대학/대학교
문 4-4-2. 학과명	(_____)
문 4-4-3. 학 제	① 교육대학 ② 산업대학 ③ 기술대학 ④ 사이버대학 ⑤ 전문대학(2, 3년제) ⑥ 방송통신대학 ⑦ 기능대학(폴리텍대) ⑧ 4년제 대학교 ⑨ 기타(_____)
문 4-4-4. 설립유형	① 국·공립 ② 사립
문 4-4-5. 전공계열	① 언어문학 (외국어, 문예창작, 교양어 등) ② 인문과학 (문헌정보, 문화, 인문일반 등) ③ 경영경제 (관광, 금융회계세무, 무역유통 등) ④ 법률 ⑤ 사회과학 (가족·사회·복지, 비서, 언론방송, 행정 등) ⑥ 교육일반 (사회·자연교육 등) ⑦ 유아교육 ⑧ 특수교육 ⑨ 건축 (건축·설비, 건축, 조경 등) ⑩ 토목·도시 (건설, 토목 등) ⑪ 교통·운송 (지상교통, 항공, 해양 등) ⑫ 기계·금속 (기계, 금속, 자동차 등) ⑬ 전기·전자 (전기 전자, 제어계측 등) ⑭ 정밀·에너지 (광학에너지 등) ⑮ 소재·재료 (반도체세라믹, 섬유, 신소재, 재료 등) ⑯ 컴퓨터·통신 (전산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정보·통신 등) ⑰ 산업 (산업공학 등) ⑱ 화공 (화학공학 등) ⑲ 공학기타 (기전공학·응용공학) ⑳ 농림·수산 (농수산, 원예 등) ㉑ 생물·화학·환경 (생물, 자원, 환경 등) ㉒ 생활과학 (가정관리, 식품·조리, 의류·의상 등) ㉓ 수학·물리·천문·지리 (지적 등) ㉔ 간호 ㉕ 치료·보건 (보건, 재활, 의료장비, 의무행정 등) ㉖ 디자인 (산업, 시각, 패션 등) ㉗ 응용·예술 (공예, 사진·만화, 영상·예술, 뷰티아트 등) ㉘ 무용·체육 ㉙ 미술·조형 ㉚ 연극·영화 ㉛ 음악 (음악·음향 등) ㉜ 기타 (_____)
문 4-4-6. 학 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문 4-4-7. 재학상태	① 재학 중 ② 휴학 중 → 「문 4-4-8」로 ③ 대학 중퇴 → 「문 4-4-9」로 ④ 졸업유예 중 ⑤ 졸업

부
록

문 4-5-3. 귀하가 받은 (또는 받고 계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득한 또는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 ① 예 → (자격증명: _____)
- ② 아니오

문 4-5-4. 귀하가 배우셨던 (또는 현재 배우고 계신)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 강사의 질, 프로그램 운영 시설과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 「문 4-5-5」로
- ② 불만족 → 「문 4-5-5」로
- ③ 만족 → 「문 4-5-6」으로
- ④ 매우 만족 → 「문 4-5-6」으로

문 4-5-5. 「문 4-5-4」에서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에 응답한 경우, 불만족스럽다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시오.

(_____)

문 4-5-6. 귀하가 받은 또는 받고 계신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취업 또는 창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 「문 4-6」으로
- ② 대체로 도움이 된다 → 「문 4-6」으로
- ③ 별로 도움이 안된다 → 「문 4-5-7」로
- ④ 전혀 도움이 안된다 → 「문 4-5-7」로

문 4-5-7. 「문 4-5-6」에서 “③ 별로 도움이 안된다, ④ 전혀 도움이 안된다”에 응답한 경우, 해당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시오.

(_____)

문 4-6. 「문 4」에서 “8)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에 응답한 경우, 지난 조사(2015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아르바이트(또는 취업)를 하다가 그 일을 그만 둔 경험은 모두 몇 번입니까?

(총 _____ 번) → 0번인 경우 문 4-7로

문 7-1. **직업훈련 참여 의사가 있을 경우**,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래 항목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자격증 취득 여부 → 「문 7-4」로
- ② 훈련 후 취업 가능성 → 「문 7-4」로
- ③ 흥미, 적성에 맞는지 여부 → 「문 7-4」로
- ④ 총 훈련 기간 → 「문 7-2」로
- ⑤ 훈련 시 받는 수당 → 「문 7-3」으로
- ⑥ 주간 참여 일수 및 1일 훈련 시간 → 「문 7-4」로

문 7-2. 만일 귀하가 직업훈련을 받게 될 경우, 적당한 훈련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한 훈련기간 <small>※</small>	_____ 개월
---------------------------	----------

→ 응답 후 아래 「문 7-4」로

문 7-3. 귀하가 **직업훈련을 받은 후 수당으로 지원되는 돈이 한달에 최소한** 얼마 정도 이상이 되어야 참여하시겠습니까?

한달에 받는 적절한 수당 <small>※</small>	_____ 만원
--------------------------------	----------

→ 응답 후 아래 「문 7-4」로

문 7-4. 귀하가 가장 원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특정직업의 기술 훈련 + 고교학력취득 검정고시 준비
- ② 특정직업의 기술 훈련 + 대입 준비
- ③ 특정직업의 기술 훈련과 확실한 취업 연계
- ④ 멘토링, 문화활동 등을 병행한 특정직업 기술 훈련
- ⑤ 기타 ()

→ 응답 후 「문 8」로

문 7-5. **직업훈련 참여 의사가 없을 경우**,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돈(생활비)을 벌어야 해서
- ② 훈련을 받아도 취업이나 능력 향상에 도움될 것 같지 않아서
- ③ 직업훈련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 ④ 내가 원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없어서
- ⑤ 시간이 없어서(또는 시간이 안맞아서)
- ⑥ 기타 ()

문 8. 지난 조사(2015년 6월) 이후 현재까지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 ※ 가입만 하고 한 번도 활동하지 않은 경우 “② 아니오” 에 기재
- ※ 지난 조사 전부터 가입해서 계속 참여한 경우는 “① 예” 에 기재

- ① 예 → 문 8-1 로
- ② 아니오 → 문 9 로

문 8-1.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골라 주세요.

※ 적어도 1순위는 꼭 기입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미를 위해 ③ 평소의 흥미 ⑤ 보다 많은 사람과의 교류 ⑦ 취미생활 공유 ⑨ 사교적인 성격으로 바꾸고 싶어서 ⑪ 복학에 도움 ⑬ 취업 또는 직업 선택에 도움 ⑮ 공모전 등 각종 대회 준비에 도움 ⑰ 특별한 이유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자아개발 ④ 학업중단 청소년끼리의 공감대 형성 ⑥ 학업중단 성공사례를 알고 싶어서 ⑧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⑩ 검정고시 준비에 도움 ⑫ 대학입시 준비에 도움 ⑭ 대학 및 학과 선택에 도움 ⑯ 학과 공부에 도움 ⑱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

문 8-2. 귀하가 가장 활발하게 참여한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한 가지만 골라 체크해주세요.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등) 동아리 ③ 보호시설(청소년쉼터 등)동아리 ⑤ 보호관찰소 동아리 ⑦ 종교기관(교회, 성당, 절 등) 동아리 ⑨ 검정고시 학원 동아리 ⑪ 병원 등 치료시설 동아리 ⑬ 중·고등학교 동아리 ⑮ 인터넷 포털(네이버, 다음 등) 카페 ⑰ SNS 서비스(페이스북, 싸이월드 등) 카페 ⑱ 기타(_____)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복지시설(사회복지관 등) 동아리 ④ 상담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동아리 ⑥ 직업훈련기관(직업전문학교 등) 동아리 ⑧ 소년원 학교 동아리 ⑩ 대입학원 동아리 ⑫ 대안교육기관 동아리 ⑭ 대학교 동아리 ⑯ 인터넷 홈페이지 ⑰ 활발하게 참여한 것 없음 |
|--------------------------------------------------------------------------------------------------------------------------------------------------------------------------------------------------------------------------------------------------------------------------------------------------------------------------|------------------------------------------------------------------------------------------------------------------------------------------------------------------------------------------------------------------------------------------------------------------------|

문 8-3. 귀하가 참여하는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 활동 내용을 써 주십시오.

※ 예: 합합, 야구, 댄스, 기타 동아리 등

→ (_____)

문 9. 지난 조사(2015년 6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로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진로에 대해 부모님(또는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①	②	③	④
2) 인터넷을 검색하였다.	①	②	③	④
3) 공공기관(교육, 복지, 고용관련 기관 등)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4)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5) 여가시간, 방과후, 방학 등을 활용해 직업체험을 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문 10. 다음은 귀하의 **진로**와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여러 가지 직업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①	②	③	④
4)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분야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5)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교육 등에 대한 자료를 얻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7) 시대의 변화가 나의 진로에 대한 선택과 계획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8) 경기 불황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나의 진로에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내가 원하는 진로와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11)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없다.	①	②	③	④
12)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①	②	③	④
13) 가정환경이 열악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진로로 선택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문 11. **향후 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해당하는 번호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단,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여 이미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임		→ 「문 13」으로
진학·학업	② 정규학교로 복학 (대학 진학 제외) ③ 대안학교 진학 ④ 해외 유학 ⑤ (대안학교 등을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 준비 ⑥ 대학 진학 ⑦ 편입 및 재입학(재수) 준비	→ 「문 12」로
	취업	
⑩ 취업과 진학 병행		
⑪ 진학이나 취업은 하지 않고 시간제 근로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낼 예정임		
⑫ 당분간 무보수로 가업(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 등)을 도울 예정임		

문 12. 귀하는 향후 원하는 진로계획이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문 13. 귀하는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

중졸	고졸	초대졸 (2~3년제)	대졸 (4년제)	대학원 졸 (석사 및 박사)
①	②	③	④	⑤

문 14. 귀하는 언제부터 군복무를 할 예정이십니까? 군입대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대략적인 입대 일정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이미 군에 입대하신 경우는 입대날짜를 기록해 주세요)

- ① 여성임 (해당사항 없음)
- ② 남성이지만 군 면제 대상임
- ③ 남성이며, 군에 입대하지 않았음 → 아래에 '군복무 예정일' 기록
- ④ 남성이며, 현재 군에서 복무중임 → 아래에 '군입대일' 기록

군복무 예정일 또는 군입대일 <small>※</small>	201□년 □□월부터
-------------------------------------	-------------

문 15. [지난 조사(2015년 6월)이후부터 현재까지 정규 중·고등학교를 다니 적이 없거나 그만 둔 경우에만 응답]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 지난 조사(2015년 6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정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만 「문 16」으로 가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아래 질문에 응답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친구나 친척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2) 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주위사람들이 문제가 취급을 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3) 학교와 같이 소속된 곳이 없으니 불안하였다.	①	②	③	④
4) 내가 선택한 결과이니 현재 생활에 만족하였다.	①	②	③	④
5)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하였다.	①	②	③	④
6)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였다.	①	②	③	④

문 16. 학업중단 이후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기관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 ①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등)
- ②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공부방 등)
- ③ 보호시설(자립생활관, 청소년쉼터 등)
- ④ 상담기관(청소년상담소 등)
- ⑤ 보호관찰소
- ⑥ 직업훈련기관(직업전문학교, 취업사관학교)
- ⑦ 종교기관(교회, 성당, 절 등)
- ⑧ 학원
- ⑨ 병원 등 치료시설
- ⑩ 대안교육기관
- ⑪ 직장
- ⑫ 기타()
- ⑬ 없음

문 17. 학업중단 이후 **현재까지** 가장 필요했던 도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문 17-1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선택하세요. 문17-1에서 선택한 영역에 대해 구체적인 항목을 체크한 후, **가족 또는 선배나 친구 외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는지 체크해 주세요.

문17-1 (최대 3개)	1순위	2순위	3순위
------------------	-----	-----	-----

문 17-1. 어떤 도움이 _ 필요했습니까? (최대 3개까지 선택)	문 17-2. 구체적으로 다음 중 무엇이었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문 17-3. 가족 또는 선배나 친구 외에 그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학업중단 후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①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정보 제공	① 예	② 아니오
	②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 관련 정보 제공	① 예	② 아니오
	③ 대입 등 진학에 관한 정보 제공	① 예	② 아니오
	④ 취업에 유용한 자격증 정보 제공	① 예	② 아니오
	⑤ 일자리 정보 제공	① 예	② 아니오
	⑥ 청소년 상담이나 활동시설 및 프로그램 정보 제공	① 예	② 아니오
	⑦ 직업교육, 직업훈련 기관 및 프로그램 정보 제공	① 예	② 아니오
	⑧ 청소년 센터 등 무료 숙소 정보 제공	① 예	② 아니오
	⑨ 기타 ()	① 예	② 아니오
	② 심리상담	① 우울 및 불안, 무기력, 분노 등 정서문제 상담	① 예
② 중독 문제(흡연, 음주, 인터넷 등) 상담		① 예	② 아니오
③ 관계 문제(가족관계 혹은 대인관계) 상담		① 예	② 아니오
④ 기본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① 예	② 아니오
⑤ 기타 ()		① 예	② 아니오
③ 진로상담	① 정규 학교, 대학 등 진학 상담	① 예	② 아니오
	② 직업 및 적성 등 직업에 관한 상담	① 예	② 아니오
	③ 기타 ()	① 예	② 아니오
④ 경제적 지원	① 월세 등 주거비	① 예	② 아니오
	② 식비, 의류비, 전기세 등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활비	① 예	② 아니오
	③ 외식비, 통신비, 교통비, 교양오락비, 이·미용비 등 용돈	① 예	② 아니오
	④ 치료비 등 보건·의료비	① 예	② 아니오
	⑤ 중·고등학교 학비	① 예	② 아니오
	⑥ 대안학교 학비	① 예	② 아니오
	⑦ 대학교 학비	① 예	② 아니오
	⑧ 검정고시 학원비	① 예	② 아니오
	⑨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비	① 예	② 아니오
	⑩ 기타 ()	① 예	② 아니오
⑤ 취업지원	① 무급, 혹은 유급 직업체험 및 인턴십 프로그램 제공	① 예	② 아니오
	② 일자리(아르바이트포함) 제공	① 예	② 아니오
	③ 무급, 혹은 유급 직업기술훈련 프로그램 제공	① 예	② 아니오
	④ 무급, 혹은 유급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제공	① 예	② 아니오
	⑤ 모의면접 등 취업준비교육 프로그램 제공	① 예	② 아니오
	⑥ 기타 ()	① 예	② 아니오
⑥ 학업지원	① 무료 검정고시 프로그램 제공	① 예	② 아니오
	② 부족한 교과목 지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	① 예	② 아니오
	③ 무료 중고등학교 복학 적용지원 프로그램 제공	① 예	② 아니오
	④ 무료 대학 입시준비 프로그램 제공	① 예	② 아니오
	⑤ 기타 ()	① 예	② 아니오
⑦ 건강지원	① 무료 건강검진	① 예	② 아니오
	② 무료 예방접종	① 예	② 아니오
	③ 무료 치료지원(무료 치료 병원 알선 등)	① 예	② 아니오
	④ 기타 ()	① 예	② 아니오
⑧ 문화·예술, 스포츠 등 관심분야에 대한 자기개발 기회		① 예	② 아니오
⑨ 삶을 이끌어 줄 멘토나 또래 등 인간관계 필요		① 예	② 아니오
⑩ 기타()		① 예	② 아니오
⑪ 없음			

III. 개인의 심리-정서 상황

문 18. 다음은 귀하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정답이 없으니 각 항목에 대해 떠오르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관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①	②	③	④
7)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사는 게 즐겁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문 19. 귀하의 평소 기분과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기운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2)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①	②	③	④
3) 걱정이 많다.	①	②	③	④
4)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5) 울기를 잘한다.	①	②	③	④
6)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한다.	①	②	③	④
7) 외롭다.	①	②	③	④
8)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9)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10) 모든 일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위험하고 짜릿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화가 나면 물건을 가리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문 20. 귀하가 **최근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해 보았는지**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문 20-1. 다음은 **게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①	②	③	④
2)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	①	②	③	④
3)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①	②	③	④
4)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5)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6)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7)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8)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문 20-2. 다음은 **SNS**에 관한 질문입니다.

- * 본 설문에서 말하는 SNS는 "웹 상에 개인이 공적인 신상정보를 만들거나, 자신과 인맥을 맺은 다른 이용자들의 리스트를 분류하고, 다른 사람들의 계정에 있는 인맥 리스트를 볼 수 있는 웹서비스"를 의미
- *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싸이월드가 SNS에 포함되며, 카카오톡은 SNS에 포함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SNS 상에서 나의 개인정보(연락처, 하는 일, 학교 등)가 유출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SNS 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대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SNS 상에서 나를 놀리는 글을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SNS 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5) SNS 상에서 나에게 대해 확인되지 않은 글(괴담, 소문)을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6) SNS를 통해 누군가를 따돌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7) SNS를 통해 허락 없이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올려놓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8) SNS를 통해 누군가에 대해 욕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9) SNS를 통해 누군가를 놀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SNS를 통해 남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글(괴담, 소문 등)을 올려놓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문 20-3. 다음은 **스마트폰**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①	②	③	④
2)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3)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했다.	①	②	③	④
4)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계획한 일(공부, 숙제, 또는 학원수강 등)을 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5)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6)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전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①	②	③	④
7)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 사용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과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IV. 부모·친구관계·동네주변 환경

문 21. 다음은 귀하가 **부모님(보호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는 보호자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보호자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다른 가족, 친척, 어른 등이 부모님의 역할을 하는 경우' 를 의미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고민을 들어 주신다.	①	②	③	④
4)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	①	②	③	④
5)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6) 부모님(보호자)은 나에게 용돈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7) 부모님(보호자)은 내 공부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①	②	③	④
8)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문 22. 다음은 **부모님(보호자)**께서 귀하에게 나타내는 **행동이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다른 일(직장일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①	②	③	④
2) 나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으십니다.	①	②	③	④
3)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①	②	③	④
4) 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아플 때도 귀찮아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①	②	③	④
6) 화를 낼 때는 주위에 아무거나 손에 닿는 대로 들고 때리십니다.	①	②	③	④
7)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때리려고 하십니다.	①	②	③	④
8)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때리십니다.	①	②	③	④
9)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 멍청이, 개만도 못한 것, 나가 죽어라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등의 말)	①	②	③	④

문 23. 현재 친한 친구가 몇 명입니까?

- ※ 여기서 친한 친구란 '평소에 잘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 로 예전 학교친구, 동네친구 및 선후배도 포함될 수 있음
- ※ 없으면 0으로 기입

현재 친한 친구 수 [※]	() 명
-------------------------	------------------

문 23-1. 「문 23」에서 응답한 '현재 친한 친구' 중 지난 조사(2015년 6월) 이후 새롭게 사귀 친구는 몇 명입니까?

- ※ 「문 23」에서 말한 현재 친구 중에서 기입하는 것이므로 「문 23」의 친구 수보다 같거나 작아야 함
- ※ 없으면 0으로 기입

새롭게 사귀 친구 수 [※]	() 명
--------------------------	------------------

문 23-2. 「문 23」에서 응답한 '현재 친한 친구' 중 학교를 그만 둔 친구는 몇 명입니까?

- ※ 「문 23」에서 말한 친구 중에서 기입하는 것이므로 「문 23」의 친구 수보다 같거나 작아야 함
- ※ 없으면 0으로 기입

학업중단한 친구 수 [※]	() 명
-------------------------	------------------

문 24. 귀하의 친구(선후배 포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①	②	③	④
4) 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잘 괴롭힌다.	①	②	③	④
5) 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잘 때린다.	①	②	③	④
6) 내 친구들은 물건을 잘 훔친다.	①	②	③	④

문 25. 귀하가 **현재 사는 동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알고 지낸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①	②	③	④
3) 동네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면 우리 동네 어른들은 꾸짖는다.	①	②	③	④
4) 우리 동네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으면 혼내고 말린다.	①	②	③	④
5) 우리 동네는 관리하지 않는 빈 집이나 공터가 많다.	①	②	③	④
6) 우리 동네는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①	②	③	④
7) 우리 동네는 밤에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①	②	③	④
8) 우리 동네는 불량한 청소년들이 함께 몰려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우리 동네에는 여가문화시설(청소년시설, 문화센터, 도서관 등)이 가까운 곳에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10) 우리 동네는 산, 공원, 하천 둔치 등이 있어 운동이나 산책하기 좋다.	①	②	③	④

V. 일상생활 및 가치관

문 26. 다음은 귀하가 **하루 동안 생활하는 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생활 영역별로 해당 여부를** 응답하시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기입해 주세요.

- ※ **평일**, 휴일별로 모든 시간의 합은 24시간 이하가 되어야 함
- ※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경우 주로 하는 일 기준으로 기재
- ※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에 표시
- ※ 앞 설문에서 현재 정구 중 · 고등학교에 다님, 대안학교에 다님, 직업기술을 배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등에 응답하였으면 학교나 대안학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지내는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취업해서 일하는 시간에 반드시 응답하여야 함
- ※ 자신이 하루 중 주로 하는 일이 빠진 경우 기타에 기입하고 시간을 기재

		해당여부	평일에는	휴일에는
수면 시간	1) 나는 하루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이 대략...	X	()시간이다.	()시간이다.
공부나 일하는 시간	2) 나는 하루 24시간 중 학교나 대안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지내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시간이다.	()시간이다.
		② 해당 있음 →	()시간이다.	()시간이다.
	3) 나는 하루 24시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취업해서 일하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시간이다.	()시간이다.
		② 해당 있음 →	()시간이다.	()시간이다.
여가 시간	4) 나는 하루 24시간 중 숙제, 시험준비, 자격증을 따기 위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시간이다.	()시간이다.
		② 해당 있음 →	()시간이다.	()시간이다.
	5) 나는 하루 24시간 중 휴대전화기, 컴퓨터, 게임, TV 등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대략... ※ 숙제나 공부 때문에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는 시간은 제외함	① 해당 없음	()시간이다.	()시간이다.
		② 해당 있음 →	()시간이다.	()시간이다.
6) 나는 하루 24시간 중 운동, 취미, 동아리, 교회나 성당에 가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시간이다.	()시간이다.	
	② 해당 있음 →	()시간이다.	()시간이다.	
7) 나는 하루 24시간 중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거나 노는 시간이...	① 해당 없음	()시간이다.	()시간이다.	
	② 해당 있음 →	()시간이다.	()시간이다.	
8) 나는 이 외에 하루 24시간 중 여가 시간에 주로 ()을/를 하며 시간은 대략...	① 해당 없음	()시간이다.	()시간이다.	
	② 해당 있음 →	()시간이다.	()시간이다.	
합계			평일 합계 ()시간	휴일 합계 ()시간

부 록

문 30.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만 응답)**다음은 귀하가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 이미 대학에 진학한 경우, 「문 31」로 이동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원하면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앞날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문 31. 다음은 귀하가 사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회는 나를 부정적으로 본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사회가 나를 열등하게 분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르게 취급받는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사회가 나를 문제 있는 존재로 분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사회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사회에 의해서 희생되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유용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VI. 행동 경험

※ 다음은 귀하의 행동이나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문 32. 다음은 귀하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천히 기억을 되살려 지난 조사(2015년 6월) 이후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조사(2015년 6월) 이후 현재까지	
1) 집단 따돌림(왕따) 당하기	① 없다	② 있다
2) 성적인 놀림 당하기	① 없다	② 있다
3) 문자나 메시지로 일방적으로 음란물 받기	① 없다	② 있다
4)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뺏기(상납)	① 없다	② 있다
5) 심하게 얻어맞기(폭행)	① 없다	② 있다
6) 성폭력 당하기	① 없다	② 있다

문 33. 다음은 귀하가 지난 조사(2015년 6월) 이후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조사(2015년 6월) 이후 현재까지	
1) 담배 피우기	① 없다	② 있다
2) 술 마시기	① 없다	② 있다
3)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① 없다	② 있다
4)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① 없다	② 있다
5)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뺑 뜯기)	① 없다	② 있다
6)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보기	① 없다	② 있다
7) 돈내기 도박 해보기(인터넷 포함)	① 없다	② 있다
8) 자살 시도	① 없다	② 있다
9)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물건 파손하기	① 없다	② 있다
10) 약물(본드) 흡입	① 없다	②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패널 정보 기록지 및 상품권 수령증

※ 마지막으로 귀하께서 참여해 주신 조사에 대해 향후 1년 동안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오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 조사를 위해 귀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묻고자 하오며, 이 정보는 본 조사 연구진을 제외한 다른 곳에 절대 유출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오는 작성해 주신 모든 내용은 부모님(보호자)께도 절대 알려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귀하께 안부전화나 감사편지 등을 발송하기 위해 필요하며, 또한 계속 조사를 해야 하는 패널 조사의 특성상 귀하와 계속 연락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솔직하고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내용	위 사항을 모두 읽었고, 조사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이름 : _____ (서명)</div>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카카오톡 ID					
사는 곳 또는 부모님 주소	*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는 부모님 집 주소를 기록				
	()시/도 ()시/군/구 ()구 ()동/읍/면				
집 전화번호	나머지 주소 : _____ *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는 부모님 집 전화번호를 기록				
가족 또는 친척	성명	해당란에 O 표시		친한 친구	성명
		아버지 · 어머니 · 남형제 · 여형제 · 친척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번 조사에 응해주신 귀하께 감사의 뜻으로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문화상품권 수령확인을 위해 이름과 조사일시, 서명을 자필로 쓰시고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패널인 나 (이름)_____는 2016년 ____월 ____일 ____시에
본 조사에 참여했으며, 응답사례품(문화상품권 3만원권)을 받았습니다.

서명(사인): _____

긴 시간 동안 조사에 협조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성해 주신 설문 내용은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면접원께서는 정성조사에 대해 설명하신 후 아래 사항을 묻고 기록해 주세요.

추가 0. 귀하는 향후 실시 예정인 정성조사(인터뷰 조사)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성조사는 본인의 전반적인 생활경험에 대해 묻는 인터뷰 형식의 조사입니다(약 1시간 소요)

- ① 참여할 의향이 있음
- ② 참여할 의향이 없음

※ 아래는 꿈드림센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꿈드림센터 설명 전에 확인하세요.

추가 1. 꿈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센터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꿈드림센터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추가 1-1」로
- ② 아니오 → 「추가 2」로

추가 1-1. 꿈드림센터를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꿈드림센터 안내 팸플릿을 이용하여 설명하신 후 아래 사항을 묻고 기록해 주세요.

추가 2. 꿈드림센터 서비스에 참여하시겠습니까? (꿈드림센터 서비스는 대학진학 미경험자만 해당)

- ① 참여함 → 「문 추가 2-1」로
- ② 참여 안함 → 「문 추가 2-2」로

추가 2-1. 꿈드림센터 서비스 참여 시 가장 받고 싶은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① 학업중단 후 생활에 대한 정보 제공
- ② 심리상담
- ③ 진로상담
- ④ 경제적 지원
- ⑤ 취업지원
- ⑥ 학업지원
- ⑦ 문화·예술, 스포츠 등 관심분야에 대한 자기계발 기회 제공
- ⑧ 건강지원
- ⑨ 주거지원

추가 2-2. 꿈드림센터 서비스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조사 대상자가 아니어서 (사유: _____)
- ② 도움 되는 서비스가 없어서
- ③ 방문하기가 귀찮아서
- ④ 꿈드림센터 위치를 몰라서
- ⑤ 내 생활을 간섭할까봐서
- ⑥ 시간이 없어서
- ⑦ 도움 받는 다른 곳(센터)이 있어서
- ⑧ 기타(_____)

꿈드림센터 서비스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이 동의서는 꿈드림센터 서비스에 참여할 의향을 표시하셨고, 참여 대상이신 패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귀하께서 참여하기로 하신 꿈드림센터 서비스 참여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꿈드림센터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귀하께 연락을 드리고자 합니다. 꿈드림센터 담당자에게 전달할 개인정보는 이름(필수), 휴대전화번호(필수, 없을 경우에만 집전화번호 제공), 이메일 주소(선택), 카카오톡 아이디(선택) 등입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방문할 꿈드림센터를 지정하실 때 면접원으로부터 안내받으신 꿈드림센터 담당자에게 한국리서치 담당자 (황인창 부장, 박종경 대리, 홍세정 연구원)가 유/무선전화 및 이메일로 전달합니다.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정보는 꿈드림센터 담당자에게만 전달되며, 다른 곳에 절대로 유출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며, 이후에라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한국리서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동의 내용 (필수)	위 사항을 모두 읽었고, 면접원 _____로부터 꿈드림센터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받았으며, 꿈드림센터 서비스 참여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꿈드림센터 담당자에게 제공하는 것 모두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름 : _____ (서명)
제공할 휴대전화번호 (필수)	
제공할 이메일 주소	@
제공할 카카오톡 ID	

※ 꿈드림센터 서비스에 참여하시는 패널분들께서는, 꿈드림센터 담당자와 만나 상담을 진행하신 후 꿈드림센터 담당자로부터 통보를 받으시면 한국리서치에서 사례금 4만원을 패널분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문화상품권으로 보내드리거나 계좌로 입금해 드릴 예정입니다.

2. 신규패널용 체크리스트

꿈드림센터 서비스 제공 사례조사



(꿈드림센터 소속 청소년 사례관리자용)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꿈드림센터 서비스 제공 사례조사'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계속되는 연구로서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로 적합한 서비스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귀하가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의해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성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조사주관기관	조사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사회정책동(D동)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79
윤철경 선임연구위원(044-415-2140) 성윤숙 연구위원(044-415-2218)	황인창 부장(02-3014-0086) 박종경 대리(02-3014-0988)

● 센터 및 사례관리자 정보

성명		성별	① 남 ② 여	연령	만 _____세
센터명		유관기관 근무경력	□ □년 □ □개월		

사정기록지

개인정보 수집·활용 관련 안내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께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아래 신청서 내용 작성에 대한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작성된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서비스' 진행시에만 활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1. 기본정보

1-1) 성명		1-2) 성별	① 남 ② 여
1-3) 출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1-4) 소속기관	
1-5) 주소	(우편번호:)		
1-6) 연락처	휴대폰: ()	긴급연락처: ()	집: ()

2. 가족력

	성명	관계	연령	직업	등거여부
2-1) 가족 사항					
2-2) 가족 형태	① 친부모 ② 편부 ③ 편모 ④ 친부+계모 ⑤ 계부+친모 ⑥ 조부/조모 ⑦ 친척 ⑧ 형제 ⑨ 위탁부모 ⑩ 보호시설 ⑪ 기타(_____)				
2-3) 보장 구분	① 일반수급 ② 조건부수급 ③ 자활특례 ④ 차상위 ⑤ 일반(상 / 중 / 하)				
2-4) 거주 사항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하숙 ⑤ 자취 ⑥ 시설 거주(쉼터 등) ⑦ 기타(_____)				

3. 꿈드림센터 의뢰경로

의뢰 경로	□ 본인	① 인터넷	② 홍보물(매체)	③ 전화(1388 등)
		④ 친구 소개	⑤ 부모 권유	⑥ 기타(_____)
	□ 기관	① 청소년 센터	② 아동복지시설	③ 대안학교
		④ 미혼모시설	⑤ 소년원	⑥ 보호관찰소
		⑦ 직업훈련기관	⑧ 청소년(상담)지원센터	⑨ 학교 및 교육청
		⑩ 경찰서	⑪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⑫ 기타(_____)

*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 성폭력가정상담소, 원스톱지원센터, 1366, 해바라기아동센터 등

4.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별 목표 유형(문4-1)을 **한 개만** 선택한 후, 선택한 유형 내에서 구체적인 목표(문4-2)를 **한 개만** 선택해 주십시오(미결정형은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4-1) 개인별 목표유형	① 학업복귀형: 복학하여 학교에 다니거나,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검정고시 공부, 대학 입시를 하고자 하는 유형			
	② 사회진입형: 직업기술을 배우거나, 취업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유형			
	③ 미결정형: 무엇을 해야 할지 개인별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대상			
4-2) 구체적 목표	학업복귀형	① 복학 ④ 대학교 진학	② 검정고시 ⑤ 대안학교 진학 ⑥ 기타(_____)	③ 중·고등학교 진학
	사회진입형	① 취업(전일제) ④ 기타(_____)	② 직업훈련	③ 자격증 취득

5. 청소년이 가장 원하는 서비스를 **순서대로 1, 2, 3순위**로 골라서 번호를 써 주십시오. 기재된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에는 기라에 서비스 명을 기재한 후 번호를 써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서비스 목록	① 정보 제공	② 심리상담	③ 진로상담
	④ 경제적 지원	⑤ 취업지원	⑥ 학업지원
	⑦ 자기개발	⑧ 건강지원	⑨ 주거지원
	⑩ 기타(_____)		

체크리스트 작성 안내

- 체크리스트는 **I.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4~5p)**, **II.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6~7p)**, **III.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6~7p)**, **IV.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27p)**, **V. 해당 사례에 대한 총평(28p)**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파트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셔서 응답해 주십시오.
- 내용의 작성은 **동그라미(○)** 표시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지우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X 표시로 지우고 다른 곳에 동그라미를** 하시면 됩니다.
- **I.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4~5p)**는 체크리스트 작성 전 청소년과의 상담을 통해 맨 처음으로 작성하되, 사례관리 중에 추가로 요청하는 서비스가 있을 경우 **모두 동그라미(○)로 표시** 합니다.
- **II.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6~7p)**는 **사례관리 중 제공한 서비스를 모두 동그라미(○)표시하며, 청소년이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제공한 서비스도 모두 포함해서 표시**를 합니다.
- **III.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6~7p)**에 표시한 서비스 각각에 대해 **III. 제공 서비스별 세부 내용(11~25p)**에서 각각 **1장씩** 작성해 주세요.
(III. 제공 서비스별 세부 내용은 총 15장이며, 부족할 경우에는 육사해서 작성해 주세요.)
- **IV.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27p)**는 청소년이 요청했으나, 센터 자체 프로그램 또는 외부 기관 연계를 통해서도 제공할 수 없었던 프로그램에 대해 **제공하지 못한 이유**를 기록해 주세요.

Q&A 1) 사례관리를 하던 중간에 청소년이 다른 서비스를 요청했는데,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 **I.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에 해당 서비스를 찾아 표시한 후 **IV.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27p)**를 작성합니다.

Q&A 2) 사례관리를 하던 중간에 청소년이 다른 서비스를 요청했는데, 제공하게 된 경우는?

☞ **I.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 II.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에서 해당 서비스를 찾아 표시한 후, **III. 제공 서비스별 세부 내용 1장**을 추가로 작성합니다.

Q&A 3) 사례관리를 하던 중 센터내 (또는 외부 기관에)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서 (청소년이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권유한 후 제공하게 된 경우는?

☞ **II.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에서 해당 서비스를 찾아 표시한 후, **III. 제공 서비스별 세부 내용 1장**을 추가로 작성합니다.

- 1년간 사례관리를 마친 이후에 **V. 해당 사례에 대한 총평**을 기록해 주세요. 단, 해당 청소년이 서비스에서 탈락한 경우 그 이유를 해당 사례에 대한 총평에 반드시 기재해 주십시오. 탈락사유(2~3개월이 지난도 미등록)는 조사기관에 즉시 알려주십시오. 2017년 설문조사를 위해 조사기관에서 파일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I.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

아래 항목(① ~ ⑬) 중에서 청소년이 최초 상담 또는 이후 상담 중에 요청했던 서비스를 모두 선택해서 번호에 동그리미(○) 표시를 해주세요.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가 1번부터 53번까지의 항목 중에 없을 때에는 '⑬ 기타 서비스' 에 동그리미(○) 표시를 하시고, 자세한 내용을 적어주세요.

<작성 방법>

- 각 항목 중에서 청소년이 최초 또는 이후 상담 중에 요청했던 서비스를 모두 선택해서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리미(○)표시에 주세요.

㉔ 학업중단 후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① 심리상담, 진로상담 등 상담 정보	② 경제적 지원 정보(별지원 등)	③ 취업에 유용한 자격증 정보	④ 일자리 정보	⑤ 직업교육, 직업훈련 기관 및 프로그램 정보
⑥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정보	⑦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	⑧ 대안 등 진학정보	⑨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의뢰에 관련된 정보	⑩ 청소년 활동 시설 및 프로그램 정보
⑪ 청소년 센터 등 속소 정보	⑫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정보(동아리활동, 학습 등)	⑬ 근로권익침해 및 부당처우에 관련한 신고 및 지원 정보	⑭ 법률자문 관련 정보	

㉕ 학업중단 후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① 심리상담, 진로상담 등 상담 정보	② 경제적 지원 정보(별지원 등)	③ 취업에 유용한 자격증 정보	④ 일자리 정보	⑤ 직업교육, 직업훈련 기관 및 프로그램 정보
⑥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정보	⑦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	⑧ 대안 등 진학정보	⑨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의뢰에 관련된 정보	⑩ 청소년 활동 시설 및 프로그램 정보
⑪ 청소년 센터 등 속소 정보	⑫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정보(동아리활동, 학습 등)	⑬ 근로권익침해 및 부당처우에 관련한 신고 및 지원 정보	⑭ 법률자문 관련 정보	

㉖ 심리상담

⑮ 우울 및 불안, 무기력, 분노 등 정서문제	⑯ 중독 문제(흡연, 음주, 인터넷 등)	⑰ 관계 문제 (가족관계 혹은 대인관계 등)	⑱ 생활태도 개선(시간관리 등)
---------------------------	------------------------	--------------------------	-------------------

다 진로상담

① 적성 및 능력 파악을 위한 심리검사 등 자기이해상담	② 직업탐색을 위한 직업세계이해	③ 진로계획상담	④ 진학상담	⑤ 취업상담
--------------------------------	-------------------	----------	--------	--------

라 경제적 지원

① 심리상담, 심리검사 등 상담비 지원	②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비 지원	③ 검정고시비 지원	④ 청소년활동증비지원	⑤ 긴급한 치료비 지원
⑥ 월세 등 주거비	⑦ 집에서의 식비, 옷(의류비), 전기세 등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⑧ 외식비, 통신비, 교통비, 교양오락비, 이·미용비 등 용돈	⑨ 대안학교 학비	⑩ 법률상담비, 소송비 등 법률서비스비

마 취업 지원

① 직업탐색 및 체험	② 인턴십 프로그램	③ 일자리 알선	④ 직업기술훈련 및 자격증 취득지원	⑤ 모의면접 등 취업준비교육 (두드림프로그램, 근로교육 등)
-------------	------------	----------	---------------------	-----------------------------------

바 학업 지원

①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② 기초학력 지원	③ 복학 지원	④ 대학입시 지원(수능준비반 등)	⑤ 학습지원 (학습클리닉, 나는 내 인생의 매니저 등)
----------------	-----------	---------	--------------------	--------------------------------

사 문화예술, 스포츠 등 관심분야에 대한 자기개발 기회 제공

① 문화·예술 (악기, 그림그리기, 사진촬영 등)	② 신체단련 (수영, 태권도, 농구 등)	③ 봉사활동 (일손돕기, 위문활동 등)	④ 환경보존 (숲·갯벌체험, 생태·환경탐사, 환경·시설보존 등)	⑤ 과학정보 (컴퓨터·IT, 모형·로봇, 우주·천체탐구 등)
-----------------------------	------------------------	-----------------------	-------------------------------------	-----------------------------------

아 건강 및 주거 지원

① 건강검진	② 예방접종	③ 무료치료병원 등 알선	④ 건강교육(성교육 등)	⑤ 주거지원
--------	--------	---------------	---------------	--------

자 기타서비스 (위에서 해당되는 서비스가 없을 때 기록하세요.)

① 기타 서비스 내용을 적어주세요()

II.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

이래 항목(㉠ ~ ㉞) 중에서 제공하신 서비스를 모두 선택해서 번호에 동그리미(○) 표시를 해주세요.
 청소년이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제공한 서비스가 있다면 모든 선택해서 번호에 동그리미(○) 표시를 해주세요

<작성 방법>

- 각 항목 중에서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모두 선택해서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리미(○)표시해 주세요.
- 사례관리 중간에 추가로 제공한 서비스도 모두 표시해 주세요.

㉠ 학업중단 후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 ① 권리상당, 진로상담 등 상담 정보	② 경제적 지원 정보(복지원 등)	③ 취업에 유용한 자격증 정보	④ 주거지 정보	⑤ 직업교육, 직업훈련 기관 및 프로그램 정보
⑥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정보	⑦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	⑧ 취업 등 진학정보	⑨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의뢰에 관련된 정보	⑩ 청소년 활동 시설 및 프로그램 정보
⑪ 청소년 센터 등 속소 정보	⑫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정보(동아리활동, 학습 등)	⑬ 근로권익침해 및 부당처우에 관련된 신고 및 지원 정보	⑭ 법률지원 관련 정보	

㉡ 학업중단 후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① 심리상담, 진로상담 등 상담 정보	② 경제적 지원 정보(복지원 등)	③ 취업에 유용한 자격증 정보	④ 일시비 정보	⑤ 직인교육, 직업훈련 기관 및 프로그램 정보
⑥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정보	⑦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	⑧ 대입 등 진학정보	⑨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의뢰에 관련된 정보	⑩ 청소년 활동 시설 및 프로그램 정보
⑪ 청소년 센터 등 속소 정보	⑫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정보(동아리활동, 학습 등)	⑬ 근로권익침해 및 부당처우에 관련한 신고 및 지원 정보	⑭ 법률지원 관련 정보	

㉢ 심리 상담

⑮ 우울 및 불안, 무기력, 분노 등 정서문제	⑯ 중독 문제(흡연, 음주, 인터넷 등)	⑰ 관계 문제 (가족관계 혹은 대인관계 등)	⑱ 생활태도 개선(시간관리 등)
---------------------------	------------------------	--------------------------	-------------------

다 진로상담

① 적성 및 능력 파악을 위한 심리검사 등 자기이해상담	② 직업탐색을 위한 직업세계이해	③ 진로계획상담	④ 진학상담	⑤ 취업상담
--------------------------------	-------------------	----------	--------	--------

라 경제적 지원

① 심리상담, 심리검사 등 상담비 지원	②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비 지원	③ 검정고시비 지원	④ 청소년활동증비지원	⑤ 긴급한 치료비 지원
⑥ 월세 등 주거비	⑦ 집에서의 식비, 옷(의류비), 전기세 등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⑧ 외식비, 통신비, 교통비, 교양오락비, 이·미용비 등 용돈	⑨ 대안학교 학비	⑩ 법률상담비, 소송비 등 법률서비스비

마 취업 지원

① 직업탐색 및 체험	② 인턴십 프로그램	③ 일자리 알선	④ 직업기술훈련 및 자격증 취득지원	⑤ 모의면접 등 취업준비교육 (두드림프로그램, 근로교육 등)
-------------	------------	----------	---------------------	-----------------------------------

바 학업 지원

①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② 기초학력 지원	③ 복학 지원	④ 대학입시 지원(수능준비반 등)	⑤ 학습지원 (학습클리닉, 나는 내 인생의 매니저 등)
----------------	-----------	---------	--------------------	--------------------------------

사 문화예술, 스포츠 등 관심분야에 대한 자기개발 기회 제공

① 문화·예술 (악기, 그림그리기, 사진촬영 등)	② 신체단련 (수영, 태권도, 농구 등)	③ 봉사활동 (일손돕기, 위문활동 등)	④ 환경보존 (숲·갯벌체험, 생태·환경탐사, 환경·시설보존 등)	⑤ 과학정보 (컴퓨터·IT, 모형·로봇, 우주·천체탐구 등)
-----------------------------	------------------------	-----------------------	-------------------------------------	-----------------------------------

아 건강 및 주거 지원

① 건강검진	② 예방접종	③ 무료치료병원 등 알선	④ 건강교육(성교육 등)	⑤ 주거지원
--------	--------	---------------	---------------	--------

자 기타서비스 (위에서 해당되는 서비스가 없을 때 기록하세요.)

⑥ 기타 서비스 내용을 적어주세요()

III. 제공 서비스별 세부 내용

<작성 방법>

제 1단계: II.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6~7p)의 서비스 번호 기록 → 서비스명 기록 → 서비스 번호 기록 → 제공 방법 기록 → 연계기관 번호 기록

- 1) 앞의 6페이지부터 7페이지에 기록한 'II.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 에 표시된 '서비스 번호' 를 기록합니다.
- 2) 오른쪽 '서비스 이름' 칸에 '실제 서비스 이름' 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 3) '제공 방법' 에서 '㉑ 센터 직접 지원' 과 '㉒ 외부기관 연계' 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동그라미(이)로 표시합니다.
 ※ ㉑ 센터 직접 지원 은 센터에서 직접 프로그램이나 비용을 지원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㉒ 학업중단 후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은 모두 ㉑ 센터 직접 지원 임
- ※ 제공 방법이 '㉑ 센터 직접 지원' 과 '㉒ 외부기관 연계' 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1 페이지에는 '㉑ 센터 직접 지원' 에 표시한 후 센터 직접 지원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추가 1 페이지를 '㉒ 외부기관 연계' 로 표시한 후 외부기관 연계 관련 내용으로 기록합니다.
- 4) 제공 방법이 ㉒ 외부기관 연계인 경우는, '연계한 지역사회 기관 및 프로그램 목록(10p)' 에서 '기관 번호' 칸에 모두 기록합니다.

서비스 번호, 이름, 제공방법 기록

제 1기 페이지에는 1개 서비스만 기록합니다!

㉑ 진로상담

⑤ 진로상담을 위한 진로사유서

⑥ 진로계획서

⑦ 진로상담

⑧ 진로상담

⑨ 진로상담

⑩ 진로상담

⑪ 진로상담

⑫ 진로상담

⑬ 진로상담

⑭ 진로상담

⑮ 진로상담

⑯ 진로상담

⑰ 진로상담

⑱ 진로상담

⑲ 진로상담

⑳ 진로상담

㉑ 진로상담

㉒ 진로상담

㉓ 진로상담

㉔ 진로상담

㉕ 진로상담

㉖ 진로상담

㉗ 진로상담

㉘ 진로상담

㉙ 진로상담

㉚ 진로상담

㉛ 진로상담

㉜ 진로상담

㉝ 진로상담

㉞ 진로상담

㉟ 진로상담

㊱ 진로상담

㊲ 진로상담

㊳ 진로상담

㊴ 진로상담

㊵ 진로상담

㊶ 진로상담

㊷ 진로상담

㊸ 진로상담

㊹ 진로상담

㊺ 진로상담

㊻ 진로상담

㊼ 진로상담

㊽ 진로상담

㊾ 진로상담

㊿ 진로상담

1) 서비스 번호 기록

2) 서비스 이름 기록

3) 제공 방법 기록

서비스 번호: 20

서비스 이름: 미려 직업 탐구생활

제공 방법: ㉒ 외부기관 연계

연계기관 번호: 24

부 1 해당 서비스는 제공 기가 두어 어떻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외부기관 연계 시) 연계기관 번호 기록

연계한 지역사회 기관 및 프로그램 목록

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② 진로상담

③ 진로상담

④ 진로상담

⑤ 진로상담

⑥ 진로상담

⑦ 진로상담

⑧ 진로상담

⑨ 진로상담

⑩ 진로상담

⑪ 진로상담

⑫ 진로상담

⑬ 진로상담

⑭ 진로상담

⑮ 진로상담

⑯ 진로상담

⑰ 진로상담

⑱ 진로상담

⑲ 진로상담

⑳ 진로상담

㉑ 진로상담

㉒ 진로상담

㉓ 진로상담

㉔ 진로상담

㉕ 진로상담

㉖ 진로상담

㉗ 진로상담

㉘ 진로상담

㉙ 진로상담

㉚ 진로상담

㉛ 진로상담

㉜ 진로상담

㉝ 진로상담

㉞ 진로상담

㉟ 진로상담

㊱ 진로상담

㊲ 진로상담

㊳ 진로상담

㊴ 진로상담

㊵ 진로상담

㊶ 진로상담

㊷ 진로상담

㊸ 진로상담

㊹ 진로상담

㊺ 진로상담

㊻ 진로상담

㊼ 진로상담

㊽ 진로상담

㊾ 진로상담

㊿ 진로상담

1) 서비스 번호에 맞는 서비스 영역 찾기

2) 서비스 번호와 동일한 서비스 영역 내에서 연계기관 번호 찾기

3) 연계기관의 번호를 기록

서비스 번호: 20

서비스 이름: 미려 직업 탐구생활

제공 방법: ㉒ 외부기관 연계

연계기관 번호: 24

부 1 해당 서비스는 제공 기가 두어 어떻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제 2 단계: 문1 ~ 문2까지 작성

- 1) 문1번의 해당 서비스 제공기간에 대해 응답
- 2) 문1에서 ②번 선택 시 문1-1로 이동하여 전체 서비스 제공 기간, 서비스 제공 빈도를 기입
 - ※ 전체 서비스 제공 기간은, 서비스가 제공된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 6개월 짜리 코스, 2년짜리 코스 등).
 - 1년 이상일 경우는 1년=12개월로 환산하여 기록합니다.
 - ※ 서비스 제공 빈도는 얼마나 자주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를 기록합니다.

<기입 예시>

1) 총 1년간 주 1회 프로그램일 경우	문 1-1. 해당 서비스 제공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작성해 주십시오. 1) 전체 서비스 제공 기간: 총 12 개월 간 2) 서비스 제공 빈도: (주당 / 1개월 / 1년) 당 1 회
2) 총 2년간 반기별로 지원하는 경우	문 1-1. 해당 서비스 제공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작성해 주십시오. 1) 전체 서비스 제공 기간: 총 24 개월 간 2) 서비스 제공 빈도: (주당 / 1개월 / 1년) 당 2 회

제 3 단계: 2017년 5월까지 매달 문3을 작성

- 1) 매월 초에 전월 내용을 작성합니다.
- 2) 매달 1회, 또는 1일이라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월은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 3)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제공된 해당 월만 표시합니다.

<기입 예시>

(예: 2016년 8월 말에 시작해서 9월 1일까지 진행된 경우, 8월과 9월 모두 표시)	(6월, 9월, 12월 등 분기별로 시행하는 경우는 6, 9, 12월만 표시)																																										
문 3. 실제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월을 표기해주세요. 해당 월에 √ <table border="1" style="margin: 5px auto;"> <tr><td>6월</td><td>7월</td><td>8월</td><td>9월</td><td>10월</td><td>11월</td><td>12월</td></tr> <tr><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d>⑥</td><td>⑦</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문 3. 실제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월을 표기해주세요. 해당 월에 √ <table border="1" style="margin: 5px auto;"> <tr><td>6월</td><td>7월</td><td>8월</td><td>9월</td><td>10월</td><td>11월</td><td>12월</td></tr> <tr><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d>⑥</td><td>⑦</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제 4 단계: 서비스 종료 시, 청소년이 중도탈락 시 또는 사례관리를 1년동안 마친 경우 응답

- 1) 문4 ~ 문5-1번까지에 대해 서비스 종료 시, 청소년이 중도탈락 시 또는 사례관리를 1년동안 마친 경우 응답합니다.
- 2) 문 6은 서비스 번호가 **㉠**, **학업중단 후 생활에 대한 진보(㉡~㉣)**, **면. 심리상담(㉤~㉥)**, **면. 진로상담(㉦~㉧)**, **면. 심리상담(㉨~㉩)**이고, **재요** 항목이 **㉪** 선택된 경우만 응답합니다.

연계한 지역사회 기관 및 프로그램 목록

단 심리 상담 (15 ~ 18)	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청소년지원단 등) ⑤ 성문화센터 ⑨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⑬ 병원 ⑮ 기타()	③ 원스탑지원센터 ⑦ 금연지원센터 ⑩ 스마트쉼센터 ⑫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⑭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④ 해바라기센터 ⑧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⑯ 장신강증진센터(장신보건센터)
단 진로 상담 (19 ~ 23)	② 진로진학정보센터 ④ 고공센터 ⑥ 기타()	② 커뮤니티 ⑥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⑩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 청소년지원단 등) ⑥ 워크넷 ⑩ 민간상담센터 등 타 상담기관
단 경제적 지원 (24 ~ 28)	③ 특별지원(주민자치센터 및 시군구청) ⑤ 공공재단	③ 긴급지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⑤ 독지가(개인 기부자)	③ 민간 재단 ⑤ 사회복지단체 ⑦ 기타()
단 취업 지원 (29 ~ 33)	④ 취업성공패키지 ⑥ 취업지원센터(저소득층 자활지원) ⑧ 회사, 자영업자 등 민간 사업체 및 사업장 ⑩ 기타()	④ 고용디딤돌(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자체 후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프로그램) ⑥ 고용센터(취업성공패키지, 고용디딤돌, 취업사관학교 제외) ⑧ 직업전문학교 또는 학원 ⑩ 한국잡월드	④ 민간재원을 실시하는 프로그램
단 합업 지원 (34 ~ 38)	⑤ 대안학교 ⑦ 대학교(대학생 멘토, 학교탐방 등)	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⑦ 기타()	⑤ 감정고시 등 학원
단 자기계발 기회제공 (39 ~ 43)	⑥ 국민체육진흥공단 ⑧ 청소년문화의집 ⑩ 기타()	⑥ 한국문화예술포교육진흥원 ⑧ 청소년활동진흥센터	⑥ 청소년수련원
단 건강지원 (44 ~ 48)	⑦ 국민건강보험공단 ⑨ 상록각상담소 ⑩ 기타()	⑦ 보건소 ⑨ 청소년성문화센터	⑦ 병원 및 약국 ⑨ 관공양성평등교육진흥원 ⑩ 129(보건복지콜센터)
단 주거지원 (53)	⑤ 청소년쉼터(일시/단기/중장기) ⑦ 사회복지지원센터(YES센터)	⑤ 그룹홈 ⑦ 청소년자립생활관 ⑨ 청소년회복센터	⑤ 아동보호전문기관 ⑦ 미호모자공동생활가정 ⑨ 기타()
단 기타 서비스(54)	⑥ 기타()	⑥ 청소년자립생활관 ⑧ 미호모자공동생활가정	⑥ 아동보호전문기관 ⑧ 기타()

※ 부록 3의 12~25쪽은 아래와 동일한 페이지이므로 기재하지 않음.

서비스 번호	서비스 이름	제공 방법	㉓ 센터 직접 지원 ㉔ 외부기관 연계	연계기관 번호
--------	--------	-------	-------------------------	---------

문 1. 해당 서비스는 제공 기간 등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 ① 특별한 제공 기간이나 빈도 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연중 수시로 진행된다 - 「문 2」로 이동
 ② 제공 기간과 빈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 「문 1-1」로 이동

문 1-1. 해당 서비스 제공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작성해 주십시오.

- 1) 전체 서비스 제공 기간: 총 _____ 개월 간
 2) 서비스 제공 빈도: (1주일 / 1개월 / 1년) 당 _____ 회

문 2. 해당 서비스를 청소년에게 제공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

- ① 청소년이 요청해서 ② 해당 청소년에게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③ 부모가 원해서
 ④ 우리 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어서 ⑤ (외부기관 연계 시에만 선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서
 ⑥ 기타 (_____)

문 3. 실제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월에 동그라미(O)로 표시해주세요. 해당 월에 단 한번이라도 제공했다면 모두 표시하세요.

2016년							2017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 아래 문4 ~ 문6은 서비스 종결 시(청소년 중도탈락 혹은 사례관리를 1년 동안 모두 마친 경우) 응답해 주십시오.

문 4. 해당 서비스는 최초로 계획한 대로 제공되었습니까?

- ① 예 - 「문 5」로 이동 ② 아니오 - 「문 4-1」로 이동

문 4-1. (해당 서비스가 계획대로 제공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청소년이 더 이상 센터를 방문하지 않아서
 ② 청소년이 필요 없다고 해서
 ③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과 재원이 부족해서
 ④ 청소년에게 더 필요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서
 ⑤ 청소년이 원하는 시간이나 기간에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서
 ⑥ (외부기관 연계 시에만 선택) 청소년이 연계 기관에 가는 것을 싫어해서
 ⑦ (외부기관 연계 시에만 선택) 서비스 수준이 청소년의 기대에 못 미쳐서
 ⑧ (외부기관 연계 시에만 선택) 지역기관의 특성이나 성격이 청소년과 맞지 않아서
 ⑨ 기타(_____)

문 5. 해당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전혀 도움 안 되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문 5-1. 문5에서 '도움이 되었다' (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_____)

문 6. (위의 서비스 번호가 1번부터 23번까지이면서, 제공 방법이 ㉓ 센터 직접 지원 인 경우만 응답)

위 서비스 제공 시 주로 사용했던 방법을 서비스 영역에 맞게 하나만 선택하여 동그라미(O) 표시해 주십시오.

서비스 영역	제공 방법		
㉒. 학업중단 후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① 전화 안내 ④ 아웃리치	② 문자 안내(카카오톡 등) ⑤ 기타(_____)	③ 내방(기관 방문)
㉒. 심리상담	① 대면상담 ④ 포레상담	② 전화상담 ⑤ 사이버상담(카톡상담, 인터넷채팅상담 등)	③ 집단상담 ⑥ 기타(_____)
㉒. 진로상담	① 대면상담 ④ 사이버상담(카톡상담, 인터넷채팅상담 등)	② 전화상담	③ 집단상담 ⑤ 기타(_____)

IV.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

제 1단계: 'I.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 에는 표시되어 있으나, 'II.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에는 표시되지 않은 서비스 번호 기록

- 1) 체크리스트의 4 ~ 5페이지에 있는 'I.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 에는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으나, 6 ~ 7페이지의 'II.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 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를 찾습니다.
- 2) 아래 '제공 못한 서비스 번호' 에 해당 번호를 모두 기록합니다.

제 2단계: 각 서비스별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이유 보기'를 참조해서 해당 번호를 기록합니다.

- 1) 각 서비스별로 제공되지 못한 이유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이유 보기' 를 참조해서 해당 번호를 기록합니다.

<기입 예시>

4 ~ 5페이지		I.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	
① 개인정보 수집·생략 관련 정보 ② 개인정보 관리 정보 ③ 개인정보 수집·생략 관련 정보 ④ 청소년 참여 용 서비스 정보	⑤ 위법·유형 관련 정보 ⑥ 동의 관련 정보 ⑦ 개인정보 관리 정보 ⑧ 개인정보 관리 정보	⑨ 위법·유형 관련 정보 ⑩ 동의 관련 정보 ⑪ 개인정보 관리 정보 ⑫ 개인정보 관리 정보	⑬ 위법·유형 관련 정보 ⑭ 동의 관련 정보 ⑮ 개인정보 관리 정보 ⑯ 개인정보 관리 정보
1) I.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에는 표시되어 있으나 II. 청소년에게 제공한 서비스에는 표시되지 않은 항목 찾아서 번호를 기록		2)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이유 보기를 찾아 이유 번호를 기록. ① 기타를 선택 시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기록	

제공하지 못한 이유	
1	13
2	7
3	
4	
5	
6	
7	
8	
9	
10	
11	

제공하지 못한 이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이유 보기> ① 인터넷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이 없어서 ② 인터넷에서 해당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 없어서 ③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이 없어서 ④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이 없는 장소에 사업장이 있기 않아서 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해당 지역의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⑥ 청소년과 서비스 제공사 간의 정보 공유가 ⑦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이유 보기

- ① 센터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이 없어서
- ② 센터에서 해당 서비스를 운영할 재원이 없어서
- ③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기관이 없어서
- ④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기관은 있지만 청소년이 사업대상이 되지 않아서
- 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기관은 있지만 대기인원이 너무 많아 갈 수 없어서
- ⑥ 청소년과 서비스 제공시간이 맞지 않아서
- ⑦ 기타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 번호	제공하지 못한 이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V. 해당 사례에 대한 총평

해당 청소년과 서비스에 대한 성과와 한계(청소년의 특징, 특이사항, 특별히 성과가 있었거나 없었거나, 없었던 서비스, 느낀 점, 문제점 등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해당 청소년이 중도탈락한 경우(2~3개월이 지나도 목귀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도 반드시 기재해 주십시오.

- 28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ise a customized measure of performance channel by apprehending the characteristic of performance channel, transformation of performance channel, and its factors of transformation of the juveniles outside the school after the suspension of education. The purpose also lies on the understanding of the actual condition regarding the utilization of service connecting the juveniles outside the school with the non-school juvenile support center. The characteristics and demands of the performance channel have been analyzed by investigations of panel and interview, and its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were apprehended through written sources. The panel of this study was linked with a non-school juvenile support center for the next year for case management, and the results of early case managements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haracteristic of performance channel for the academic type is active in career exploration, and in a better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tatus, compared to other types. Career type has high ability of social adjustment, but tend to be depressive with high rates of social stigma, and irregular sleeping hours and eating habits. Unemployed typed did not have sufficient career information, a low rate of decisiveness regarding future plans, and had a negative psychological emotion towards the future of oneself. The academic and career types showed a high interest in career counseling, and the unemployed type showed a high interest of career counseling and employment support for necessary support. Secondly, 68% of the transformation of performance channel maintained one's type of 3rd year after the suspension to the 4th year, in which 58.3% were of positive maintenance, and 9.2% were of negative maintenance. Out of the transformative types, 7.3% were positive transformation, whereas 8.8% were negative transformation, and the transformation within one's study or career was shown as 16.5%. Thirdly, the in depth interview illustrated the tendency of academic type to maintain a positive channel, which responds from the help of the environs. Unemployed type has a high possibility of maintaining negative channel, whereas academic type has a high possibility of channel change. Fourthly, the actuality of utilization of non-school juvenile support centers provided services regarding General Equivalency Diploma that are academically related the most, whereas career training and employment support services had a low rate of provision despite a high demand. In the connections to exterior facility, the connections to employment related facilities were rare. The reasons for not being able to provide the service of request was mainly due to the disagreement of service hours and the availability of the juveniles. Fifthly, the size of the

juveniles out of school is 420,000 for the school age from 7 to 18, and 250,000 for the age 19 to 24. Sixthly, domestic non- school customized career training and employment support programs, customized guidance of academic support per age group, the role of government and Education Office for restatement of school and academic support, and policy support for the socially withdrawn are displayed as insufficient, compared to foreign system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otal 16 detailed assignments are suggested in five categories of the following. The five categories include academic support measure, employment support measure, support measure for withdrawn unemployed type juveniles, and the delivery system for the reinforcement of juvenile support centers, various method of finding school dropouts; detailed assignments were suggested for each category.

Key words: Out of school youth (juvenile), performance channel of out of school youth (juvenile), customized support policy for each performance channel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6-R0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황세영·김남수
- 16-R02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 이창호·최용환·도수관
- 16-R03 탈북 청소년 지원체계화 방안 연구 - 탈북 청소년 역량 진단을 중심으로 - / 좌동훈·이민영
- 16-R04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 / 배상률
- 16-R05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연구 / 김영한
- 16-R06 대학생 졸업유예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이상호
- 16-R07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황여정·변정현
- 16-R08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김기현·하형석·신인철
- 16-R08-1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기초분석 보고서 - / 김기현·하형석·신인철
- 16-R09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Ⅲ / 최창욱·문호영·김정주
- 16-R09-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Ⅲ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문호영·김정주
- 16-R10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의 협업을 중심으로 - / 임지연·김한별·한도희
- 16-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Ⅵ : 총괄보고서 / 김영지·유설희·이민희·김진호
- 16-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Ⅵ : 학교 인권 관련 환경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구정화
- 16-R11-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Ⅵ : 201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유설희
- 16-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Ⅳ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Ⅱ' 운영과 정책화 방안 / 오해섭·김세광
- 16-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Ⅳ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서장아·김학주
- 16-R13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Ⅳ : 총괄보고서 / 양계민·윤민중·신현옥·최홍일
- 16-R13-1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Ⅳ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윤민중·최홍일
- 16-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Ⅲ / 강경균·이윤주·노성호
- 16-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 강경균
- 16-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Ⅱ - 재중·재미동포청소년 인재 개발 방안 - / 김경준·정은주
- 16-R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윤철경·성윤숙·유성렬·김강호
- 16-R16-1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 / 성윤숙

- 16-R17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VII 사업보고서 / 이종원·모상현·강현철·정윤미·한지형
- 16-R17-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VII : 기초분석보고서 I -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추이 분석 :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 이종원·이순래·정윤미
- 16-R17-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VII : 기초분석보고서 II - 청소년 매체이용 추이 및 코호트 간 비교분석 / 모상현·이장주·한지형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초·중·고등 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 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측정 및 분석 연구 / 김태준·박인영·이호경·오민아 (자체번호 16-R18-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1-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 I / 김현철·백혜정·이지연 (자체번호 16-R19)

연구개발적립금

- 16-R20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승경·최정원·강지명
- 16-R20-1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승경·최정원
- 16-R21 청소년 참여예산제 실태 및 발전 방안 연구 / 윤민종·정은진·정건희

수 시 과 제

- 16-R22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창호·정의철
- 16-R23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 허형석
- 16-R24 대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 이윤주
- 16-R25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창욱·좌동훈
- 16-R26 놀이정책 수립 지원 연구 / 성은모·강경균
- 16-R27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 황세영

- 16-R28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 조진우 · 김기현
- 16-R29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 최정원 · 정은진 · 조혜영
- 16-R30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 · 연구 / 정은진 · 김기현

수 탁 과 제

- 16-R31 한국사회 20대 청년의 생활 · 의식 실태와 정책과제 / 이종원 · 유한구 · 채창균 · 오승근 · 김윤나 · 한영근
- 16-R32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Ⅱ / 성윤숙 · 김경준 · 강경균
- 16-R3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와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통합에 따른 조사항목 등 개선 연구 / 김지경 · 황여정 · 정윤미
- 16-R34 2014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5 2015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6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 · 모상현 · 정은주
- 16-R37 2015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8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9 청소년 체험 교육 프로그램 평가 / 최창욱 · 성은모 · 정윤미
- 16-R40 가출청소년 보호 · 지원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백혜정 · 김승경
- 16-R41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한 농산어촌 자유학기제 연계지원 모델 개발 연구 / 김현철
- 16-R42 2016년도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 김승경 · 백혜정
- 16-R43 2016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 · 최홍일
- 16-R44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시 이동청소년 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영지 · 오해섭 · 윤철경 · 김경준 · 최용환 · 유설희
- 16-R45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 / 김영지 · 모상현 · 이윤주 · 유설희
- 16-R46 학교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학업중단예방프로그램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47 군포문화재단 청소년활동본부 중 · 장기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현철
- 16-R48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6 / 이종원 · 모상현 · 유성렬 · 김진석 · 정윤미
- 16-R49 2016년 시립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최용환 · 최창욱 · 좌동훈 · 문호영 · 정은진
- 16-R50 삼성SDS 강원도 도서벽지지역학교 “행복한 ICT 교실” 효과 및 만족도 연구 / 성윤숙
- 16-R51 실종아동 관계기관 역할 정립 방안 연구 / 좌동훈 · 문호영
- 16-R52 201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16-R53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황여정 · 김지경 · 이윤주 · 정윤미
- 16-R5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방안 연구 / 서정아 · 박선영
- 16-R55 유형별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도방안 연구 / 성윤숙 · 박선영 · 송원영
- 16-R56 멘토링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성은모

- 16-R57 2016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 최창욱 · 성은모 · 강경균
- 16-R5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현 · 장근영 · 김지경 · 하형석
- 16-R59 2016년 동지역신교육사업 청소년 자치 참여 활성화 정책연구 / 최창욱 · 최용환
- 16-R60 학교 밖 청소년 연계관리 강화방안 연구 / 윤철경
- 16-R6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가이드북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61-1 재적교 교사를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안내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62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 김기현 · 한지형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6-S01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1권역 (1/25)
- 16-S02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2권역 (1/28)
- 16-S0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3권역 (1/29)
- 16-S04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4권역 (2/2)
- 16-S05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17~18)
- 16-S06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18~19)
- 16-S07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2~23)
- 16-S08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5~26)
- 16-S09 제1차 청년정책포럼 (2/22)
- 16-S10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1차) (3/24)
- 16-S11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2차) (4/4)
- 16-S12 청소년정책평가의 현안과 과제 (4/22)
- 16-S1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위원 워크숍 (4/19)
- 16-S14 2016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5/4)
- 16-S15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9)
- 16-S16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1~12)
- 16-S17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16~17)
- 16-S18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18~19)
- 16-S19 제2차 청년정책포럼 -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5/17)
- 16-S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말레이시아 푸트라대학 사회과학연구원 간 국제세미나 (5/17)
- 16-S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2차 심화 워크숍 (5/18~20)
- 16-S22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 (5/23)
- 16-S23 제3차 청년정책포럼 (6/28)
- 16-S24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이론적 탐색 (7/15)

- 16-S25 2016년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7/15)
- 16-S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워크숍 (7/20)
- 16-S27 2016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8/8~10)
- 16-S28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사업 운영 및 정책화 방안 (7/22)
- 16-S29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23)
- 16-S30 네트워크 사회의 청소년정보 격차와 문화 (8/17)
- 16-S31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1권역 (8/26)
- 16-S32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2권역 (9/2)
- 16-S33 제4차 청년정책포럼 (8/24)
- 16-S34 청소년 현안과제 분석 및 대응을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 (8/22)
- 16-S35 아시아 청소년진로교육 사회환경 국제비교 (8/25)
- 16-S36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심포지엄 (10/11)
- 16-S37 학교 밖 청소년 디지털 역기능 예방 워크숍 (10/6~7)
- 16-S38 제5차 청년정책포럼 (10/12)
- 16-S39 제6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럴 학술대회 (11/18)
- 16-S40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차별 문제 (11/22)
- 16-S4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2차년도 사업성과발표회 (12/1)
- 16-S42 제6차 청년정책포럼 (12/7)
- 16-S43 청년 세미나-청년 기본법 제정 입법안의 이슈와 과제 (12/14)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제8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2호(통권 제8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3호(통권 제8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4호(통권 제83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5호 : 청소년 국제교류 실태 및 효과성 검증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6호 :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7호 :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 이행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8호 :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9호 : 20대 청년 지원 정책의 중장기 발전 전략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0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1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2호 : 이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3호 :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4호 :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5호 :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6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6호 :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정체성 발달특성 분석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7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8호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9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Ⅱ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0호 :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cohort) 간 휴대전화 이용실태 비교
- KCYPS 초1 및 초4 패널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1호 : 청소년 팬덤활동의 종단적 변화 분석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2호 :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5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6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7호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8호 :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9호 :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0호 :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연구

NYPI BLUE ZINE 창간호

연구보고 16-R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I

인 쇄 2016년 12월 23일

발 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취문인쇄** 전화 1661-7576 대표 김점순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4(학술·정보팀)

ISBN 979-11-5654-128-8 94330

979-11-5654-103-5 (세트)



연구보고 16-R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39-00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 4330
9 791156 541288
ISBN 979-11-5654-128-8
ISBN 979-11-5654-103-5 (세트)